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2-01
연구보고 07-R13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문경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20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동국대학교
20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호남대학교
20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 구 기 관		연 구 책 임 자	참 여 연 구 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혜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문 경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동 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양 한 순 (아주대학교) 최 진 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협력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윤 인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채 정 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김 익 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 동 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호남대학교	김 태 기 호남대학교 교수	임 영 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박 일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배 광 웅 (오사카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임 영 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 영 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고 가 영(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박 지 배(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병 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권 주 영(한국외대 산학협력단 GCC연구원) 김 석 원 (키예프국립대학교 교수) 최 소 영(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연구소 연구원) 최 인 나(상트페테르부르그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문화센터 연구원) 임 현 숙(러시아 볼로그라드국립대학교 동양언어문화센터 한국어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 일 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 재 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길 은 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배 기 형(세종대학교 교수)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모색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논의함. 이를 위해 주요 국(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이 연구는 협동연구 세부과제들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다음의 세부과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주요 지역별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종합 분석
   (1) 미국·캐나다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2)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3)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4)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 방안 연구

3. 연구결과

- 이 연구에서는 북미,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 주요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였고, 해외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모색하였음.

- 각 지역에서 한민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이민 역사와 청소년의 이민세대, 거주국의 사회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북미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이민 2세대가 넘지 않는 청소년이 93.9%를 차지함으로써 북미 지역의 청소년 대부분이 이민세대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CIS, 일본 지역은 이민 3세대나 4세대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이민 몇 세대인지 모르는 청소년이 중국지역은 33.3%, CIS 지역은 41.8%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들의 대부분은 미래의 직업으로 전문직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고위관리직과 사무직을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향후에 글로벌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한민족 정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특히 독립국가연합과 북미지역의 청소년은 자신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그러나 자신의 한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민족 문화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주요국 모두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한인이나 한국단체와 연

락을 주고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과의 네트워킹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이들은 또한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한국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과의 교류 창구로서의 인터넷 사이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활용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거주국 관점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임. 당사자와 거주국의 협조아래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우리의 활용 목적에만 염두를 두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적응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음. 둘째, 이들의 양성·활용 정책은 재외동포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함. 재외동포가 거주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삶을 제대로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임.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에서 이들의 활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동포들이 거주지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다시 모국으로 오는 역이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음. 셋째, 활용 정책은 '先지원 後활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한민족청소년이 거주국에서 잘 적응하여 양성이 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임.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공유되도록 하는 정신적·물질적 배려도 중요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6

Ⅱ. 선행연구 고찰
1.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 11
2.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 29
3.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 44
4.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 58
5.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방안 ····· 70

Ⅲ. 주요국의 한민족청소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85
2. 조사 내용 ····· 87
3. 실태 조사 비교 분석 ····· 88
4. 요약 및 소결 ····· 140

Ⅳ.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1.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 149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 153
3. 해외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 174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195
2. 정책 제언 ····· 198

참고 문헌 ····· 203
부 록 ····· 207

표 목차

<표 Ⅱ-1> 북미 한인의 세대구분 ····· 12
<표 Ⅱ-2> 재미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 13
<표 Ⅱ-3>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 14
<표 Ⅱ-4> 재미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 15
<표 Ⅱ-5>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 16
<표 Ⅱ-6> 재미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 16
<표 Ⅱ-7> 재미한인의 세대별 영어구사능력 수준 ····· 17
<표 Ⅱ-8> 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 18
<표 Ⅱ-9> 한인의 세대별 현지어 구사능력 수준 ····· 18
<표 Ⅱ-10> 재미 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 20
<표 Ⅱ-11>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 21
<표 Ⅱ-12> 재미한인의 세대별 종사상의 지위 ····· 22
<표 Ⅱ-13> 미국의 인종·민족집단별 소득, 빈곤 수준, 1990-2000 ····· 23
<표 Ⅱ-14> 민족집단별 1999년 평균 개인 총소득($) ····· 24
<표 Ⅱ-15> 재캐나다 한인의 평균개인소득(2000) ····· 25
<표 Ⅱ-16> 캐나다 아시안 민족집단별 평균개인소득 ····· 26
<표 Ⅱ-17> 중국 조선족 인구 변화 ····· 30
<표 Ⅱ-18> 연변지역 조선족 인구 변화 ····· 30
<표 Ⅱ-19> 중국 각 민족간 대학졸업자 비율 및 문맹률 비교 ····· 40
<표 Ⅱ-20> 국적(출신지)별 외국인등록자 수의 추이 (각 연도 말 현재) ····· 45
<표 Ⅱ-21> 재일코리안의 국제결혼추이 ····· 47
<표 Ⅱ-22> 한국 · 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수 추이 ···· 48
<표 Ⅱ-23> 재일코리안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 50
<표 Ⅱ-24> 재외동포 분포의 지역별 변화 ····· 74
<표 Ⅱ-25> 거주자격별 각 지역의 재외동포 분포 ····· 75

<표 Ⅱ-26>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부처 및 사업내용 ····· 82
<표 Ⅲ-1> 나라 별 유효 설문 사례 수 ····· 86
<표 Ⅲ-2> 설문지 내용과 문항 수 ····· 87
<표 Ⅲ-3> 나라별 성별 구성 ····· 89
<표 Ⅲ-4> 현재신분 ····· 89
<표 Ⅲ-5> 장래직업 ····· 90
<표 Ⅲ-6> 이민 세대 ····· 92
<표 Ⅲ-7> 부모의 민족 배경 ····· 93
<표 Ⅲ-8> 아버지 학력 ····· 94
<표 Ⅲ-9> 어머니 학력 ····· 95
<표 Ⅲ-10> 아버지 직업 ····· 96
<표 Ⅲ-11> 어머니 직업 ····· 97
<표 Ⅲ-12> 가족의 수입 수준 ····· 98
<표 Ⅲ-13> 가족의 상대적 소득 수준 ····· 99
<표 Ⅲ-14> 전반적인 삶 만족도 ····· 99
<표 Ⅲ-15>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 생활 ····· 104
<표 Ⅲ-16> 한국에 대한 관심 ····· 110
<표 Ⅲ-17> 한국 방문 경험 ····· 114
<표 Ⅲ-18> 한국뉴스를 듣고 있는 정도 ····· 115
<표 Ⅲ-19> 한국 뉴스를 듣는 경로 ····· 116
<표 Ⅲ-20>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 시청 빈도와 시청 후 느낌 ····· 117
<표 Ⅲ-21> 한국에 대한 느낌 ····· 119
<표 Ⅲ-22> 한국인에 대한 느낌 ····· 121
<표 Ⅲ-23>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 125
<표 Ⅲ-24> 한민족의 정체성 ····· 130
<표 Ⅲ-25> 네트워크 구축 관련 ····· 136

그림 목차

[그림 Ⅱ-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규모 추이 ····· 72
[그림 Ⅱ-2] 지역별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분포(2007년 기준) ···· 73
[그림 Ⅱ-3] 지역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분포 (2007년 기준) ····· 78
[그림 Ⅱ-4] 전체 재외동포 중 한민족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2007년 기준) ····· 79
[그림 Ⅲ-1] 나라별 성별 구성 ····· 89
[그림 Ⅲ-2] 현재 신분 ····· 90
[그림 Ⅲ-3] 장래직업 ····· 91
[그림 Ⅲ-4] 이민 세대 ····· 92
[그림 Ⅲ-5] 부모의 민족 배경 ····· 93
[그림 Ⅲ-6] 아버지 학력 ····· 94
[그림 Ⅲ-7] 어머니 학력 ····· 95
[그림 Ⅲ-8] 아버지 직업 ····· 96
[그림 Ⅲ-9] 어머니 직업 ····· 97
[그림 Ⅲ-10] 가족의 수입 수준 ····· 98
[그림 Ⅲ-11] 가족의 상대적 소득 수준 ····· 99
[그림 Ⅲ-12] 전반적인 삶 만족도 ····· 100
[그림 Ⅲ-13]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 104
[그림 Ⅲ-14]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하신다 ····· 105
[그림 Ⅲ-15]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105
[그림 Ⅲ-16] 부모님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 105
[그림 Ⅲ-17]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 106
[그림 Ⅲ-18]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 106
[그림 Ⅲ-19]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 106
[그림 Ⅲ-20] 한국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 111

[그림 Ⅲ-21] 향후 2~3년 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 111
[그림 Ⅲ-22]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 111
[그림 Ⅲ-23]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 112
[그림 Ⅲ-24]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들과 대화하고 싶다 ·· 112
[그림 Ⅲ-25]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 112
[그림 Ⅲ-26]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 113
[그림 Ⅲ-27]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 113
[그림 Ⅲ-28]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 113
[그림 Ⅲ-29]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에 더 유리할 것이다 ····· 114
[그림 Ⅲ-30] 한국 방문 경험 ····· 115
[그림 Ⅲ-31] 한국뉴스를 듣고 있는 정도 ····· 116
[그림 Ⅲ-32] 한국 뉴스를 듣는 경로 ····· 117
[그림 Ⅲ-33]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 시청 빈도 ····· 118
[그림 Ⅲ-34]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 118
[그림 Ⅲ-35] 한국은 좋다 ····· 119
[그림 Ⅲ-36] 한국은 능력있다 ····· 120
[그림 Ⅲ-37] 한국은 활동적이다 ····· 120
[그림 Ⅲ-38] 한국은 친밀하다 ····· 120
[그림 Ⅲ-39] 한국 사람은 좋다 ····· 121
[그림 Ⅲ-40] 한국 사람은 능력 있다 ····· 122
[그림 Ⅲ-41] 한국 사람은 활동적이다 ····· 122
[그림 Ⅲ-42] 한국 사람은 친밀하다 ····· 122
[그림 Ⅲ-43] 한국배경은 도움이 된다 ····· 125
[그림 Ⅲ-44] 한국의 전통명절을 쇤다 ····· 126
[그림 Ⅲ-45] 한국문화를 많이 안다 ····· 126
[그림 Ⅲ-46]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 126
[그림 Ⅲ-47]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 127
[그림 Ⅲ-48]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 127
[그림 Ⅲ-49]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 130

[그림 Ⅲ-50]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 131
[그림 Ⅲ-51] 한인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131
[그림 Ⅲ-52] 한민족 배경에 대하여 잘 안다 ····· 131
[그림 Ⅲ-53] 한민족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 132
[그림 Ⅲ-54] 한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132
[그림 Ⅲ-55] 타인에게 한민족에 대한 언급을 자주한다 ··· 132
[그림 Ⅲ-56]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 136
[그림 Ⅲ-57] 한인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 137
[그림 Ⅲ-58] 한국은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 137
[그림 Ⅲ-59]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 137
[그림 Ⅲ-60] 한국에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한다 ····· 138
[그림 Ⅲ-61] 한국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가 필요하다 ····· 138
[그림 Ⅲ-62] 한국유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 138
[그림 Ⅲ-63] 한국유학생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 139
[그림 Ⅲ-64]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 139
[그림 Ⅲ-65]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 139
[그림 Ⅳ-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 ··· 150
[그림 Ⅳ-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체계도 ··· 151
[그림 Ⅳ-3] 모국과 거주국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연계체계 ····· 152
[그림 Ⅴ-4]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전략 ····· 153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화·국제화·지구촌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각 영역에 걸쳐 국경 없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민족은 많은 인구가 이민이나 유학 혹은 취업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21세기는 기존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또 다른 변화가 일고 있다. 즉 기술혁신·정보화·지식기반경제·세계화·신자유주의·경영합리화 등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질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격한 발전은 모든 부문에서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정보화되어 지식기반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화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찾아 무한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식습득과 정보 접촉 비용이 절감되고, 정보 독점이 무너지게 되어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은 경영을 합리화하게 되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직업의 환경도 변화되어 취업의 다양화 모색 및 인적자원 활용의 세계화 등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직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민족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민족문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민족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은 세계화와 국제화로 대변되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차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족의 이민사는 이미 한 세기를 훨씬 넘어섰고 이제 이민1세대가 뿌리를 내려 그 후손들이 2, 3, 4세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는 이들 이민 후속 세대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나 문화 장벽 때문에 주류 사회로 진출하지 못했던 1세대와는 달리 2, 3, 4세대들은 현지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현지사회의 주류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한민족들은 세계의 주요 열강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지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한민족 후속세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 주요 열강국가와의 외교 및 경제 교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세대는 이민 1세대 혹은 이민 기성세대와 달리 주재국의 언어와 문화 내에서 사회화 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이들은 주재국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세계화 및 국제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외국간의 교류 및 협력시 주요 매개자는 한국에 뿌리를 둔 해외동포임을 염두에 둘 때 해외한민족은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세대와 달리 이민국가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 주재국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경을 넘는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은 모국과 그들의 주재국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청소년기는 모국이나 민족과 관련된 정체성 제고가 필요한 시기이며, 한민족청소년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의 규모 및 실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청소년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해외 한민족청소년

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모색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주요 지역별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종합 분석(협동연구 세부과제로 수행)

(1) 북미(미국·캐나다)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

(2)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김익기 교수)

(3)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책임자: 호남대학교 김태기 교수)

(4)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교수)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연구위원)

3) 주요국의 한민족청소년 생활실태 종합 분석

○ 북미,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고국관, 민족관 등을 비교 분석

○ 이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과 해외 주요국의 한민족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4) 국내체류 한민족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국내체류 한민족청소년 생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3.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해외한민족 분포, 현황 및 실태와 관련된 문헌자료 분석
○ 한민족 해외 이주 경향 및 경로 변화에 관한 문헌자료 조사
○ 국내외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주요국가(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문조사
○ 한민족청소년 실태 조사 범위, 규모 및 방법 모색을 위한 자문 청취
○ 해외 거주 한민족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모색 및 이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사회 대처 능력 함양 방식에 관한 자문 청취

□ 설문조사

○ 북미,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지역별 700명 내외)
○ 국가별 한민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를

설문대상에 포함

※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세임

□ 워크숍

○ 국내 및 국외 연구진,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의 추진방향 및 진행사항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워크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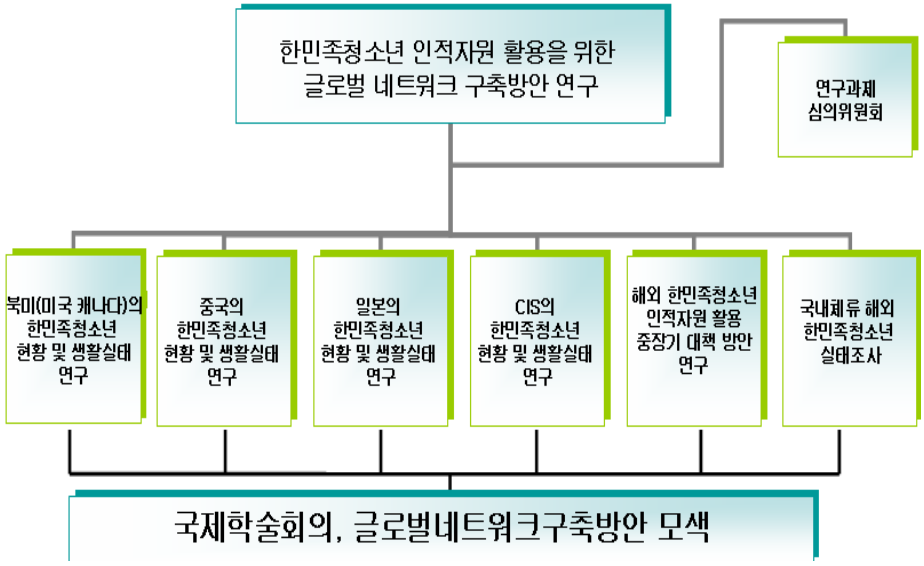
□ 국제회의 개최

○ 주요 국가별 한민족청소년 생활실태 등 분과 연구별 결과 발표 및 토론

○ 이스라엘, 중국 등 해외동포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한 나라의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시사점 도출

○ 한민족청소년 인적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별 대표자 초청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연구추진체계



Ⅱ. 선행연구 고찰

1.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2.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3.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4.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5.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방안 개관

Ⅱ. 선행연구 고찰

1.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한인의 세대분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북미 한인사회에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1세와 1.5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Ⅱ-1 참조).[1] 미국에서는 1세가 전체 한인의 49.6%, 1.5세가 15.1%, 2세(3세 이상 포함)가 35.3%를 차지한다. 캐나다에서는 1세가 전체 한인의 49.6%, 1.5세가 26.8%, 2세(3세 이상 포함)가 23.6%를 차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미 한인 인구를 1세와 2세의 이분법을 사용했는데, 두 세대의 중간에 해당하는 1.5세의 비율이 15~27%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2세의 비율이 미국에서 35.3%, 캐나다에서 23.6%에 달하는 만큼 1.5세와 2세로 구성된 차세대 비율이 전체한인 인구의 반에 해당할 만큼 세대교체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1.5세와 2세 이상을 차세대로 보았다. 1.5세는 한국과 미국/캐나다 양쪽 모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중에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연령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7세에서 18세 사이에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1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19세 이후에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며,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연령이 6세 이전에 이민 간 사람들로 간주했다. 그런데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에서는 이민자의 입국 연도가 5년 단위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한 세대 구분을 정확히 따를 수 없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세대 구분은 1세는 20세 이후에 이민 간 사람, 1.5세는 5~19세 사이에 이민 간 사람, 2세는 캐나다에서 출생했거나 4세 이전에 이민 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표 Ⅱ-1> 북미 한인의 세대구분

세대	재미 한인		재캐나다 한인	
	N	%	N	%
1세	24,391	49.6	1,139	49.6
1.5세	7,453	15.1	617	26.8
2세(3세 이상 포함)	17,365	35.3	542	23.6
전체	49,209	100.0	2,298	100.0

자료: 2000년 미국센서스 5% 표본자료와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민족명에서 '한인(Korean only)'으로만 표기한 사람들만을 분석에 포함. 임시 거주자는 분석에서 제외.

1) 한민족 세대 및 성별 분포

(1) 미국의 한민족 현황

1세는 나이가 들어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1.5세와 2세에 비교해서 당연히 높다. 1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청소년의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20대의 비율은 12.1%, 30~50대의 청장년층의 비율은 68%이다. 1.5세는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1세보다는 연령이 낮지만 2세보다는 높다. 1.5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비율은 52.5%, 20대의 비율은 29.2%, 30~50대의 비율은 18.2%이다. 2세의 대부분은 아직 청소년기에 속한다. 2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인구비율은 73%에 달하고, 20대의 비율은 17%, 30~50대의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각 세대의 평균연령을 계산하면 1세는 45.3세, 1.5세는 19.7세, 2세는 15.2세로 큰 차이가 난다.

<표 Ⅱ-2> 재미 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단위 : %)

연령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10세미만	11.9	0.0	16.7	38.9
10대	16.5	2.6	35.8	34.4
20대	16.8	12.1	29.2	17.0
30대	16.7	21.8	15.3	4.5
40대	16.4	27.2	2.5	1.7
50대	11.2	19.0	0.4	1.2
60세 이상	10.4	17.3	0.1	2.3
평균연령	33.4(19.5)	45.3(14.8)	19.7(10.3)	15.2(13.8)
N	49,209	28,172	10,444	10,593

주: 평균연령의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세대별로 성별 분포를 비교하면 1세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17.6% 포인트 높아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80.5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진다. 1.5세에서는 성비가 90.1%로 다소 균형 있게 되고 2세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아지게 된다. 1세에서 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민을 더 많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한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종 및 민족집단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20~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자들이 자기개발의 기회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욱 많다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인진, 2004: 234).

(2) 캐나다의 한민족 현황

캐나다의 한인의 경우에서도 1세는 나이가 들어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1.5세와 2세에 비교해서 당연히 높다(표 II-3 참조). 1세 중에서 20대의 비율은 4.7%, 30~50대의 청장년층의 비율은 76.3%이다. 1.5세는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1세보다는 연령이 낮지만 2세보다

는 높다. 1.5세 중에서 10대의 비율은 44.4%, 20대의 비율은 28.8%, 30~50대의 비율은 12.9%이다. 2세의 대부분은 아직 청소년기에 속한다. 2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비율은 36.9%, 10대의 비율은 28.2%, 20대의 비율은 28%, 30~50대의 비율은 6.3%에 불과하다. 각 세대의 평균연령을 계산하면 1세는 48.7세, 1.5세는 20.8세, 2세는 15세로 큰 차이가 난다.

<표 Ⅱ-3>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연령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10세 미만	11.1	-	8.8	36.9
10대	18.6	-	44.4	28.2
20대	16.7	4.7	28.8	28.0
30대	14.4	19.8	12.5	5.4
40대	17.6	32.4	5.0	0.7
50대	12.1	24.1	0.3	0.2
60세 이상	9.6	19.0	0.2	0.6
평균연령	33.2(19.4)	48.7(13.2)	20.8(9.7)	15.0(10.9)
N	2,298	1,139	617	542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평균연령의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세대별로 성별 분포를 비교하면 1세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11.4% 포인트 높아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79.7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진다. 1.5세에서는 성비가 109.9로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아지고, 2세에서는 93.6으로 다시 여자가 많아지지만 1세에 비교해서 성비가 균형을 잡아간다.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에서도 한인 인구의 51.7%가 여자로 조사되어 여초현상이 나타났다. 캐나다 전체 인구의 50.9%가 여자인 점에 비교할 때 한인의 여초현상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위

(1) 교육수준

세대별로 북미한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1.5세와 2세의 학력 수준이 1세에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재미 한인의 경우 25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4년제 대학 졸업 및 대학원 교육 학력 소지자의 비율은 1.5세에서 6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세에서 55.7%, 1세에서 40.7%로 나타났다. 재캐나다 한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및 대학원 교육 학력 소지자의 비율은 1.5세에서 6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세에서 49.4%, 2세에서 46.5%, 로 나타났다. 아직 1.5세와 2세의 대부분이 10~20대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육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북미 한인 차세대는 높은 수준의 교육에 힘입어 전문직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주류사회로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표 Ⅱ-4> 재미 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고졸이하	13.9	15.6	3.0	8.2
고졸	21.4	23.6	8.3	13.9
4년대졸 이하	21.0	20.1	26.9	22.2
4년대졸	29.3	27.6	41.5	32.2
대학원(석박사)	14.5	13.1	20.3	23.5
N	31,429	26,299	3,473	1,657

자료: 2000년 미국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표 Ⅱ-5>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고졸이하	13.4	5.2	5.9	11.9
고졸	24.1	26.7	14.9	23.7
4년대졸 이하	17.8	18.6	16.8	17.8
4년대졸	30.3	38.4	44.6	32.3
대학원(석박사)	14.4	11.0	17.8	14.2
N	1,398	1,125	172	101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2) 언어사용

세대별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하면 1세의 94.2%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1.5세의 58.9%, 2세의 69.1%가 한국어를 사용한다(표 Ⅱ-6참조). 반면, 1세의 5.8%만이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1.5세의 41.1%, 2세의 30.9%가 영어를 사용한다.

<표 Ⅱ-6> 재미 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단위 :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국어	82.2	94.2	58.9	69.1
영어	17.8	5.8	41.1	30.9
N	46,504	28,172	9,795	8,537

영어구사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한인들의 영어구사능력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다. 1세 중에서 영어가 미숙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61.4%에 달하고 1.5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서 출생한 2세 중에도 영어가 미숙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15~23%에 달한다.

<표 Ⅱ-7> 재미 한인의 세대별 영어구사능력 수준

(단위 : %)

영어구사력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능숙	55.8	38.6	77.1	84.8
미숙	44.2	61.4	22.9	15.2
N	26,464	15,742	5,270	5,452

자료: <표 3-1>과 동일

주: '능숙' = 'Speak English very well or well'

'미숙' = 'Speak English not well or not at all'

한인 1.5세와 2세의 영어구사능력을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집단과 비교하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인에 비교하면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지만 중국인과 베트남인과 비교하면 영어구사능력이 나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인 1.5세와 2세가 미국 주류사회로 진입하는데 영어로 인해 특별히 장애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의 89%는 영어 또는 불어와 같은 공용어로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82%, 불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1%, 영어와 불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6%로 나타나서 한인들은 캐나다의 여타 소수민족집단처럼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사용능력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한인들은 가정에서 여전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67%, 영어 또는 불어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3%를 차지해서 총 70%가 여전히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의 한인들이 직장에서 한국어만을 사용하고 3%는 영어 또는 불어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밝혀 직장 내에서 한국어 사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표본자료를 사용해서 세대별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하면 1세의 87.1%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1.5세의 77.5%, 2세의 29.5%가 한국어를 사용해서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Ⅱ-8 참조). 반면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1세가 12.9%, 1.5세가 22.5%, 2세가 70.5%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언어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8> 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단위 :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국어	70.9	87.1	77.5	29.5
현지어	29.1	12.9	22.5	70.5
N	2,298	1,139	617	542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언어능력과 관련하여 한인들의 현지어 구사능력수준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한인 인구 중 현지어 구사능력이 미숙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13.3%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인구센서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한인들의 비율인 11%와 근접한 것이다. 역시 세대별로 현지어 구사능력수준에는 차이가 있어서 1세 중에서 미숙한 수준인 사람들이 18.2%, 1.5세에서는 10.1%, 2세에서는 0.5%로 나타났다.

<표 Ⅱ-9> 한인의 세대별 현지어 구사능력 수준

(단위 : %)

영어구사력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매우 능숙	31.1	13.2	34.3	90.4
능숙	55.5	68.6	55.6	9.1
미숙	13.3	18.2	10.1	0.5
N	1,237	742	286	209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언어구사능력(HLNP)은 가정과 직장에서 현지어를 사용하는가를 구분하여 두 곳에서 모두 현지어를 사용하면 현지어구사능력을 '매우 능숙'으로, 가정 혹은 직장 중 한곳에서만 사용하면 '능숙'으로,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미숙'으로 척도화 하였음.

한인의 현지어 구사능력수준을 타 아시안 집단들과 비교하면 중국인보다는 높지만 일본인, 인도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에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와 1.5세의 현지어구사능력은 타 민족집단의 동일세대에 비교해서 낮았다. 그러나 2세는 타 민족집단의 2세와 비교해서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1세와 1.5세는 현지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2세의 경우에는 언어로 인한 장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3) 직업 및 산업

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직업이다. 이민 1세대에 비교해서 1.5세와 2세의 직업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함으로써 세대 간 신분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 미국의 한민족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분포에서 한인들은 미국 전체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관리직과 전문직에 더욱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한인 직업분포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38.7%로 높은 반면 농림어업, 건설설비, 운송, 군인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0.2~4%로 낮다. 생산, 교통, 물류 운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의 비율은 12.2%로 전체 미국인 비율인 14.6%에 비교하면 낮다.

세대별 직업분포의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등 저숙련 분야에서는 1세의 종사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관리직, 관리지원 및 사무직 등의 고숙련 분야에서는 1.5세와 2세의 종사 비율이 높다. 이런 결과는 1세에서 1.5세, 2세로 넘어가면서 직업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별 산업분포는 세대별 직업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한인들의 전반적인 산업분포의 특징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타 산업에 비교해서 높다. 세대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에서 1세의 종사비율이 1.5세와 2세에 비교해서 높았고, 통신업, 각종 전문직 서비스업에서는 1.5세와 2세의 종사비율이 1세에 비교해서 높았다.

<표 Ⅱ-10> 재미 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전문관리직	36.3	32.9	43.4	40.2
서비스직	15.7	16.9	12.0	15.3
판매직	19.4	20.4	19.4	16.6
관리지원 및 사무직	11.7	8.5	14.7	18.5
농림어업직	0.2	0.2	0.2	0.2
건설설비직	4.0	4.7	3.2	2.5
생산직	10.0	13.8	4.7	3.3
운송직	2.3	2.4	1.8	2.6
군인 및 기타	0.3	0.1	0.6	0.7
N	28,851	17,622	5,053	6,176

자료: 2000년 미국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동일 세대의 직업분포를 미국의 다른 아시안 집단들과 비교하면 한인 1세의 전문관리직 비율은 동일 세대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에 비교해서 낮고 유일하게 베트남인에 비교해서 높다. 하지만 한인 1.5세와 2세의 직업분포를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집단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히 전문관리직 종사비율은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에 비교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런 면에서 한인 1.5세와 2세의 전문직화도 다른 성공적인 아시안 집단에 비교해서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캐나다의 한민족

재캐나다 한인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재미 한인에 비교해서 전문관리직

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 25세 이상의 취업 인구 중 56.2%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 세대별로 직업분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문관리직의 비율은 1세에서 1.5세, 2세로 넘어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표 Ⅱ-11 참조).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 생산직의 비율은 1세에 비교해서 1.5세와 2세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재미 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캐나다 한인에서도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직업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다.

<표 Ⅱ-11>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전문관리직	56.2	55.3	55.4	64.5
서비스 및 판매직	29.3	30.7	29.7	17.2
관리지원 및 사무직	8.5	7.1	10.8	16.1
생산직	6.0	6.9	4.1	2.2
N	977	736	148	93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동일 세대의 직업분포를 캐나다의 다른 아시안 집단들과 비교하면 한인 1세, 1.5세, 2세 모두의 전문관리직 비율이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에 비교해서 높았다. 예를 들어, 한인 1세, 1.5세, 2세의 전문관리직 비율이 55.3%, 55.4%와 64.5%인데 반해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인도인 1세, 1.5세, 2세의 전문관리직 비율은 32.6%, 37.7%, 54.4%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한인 차세대의 전문직화는 캐나다의 다른 아시안 집단들에 비교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북미 한인 1.5세와 2세는 1세에 비교해서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자영업보다는 사기업의 고용인 또는 공공직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한인 민족경제와 공동체로부터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4) 종사상의 지위

재미한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갖는 통념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 Ⅱ-12>는 이런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더욱 많은 한인들이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업체의 고용인으로 일하는 비율은 1세에서 64.7%, 1.5세에서 79.7%, 2세에서 79.4%로 1.5세와 2세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세대별 차이는 첫째, 비법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의 고용주로 일하는, 소위 자영업자의 비율은 1세에서 높게 나타나고 1.5세와 2세로 옮겨갈수록 낮게 나타난다. 둘째, 공공직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비율은 1세보다는 1.5세와 2세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이민자로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1세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언어와 미국사회문화에 익숙한 1.5세와 2세는 사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Ⅱ-12> 재미한인의 세대별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사기업고용인	69.1	64.7	79.7	79.4
공공직고용인	9.9	8.5	12.6	14.3
비법인사업체고용주	12.8	16.5	4.0	3.5
법인사업체고용주	6.6	8.5	2.4	1.2
무급종사자	1.7	1.8	1.3	1.6
N	28,851	20,383	5,416	3,052

5) 소득과 빈곤

(1) 미국의 한민족

취업과 직업지위에서는 대체로 양호하나 소득과 빈곤률[2]에서의 한인들의

2)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1년에 $12,647 이하를 버는 경우에 이 가족은 1990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정의되었다.

경제적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국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더욱 높은 비율의 한인들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1990년에 한인의 연평균 가족소득($33,909)은 미국 전체 인구의 가족소득($35,225)과 백인의 가족소득($37,152)에 비교해서 낮았고 한인의 가족소득은 백인 가족소득의 91%에 해당했다. 더욱이 한인의 14.7%는 빈곤선 이하에 처해 있었는데 이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의 빈곤률(10%)과 백인의 빈곤률(7%)에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한인은 백인에 비교해서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인도인에 비교해서도 한인은 가족소득에서 낮고 빈곤률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미국의 인종·민족집단별 소득, 빈곤 수준, 1990-2000

인종·민족집단	1990		2000	
	가족소득($)a	빈곤(%)b	가족소득($)a	개인소득($)a
미국인 전체	35,225	10.0	51,200	26,000
백인(비히스패닉)	37,152	7.0	54,700	28,000
흑인	22,429	26.3	35,000	20,700
히스패닉계	25,064	22.3	36,000	17,100
아시안/태평양계	41,521	11.6	미상	미상
중국인	41,316	11.1	63,850	27,000
필리핀인	46,698	5.2	67,000	27,800
일본인	51,550	3.4	66,000	34,000
인도인	49,309	7.2	75,000	30,000
한인	33,909	14.7	50,000	20,000
베트남인	30,550	23.8	55,700	20,050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 1993a, 1993b, 1994;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Supplementary Survey PUMS Data Set(Yu et al., 2002)에서 재인용).

a : 중앙치 소득

b :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1년에 $12,647 이하를 버는 경우에 이 가족은 1990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정의되었다.

2000년 PUMS 자료를 사용해서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평균 개인 총소득을 비교하면 5개의 아시아 민족집단 중에서 인도인들의 평균소득이 $44,354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인, 중국인의 순서로 높다. 한인의 평균소득은 $31,013으로 베트남인보다는 높았지만 그 외의 아시아계 집단에 비교해서 낮았다. 미국에서 정착 역사가 다른 아시아계 집단보다 긴 중국인과 일본인 2세(3세 이상 포함)는 다른 민족집단의 동일세대에 비교해서 평균소득이 높았다. 한인의 경우에는 1.5세와 2세의 연령이 아직 낮은 이유로 1세에 비교해서 평균소득이 낮았다. 전체적으로 한인은 모든 세대에서 다른 아시아계 민족집단에 비교해서 평균소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4> 민족집단별 1999년 평균 개인 총소득($)

민족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인	31,013	32,852	28,182	23,751
인도인	44,354	48,449	31,096	22,736
중국인	36,732	36,007	34,176	41,326
일본인	43,106	44,168	37,828	42,923
베트남인	25,277	26,138	26,015	12,815
전체 집단	36,625	37,712	30,596	36,531

(2) 캐나다의 한민족

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가 소득이다. 1996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의 평균개인소득은 16,934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평균개인소득인 25,196달러의 67%에 불과하다. 2001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의 평균개인소득은 20,065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평균개인소득인 29,769달러의 67%에 불과했다. 따라서 1996~2001년 기간 중에 한인의 소득은 캐나다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취업률에서는 한인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취업률을 따라잡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해도 여전히 캐나다 전체 인구의 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소득을 비교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교해서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15세 이상의 여성들의 평균개인소득(모든 소득원 포

함)은 16,919달러였는데, 이 액수는 한인 남성들의 평균개인소득 23,370달러의 72%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인 남녀 간의 소득격차는 6,451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남녀 간 소득격차인 13,980달러에 비교해서 대략 1/2 수준이다.

한인들의 소득원을 조사하면 대부분이 임금(earnings)에 의존하고 있다. 2001년 당시 15세 이상의 한인 인구의 81%는 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캐나다 전체 인구 중 77%가 임금을 소득원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한인들은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노령보장(Old Age Security), 캐나다 및 퀘벡 연금계획(Canada and Quebec Pension Plans) 등 정부양도프로그램(government transfer programs)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는 적다. 2000년 당시 한인 소득의 10%가 정부양도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졌지만 캐나다 전체 인구의 소득의 12%가 동일한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소득을 얻었다(Statistics Canada, 2007). 한인들의 짧은 근속연수, 젊은 연령, 낮은 시민권자 비율 등으로 인해 정부의 소득보존프로그램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5> 재캐나다 한인의 평균개인소득(2000)

(단위 : $, %)

연령집단	한인 인구				캐나다 전체 인구		
	남자	여자	전체	소득비율	남자	여자	전체
15 ~ 24	6,289	6,636	6,468	64	11,273	9,046	10,182
25 ~ 44	27,354	19,469	23,136	69	40,450	26,306	33,308
45 ~ 64	28,979	20,916	25,226	68	46,955	26,767	37,026
65세 이상	21,899	14,463	17,764	73	30,775	19,461	24,437
전체	23,370	16,919	20,065	67	36,865	22,885	29,769

출처: 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of Canada.
주: 소득비율은 캐나다 전체 인구의 개인소득 대비 한인의 개인소득 비율을 가리킴.

2001년 인구센서스의 5% 표본자료를 사용해서 한인과 타 아시안 집단들의 개인소득을 비교한 결과 한인들은 캐나다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타 아시

안 집단들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6 참조). 아시안 집단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일본인과 인도인이었고, 한인은 난민 신분으로 캐나다로 이민 온 베트남인보다 소득수준이 낮았다. 한인의 소득을 세대별로 비교하면 1세 < 1.5세 < 2세의 순서로 높았다. 1세와 1.5세의 소득은 동일세대 타 아시안 집단의 소득에 비교해서 여전히 낮았지만 2세의 소득은 타 아시안 2세에 비교해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Ⅱ-16> 캐나다 아시안 민족집단별 평균개인소득

(단위 : $)

민족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인	22,116	20,014	28,469	34,708
인도인	28,219	26,510	33,711	34,243
중국인	25,984	22,911	34,736	40,053
필리핀인	25,847	25,088	29,106	31,114
베트남인	25,055	23,019	31,421	31,217
동남아시아인(일본인)	30,850	24,856	27,337	39,439
전체 집단	26,580	24,107	33,116	37,575

주: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들만 분석에 포함. 동남아시아인 범주에는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함.

소득상황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996년에는 한인 가구의 44.5%가 빈곤가구였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전체 가구의 19.7%에 비교해서 2.3배에 해당하고 캐나다에서 하층계급에 속하는 흑인과 라틴계의 빈곤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에는 한인 가구의 43%가 빈곤층이었는데 캐나다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16%였다. 따라서 1996~2001년 기간에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빈곤가구비율은 19.7%에서 16%로 3.7%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한인의 빈곤가구비율은 44.5%에서 43%로 1.4% 포인트만 감소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5세 이하의 한인 아동 및 청소년 인구에서 빈곤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00년 당시 15세 이하의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48%가 빈곤가구의 자녀였는데 동일연령의 캐나다 아동 및 청소년 중 빈곤가구비율은 비율은 19%에 그쳤다.

독신 성인(unattached adults)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에 한인 독신 성인들의 72%가 빈곤층이었는데 캐나다 인구 중 독신자의 빈곤률은 38%였다.

독신 노인들은 특별히 빈곤층이 될 위험이 크다. 2000년에 65세 이상의 한인 독신 노인들의 80%가 빈곤층이었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독신 노인들의 빈곤률의 2배에 해당한다. 독신 노인 여성들은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다. 2000년에 85%의 독신 한인 노인 여성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였는데, 이 수치는 독신 한인 노인 남성들의 빈곤률 57%와 캐나다 독신 노인 여성들의 빈곤률 43%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6) 북미의 한인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미국에서 이민 1.5세와 2세들이 1988년을 기점으로 동포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Yoon, 2007). 우선 경제적으로 자영업, 특히 소규모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일반노동시장에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활동분야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언론, 예술, 학문분야로 보다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로 인해 1.5세와 2세들은 타인종에 비교해서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그 결과 직업지위와 소득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신분상승과 함께 지리적 이동도 활발해지며 전통적인 코리아타운에서 대도시 인근의 근교로의 이주(suburban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적으로 주류문화로의 동화가 가속화되어서 1.5세와 2세 중에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고 자신을 코리안-아메리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타인종, 특히 백인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인 인구 중 혼혈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재미한인사회의 추세는 미국

주류사회문화로의 동화가 빨라지는 대신 모국에 대한 유대감과 애착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윤인진, 2004).

그런데, 재미한인 차세대의 현지 적응과 성공에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자본(교육수준, 영어구사력 등), 세대, 동화 정도와 같은 내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민족 엔클레이브 존재 여부, 인종 및 민족 지위와 같은 외재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화가 확대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국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외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의 언어 구사 능력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들 미국 이민 한인 2세대 청소년들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말하는데 더 유창하며, 그들의 한국친구들과 영어로 말하는 것을 더욱 편하게 느낀다. 즉, 그들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볼 때,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의 정도는 강하고, 문화 민족성의 애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민족성의 애착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 두 번째로 친한 친구, 세 번째로 친한 친구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조사결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Korean' 혹은 'Korean American'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 2세대 청소년들 중 성별에 따른 한국어 사용 빈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여성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어 사용의 정도가 높았으며, 조사 대상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인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Min과 Hong(2002)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이민 2세대들이 미국이나 제3국에서 태어난 미국 이민 2세대들에 비해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미국 이민 2세대들의 한국어 사용 빈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일수록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청소년 보다 한국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1998)은 뉴욕의 한인 이민자 가족 연구를 통해 그들 자녀의 민족적

정체성 발달 정도에 주목하였고, 그 요인 중 하나로 한인 교회를 들고 있다. 즉, 많은 수의 한인 교회 내에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맞벌이 생활로 바쁜 대다수 이민 가정의 경우 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1997년의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90% 이상의 한국 이민자들이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이를 포함한 부모의 대다수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어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중 소수만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2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1991년의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들의 많은 수가 자녀와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2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꺼려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한데, 그것은 한국 음악을 즐겨 듣고, 영화, 게임 등을 즐기기 때문이다.

유태인, 인도인들에게 종교와 민족성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인들에게서도 기독교와 민족성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작용하고 있다. 비록 기독교와 한국인의 민족성 사이의 연관성은 유태인과 인도인의 그것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된다(Min, 1998).

2.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조선족청소년들의 실상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들의 환경에 해당하는 조선족 인구 현황과 변동 추세 및 경제상황 그리고 교육 문예 등의 중요한 내용만을 다음에서 개괄함으로써 본 연구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연구의 배경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인구 현황과 변동 추세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대체로 130년 이상의 이주 역사 속에서 대부분이 2세대에서 5세대에 걸쳐 있다. 특히 현재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대체로 3~4세대에 속한다.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조선족의 인구는 자연증가에 그쳤으나 최근에 와서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한 자녀 정책' 의 분위기 때문도 있지만, 소수민족에게만은 2자녀를 허용하고 있으나 조선족은 타민족에 비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한 때문인 면도 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조선족은 높은 교육열과 성취욕 때문에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주와 한국으로의 취업이동,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의 이주가 인구 감소의 원인되고 있다.

1953년의 중국 제1차 인구센서스에서 중국조선족의 인구는 약 112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964년에는 약133만 명으로, 1982년에는 176만 명, 1990년에는 192만3,361명 및 2000년에는 192만3,8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53년부터 1990년까지 37년 동안 전국적인 인구증가(1.95배)보다 느린 약 1.7배의 증가를 보였다. 연변지구만 보면, 조선족 인구는 1953년의 55만7천명에서 1990년 82만1천명으로 약 1.5배의 증가를 보인 반면 한족의 인구는 1953년의 34만6천명에서 1990년 118만7천명으로 약 3.4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변의 조선족 인구비율 통계만 보더라도 1953년의 60.2%에서 1964년에는 48.1%, 1982년에는 40.3%, 1990년에는 39.5%, 1999년에는 38.76%, 2005년에는 31.6%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3)]

<표 Ⅱ-17> 중국 조선족 인구 변화

연도	인구 변화(명)
1953년	112만 명
1964년	133만 명
1982년	176만 명
1990년	192만 3,361명
2000년	192만 3,842명

<표 Ⅱ-18> 연변지역 조선족 인구 변화

연도	인구 변화(%)
1953년	60.2%
1964년	48.1%
1982년	40.3%
1990년	39.5%
1999년	38.76%
2005년	31.6%

3) 연변통신(2002. 8. 25) 및 최후택, 연변인구문제와 변경인구안전문제 대책연구, 연변대학(미간논문),에서 참고.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족청소년 19세에서 25세까지의 인구 총수는 1990년에는 260,004명, 2000년도에는 195,556명으로 10년 동안 64,448명이 감소하여 24.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청소년 19~25세 사이의 인구는 2007년 현재 240,208명으로 추산[4]할 때 2000년도에 비하면 44,654명 증가하나 1990년에 비하면 19,796명(감소율 -7.6%) 감소하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정책에 의하면, 소수민족인구의 비율이 해당지구 총 인구의 25%이상이여야 민족자치권을 부여한다. 앞에서 본 연변조선족인구의 감소추세를 보면 이 25%의 한계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족에 비해 조선족의 출생률 저하와 최근 청장년층의 대도시로의 이동 및 해외유출로 인한 대량의 인구유실에서 주로 기인된다. 현재 조선족자치주에서만 20만 명 정도가 중국의 대도시나 해외로 나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만 명이면 자치주 조선족 인구의 약 24%인데 노약자와 어린이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경제인구가 유출된 셈이다.

그 중 최근 10여 년간 생육연령계층의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단순한 인구유실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그로 인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추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에 시집 온 조선족 여성은 6~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성인구의 도시집중화와 해외유출은 심각한 성비차이를 야기하고 그에 따른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 등 악순환을 계속 유도하고 있다. 여성인구의 타지 진출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곧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연변 가족계획 담당부문인 계획생육(가족계획)의 통계에 의하면 25세~45세 사이의 미혼 남성들 가운데 28세 이상 농촌 총각이 67%(1만8천여 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8세 이상 농촌 총각 10명 중 6~7명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농가 소득 증대와 대출금 마련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5]

---

4) 중국청소년의 2007년도 인구통계는 현재 발표된 자료가 없어 '중국 2000년 인구조사자료'(중국 국무원 인구조사판공실 및 국가통계국 인구 및 사회과학기술통계사. 2003)에서 7년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통계로 추산하였다.

5) 온라인 중국정보. www.onbao.com(2007. 8. 23).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10년간의 출생률 감소를 감안하면 2009년에는 2,000명, 2019년에는 500명, 2029년에는 31명이 출생하고 2049년에는 한명도 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 내 조선족인구 비율도 2010년에는 20%대, 2020년에는 10%대로 내려갈 것이고 2030년이면 8.7%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 중앙민족대학 한국학연구소측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신생아 출산수는 1999년 말 현재 3,800명으로 10년 전인 1989년과 비교하면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구감소로 볼 때, 조선족사회는 이주 130여년 역사에 있어 가장 큰 해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6)]

이러한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 상황에서 최근 조선족 중산층들이 둘째 아이를 낳거나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환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조선족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동북3성의 조선족 밀집 도시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보조금 지급과 학비 면제라는 우대정책을 제정하기도 했고, 조선족 언론에서도 출산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및 문제점을 보도해 왔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부를 축적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도시 및 해외 노무송출로 인해 경제적 부가 축적되고 그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점과 둘째를 낳을 경우 혼자보다 정서상, 교육상 좋다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조선족사회의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7)]

2) 거주와 이동

조선족은 이주초기부터 길림성, 흑룡강, 요녕성의 동북3성 지역에 밀집하여 사는 집거형태를 취했다. 이는 지연, 혈연 중심의 공동생산체 형식을 취하며 결집력을 유지하게 하였다. 특히 조선족자치주를 구성한 후에는 공산

6) 연변통신(2002. 8. 25).
7) 온라인 중국정보. www.onbao.com(2006. 8. 22).

당 위원회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치주내의 주요 직위를 조선족이 차지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를 사용하고 민족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거형태는 최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들어와 중국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초기에 조선족들은 연변, 심양, 장춘, 하얼빈, 길림, 대련 등 민족지역내 도시로의 이동하였다. 이 시기의 이주자들은 상당수가 농민들이었으며 주로 막벌이군 생활이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 들어서는 북경을 비롯한 산동, 강소, 광동 등 연해도시로 대거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이주자들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과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지만 특히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여성들은 대도시에서 한국 기업이 설립한 노동집약적인 기업에서 생산직, 통역 및 관광안내원, 한국음식점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남성들에 비교해서 쉽게 일자리를 찾았다. 반면 학력이 떨어지고 직업기술을 갖지 못한 젊은 남성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족의 인구 이동의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내이동은 2005년 전후의 언론보도에 근거하면 광동지역에 6만여 명, 상해지역에 3만여 명, 산동반도지역에 15만 명, 북경지역에 5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기타 관내 연해지역을 포함하여 중국 연해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 인구를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의 국외지역으로의 이동 인구도 국내 이동인구와 비슷한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박광성, 2006: 4-5)을 볼 때, 현재 전체 조선족의 중국내와 해외로의 이동을 합하면 60만 명 정도로 조선족 총인구의 1/4이상이 이미 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족 자치주 내 조선족의 타지로의 이동도 그 비율이 24%인 점과 유사하다.

한편 1970년대에 조선족 인구의 30% 정도가 도시와 읍에 살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도시인구가 조선족 인구의 50%를 넘게 되었다. 여기서 도시인구는 호적은 농촌에 있지만 토지를 이탈하여 도시에 나와 장사를 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조선족의 인구이동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었으며 초기에는 러시아로 향하던 이동은 곧 한국과 일본으로 옮겨졌고 멀리는 미국과 캐나다로까지 확산되었다. 특히 1992년 한

중수교이후 한국을 방문한 조선족은 1996년 5월까지 20만 명에 달했고 그중 노동자로 이주한 사람은 10만 명에 달하였으며, 2002년 6월에 한국에 체류중인 조선족의 수는 10~15만 명이었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2007년 8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조선족 총수는 26만6천724명이라 밝히고 있다.[8] 조선족들이 근거지인 조선족자치주 지역을 떠나 대이동을 하면서 그들의 직업분포, 타민족과의 관계, 교육과 문화 그리고 민족정체성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요컨대, 조선족의 인구이동 숫자는 파악이 어렵지만 한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15년간 조선족 총인구의 45% 정도, 노동력 인구의 70% 정도가 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진출지역을 보면, 국내에서는 원거주지의 도시지역은 물론 원거리에서 수 천리 떨어진 중국 남부지방에 이르기까지, 국외로는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리비아와 같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까지 수 십개국에 퍼져있다. 조선족이 이와 같이 국내외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동시적으로 대규모 분산 이동하면서 사회변화를 겪은 집단은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보아도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박광성, 2006: i).

이러한 지역적 다원화는 동북3성의 일부 지역에서 집거를 기초로 형성되었던 민족사회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구조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관찰된다. 첫째, 경제가 발달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시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제화이다. 앞에 말한 도시화는 국내외를 망라하며, 특히 국외로도 서울 일부지역, 도쿄 신주쿠, 뉴욕 플러싱 지역 등에 조선족타운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셋째, 다원화이다. 조선족 이동은 진출지역이 넓고, 성격이 다양한 특징 외에,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다시 집중되면서 새로운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도 있다. 가령, 연길시로의 집중, 심양시로 유입 증가, 청도시에서 새로운 집거지 형성, 서울에서 타운형성 등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이동과정에서

8) 조선족의 한국내 체류 통계는 자료원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 서울사무소(http://china.yanbian.gov.cn)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체류자 26만6천여 명 중 불법 체류자는 3만7천573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연해지역에 한국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처럼 연결망의 작용과 집중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 구조와 연결된다. 이러한 지역적 다원화는 조선족사회가 지역에 기초한 동질성이 높은 민족사회에서, 탈지역적인 다원화된 민족사회로 재편되고 있음을 뜻한다(박광성, 2006: 68).

3) 조선족의 경제적 상황

조선족이 중국에 이주한 초기에는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타민족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를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선족의 가치관과 역사적, 인구적 및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쇠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조선족과 한족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경제적 가치관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전의 소유와 경제적 수준을 인생과 성공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한족들과 달리 한국문화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조선족들은 금전보다는 지위나 학식, 체면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인 1970년대 말까지도 중국에서는 사영(私營)경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족들은 모든 기회를 만들어 작은 장사라도 놓치지 않고 돈을 모았고 그것은 훗날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한족들의 수십 년간의 꾸준한 부의 축적은 그들을 부유계층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강한 조선족들은 노점상이나 건설현장, 광산노동 등과 같은, 돈은 되지만 힘들고 궂은일을 하는 것을 체면이 깎이는 일로 생각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상업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조선족들의 가치관이 옳다 그르다 간단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치관이 당면한 경제 현실에 역작용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한족들은 돈벌이에 대해서는 본능에 가까운 타고난 장사기질을 가

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다른 조선족 주거지는 물론이고 연변의 중심인 연길시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가나 장사하기 좋은 자리, 그리고 장사가 될 만한 업종은 이미 거의 한족들의 수중에 넘어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중수교이후 10년 동안에 많은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타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왔고 이것은 조선족 경제의 성장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대도시나 해외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60만여 명의 경제활동은 지방의 조선족 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일정한 몫을 하고 있지만[9] 조선족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고 소비수준이 높은 조선족지역은 다른 지방의 한족들에게는 오히려 돈벌이하기 가장 좋은 곳이 되고 있다.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외지에서 돈 벌어온 조선족들이 본 지방에서 소비하고 외지의 한족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소비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조선족들은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데 반해 한족들은 계속 부유해지면서 조선족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10] 이처럼 문화적 차이에서 나온 간단한 경제관념의 차이가 결국에는 조선족사회의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한중 교류협력에 힘입어 조선족은 공업기반을 확장, 발전시키는 등 생활수준이 부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조선족은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체로 농업분야가 줄어들고 상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1990년 초기부터 시작된 조선족의 연해지역 진출은 어느덧 17년에 가까워 온다. 그동안 북경-천진권, 청도-연태-위해권, 상해-남경-항주권, 광주-심천-주해권을 중심으로 연해지역 조선족 사회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선족의 경제생활권이 조성되고 있다.

9) 흑룡강신문 보도에 의하면, “연변 인구 당 주민 예금 만원선 돌파 - 전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중 선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연변의 노무송출수입이 지역의 재정수입을 초과했으며, 2003년에는 재정수입의 2.6배로 증가하였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노무송출로 들어온 돈은 총 40여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윤은걸 기자), 2005. 1. 11일자.

10) 연변통신(2002. 8. 25).

상기 지역에는 적게는 4-5만 명, 많게는 10만여 명 이상의 조선족들이 거주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집거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의 연해지역 등 도시로의 진출은 경제활동 종사와 발전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취직·진로·개척형'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연해지역 진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해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이 날로 빨라지면서 조선족의 진출은 계속될 전망이며, 조선족의 경제상황은 분명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해지역 경제발전이 점점 가속화되면 한중간의 경제·인적교류의 폭이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조선족 농촌지역은 위축되고 공동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연해지역 내지 국외지역에서 조선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적 상황도 좋아지면 결국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룬 조선족 청장년들과 학생들은 종국에는 조선족의 고향이자 역사·문화·전통의 근거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하여 동북3성지역의 경제상황 및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선족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 노무송출로 인한 수입은 그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11] 2006년말 노무송출이 10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보다 2억 달러가 증가한 액수로 2005년 연변 재정 총수입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노무송출 지역으로는 한국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판의 순이며 기타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연변 주정부는 취업문제 해결과 산업발전에 노무송출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노무자들의 해외 생활의 어려움과 귀국 후 창업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아 앞으로 조선족은 한

11) 참고로 노무송출과 관련하여 연변, 심양, 하얼빈, 북경, 청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연구에서는 조선족 설문 응답자의 48%가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도움된다는 응답이 87%로 조선족 가정경제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고 한국에서 번 돈을 사업자금(34%), 생계비(30%)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응용 등, 2005).

층 더 폭넓은 경제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GDP는 104억5천만 위안에 달해 전년도 동시기에 비해 19.9% 증가하였고 성장속도는 동시기에 비해 8.1포인트 상승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공업경제와 제3차 산업 그리고 대외무역의 역할이 괄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12]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 속도가 두드러진 연길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길시의 경제력은 2005년 GDP가 72억1천8백만 위안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종합 잠재력 평가에서 중국내 2,000여개 현급시(縣級市) 중 100대 현급시에 재진입했으며, 잠재력 평가에서는 3위에 들어 앞에서 언급한 노무송출 수입과 동북지역의 관광사업을 가장 유력하게 꼽고 있어 조선족 경제의 두 기둥이 될 전망이다.[13]

4) 조선족의 교육 실상

조선족의 교육수준은 여타 소수민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소수민족이라는 제약으로 사회적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선족 출신 지식계층은 중국정부내 연구소, 학교, 방송국 등 조선어(이하'한국어'로 표기)문화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두루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은 특히 교육면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다. 한 예를 들면, 비록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선족이 1,308개소의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함)와 223개소의 중학교[14]를 설립하였으며 연변대학까지 설치하였다. 즉, 조선족은 1952년도에 소학교 교육을 보급했고, 1958년에는 초급중학교

12) 연변일보(박정일 기자) 2007. 7. 19일자.

13) 이상의 수치는 온라인 중국정보. www.onbao.com(2006. 12. 15와 5. 16)에서 인용하였다. 여기서 연변 용정시에는 연변최대 규모의 '조선족민속문화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변대학 동북아관광자원개발연구중심에서 설계하고 2억8천만 위안을 투자하는 큰 프로젝트로 2009년 완공 예정이다. 연변의 2006년 관광인원은 300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28억4천만 위안이며 전년도보다 13.6% 증가한 수치이다.

14) 중국의 학제는 우리와 달리 '중학(中學)'('普通中學'이라 함)은 初中(중학교 과정)과 高中(고등학교 과정)을 합하여 6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高等學校'란 우리의 대학과정을 말한다. 여기서는 중국 학제를 그대로 '중학'으로 사용한다.

교육을 기본상 보급했으며, 중·소학교 입학률은 98%에 달했고 1만 명당 대학공부를 하는 학생이 50명에 달해 조선족의 대학진학률은 중국 56개 민족의 제일 선두를 차지했다.[15]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는 2004년 통계에 의하면, 1개 고등학교, 9개 중등전업학교(전문학교), 181개 초등중학(중학교), 407개 소학교, 455개 유치원이 있으며 중학교급 이상의 조선족 청소년 학생 수는 대략 4만8천5백여 명에 달한다.[16]

교육분야의 지표중 하나로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6세 이상 조선족 가운데 고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33.3%에 달한다. 그러나 한족의 경우 그 수준은 절반이하로 떨어져 16.2%를 나타내며, 다른 민족은 총체적으로 조선족의 1/3 수준인 11.2%에 머물러 있다(권태환·박광성, 2005: 95). 이와 같은 조선족의 높은 교육수준은 또 다른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의 대학졸업자 및 문맹률을 타 집단과 비교한 <표 Ⅱ-19>을 보면 조선족의 높은 교육수준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족의 대학졸업자 비율(1.66%)은 한족(0.30%)은 물론 중국 전체(0.50%)보다 높으며 문맹율도 조선족(11.54%)이 한족(31.04%)이나 중국 전체(31.88%)보다 크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은 조선족의 높은 교육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최근자료에 의하면, 조선족 문맹인구는 전체인구의 2.7%인 15만 1,293명으로서 중국 전체의 문맹률 7.7%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화수준 비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 이상 도달자가 조선족은 8.5%인 15만 8,937명으로 중국 전체의 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17]

15) 연변통신(2002. 8. 25).
16)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www.yanbian.gov.cn 교육통계자료.
17) 온라인 중국정보 사이트. www.onbao.com에서 '2006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및 통계연보'(연변주 통계국. 2007)를 인용한 자료이다.

<표 Ⅱ-19> 중국 각 민족간 대학졸업자 비율 및 문맹률 비교

구 분	조 선 족	한 족	기타 민족	중국 전체
대학졸업자 비율(%)	1.66	0.30	0.51	0.50
문맹률(%)	11.54	31.04	44.31	31.88

자료 : 연변통신(2002. 8. 25).

대학진학률에 있어서도 조선족학생들은 역시 두드러진 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중국에서 대학교육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대학졸업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가령, 1995년 중국의 대학입학률은 6.5%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4년에는 19%로 급속히 증가한다. 조선족은 교육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조선족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60~70%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규모가 커지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정부가 알선하는 취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 자신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18] 최근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선족사회에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열풍이 심하게 불어 학생의 90%이상이 과외를 받고 있으며 가구당 과외비용 부담이 한달 평균 600위안이 넘는 가정이 많다고 한다. 특히 과외과목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외에 한국어나 중국어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19]

또한, 조선족은 고유의 민족언어문자 교육과 민족대학 설립을 성취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큰 특징은 민족학교의 설립이 본격화되고 민족언어와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학교들은 일제시의 학교를 인수한 연길사범학교, 연길중학교, 공업학교, 광성중학교, 고려여자중학교와 소학교 등이 있었다. 그 후 용정에는 '교육동맹'이 조직되어

18) 여기서 말하는 대학입학율은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비율이 아니고, 해당 연령대의 대학 진학 비율이다. 2000年 全國教育事業發展統系公報", 中和人民共和國教育部. 2005年 4月.(박광성, 2006: 54)에서 재인용.

19) 온라인 중국정보. www.onbao.com(2007. 2. 1) 한달 과외비 600위안은 조선족자치주 내 초임 교사의 한달 월급이 1,500위안이며 외자기업 취업인 첫월급이 2,000위안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이다. 이러한 과외열풍은 한국을 닮아간다고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흥중학교, 대성중학교, 영신중학교, 은진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명신여자중학교 등 중학교 및 소학교가 운영되었다. 기타 지역에도 여러 학교들이 설립되어 민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해방후 조선족은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과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변에서는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교육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것은 민족언어문자 사용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당의 정책에 의해 조선족의 문화교육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연변주 자치기관의 행정용어일 뿐만 아니라 주(州)정부의 문건이나 포고문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용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성분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80%이상 학생이 노동자, 농민 가정출신이었으나 사범학교 학생과 농민간부반의 학생은 국가의 경비로 학습하게 되면서 빈부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육불평등은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 1947년 3월에는 교육출판사가 창립되어 조선문 교과서를 정식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선족 고등학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1949년 3월 20일 조선족 대학인 '연변대학'이 창립되었다. 창립시에는 '연길대학'이라 불리다가 그 후 '연변대학'이라고 정식 명명하였다. 현재까지 조선족의 인재를 육성하고 조선족 과학문화교육을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조선족의 중등교육교원, 민족간부,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종합적인 민족대학이 되었다. 실로 연변대학은 소수민족종합대학으로서는 중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학이며 2005년 현재 조선족 졸업자는 3만여 명이 넘는다.[20]

연길시에 위치한 조선족 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또 하나의 대학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이다. 1990년 중국 최초로 중외(中外)합작대학 형태로 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1992년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교명을 개칭하고 현재 약 1천3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현재 형식상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으로 설립되어 있고,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부속기관으로 연변외국인학

20) 연변일보(김철호기자) 2005. 11. 18일자.

교, 연변한국국제학교, 사회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부설 'IT교육원'을 개원하여 산학협동으로 조선족 IT인재 육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21]

앞에서 언급한 조선족인구의 감소, 연해와 국외로의 이동, 농촌 조선족학교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선족 학생의 유실과 감소는 현재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 연변의 조선족 중에서 소학교의 조선족 학생들이 대량 한족학교에 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학생이 한족학교에 대량으로 다니는 현상은 중국의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에서 아주 심각하다. 연변일보 류일석 기자의 탐방기사에 의하면, 연변에서도 조선족이 가장 집중된 연길시의 경우만 보아도 한족학교에 다니는 조선족학생이 3,000명을 웃돈다고 하였다. 이는 재적이 1,000명 이상이면 비교적 큰 조선족학교라고 할 때 연길시에서 세 개의 큰 조선족학교가 소실된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한족학교에 가는 조선족학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조선족학교에 다니는 한족학생은 고작 450명에 불과하다.

조선족학생들이 한족학교로 가는 주요한 원인은 중국에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발전 전망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어를 제대로 잘 배우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한족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지식인들과 유지 등 지성인들이 오히려 아이를 한족학교에 보내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조선말 조선글은 어지간히 알고, 중국어 하나만은 한족 못지않게 잘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주류사회에서 중국어에 어설프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연변에는 소학교 3~4학년 때 한족학교에 전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연변에서 조선족학생은 어릴 때부터 한국어 환경이 주어졌지만 거기에 소학교 3~4학년까지 배우면 말하고 쓰기 능력을 상당히 갖추게 된다. 나머지는 집에서 계속 보충하고 한족학교에 가서 중국어를 한족학생들과 함께 제대

21) 흑룡강신문 2007. 1. 20일자.

로 배우게 되면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정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조선족학교에서는 전문 중국어 수업반을 개설해 조선족학생들의 유실을 막고 있다. 물론 한족어린이들까지도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다는데서 이 학교에 입학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조선족학생들에게는 한족학교에서처럼 한족교원에게서 중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서 또 한국어도 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족학생들에게는 중국어는 물론 조선족학교라는 언어환경 속에서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선호되고 있다.

최근 조선족 소학교의 신입생이 증가했다는 보도는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9월 소학교의 신입생 모집에서 인원이 증가한 현상에 대해 조선족 사회가 무엇보다 반가워하고 있다. 신입생이 증가한 이유는 첫째, 조선족 부모들의 의식변화를 들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중국어를 잘 해야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을 조선족 소학교에서 중국어교육을 강화시킴으로 만족하게 된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구사능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추세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에서도 채용시 한국어 능력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에서 2007년 3월부터 조선족의 방문취업제가 실시된 점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다른 이유와 결부되어 이왕이면 가산점이 많은 조선족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22]

한편, 한족학교에 한국어과가 설치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제고된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조선족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던 한국어가 취업이나 진출에 더는 결정적인 강점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조선족학교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쟁시대에서 한국어의 강점을 한족들도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조선족학생들이 한족학교에 다니는 현상은 도전이자 기회다. 이 위기와 기회를 지혜롭게 넘기기만

22) 온라인 중국정보. www.onbao.com(2006. 9. 1).

하면 조선족학교의 앞날은 밝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3]

그러나 개혁·개방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족의식이 강하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이 자체적인 민족공동체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던 조선족들은 불가피하게 외부세계와 접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어를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갈수록 외부와의 접촉이 필요해지고 상호경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중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한다. 중국어를 모른다면 국가기관에로의 진출이나 경제활동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게 돼가고 있다. 누구도 민족교육을 포기하고 중국어만 배우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중국어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인 생존수단이 되었고, 아울러 민족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고 민족 정체의식이 날로 희석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조선족들은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한족학교로의 진학이 증가함을 살펴보았지만, 조선족학교에서 조차 민족사나 민족문화는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60만 명 정도가 타지방이나 외국에 나가 돈벌이 하고 있는 인구 중 절대 다수가 20~40대의 연령계층인데 이들은 가정교육이 가장 절박한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하다. 그중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한번 출국하면 수년간씩 가족을 만나지 못하므로 아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3.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개관

1) 재일한인의 실태

일본에서도 한민족의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 1990년대 초기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국적·조선국적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69만 명 이상이었다(1991년·외국인 등록자수). 그러나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60만 명을 넘지 못

23) 연변일보(류일석 기자) 2005. 8. 27일자.

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감소원인이나 배경 중의 하나는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취득자수는 매년 1만 명 전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재일동포'라고 하면 한국국적·조선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지칭할 경우 재일코리안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황이나 의식, 정체성까지도 포함시켜서 언급하지 않으면 '재일동포'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24].

<표 Ⅱ-20> 국적(출신지)별 외국인등록자 수의 추이(각 연도 말 현재)

국적(출신지)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한국·조선	645,373 (43.5)	638,828 (42.2)	636,548 (40.9)	635,269 (40.9)	632,405 (35.6)	625,422 (33.8)	613,791 (32.1)	607,419 (30.8)	598,687 (29.8)	598,219 (28.7)
중국	252,164 (17.0)	272,230 (18.0)	294,201 (18.9)	335,575 (19.9)	381,225 (21.4)	424,282 (22.9)	462,396 (24.1)	487,570 (24.7)	519,561 (25.8)	560,741 (26.9)
브라질	233,254 (15.7)	222,217 (14.7)	224,299 (14.4)	254,394 (15.1)	265,962 (15.0)	268,332 (14.5)	274,700 (14.3)	286,557 (14.5)	302,080 (15.0)	312,979 (15.0)
필리핀	93,265 (6.3)	105,308 (7.0)	115,685 (7.4)	144,871 (8.6)	156,667 (8.8)	169,359 (9.1)	185,237 (9.7)	199,394 (10.1)	187,261 (9.3)	193,488 (9.3)
페루	40,394 (2.7)	41,317 (2.7)	42,773 (2.7)	46,171 (2.7)	50,052 (2.8)	51,772 (2.8)	53,649 (2.8)	55,750 (2.8)	57,728(2.9)	58.721 (2.8)
미국	43,690 (3.0)	42,774 (2.8)	42,802 (2.8)	44,856 (2.6)	46,244 (2.6)	47,970 (2.6)	47,836 (2.5)	48,844 (2.5)	49,390 (2.5)	51.321 (2.5)
기타	174,567 (11.8)	189,442 (12.6)	199,805 (12.9)	225,308 (13.4)	245,907 (13.8)	264,621 (14.3)	277,421 (14.5)	288,213 (14.6)	296,848 (14.8)	309,450 (14.8)
합계	1,482, 707	1,512, 116	1,556, 113	1,686, 444	1,778, 462	1,851, 758	1,915, 030	1,973, 747	2,011, 555	2,084, 919

주) 『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 財団法人入管協会、2006年末現在
표 중 수치는 실수, ( )안은 %

최근 일본사회의 다민족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통계(법무성입국관리국, 2007)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자수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208만 4919명

24) 2007년 10워12일자 재외동포신문에 의하면 재일코리안 수는 일본국적취득자를 합쳐 실제로 893,74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으로 과거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수치는 2005년도 말과 비교해 7만 3364명(3.6%)이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에 비하면 66만 9783명이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등록자가 일본 총인구 1억 2777만 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63%가 되었다(2005년 말 현재는 1.57%). 외국인등록자의 국적(출신지)수는 188개국에 달하며, 2002년 138개국에서 50개국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조선적자는 2006년도 말 현재 598,219명으로 전체 28.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미국 순이었다. 한국·조선국적자는 특별영주자수의 감소로 매년 계속 감소 추세이며 현재 59만8219명이다<표 Ⅱ-20 참조>.

그러나 2005년도 한국 · 조선인 국적 598,687명의 숫자는 '재일동포'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종래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은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별영주자'에 해당되며 그 숫자는 451,909명이었다. 결국, 지금까지 재일동포라고 불리어졌던 사람들의 수는 대략 약 45만 명이었다 <표 Ⅱ-21 참조>.

이와 같은 재일동포 감소의 큰 요인 중 하나는 1985년 일본 국적법 개정으로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선택에 있어서 '부모양계주의'의 도입에 있다. 그 때까지는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은 부친의 국적을 계승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법률개정 후에는 부모 어느 쪽 국적을 선택해도 무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재일코리안의 감소의 원인으로는 재일한인의 국제결혼 증가, 귀화자 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재일청소년의 결혼상대자의 90%이상이 일본인이다. 현실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재일한국인·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청소년들은 일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재일동포 자녀끼리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일본인과 교제하며 결혼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일동포와 일본인과의 결혼에 의해 태어난 자녀의 대부분은 '일본국적'을 계승하게 된다. 이것이 재일동포의 숫자가 감소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표 Ⅱ-21 참조>.

재일코리안의 일본인과의 결혼비율 중 남편이 일본인인 경우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반대로 아내가 일본인인 경우는 감소하고 있다. <표 Ⅱ-21>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녀 재일코리안의 일본인과의 결혼자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1> 재일코리안의 국제결혼추이

연도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 및 재일한국 · 조선인				
	남편이 일본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이 일본인, 아내가 재일한국 · 조선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가 일본인	아내가 일본인, 남편이 재일한국 · 조선인	재일한국 · 조선인 전체 결혼자 수(%)
1997년	20,902	4,504	7,349	2,674	7,178(1.1)
1998년	22,159	5,143	7,477	2,635	7,778(1.2)
1999년	24,272	5,798	7,628	2,499	8,297(1.3)
2000년	28,326	6,214	7,937	2,509	8,723(1.4)
2001년	31,972	6,188	7,755	2,477	8,665(1.4)
2002년	27,957	5,353	7,922	2,379	7,732(1.2)
2003년	27,881	5,318	8,158	2,235	7,553(1.2)
2004년	30,907	5,730	8,604	2,293	8,023(1.3)
2005년	33,116	6,066	8,365	2,087	8,153(1.4)
2006년	35,993	6,041	8,708	2,335	8,376(1.4)

주)『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_ 財団法人入管協会、2006年末現在

다른 요인 중의 하나로는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취득이다.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 국적취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수는 매년 약 1만 명 정도이다. 1952년부터 2006년까지 재일동포의 일본국적 취득자수는 30만 명 이상이다<표 Ⅱ-22 참조>.

일찍이 일본국적취득자는 재일사회에서 '민족의 배신자' 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되어 왔다. 최근까지만 해도 재일동포 문제를 거론할 경우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는 재일한국인 다음(2차적인 존재)으로 언급되는 존재였고 재일동포 세계의 주변에 위치한 재일동포 중에서도 소수민족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표 Ⅱ-22>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수 추이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1952	232	1966	3,816	1980	5,987	1994	8,244
1953	1,326	1967	3,391	1981	6,829	1995	10,327
1954	2,435	1968	3,194	1982	6,521	1996	9,898
1955	2,434	1969	1,889	1983	5,532	1997	9,678
1956	2,290	1970	4,646	1984	4,608	1998	9,561
1957	2,737	1971	2,874	1985	5,040	1999	10,059
1958	2,246	1972	4,983	1986	5,110	2000	9,842
1959	2,737	1973	5,769	1987	4,882	2001	10,295
1960	3,763	1974	3,973	1988	4,595	2002	9,188
1961	2,710	1975	6,323	1989	4,759	2003	11,778
1962	3,222	1976	3,951	1990	5,216	2004	11,031
1963	3,558	1977	4,261	1991	5,665	2005	9,689
1964	4,632	1978	5,362	1992	7,244	2006	8,531
1965	3,438	1979	4,701	1993	7,697	合計	304,699

주)『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 財団法人入管協会、2006年末現在

그러나 <표 Ⅱ-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는 재일동포 중에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재일동포'란 결국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를 의미하는 날이 올 것이며 재일동포문제를 언급할 때에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인터뷰에 응했던 어떤 일본국적자는 '한국계일본인은 재일한국인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소유한 존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일본국적취득자의 존재는 재일동포라는 존재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존재방식 그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재일동포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일본국적 취득과정에서 재일동포의 경제사정과 정치사상 등 많은 것들이 고려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재일동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당시 일본 버블경기를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입국했으며 1990년대에는 '출입국 및 난민인정법'이 개정되어 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과 그 자손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계인 (日系人)'이 일본사회에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은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외국인 정책이나 법률정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재일동포'를 의미했다. 한때는 외국인 전체비율의 90%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숫자가 30%도 넘지 못한다. 이제는 '재일외국인'이 '재일한국인'을 대신하던 시대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다.

한때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취득행정을 담당했던 어느 법무관리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일본 생활습관도 100% 이해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의 귀화(일본국적 취득)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힘들다. 이전에 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허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일한 외국인의 급증이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생활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는 요인이 되었다.

재일코리안의 전체적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12.2%, 20대가 15.1%, 30대가 18.2%, 40대가 16.2%, 50대가 16.1%, 60대 이상이 21.4%로 저출산 ·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고 이번조사의 연구대상인 16~24세까지의 재일한인청소년의 비율은 12.9%를 차지했다.

<표 Ⅱ-23> 재일코리안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연령별 구분	성별		합계(%)
	남성	여성	
0~4세	6,228	6,069	12,297(2.1)
5~9세	8,284	7,817	16,101(2.7)
10~14세	10,021	9,436	19,457(3.3)
15~19세	12,142	12,141	24,283(4.1)
20~24세	18,099	22,788	40,887(6.8)
25~29세	23,929	25,751	49,680(8.3)
30~34세	26,341	28,309	54,650(9.1)
35~39세	25,018	29,458	54,476(9.1)
40~44세	21,908	26,800	48,708(8.1)
45~49세	20,788	27,625	48,413(8.1)
50~54세	21,253	26,969	48,222(8.1)
55~59세	23,434	24,676	48,110(8.0)
60~64세	18,347	20,143	38,490(6.4)
65~69세	14,874	17,830	32,704(5.5)
70~74세	9,685	13,362	23,047(3.9)
75~79세	6,251	9,061	15,312(2.6)
80세 이상	9,593	13,789	23,382(3.9)
합계	276,195(46.2)	322,024(53.8)	598,219(100)

주)『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 財団法人入管協会、2006年末現在

2) 재일한인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재일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나 연구의 어려움을 들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재일한인 연구가 위축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정치적인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대립의 영향은 순수한 학문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기피대상이었고 그만큼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생산하기가 어려웠다. 두 번째로는 실증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모집단으로서 재일한인에 대한 명부열람이 매우 어려운 점이다. 가령 한국적은 '민단(民団)'이 관리한다거나 조선적은 '총련(総連)'이 보유하고 있어 학술적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의 영향으로 쌍방의 도움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사회과학의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재일한인을 둘러싼 일본사회 환경은 1980년대 들어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난민조약체제'의 영향으로 재일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약화되고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및 '지방공무원취임권획득'에 대한 운동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 더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인과의 국제결혼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출생한 재일3세~4세들도 절반이상이 일본 국적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화자의 증가로 인하여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서 공조조직으로서의 민족단체의 존재의의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민족조직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화에 따른 일본 내 다양한 외국인의 증가, 국제교류에 의한 다문화 사회 도래, 한류영향 등으로 일본인들의 재일한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한인 청소년 연구는 한일간의 지리적 여건과 민간교류, 그리고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재일한인 청소년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재외한인 청소년과의 교류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일 한국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크게 나누어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와 재일한국인들의 정체성 · 민족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재일한국인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일 한국인 기업가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재일한국인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 연구의 대상이 재일한인청소년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교육,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요약된다.

김응렬(1990)의 '재일한국인의 사회이동'은 1952년 이전의 재일한국인의 직업구조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45년 일본의 패전 전에는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의 최하층에 배치되어 약90%가 육체노동에 종사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하숙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판매직에 종사

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본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단순노동이나 농림업, 폐품수집업에서 벗어나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미숙련직 등으로 점차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일본사회가 제도적으로 재일한국인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심리적 편견에 의한 차별이 심해지면서 재일2세~재일3세의 사회적 이동을 제한시키는 본질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민관식(1991)의 '재일한국인의 실태'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을 포함하여 1987년에서 1988년에 걸쳐 총2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족정체성과 직결되는 통명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식 통명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595명 중 78%에 해당하는 464명이었다. 또한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교, 단기대학,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재학생 1044명중에 약67%에 해당하는 698명이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명을 사용하는 학생은 약 16%에 해당하는 고작 170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와 비슷한 약 15%인 156명이 본명을 일본식발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통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사용하기 때문이었다고 응답했다. 기타 20년 후에 재일동포사회는 어떻게 될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과 거의 변화가 없다', 혹은 '더욱 결속 단결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약 50%에 달했으며, 실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9.6%였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도 40% 이상으로 결과적으로 재일한국인의 현상유지와 소극론이 절반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향후 5세대 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 60%는 '일본에 동화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여 불투명한 후손관이 지속된다면 재일동포의 생활은 항상 동요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명수 · 후쿠오카야스노리(金明秀·福岡安則, 1997)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일한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일본태생의 18세~30세까지 한국적을 가진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993년도에 실시된 일본 전국규모의 조사이다. 이

와 같은 재일한인 대상의 의식조사가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엄밀히 따지면 외국등록표로부터의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지금까지 재일한인 대상으로 실시된 대부분의 조사는 특정 지역의 재일한인이나 특정 집단에 속하는 재일한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사상의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샘플의 대표성이나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에서 18세~30세까지를 추출한 후 등간격추출(Random Sampling)로 약 2,0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조사불가능자를 제외한 1,732명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총800(46.4%)부가 회수되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간 청년회의 간부나 활동가가 조사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질문응답방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표에 조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식기입법과 설문지를 현장에서 배포하고 나중에 수집하는 방식을 병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중요한 결과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입장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언젠가는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임시거처의 장소'가 아니라 '정주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특히 이번에 실시중인 재일한인 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1993년 '재일한국인청년의식조사'에서 최대 발견은 '민족성(Ethnicity)이라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된다'는 기존의 논리보다는 '획득'과 '계승'이라는 자생적인 재생산과정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민족성이라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되어 왔으나 이러한 영향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며 때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민족성이 계승되거나 획득되어 왔다는 사실은 재일한인 청소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1995년 한국대사관이 주관한 '재일한국인생활의식조사', 그리고 1997년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재일한국인의 사회성층과 사회의식조사', 민단에서 1987년에 실시한 '재일동포의 생활실태와 의식조사', 2000년도에 민단이 주관한 '재일한국인 의식조사' 등이 있다.

그중에서 먼저 도쿄청상이 실시한 '재일한국인 사회성층과 사회의식조사(1997년)'은 청년상공인이 주최가 되어 재일동포의 직업, 민족의식, 생활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조사결과, '사망', '연락처 불명', '일본국적 취득', '대상연령'이 아닌 응답자를 제외하고 1280명의 조사대상자로부터 899명의 조사표가 회수되었다. 이 조사는 특히 20세 이상의 한국국민등록을 마친 직업을 가진 남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및 현재의 재일한인의 생활과 의식구조나 동태파악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재일한인 청소년과 일본인 사이의 교육달성에 대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일한인은 교육에 대한 민족차별을 의욕과 능력에 의해 돌파해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적 지위달성의 지표로서 직업을 분석한 결과 재일한인 청소년과 일본인과의 격차는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한국인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동원이라는 상호기능을 활용하여 불평등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일한인이 소규모자영업에 집중된 원인도 이러한 결과이며 젊은 청소년 세대는 부모세대가 축적한 자원을 계승하여 세대간 상승이동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단(2000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일한국인 의식조사'는 재일동포의 조직이탈 현상을 염두에 두고 민단이 21세기에 어울리는 재일동포사회의 비전과 조직을 갖추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재일동포의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특히 재일한국여성들과 15세~64세까지의 폭넓은 세대의 재일한국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내용범위에서는 가족이나 가정 등 재일한인의 생활실태, 민단의 향후 역할, 단원의 민족의식과 사회의식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모집단은 민단명부에 기재된 등록자 중 만 15세~64세까

지 약 35만 명의 남녀를 대상자 중 150명씩 등간격추출법(계통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약 2,924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유효회수율은 1,325명(45.3%)이었다. 이 조사는 과거 수행된 재일한인 의식조사 중 조사대상자 수가 가장 많고 연령이나 재일동포사회의 전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재일한인의 가장 큰 요망사항은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노력,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장소제공, 남북통일에 공헌, 행정서비스 절차의 중개, 재일한인의 만남의 장소, 재일동포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 재일한인 전문가의 소개육성과 절차 등이었다. 특히 세대별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신을 2.5세로서 규정한 재일한인의 경우, 한반도나 재일한인의 역사, 전통문화, 한국어 배움의 장소, 사회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재일한인 사회의 다양화 대책, 역사자료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 다른 세대보다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정구(2005)의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한국인, 특히 재일2~재일3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견하고 형성해 나가는가를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재일청소년의 정체성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일본 내 자신의 출신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자기주변의 사회문제와 차별문제를 일본인들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지향'형이다. 둘째, 일본사회에 살고 있지만 일본에 동화되지 않고 '재일조선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총련계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조국지향'형이다. 셋째, 자신의 조국이 한국인가 또는 일본인가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적 성공을 달성하여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승이동을 실현하려고 하는 '개인지향'형이다. 넷째, 일본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동화함으로써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귀화지향'형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재일한국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오노치아키(2005)의 '재일한국인의 귀화에 관한 연구: 3세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는 재일3세의 정체성을 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재일한국·조선인의 귀화 실태를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1950년대는 연간 2000명, 1960년대는 2000~3000명, 1970년대에는 4000~5000명, 1980년 이후에는 연간6000~8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일1세에서 재일2~재일3세로 갈수록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귀화이유는 사고 속에서의 모국이지 몸으로 아는 모국이 아니며, 그것이 귀화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부감을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또한 아사가와(2003)의 논문을 인용하여 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할 것이기 때문' 이었으며 다음으로 '아이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에 관한 사유'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조사사례 건수가 겨우 4건에 불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2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 중반부터 재일한국인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정체성·민족성, 그리고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재일한국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김정구(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결과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들이어서 재일한인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제1차년도 연구에서 '재일한인사회의 경제 환경(최석신, 임채완 외, 2005)'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재일한인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규모, 소비패턴, 한국과의 관련성, 자영업 실태 등 재일한인 사회의 경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5) 浅川晃宏(2003)、『在日外国人と帰化制度』、新幹社

재일한인 자영업자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로부터 총466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임영언, 2006)'에 대하여 3대 거점도시(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재일한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민단계 '재일한국상공회의소'와 총련계 '재일본상공연합회'소속의 재일한국인 기업가 1,059명의 명부를 입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규모 기업조사(특히, 재일한인 기업가는 대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인 관계로 설문지나 면접조사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여 총 154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두 조사는 재일한인의 기업가들에 대한 조사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재일한인 기업가 네트워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3차 년도에서는 재일한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결과는 이번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연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일한인의 강제이주의 배경이나 일본 현지에서의 민족차별, 저학력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구조나 취직차별에 따라 3D업종이나 소규모자본으로 자금융통이 원활한 야끼니쿠산업, 파칭코산업, 부동산 임대업, 소비자금융업 등에 종사한 기업가가 많았다. 재일한인 기업가의 네트워크에서는 현지 동포기업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가 강했지만 해외한인 기업가나 모국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이번 연구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인 청년 기업가의 상당수가 부모세대에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세대간 상승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재일한인 청소년의 상당수가 이들 기업가의 자녀이고 이들이 기업을 상속받고 있는 중이거나 나중에 상속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주요성과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에 대한 귀화자 증가로 인한 민족성 약화, 민단조직 이탈현상, 재일한일 사회의 다양성, 재일한인 사회의 조직원간의 강한 연줄과 모국과 해외 한인간의 약한 연줄에 의한 연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93년 재일한인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성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성장과정상의 민족적 전통성'에 의한 계승과정에 크게 좌우되며 일부는 '민족단체에의 각종 참가경험'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즉 간단히 말하면 청소년의 민족성이 '민족교육'에 의한 획득과정에 크게 규정되거나, 혹은 '민족단체에의 참가'나 '학력달성'에 의해서도 획득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재일청소년의 민족성이 종래의 '계승'된다고 하는 주장에서 '획득'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일한인 청소년의 활성화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지에서 재일한인의 거주가 오래될수록 당연히 민족성이 약화되어 간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현재 '재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나가기 위해 현재 전국각지에서 힘쓰고 있다. 일본현지의 외국인과의 교류와 공생운동, 민족전통악기의 계승, 일본문화와의 혼합, 소수민족으로서의 메시지 등 '재일'이라는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문화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이번 연구도 재일한인 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재외한인 청소년이나 모국 청소년과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4.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1)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실태

1991년 12월 30일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과거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이 개별적인 독립국가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은 고려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국적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특히 고본질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이었다. 또한 체제의 변화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고는 자본주의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했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민족에 관계없이 나타

났던 현상이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현지 민족주의의 대두로 언어문제가 발생하고 실제로 취업에 제한받는 고려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어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벡어가 현지 국가의 공식어로 지정되면서 안정된 직장과 직장내 진급을 위해서는 현지 지역 언어의 구사가 필수적이었다. 러시아어에만 익숙해있던 고려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 고려인들은 삶의 거처를 모스크바 등 아예 러시아로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초반에 고려인 사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바로 과거사에 관한 법적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탄압받은 제 민족들의 복권에 대한 러시아공화국의 법령'(1991.4.26)에 이어 1993년에는 러시아연방에서 '한인복권에 대한 최고회의의 결정'(1993.4.1)이 내려짐으로써 1937년 강제이주자들의 법적 복권문제가 명백히 해결되었던 것이다.[26] 물론 1950년대 흐루시초프 시대에 이미 정치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당시의 효력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새로운 체제 하의 러시아연방은 공식적으로 1937년의 강제이주를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한인들을 완전히 복권시켰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련을 법적으로 계승했던 러시아연방에서 이러한 공식적 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이지 중앙아시아 국가 등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법적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의 조직 등 활발한 정치, 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국가별 이주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이러한 이주는 국적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우선 소련 해체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첫 번째 이주방향은 연해주에 있었다. 우선 연해주는 사할린 한인들을 제외한 소련 고려인들과 현재 대다수 러시아 고려인들의 고향이고 이곳에는 자신들의 뿌리가 있다. 고려인들의 연해주 귀환문제가 대두된 또 다른 이유는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에는

26)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저, 김광한·이백용 역, 앞 책, 405-408쪽.

우즈벡인, 카자흐인, 키르기즈인들이 주류민족으로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민족들은 주로 교육제도와 문화면에서 소비에트화되고 러시아화된 스탈린식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스탈린식 정책들은 많은 민족적 특성을 빼앗아 갔고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이 자민족 언어와 관습, 전통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민족의 민족의식 각성과 우월성의 강화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비토착 민족들은 점차 불안과 동요를 겪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 간의 공공연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나 선조들이 있었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려는 열망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의 고려인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연해주로의 재이주 문제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하는 문제인데 이미 소련 해체 전에도 이주해 간 고려인들도 있었지만 그 규모는 1만명 이하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었고 생각보다는 적은 수의 고려인들만이 이주하게 되었다. 현재 이곳도 한국의 NGO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지만 새롭게 이주해 간 고려인들은 직업, 교육환경, 거주 등 많은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 당국의 새롭고도 획기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현 단계로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반기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이주자 및 난민들은 러시아연방의 서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고려인 이주민들의 뚜렷한 유입은 볼고그라드 주에서 이루어졌는데 비공식 통계로 2001년에 10,000-14,000명(2002년 인구조사 결과 6,066명)으로 추산되었고, 또 인근의 크라스노다르 주에는 약 10,000명(인구조사 결과3,389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7]

볼고그라드 주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은 교통상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볼고그

27) Г. Н. Ким,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 цев, кн. 2, 1945-2000. (Алматы Дай к-Пресс, 2006), с.174.

라드 주는 국경지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지대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다양한 민족들의 이주지로서 중심적인 곳이다. 그런데 많은 이주자들은 볼고그라드 주에 완전 정착하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볼고그라드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농촌지역을 떠나 볼가강을 끼고 볼고그라드 시와 마주하고 있는 볼스키 시로 이주하여 한국식당을 운영하는 등 점차 비농업분야로 활동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볼고그라드 지역 고려인사회의 관심사는 바로 2000년에 들어와서부터 이주가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출신 고려인들의 정착문제이다. 아랄해의 환경재해로 인해 사실상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누쿠스 지역 출신 고려인들인 이들은 볼고그라드 인근의 노보알렉세예프카 지역에 한국의 지원을 받아 정착촌을 건설,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28]

또한 이곳에는 타지키스탄의 고려인 난민 2천 명 정도가 모여들어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와 군의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거주지와 일터 및 사회보장 등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연해주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이들은 이제 볼고그라드 주에 완전히 정착을 한 상태이며, 러시아 국적 역시 취득을 한 상황이다.[29]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볼고그라드 주의 고려인 외에도 볼가지역의 사라토프도 신흥 고려인들의 정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대 초에 사라토프 주에는 91명의 고려인이 등록된 반면 1990년대 초에는 이미 약 550명으로 늘어났고, 2002년 인구조사 결과 사라토프 시와 주에는 2,533명의 등록된 고려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토프 주에는 여름철에 고려인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여 약 15,000명에까지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계절농에 종사하는데 겨울에는 살던 고향으로 가서 가족

28) 송준서·김상철, 「변화하는 우랄-볼가지역 고려인사회: 확장과 새로운 도전들」, 임영상·황영삼 편, 『소련해체 이후의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143쪽.

29) 위 글, 142쪽.

과 함께 지낸다.[30]

러시아를 관통하는 볼가강 연안 및 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우랄 지방은 그동안 고려인사회의 규모가 러시아의 극동지방이나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아 한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고려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가 지나가는 곳으로, 소련 붕괴이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도 조선족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 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기존의 볼가-우랄 지역의 고려인 사회의 규모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의 고려인 사회의 규모는 여름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고려인 인구를 포함하면 약 73,000여 명 수준으로 확장되어 러시아 전체 고려인 수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31]

사할린의 한인문제도 1990년대 이후 또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일본과 한국 거주 친지상봉 협력단이 가동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1990년에 120명에 달하는 사할린 한인들이 친지상봉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보잉 727' 항공기를 타고 남한으로 향했던 것이다. 1990년 5월에 일본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사할린 한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9월 일단의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하여 직항 항공편을 탔다. 1991년 4월 26일 소련 각료회의는 외국인의 소련체류에 관한 새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되었다. 사할린 주정부 내무국에 의하면 1981-1987년 동안 개인적으로 친지를 만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갈 신청을 한 한인들이 177명에 달하였다. 그 중 128명은 소련 국적을 지닌 한인들이었다.[32]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이주는 이주 1세대에게

30) Г. Н. Ким, указ. соч., с.175.
31) 송준서·김상철, 앞 글, 119쪽.
32) Г. Н. Ким, указ. соч., с.161-162.

만 해당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산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내의 한인들의 이주 외에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외의 구소련 국가의 고려인 이주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고려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지만 본격적으로 동포들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것이 1980년대였는데, 이때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계절농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농업에 익숙한 고려인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룬 것이었다. 1990년대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들 국가들의 민족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크림반도 지역을 비롯한 남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수의 추정치는 약 2만명에 이른다.[33] 현재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적취득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고본질 위주의 고려인들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서류준비를 위한 본국으로의 귀국 또한 경비문제로 인하여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의 벨라루시에 고려인이 처음으로 등장한 해는 1934년이었다. 이후 30-40년대에 걸쳐 고려인의 상주 거주민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50-60년대에 일부 고려인이 벨라루시로 이주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군인과 그 가족들이었다. 이때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벨라루시로 많은 수의 이주민이 나타났다. 현재 벨라루시에는 약 1,200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혼혈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수 고려인 가정 수는 30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민스크의 경우에는 300명 정도의 고려인이 있다.[34]

발트삼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에는 현재 약 200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 소련을 구성하던 에스토니아는 1992년 정식 출범한 독립국가연합의 구성국이 아니며, 인근의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와 함께 유럽연합

33) 임영상·방일권, 「남부 우크라이나 고려인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다해, 2003, 169-207쪽.
34) 임영상·황영삼 편, 앞 책, 64쪽.

의 회원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소련이라는 동일한 체제 하에서 동질감을 가졌던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던 에스토니아의 고려인들은 이제 에스토니아어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에스토니아 고려인들을 더 이상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고려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에서의 인식은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려인들이 어떤 국가에 얼마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일률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시기에 조사된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해서 본다면 대체적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중 소련해체를 전후해서 가장 많은 고려인 인구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고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이는 곳은 카자흐스탄이다.

2002년 러시아연방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고려인들의 수가 107,051명(1989년)에서 148,556명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사실 공식통계는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불법체류 고려인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해체 이후 고려인들의 수가 매우 급속히 증가한 유일한 국가인데 이것은 주로 이주자들의 유입 때문이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고려인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연해주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여 18만명 정도로 보기도 한다. 가령 연해주 지역의 경우 2002년 인구조사에 의해 등록된 한인의 경우 약 1만7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국적 및 불법체류 고려인들의 수까지 포함했을 때 그 수는 4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현지 고려인들은 증언하고 있다.[35] 현재 연해주 지역 무국적 및 불법체류 고려인의 경우 신원, 건강, 체류와 관련한 까다로운 증명서류 구비 및 이에 따른 경비, 무엇보다 비협조적인 행정접수 및 처리로 인해서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 엄청난 생계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럴 경

35) 우수리스크 <동북아평화기금> 사무장 강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 증언, 2007년 9월 15일, 장소: 우정마을.

우 실질적으로 구소련의 국가 중 최대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을 감안한다면 섣부른 결론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언어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연방의 고려인들의 숫자가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러시아연방의 내부를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의 여러 주에서 고려인들의 현격한 증가가 눈에 뜨인다. 즉 볼고그라드 주의 경우 1989년에 272명에서 2002년에는 6,066명으로서 22배나 증가하였고, 사라토프주의 경우 1989년에 545명에서 2002년에는 2,533명으로 5배 증가하였으며, 연해주는 8,454명에서 17,89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던 것이다. 고려인 수의 현저한 증가는 모스크바 주, 아스트라한 주, 스베르들로프 주, 첼랴빈스크 주, 칼리닌그라드 주, 옴스크 주, 오렌부르그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및 하바로프스크 주, 크라스노다르 주, 스타브로폴 주 등지에서 일어났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고려인 수는 3,633명에서 8,63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외부 이주자들의 유입에 기인한다. 고려인들의 증가는 사실상 볼가관구, 우랄관구, 북서관구, 시베리아관구 및 중앙관구의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36]

독립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까지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인구조사보다 신빙성이 적은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로는 1999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수가 147,500명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1989년 인구조사 때와 비교하여 35,600명이 줄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많은 수의 감소는 이주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뜻한다. 사실 소련 최후의 인구조사가 있었던 1989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수는 지속해서 감소되었다. 변호사이며 열정적 연구자인 블라지미르 김이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수는 약 17만 명 정도였다.

그리고 1999년에 실시된 카자흐스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고려인 수는 99,665명이다. 이 수치는 1989년에 비하면 1,100명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여타

36) Г. Н. Ким, указ. соч., с.118.

국가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고려인들의 정착상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소련의 전국인구조사에 따른 키르기즈스탄 고려인들의 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즉 1939년에 508명, 1959년에 3,622명(총인구의 0.1%), 1970년에 9,404명(0.3%), 1979년에 14,481명(0.4%), 1989년에 18,355명(0.4%), 그리고 1994년에는 18,558명(0.4%) 등이다. 1959-1989년 30년 동안 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고려인 수는 거의 6배나 증가하였던 것이다. 타지키스탄에 고려인들이 출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초였으나 그 수는 극히 적었다.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걸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의 대규모 이주의 원인은 인근의 키르기즈스탄의 경우와도 같았는데 당시의 거주지 제한조치의 해제, 이주의 자유, 좋은 기후와 풍부한 천연자원, 새로운 생활의 가능성 등이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고려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즉 1939년에 43명, 1959년에 2,365명, 1970년에 8,490명, 1979년에 11,179명, 그리고 1989년에는13,431명이었다.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주로 수도인 두샨베, 레니나바드 인근(오늘날 후잔트) 그리고 남부지역인 쿠르간튜브에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한때 1만 3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있었던 타지키스탄에는 현재 고려인 수가 1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37]

이 지역의 고려인들의 급격한 감소는 무엇보다도 소련 붕괴 이후 발생한 내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91년 독립 직후에 발생한 내전으로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1992년에는 러시아가 내전을 중지시킨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내전의 후유증으로 수도인 두샨베에서는 폭탄테러와 암살이 자주 자행되었으며,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얽힌 여러 세력들(공산당원, 타지크족벌, 소규모 이슬람군, 군사지도자들) 간의 무력충돌은 1997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타지키스탄의 고려인들로 하여금 또 이주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7) Там же, с.138-142.

마지막으로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으로의 이주의식은 어떠할까.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시행하려는 방문취업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한해서만 한국에 연고가 없는 경우 한국어 시험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을 신청한 고려인은 우리 정부가 예측한 규모보다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다. 제도 초기여서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겠지만 고려인들은 아무리 취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가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경우 경제성장 노상에 있는 인근의 카자흐스탄으로 취업하러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기기도 한다. 취업의 경우가 이럴진대 영주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고려인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연구논문으로는 1981년에 이미 이문웅이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중앙아시아 한인동포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우선 1994년 배재대학교의 김우승과 이길주는 각각 「이슬람- 정교문화의 충돌과 CIS한인의 정치적 위기: 종교사회학적 분석」, 「CIS 한인동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문화적 측면」을 발표한 바 있다. 1996년에는 재외한인학회의 『중앙아시아 현지조사자료집』, 한국사회사학회의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과 같은 논문집들이 발표되었다. 1998년에는 이광규 교수의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토착문화의 융합문제」가 발표되었고, 재미교포사회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던 윤인진은 재미교포사회 연구 시 적용하였던 틀을 다시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을 『재외한인연구』에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알마티 한국교육원 외에 다수 연구자들이 참여한『카자흐스탄한인사』, 『소련 붕괴이후의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와 한인사회』, 석사학위 논문으로「카자흐스탄 고려사람의 민족정체성 변화과정 연구」가 같은 해에 발표되어 연구가 활성

화되었다.

1999년에는 임홍빈이 「카자흐스탄 한인 동포와 모국어」, 정치학자인 임채완이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김문옥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여 고려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계속 이어갔다. 2000년에 발표된 고려인 관련 연구들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전반적인 특성, 고려인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 고려인의 문화적인 자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0년 6월 전남대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려인 연구자인 카자흐스탄의 김 게르만은 고려인과 관련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활동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최 스베틀라나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 상황에 대한 현지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부 국내 연구자의 논문은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방적인 시각과 이해만으로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2000년도에는 재외동포재단 지원으로 「현지정착 지원을 위한 러시아 3,4세 고려인 일상생활문화 변화 연구: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를 중심으로」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의 두 편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들 두 연구보고서는 제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 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연구진이 어떠한 인식에서 연구를 착수하였는지, 아울러 어떠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려인의 문화변화라는 부분을 러시아문화와 고려인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고려인의 러시아화 경향 심화 및 향후 젊은 세대의 문화변화 방향에 대한 일정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반면 후자는 사회·문화생활 및 민족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고려인의 사회·문화변화를 총체적인 문화의 측면에서 다루지 못하고 개별 학문별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5개 연구주제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미

흡한 수준이다. 2001년에 들어와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실시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현지 조사보고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방대한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시적인 시점에서 2000년 내지는 2001년 현재의 고려인문화만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2001년 말에는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언어상황과 한국어의 지위」, 「한국의 IMF 체제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위상고찰과 접근방법론」,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2001년 재외동포재단 위탁과제인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신흥 고려인 사회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연구: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성과물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2001년도의 연구성과물들은 고려인연구가 점차 지역이나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남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카프카즈,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고려인 사회의 독특성을 소개하는 글들은 연구주제의 지역단위 세분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2001년의 이러한 성과물 가운데 고려인연구가 전문이 아닌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사전학습을 소홀히 한 결과, 이미 고려인사회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연해주 이주를 다시 주장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기도 했다.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살피는 국내의 연구 역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순한 설문지 및 짧은 형식적인 인터뷰를 통한 현장탐방식의 연구결과물들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9년까지 발표된 단행본이나 연구논문들은 대부분이 고려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만을 하고 있으며, 현지의 러시아어로 된 1차 사료는 거의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고려인을 중심으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연구는 당위적이거나 피상적인 결론만을 내리고 있었다.

5.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방안

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활용의 의의

현재 재외동포는 세계 14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규모는 남북한 총 인구의 8%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지역적으로 이들은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세계 강국들에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동포의 역량을 집결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민족동질성 회복, 모국과의 사회·경제·문화적 교류의 증대, 거주국에서의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서 재외동포를 모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모국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도화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부는 1999년 8월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방적인 정책은 한편으로는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생활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인적·물적 차원에서의 모국진출은 재외동포의 투자 여력의 약화, 사회·문화적 차이, 투자환경의 미성숙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쳤다. 더욱이 최근 들어 사회문제가 된 해외파 연예인들의 병역문제는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중적 시각을 표출한 예이다. 그리고 증가하는 재중동포의 국내 불법 입국·취업·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기업·시민 단체들간의 불협화음과 갈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많은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역, 이중국적, 인권, 재외동포의 취업기회와 국내노동시장 보호 등과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는 남북한 간의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키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크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국적개념이 아니고 동포애로서 남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통일을 정치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산가족문제·체육·예술 및 학술교류 등 각 분야에서 통일과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일본 동포들은 경제적 지원, 기술이전, 사업 활동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선진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중국과 독립국가연합동포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전환으로 인해 겪게 될 시행착오와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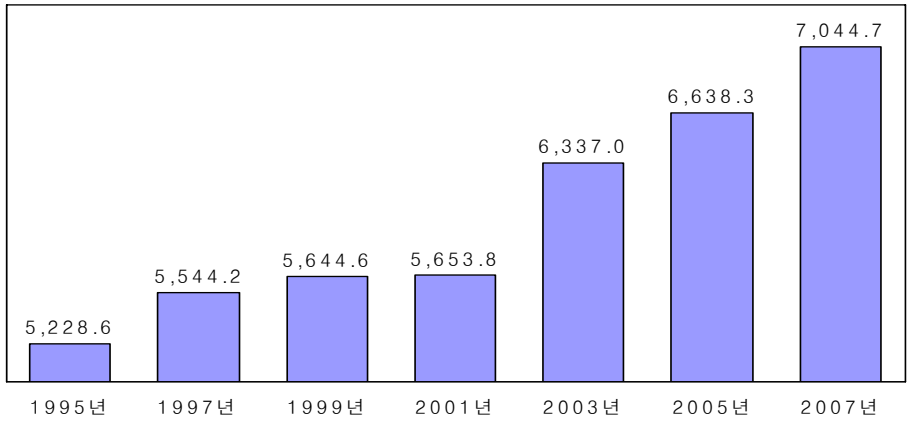
(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의 규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진곤. 1997). 첫째는 한일합방을 전후로 하여 해방 전후까지 고국을 떠난 유민세대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일본, 미국 등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를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는 6·25전쟁 이후 살길을 찾아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등 세계를 무대로 이민한 해방 후 이민 세대들이다. 셋째는 국력 신장과 더불어 한국국민의 해외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Ⅱ-1]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인, 유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세계 160여 개 국에 약 704.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재외국민의 수는 1971년 70만 명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배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7년의 554만 명에서 매년 평균 2.4%씩 꾸준히 증가하여 1.27배에 이르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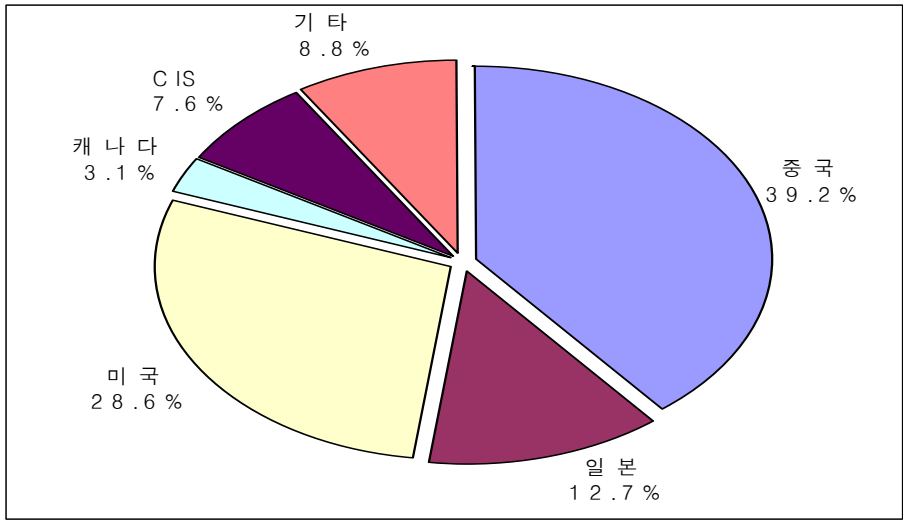
이 중 가장 많은 거주국은 중국으로서 전체 재외동포의 39.2%인 276만 명의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북미로서 31.7%(미국 28.6%, 캐나다 3.1%)인 223만 명이, 일본은 12.7%, CIS은 7.6% 등이며, 이들 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의 규모는 무려 90% 이상에 이른다. 그 밖에 나머지 10% 내외는 세계 각지의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단위 : 천명)



자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각 년도.

[그림 Ⅱ-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규모 추이



자료: 외교통상부(2007),『재외동포현황』.

[그림 Ⅱ-2] 지역별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분포(2007년 기준)

재외동포의 최근 지역별 변화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재외동포 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24>에서 보듯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 거주 동포는 감소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의 경우는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거주 동포수는 감소하고 있고, 그 밖에 구주지역의 경우는 독립국가연합 및 나머지 유럽 지역 거주 동포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표 Ⅱ-24> 재외동포 분포의 지역별 변화

(단위: 명, %)

	2003년	2005년	2007년	2003년대비 증가율
총 계	6,336,951	6,638,338	7,044,716	6.12
- 아 주 지 역	3,239,904	3,590,411	4,040,376	12.53
·일 본	898,714	901,284	893,740	-0.84
·중 국	2,144,789	2,439,395	2,762,160	13.23
·기 타	196,401	249,732	384,476	53.96
- 미 주 지 역	2,433,262	2,392,828	2,341,163	-2.16
·미 국	2,157,498	2,087,496	2,016,911	-3.38
·캐 나 다	170,121	198,170	216,628	9.31
·중 남 미	105,643	107,162	107,624	0.43
- 구 주 지 역	652,131	640,276	645,252	0.78
·독립국가연합	557,732	532,697	533,976	0.24
·유 럽	94,399	107,579	111,276	3.44
- 중 동 지 역	6,559	6,923	9,440	36.36
- 아프리카지역	5,095	7,900	8,485	7.41

자료: 외교통상부(2007),『재외동포현황』.

(2)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의 분야별 활동

재외동포를 거주자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재외동포 중 53.7%가 그 국가의 시민권자이고, 그 다음으로 23.4%가 영주권자 등 전체 재외동포의 80%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세계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동포의 경우는 18.1%에 해당한다. 각 지역별로 보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중국, 북미, 일본, 구주 및 아주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유학생 수는 북미가 가장 많으며, 구주와 중국, 일본에 주로 유학생들이 진출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학생 수는 이들 지역에 선진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중국의 유학생의 수는 현재 새로운 부상국인 중국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진출하여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유학생보다 일반 인구의 해외 진출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건설 및 원유

사업 외에도 값싼 노동력을 위해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25> 거주자격별 각 지역의 재외동포 분포

(단위: %)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유학생	총계
합계	53.7	23.4	18.1	4.7	100.0
중국	81.5	0.1	16.2	2.2	100.0
일본	0.0	83.1	13.9	2.9	100.0
미국	41.8	35.7	17.8	4.7	100.0
캐나다	46.3	34.9	8.8	10.0	100.0
독립국가연합	92.0	5.5	1.9	0.6	100.0
기타구주지역	11.7	17.7	34.3	36.4	100.0
아주지역	7.9	10.9	63.5	17.6	100.0
중남미지역	18.5	70.0	11.1	0.4	100.0
중동지역	0.9	0.2	96.6	2.3	100.0
아프리카지역	2.0	14.2	76.5	7.3	100.0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재외동포현황』.

한편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의 사회문화 적응과정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보인다.

첫째, 이주 초기에는 다수집단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한인 특유의 근면성과 신분상승에의 강한 욕구로 인해 점차 사회의 중산층으로 진입한다. 비록 재외동포 중 하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흑인, 멕시칸, 푸에트리칸처럼 영구적인 하류계층으로 전락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인들이 완전히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상류층으로 진입한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려워서 결국 거주국 민족계층체계에서 중간계층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한인들로 하여금 정치, 군사, 공직분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의 소지가 적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는 자영농업 또는 자영사업

에 참여하게 하였다. 자영업 중에서도 현지 주류집단 성원이 경시하거나 기피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북미의 경우 이민 1세가 자영업을 통해 축적한 물적 자본을 자녀교육에 투자하여 2, 3세들이 전문직, 화이트 칼라직에 종사하여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차세대 동포의 전문직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넷째, 이민역사가 짧은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들은 물론이고 이민역사가 긴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한인들은 강한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성은 전적으로 한민족의 혈통과 전통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국에서의 집단적 경험이 함께 강조되는 이중정체성의 성격을 띤다.

다섯째, 재외동포의 세대가 멀어질수록 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의식,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윤인진 외. 2005).

해외동포 중 고급, 전문인력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의학 포함)의 분야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재외동포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의 등장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포 정치인의 수는 적지만, 동포 2~3세 중에는 영향력 있는 실무자가 많다. 예를 들면 Washington D.C. 지역에서 의원 보좌관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약 20여명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인 2세 정치인 후원장학회가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에도 공산당 및 몇몇 고위직에 재외동포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몇몇 개인들이 주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단체를 형성하여 제외동포들의 힘을 키워나가려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 특히 재외 동포 중에서 경제 분야에서 거주국 사회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기업인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벤처 사업가들은 재외동포 사업가 중에서 소수이고 대다수는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의 사업규모는 개별적으로는 작지만 합치면 큰 규모가 되고 거주국 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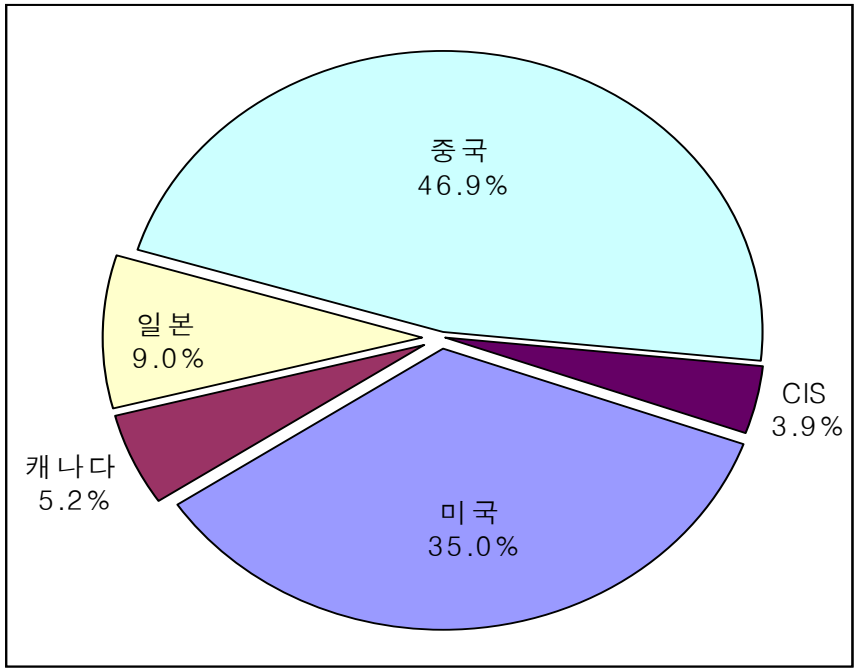
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Korean Grocers' Association(KAGRO)인데 이 조직은 미국 전역의 한인 청과상인들의 연합체로서 공동구매 또는 보이코트 등으로 미국 대기업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서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재미동포의 경우 과학기술자협회, 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와 같이 지역별 조직뿐만 아니라 전 미주를 망라하는 중앙조직을 갖고 전 미주규모의 정례적 모임도 연다. 과학기술자협회는 회원들 사이의 활발한 정보제공의 장일 뿐 아니라 미국과 본국의 일자리 주선까지 한다. 한편 구소련 체제하에서 우수한 한인동포들이 군사, 과학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데 1989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추이

재외거주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규모 및 구조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해외동포 전체 통계를 이용하며, 추정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고 있는『해외동포통계』자료상 각 지역별 재외동포의 규모와 직업구조로서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학생, 기타의 비중을 이용하여 각 재외동포 인적자원 중 학생을 청소년 인적자원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 세부 지역별로 구한 후 합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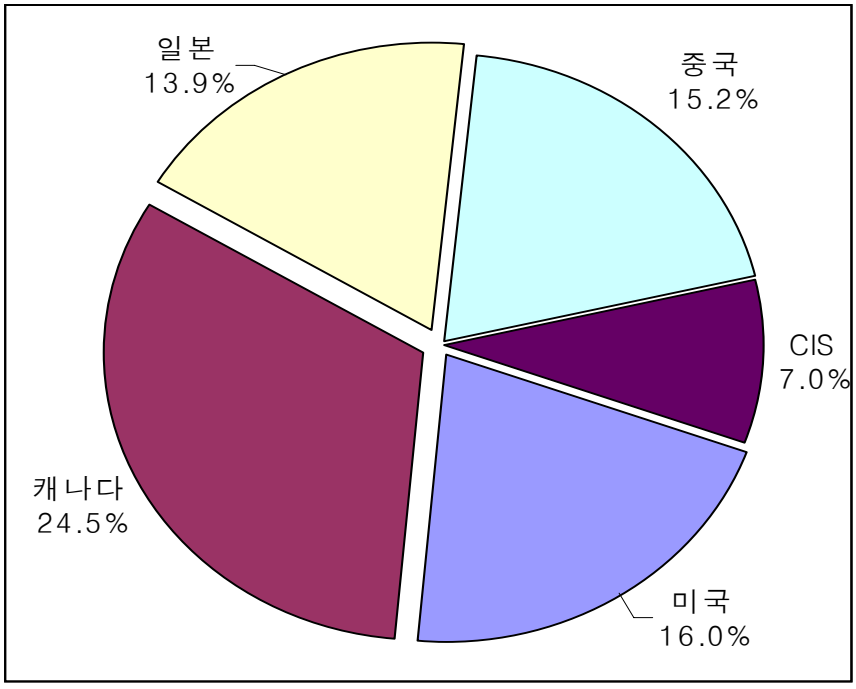
추산 결과, 2007년 기준으로 중국, 일본, 북미(미국, 캐나다), 독립국가연합의 4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재외동포의 규모는 약 93.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들 지역의 총 재외동포 규모 중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그림 Ⅲ-3]에서 제시하였듯이 중국이 44만 명으로서 46.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미가 40.2%(미국 35.0%, 캐나다 5.2%), 일본 9.0%(85천 명), 독립국가연합 3.9%(37천 명) 등의 순서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다.



자료: 외교통상부(2007),『재외동포현황』.

[그림 Ⅱ-3] 지역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분포(2007년 기준)

한편, 각 지역별로 전체 재외동포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비교하면, [그림 Ⅱ-4]에서 나타나듯이 북미(미국,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는 전체 한민족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일본(13.9%)과 독립국가연합(7.0%)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외교통상부(2007),『재외동포현황』.

[그림 Ⅱ-4] 전체 재외동포 중 한민족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2007년 기준)

3) 재외동포 지원 정책[38)]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성과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한 것이다. 이는 현행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이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는 '현지화'에 대한 강조로 인해 동포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재 동포정책 목표는 ①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②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③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이다. 정책방향으로는 ①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 ②거주국내에서의 법적·사회적

38) 김남희 외(2005). 국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함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지원, ③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④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 각종 사업 추진, ⑤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⑥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설정하였다.

한편, 17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문제가 재 논의되었다.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의원은 초기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또 다시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재외동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동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지향하는 재외동포기본법보다는 교육문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총리실 내에 재외동포처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학자, 정치인, 정부 관료, 시민단체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형식상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최고 심의기구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외동포업무 관련부처 장관 10명, 재외동포연구단체와 전문가 및 재외동포지도자, 관계부처 및 기관장 등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②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 ③재외동포와의 유대강화, ④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 ⑤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및 심의, ⑥기타 재외동포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한 내용에 대한 심의·조정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의·조정기능만 있지 정책수립 및 의결기능을 갖지 않는다. 1996년 5월 1차 회의 이후 3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재단 설립 문제, 주요 재외동포 관련 사업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였으나 1998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004년 11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현지화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 내 사업 주관기관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재외동포 교육자 초청사업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재외한국학교 현지교원 초청연수’ 등 교육부, 문화관광부, 재외동포재단이 중복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화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개최하는 ‘세계한민족축전’,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한민족 문화제전’에 대해서도 별도 개최로 초래되는 예산낭비, 사업효과 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방송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를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밖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열어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외에 정부부처 중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정책 주무부서로서 일을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영사국 내의 재외국민이주과를 통해서 “국민의 해외진출과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보호·육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연구 및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재외동포 관련 행정업무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문화·체육분야의 교류사업은 문화관광부, 재외동포 과학기술자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재외동포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Ⅱ-26>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부처 및 사업내용

소 관 부 처	주요 사업 내용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 최고 심의기구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및 심의 ○기타 재외동포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한 내용에 대한 심의 조정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관련정책 수립 ○재외동포재단 지도·감독 - 재외동포사회 발전 및 권익향상 지원사업, 민족문화 및 민족 정체성 유지사업, 동포간 교류강화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재외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운영 및 교사파견 ○재외동포학생 단기교육 및 연수 ○재외한글학교 교원 연수 ○재외동포교육용 교과서 공급
법 무 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문화관광부	○세계한민족 축전 등 문화교류사업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사업 ○겨레문화창의단 활동(한국/전통문화 전문인력의 동포사회 파견 활동)
통 일 부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등 재외동포대상 통일정책 홍보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
여성가족부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재외동포 여성지도자 국내연수

Ⅲ. 주요국의 한민족청소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실태 조사 비교 분석
4. 요약 및 소결

Ⅲ. 주요국의 한민족청소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 비교 조사는 중국, CIS, 일본, 북미 지역을 맡은 세부 과제 책임자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각 과제 책임자들로부터 설문 조사 데이터 파일을 건네받은 후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 합쳐서 4개국 통합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고, 각 나라에서 배부한 설문지 중에 4개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중국 지역의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5개 지역인 연변자치주, 북경, 산동성(청도, 연태 등), 요녕성(대련, 단동, 심양 등) 및 기타지역(흑룡강성, 상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전체응답자수는 845명이었으나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여 810명을 최종 응답자수로 확정하였다. 조사는 외국인 연구자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세부 과제 책임자가 설문지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주관한 후 현지에 있는 각 지역의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쉬켄트와 타쉬켄트 주,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와 탈디쿠르간 등의 지역 등이 조사대상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 16~24세에 해당하는 설문지만을 골라서 분석하였고, 우즈베키스탄 316명, 카자흐스탄 100명의 자료를 합쳐서 CIS지역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중에 자료의 양식이 다른 2명을 제외한 414명의 자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를 활용하여 15세~24세까지의 청소년을 추출한 후, 무선표집 방법으로 선출된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적 및 조선적을 소유한 15세~24세까지의 청소년들로써 1980년대 전후에 도일한 뉴커머의 자녀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지조사기간은 2007년 5월말 현지 예비조사를 거쳐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조사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재일한인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들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총 633부였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인 Surveymonkey.com에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총 821명이 참여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 사례를 제외한 769개의 설문 결과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워싱톤 디씨, 어버나 샴페인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각 나라별 유효 설문 사례 수는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 나라 별 유효 설문 사례 수

(단위: 사례수(%))

나라	설문 사례 수(%)
중국	810(30.8)
CIS	414(15.8)
일본	633(24.1)
북미	769(29.3)
합계	2626(100)

2. 조사 내용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부모와 가정 형편에 대한 내용(부모와 가정형편),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가치관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한민족 정체성 관련),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에 대한 내용(네트워크 구축 관련) 등 총 62문항이다(<표 Ⅲ-2> 참조). 이 중에 종교에 대한 질문과 부모님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질문,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은 각 나라별로 설문지에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각 나라별로 고유하게 설문에 포함된 질문들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Ⅲ-2> 설문지 내용과 문항 수

설문지 내용	문 항 수
기본 인적 사항	7
부모와 가정 형편	8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 생활	7
한국에 대한 관심	17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6
한민족 정체성 관련	7
네트워크 구축 관련	10
합계	62

3. 실태 조사 비교 분석

1) 분석 방법

(1) 기술 통계치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토대로 해외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치는 각 나라별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 문항의 응답 형태가 유목변인인 경우는 빈도 자료를 산출하였고, 응답형태가 연속변인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국가 간 비교

각 문항마다 구해진 기술통계치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응답형태가 유목변인인 경우에는 χ^2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각 셀 당 사례수가 5보다 작은 경우는 χ^2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빈도 자료만을 제시하였고, 빈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응답형태가 연속변인인 경우에는 F-test를 실시하였고, F-test결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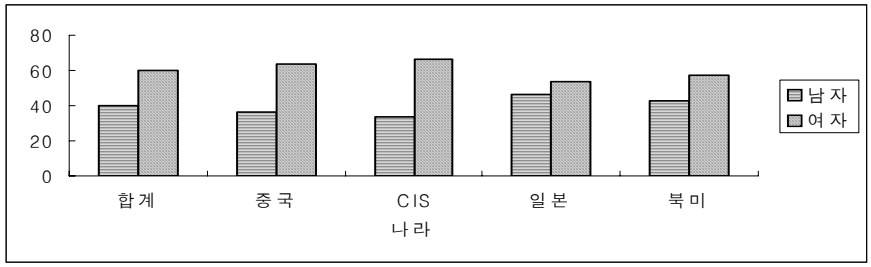
(1) 기본 인적 사항

4개국 통합 비교 분석에 포함된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13~26세에 해당하는 2626명이었다. 본 비교분석에 포함된 재외한인 청소년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CIS지역은 여자가 남자의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2=22.14, p<.001).

<표 Ⅲ-3> 나라별 성별 구성

(단위: 사례수(%))

나라	남자	여자	합계
중국	296(36.6)	512(63.4)	808(100)
CIS	139(33.7)	273(66.3)	412(100)
일본	291(46.0)	341(54.0)	632(100)
북미	32742.5)	442(57.5)	769(100)
합계	1053(40.2)	1568(59.8)	26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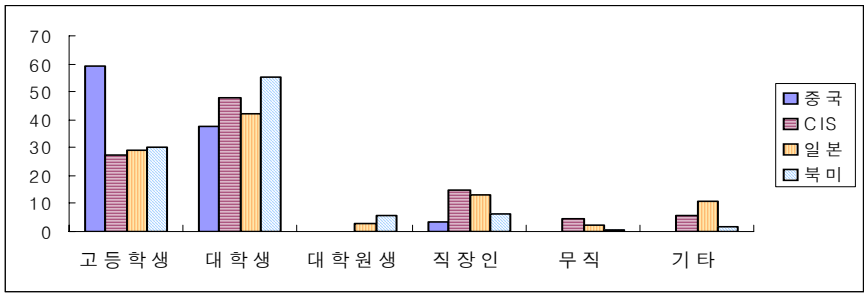
[그림 Ⅲ-1] 나라별 성별 구성

본 설문에 참여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대부분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분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표Ⅲ-4>, [그림Ⅲ-2]참조). 전체 인구의 84%가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분이었지만, CIS지역의 경우는 24.9%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일본의 경우는 26.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직장인과 무직 혹은 기타에 표시함으로써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현재신분

(단위: 사례수(%))

나라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무직	기타	합계
중국	4799 (59.4)	301 (37.3)	0 (0)	26 (3.2)	0 (0)	0 (0)	806 (100)
CIS	112 (27.4)	195 (47.7)	0 (0)	60 (14.7)	19 (4.6)	23 (5.6)	409 (100)
일본	182 (28.9)	266 (42.3)	17 (2.7)	82 (13.0)	15 (2.4)	67 (10.7)	629 (100)
북미	232 (30.4)	421 (55.2)	42 (5.5)	49 (6.4)	5 (0.7)	13 (1.7)	762 (100)
합계	1005 (38.6)	1183 (45.4)	59 (2.3)	217 (8.3)	39 (1.5)	103 (4.0)	26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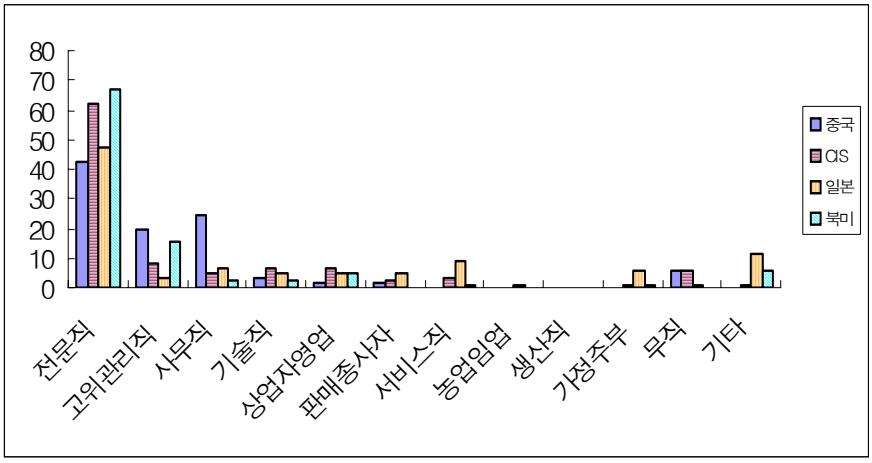
[그림 Ⅲ-2] 현재 신분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77.7%가 장래 직업으로 사무직과 고위관리직, 전문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5>, [그림Ⅲ-3]참조). 외국에 살면서 한인으로서의 차별을 적게 경험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전문직이나 고위관리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녀가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갖기를 소원하는 한국 부모들의 요구가 자녀의 직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사료된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이러한 직업 선호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을 경우 향후 이들이 한국을 위한 훌륭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외국에서 국익을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표 Ⅲ-5> 장래직업

(단위: 사례수(%))

나라	전문직	고위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상업자 영업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농어 임업	생산직	가정 주부	무직	기타	합계
중국	338 (42.4)	156 (19.5)	196 (24.6)	25 (3.1)	12 (1.5)	15 (1.9)	0 (0)	3 (0.4)	3 (0.4)	2 (0.3)	48 (6.0)	0 (0)	798 (100)
CIS	238 (62.0)	30 (7.8)	18 (4.7)	26 (6.8)	25 (6.5)	8 (2.1)	12 (3.1)	0 (0)	0 (0)	3 (0.8)	21 (5.5)	3 (0.8)	384 (100)
일본	243 (47.6)	15 (2.9)	34 (6.7)	27 (5.3)	24 (4.7)	24 (4.7)	44 (8.6)	4 (0.8)	1 (0.2)	31 (6.1)	6 (1.2)	58 (11.4)	511 (100)
북미	453 (66.7)	103 (15.2)	19 (2.8)	16 (2.4)	36 (5.3)	2 (0.3)	7 (1.0)	0 (0)	0 (0)	4 (0.6)	2 (0.3)	37 (5.4)	679 (100)
합계	1272 (53.6)	304 (12.8)	267 (11.3)	94 (4.0)	97 (4.1)	49 (2.1)	63 (2.7)	7 (0.3)	4 (0.2)	40 (1.7)	77 (3.2)	98 (4.1)	23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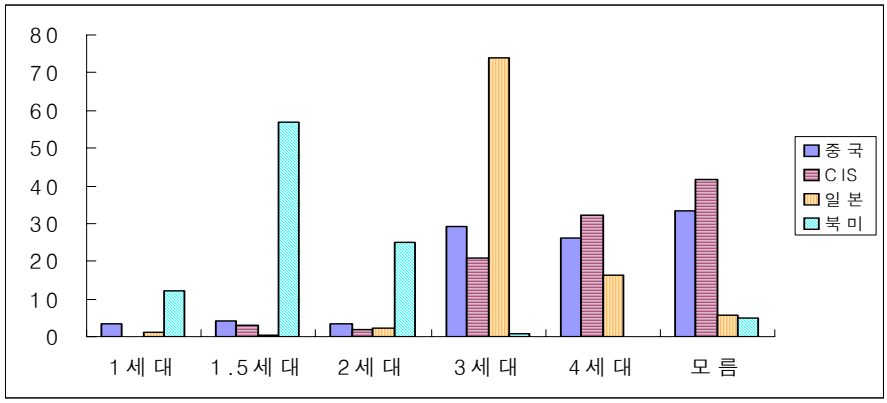
[그림 Ⅲ-3] 장래직업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민족청소년 중에 북미 지역의 경우는 본인이 이민 2세대를 넘지 않는 경우가 93.9%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의 한인 청소년이 근래에 이민 간 세대임을 알 수 있었고, 중국(55.4%), 일본(90.5%), CIS(53.1%) 지역은 이민 3·4세대인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표 Ⅲ-6>, [그림Ⅲ-4]참조).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CIS, 일본 지역은 해외 이민의 역사가 긴 반면, 북미 지역의 이민 역사는 짧은 것과 관련되어진다. 아울러 자신이 이민 몇 세대인지 모르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이 상당수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중국은 33.2%, CIS지역은 41.8%로서 자신이 이민 몇 세대인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 거주국 사회로 동화 되어가는 정도가 크며, 자신의 민족적 뿌리에 대한 인식이 쇠퇴되어 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6> 이민 세대

(단위: 사례수(%))

나라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모름	합계
중국	25 (3.6)	29 (4.2)	25 (3.6)	204 (29.3)	182 (26.1)	231 (33.2)	696 (100)
CIS	0 (0)	12 (3.2)	7 (1.9)	78 (20.7)	122 (32.4)	157 (41.8)	376 (100)
일본	6 (1.0)	3 (0.5)	15 (2.4)	456 (74.1)	101 (16.4)	34 (5.5)	615 (100)
북미	92 (12.0)	437 (57.0)	191 (24.9)	6 (0.8)	1 (0.1)	39 (5.1)	766 (100)
합계	123 (5.0)	481 (19.6)	238 (9.7)	744 (30.3)	406 (16.6)	461 (18.8)	2453 (100)



[그림 Ⅲ-4] 이민 세대

(2) 부모와 가정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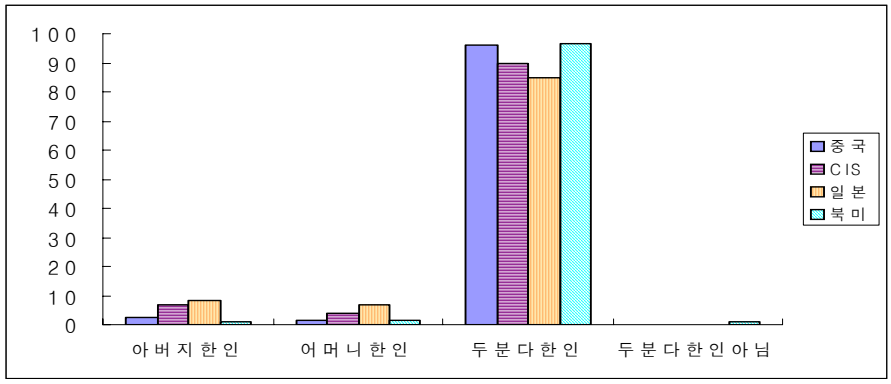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님 모두 한국분인 경우가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 [그림 Ⅲ-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사뭇 놀라운 것인데, 중국이나 일본 CIS지역처럼 이민 세대가 오래된 경우에도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이들이 비록 외국에서 생활하고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민족들이 비록 이민 간 세대는 여러 세대가 흘렀지만, 본인들이 한민족이라는 생각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양육 받는 한민족청소년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만 한국인이 경우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확률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7> 부모의 민족 배경

(단위: 사례수(%))

나라	아버지 한인	어머니 한인	두 분 다 한인	두 분 다 한인 아님	합계
중국	19(2.4)	10(1.3)	759(96.3)	0(0)	788(100)
CIS	27(6.6)	15(3.7)	368(89.8)	0(0)	410(100)
일본	52(8.5)	40(6.6)	516(84.7)	1(0.2)	609(100)
북미	6(0.9)	9(1.4)	638(96.7)	7(1.1)	660(100)
합계	104(4.2)	74(3.0)	2281(92.5)	8(0.3)	2467(100)



[그림 Ⅲ-5] 부모의 민족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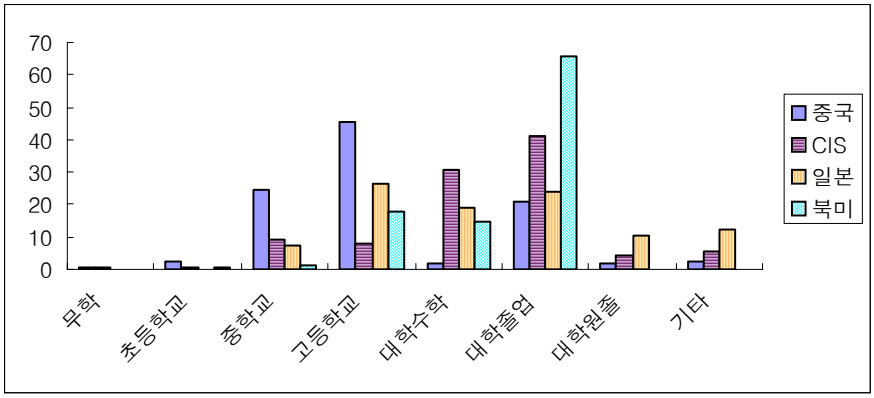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아버지의 학력은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났다(<표 Ⅲ-8>, [그림 Ⅲ-6]참조). 북미(80.4%)와 CIS(75.7%)은 대학 수학 이상의 고학력

자가 많았지만, 중국 지역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아버지가 73.1%를 나타냄으로써 국가 간 격차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일본은 고졸과 대학 수학, 대졸, 대학원 졸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Ⅲ-8> 아버지 학력

(단위: 사례수(%))

나라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수학	대학졸업	대학원졸	기타	합계
중국	5 (0.6)	18 (2.3)	195 (24.5)	363 (45.7)	17 (2.1)	165 (20.8)	13 (1.6)	19 (2.4)	795 (100)
CIS	2 (0.5)	3 (0.8)	34 (9.2)	29 (7.9)	112 (30.4)	151 (41.0)	16 (4.3)	21 (5.7)	368 (100)
일본	2 (0.3)	2 (0.3)	42 (7.2)	153 (26.2)	112 (19.2)	141 (24.2)	61 (10.5)	70 (12.0)	583 (100)
북미	0 (0)	4 (0.6)	7 (1.1)	118 (17.9)	96 (14.6)	433 (65.8)	0 (0)	0 (0)	658 (100)
합계	9 (0.4)	27 (1.1)	278 (11.6)	663 (27.6)	337 (14.0)	890 (37.0)	90 (3.7)	110 (4.6)	2404 (100)



[그림 Ⅲ-6] 아버지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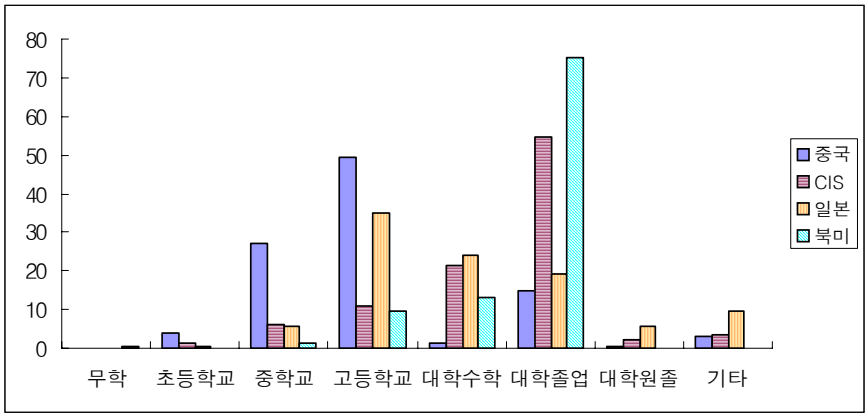
어머니의 학력도 아버지의 학력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Ⅲ-9>, [그림 Ⅲ-7]참조). 북미와 CIS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의 어머니가 중국 지

역과 비교되게 고 학력자가 많았고, 일본은 고졸, 대학 수학, 대학 졸업이 고르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9> 어머니 학력

(단위: 사례수(%))

나라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수학	대학졸업	대학원졸	기타	합계
중국	0 (0)	30 (3.8)	215 (27.1)	390 (49.2)	11 (1.4)	118 (14.9)	5 (0.6)	24 (3.0)	793 (100)
CIS	0 (0)	5 (1.4)	22(6.2)	39 (11.0)	77 (21.6)	194 (54.5)	7 (2.0)	12 (3.4)	356 (100)
일본	1 (0.2)	3 (0.5)	33 (5.6)	204 (34.8)	142 (24.2)	114 (19.4)	34 (5.8)	56 (9.5)	587 (100)
북미	2 (0.3)	1 (0.2)	8 (1.2)	63 (9.6)	87 (13.3)	494 (75.4)	0 (0)	0 (0)	655 (100)
합계	3 (0.1)	39 (1.6)	278 (11.6)	696 (29.1)	317 (13.3)	920 (38.5)	46 (1.9)	92 (3.8)	2391 (100)



[그림 Ⅲ-7] 어머니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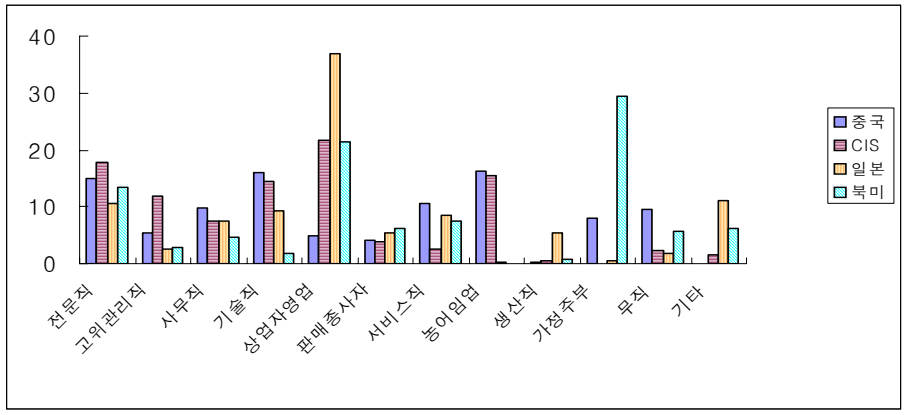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아버지의 직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Ⅲ-10>, [그림 Ⅲ-8]참조). 4개국 모두 상업이나 자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북미의 경우 가정 주부를 제외하고), 각 직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를 자녀의 장래 직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비록 부모세대는 사무직 이상의 직업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는 사무직 이상의 직업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세대에서 신분상승을 이룰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민세대가 길어질수록 한인들의 전문직에로의 유입이 많아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한민족청소년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위하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0> 아버지 직업

(단위: 사례수(%))

나라	전문직	고위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상업 자영업	판매 종사자	서비스 직	농어 임업	생산직	가정 주부	무직	기타	합계
중국	118 (15.0)	42 (5.3)	77 (9.8)	125 (15.9)	39 (5.0)	32 (4.1)	84 (10.7)	128 (16.3)	2 (0.3)	64 (8.1)	75 (9.5)	0 (0)	786 (100)
CIS	65 (17.7)	44 (12.0)	28 (7.6)	53 (14.4)	80 (21.7)	14 (3.8)	10 (2.7)	57 (15.5)	2 (0.5)	0 (0)	9 (2.4)	6 (1.6)	368 (100)
일본	61 (10.7)	14 (2.5)	43 (7.5)	53 (9.3)	210 (36.8)	31 (5.4)	49 (8.6)	1 (0.2)	31 (5.4)	2 (0.4)	11 (1.9)	64 (11.2)	570 (100)
북미	89 (13.5)	19 (2.9)	30 (4.6)	11 (1.7)	141 (21.5)	40 (6.1)	49 (7.5)	0 (0)	5 (0.8)	194 (29.5)	38 (5.8)	41 (6.2)	657 (100)
합계	333 (14.0)	119 (5.0)	178 (7.5)	242 (10.2)	470 (19.7)	117 (4.9)	192 (8.1)	186 (7.8)	40 (1.7)	260 (10.9)	133 (5.6)	111 (4.7)	2381 (100)



[그림 Ⅲ-8] 아버지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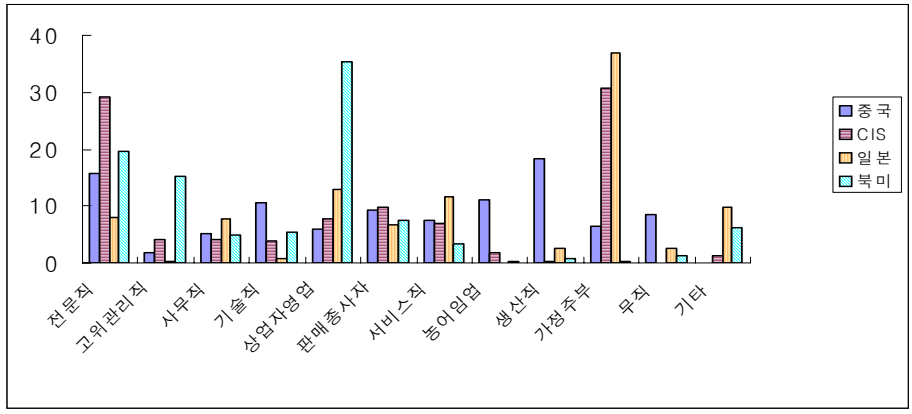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어머니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Ⅲ-11>, [그림 Ⅲ-9]참조). 일본 지역은 가정 주부가

3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미지역은 상업·자영업의 비율이 35.3%로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CIS 지역은 전문직과 가정주부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생산직 18.2%, 전문직 15.8%, 농업·어업·임업이 11.2%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1> 어머니 직업

(단위: 사례수(%))

나라	전문직	고위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상업 자영업	판매 종사자	서비스 직	농어 임업	생산직	가정 주부	무직	기타	합계
중국	124 (15.8)	14 (1.8)	41 (5.2)	83 (10.6)	46 (5.9)	72 (9.2)	58 (7.4)	88 (11.2)	143 (18.2)	50 (6.4)	66 (8.4)	0 (0)	785 (100)
CIS	108 (29.2)	15 (4.1)	15 (4.1)	14 (3.8)	29 (7.8)	36 (9.7)	26 (7.0)	7 (1.9)	1 (0.3)	114 (30.8)	0 (0)	5 (1.4)	370 (100)
일본	48 (8.1)	2 (0.3)	46 (7.8)	5 (0.8)	77 (13.0)	39 (6.6)	69 (11.6)	0 (0)	15 (2.5)	219 (36.9)	15 (2.5)	58 (9.8)	593 (100)
북미	129 (19.7)	99 (15.1)	32 (4.9)	36 (5.5)	231 (35.3)	50 (7.6)	22 (3.4)	2 (0.3)	5 (0.8)	1 (0.2)	8 (1.2)	40 (6.1)	655 (100)
합계	409 (17.0)	130 (5.4)	134 (5.6)	138 (5.7)	383 (15.9)	197 (8.2)	175 (7.3)	97 (4.0)	164 (6.8)	384 (16.0)	89 (3.7)	103 (4.3)	2403 (100)



[그림 Ⅲ-9] 어머니 직업

가족의 수입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현재의 가족 수입으로 생활하기에 넉넉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2>, [그림 Ⅲ-10]참조). 일본(M=2.61) 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중국(M=2.99)과 CIS(M=2.98)지역 이었다. 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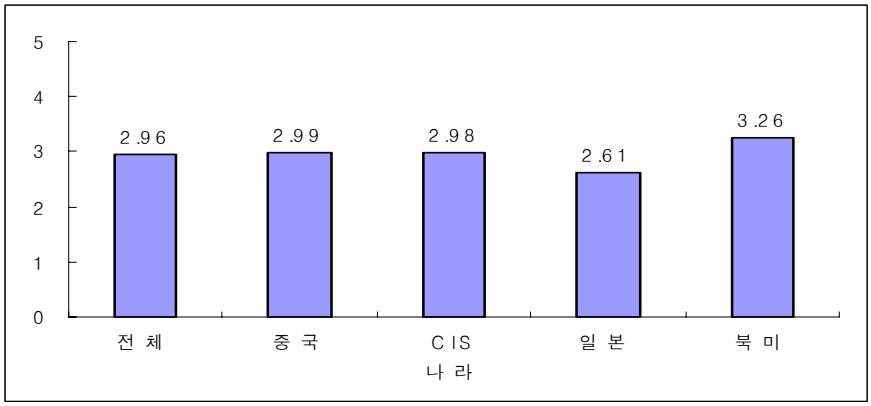
(M=3.26) 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현재의 가족수입으로 생활하기에 넉넉한 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국가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2> 가족의 수입 수준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가족의 수입 수준	2.96 (.93)	2.99 (.58)^{b}	2.98 (.55)^{b}	2.61 (1.04)^{a}	3.26 (1.20)^{c}	55.00***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그림 Ⅲ-10] 가족의 수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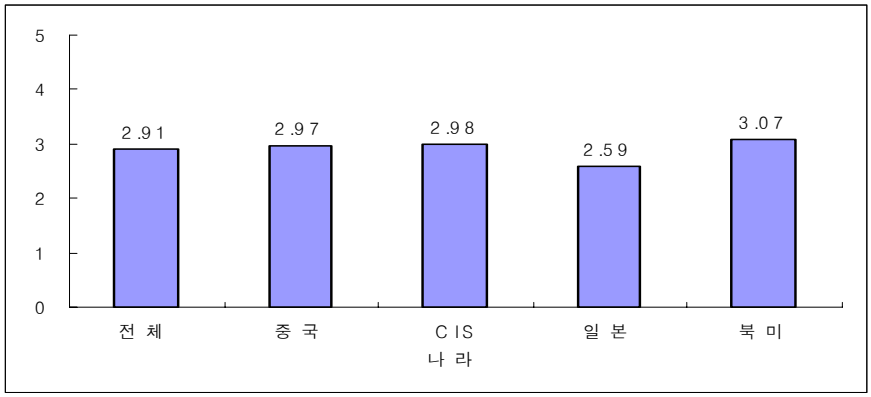
가족의 상대적 소득 수준은 위와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표 Ⅲ-13>, [그림 Ⅲ-11]참조). 북미(M=3.07)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중국(M=2.97)과 CIS(M=2.98)지역의 청소년과 함께 본인 가정의 수입 수준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이나 평균이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일본(M=2.59) 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이 질문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가족의 상대적 소득 수준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가족의 생활수준 이웃과 비교	2.91 (.79)	2.97 (.57)[b]	2.98 (.56)[b]	2.59 (.97)[a]	3.07 (.89)[b]	46.70***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그림 Ⅲ-11] 가족의 상대적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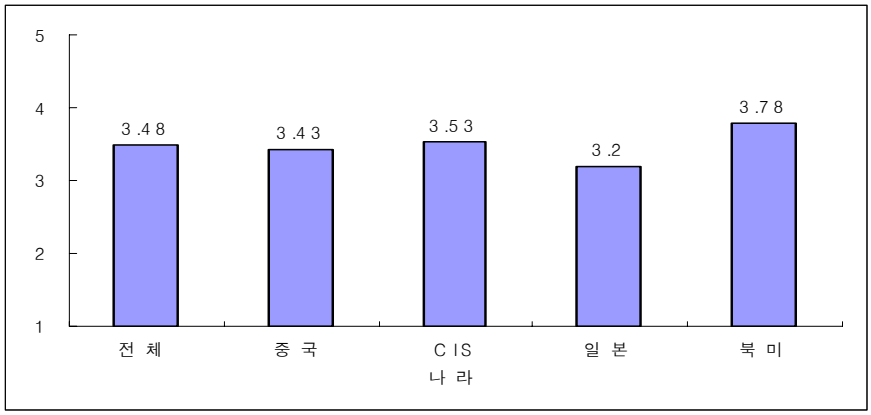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국가 모두 평균이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그림 Ⅲ-12]참조). 그 중에서도 북미(M=2.78) 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타 지역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4> 전반적인 삶 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전반적인 삶 만족도	3.48 (1.04)	3.43 (1.02)[b]	3.53 (.95)[b]	3.20 (1.03)[a]	3.78 (1.07)[c]	34.64***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그림 Ⅲ-12] 전반적인 삶 만족도

(3)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표Ⅲ-15>참조)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녀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구성된 질문이다.

① 부모와의 대화시 한국어 사용

CIS(M=1.82)와 일본(M=1.87) 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부모와 대화할 때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M=3.72)과 북미(M=4.33) 지역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 13]참조). 앞서 살펴 본 질문 중에 부모의 민족 배경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CIS나 일본 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양 부모님 두 분 다 한인인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두 지역의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확산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CIS와 일본 지역은 이민세대가 길어지면서 한국어를 잊어버렸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지역은 이민 세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각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이나 사회문화적 특이성을 고려한 해외 한민족청소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②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언급

각 국의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좋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14]참조). 특히 CIS(M=4.32) 지역은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이 북미(M=3.94)와 중국(M=3.79)이었고, 일본(M=3.33)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4 집단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부모로부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물려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원하는 정도

CIS(M=4.48) 지역의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15]참조). CIS지역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비율이 아주 낮지만,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부모들은 한국어를 잃어버렸지만 자녀들은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고려해 보면,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중국(M=3.84)이나, 일본(M=3.64), 북미(M=3.8)지역의 경우도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④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원하는 정도

부모님들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CIS(M=3.83)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될 정도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Ⅲ-16]참조). CIS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본다면 부모들은 자녀가 한

국어를 배워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북미(M=2.6)나 일본(M=2.35)지역의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CIS 지역의 결과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M=2.73)의 부모들도 자녀의 한국관련 직업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각 나라에 살면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각 거주국에서 한국과 관련이 없는 메인스트림의 직업을 가진 채 그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부모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정도는 북미(M=3.66)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국(M=3.11), 일본(M=2.49), CIS(M=2.08) 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Ⅲ-17]참조). 앞에서의 가족 수입 수준과 연계시켜 보면, 북미 지역은 타 지역보다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CIS지역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CIS지역처럼 재외동포의 생활수준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국인 한국에서 재외 한인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CIS지역의 부모들은 이미 한국어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에게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의 외부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재외 한인 청소년들이 주로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한 후에, 가정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것이지 아니면 기관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된다.

⑥ 부모가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만드는 정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는 정도는 북미(M=4.64)와 CIS(M=4.55)지역이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M=4.0), 중국(M=3.7) 순이었다([그림Ⅲ-18]참조).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4 지역 모두 한국의 음식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미 지역이 다인종 사회로서 타국의 물자가 풍부한 사회임을 감안해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CIS지역처럼 한국과의 국제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한국음식을 즐겨 먹는 것을 보면 해외 동포들의 한국의 음식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인들끼리 모여 한국음식을 해먹는 관습은 본인들이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자녀와 나누어 먹는 것은 한국의 음식문화가 자녀를 통하여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⑦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인(한인)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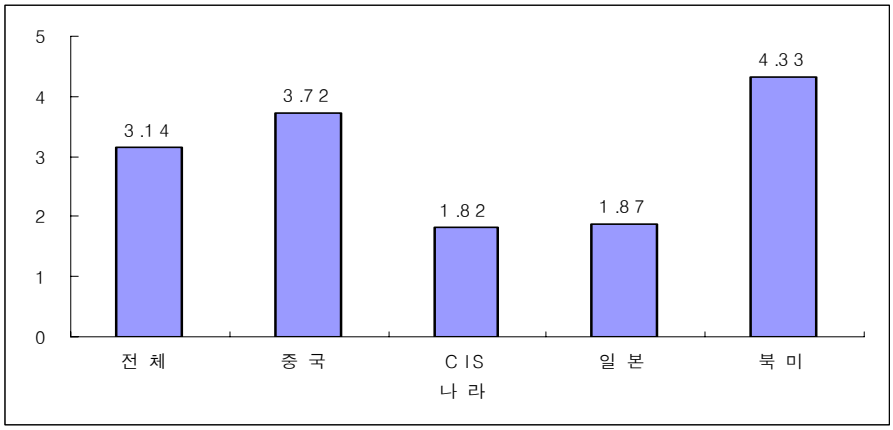
부모들이 자녀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북미(M=4.16) 지역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CIS(M=3.82)지역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9]참조). 일본(M=3.33)지역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중국(M=2.16)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라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 상에서 “한국인”에 대한 명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번역된 설문지에는 한국인으로 되어있지만 노어로 번역된 설문지에는 고려인으로 번역되어있다. 노어의 경우는 한국인의 범위가 확실하지만,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의 경우는 한국에서 유학 나가 있는 한국인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태어난 이민세대 자녀로서의 한국인일수도 있으므로 이 설문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차후에 이와 비슷한 설문을 만들 경우에는 한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Ⅲ-15>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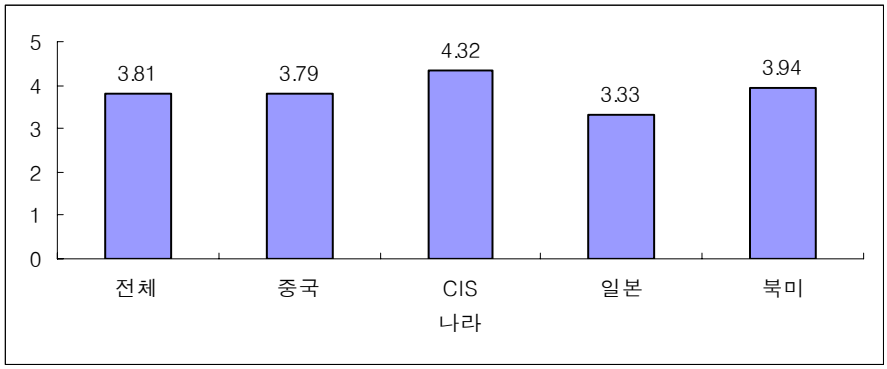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3.14 (1.60)	3.72 (1.33)[b]	1.82 (1.14)[a]	1.87 (1.07)[a]	4.33 (1.09)[c]	726.64***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하신다	3.81 (1.12)	3.79 (1.14)[b]	4.32 (.99)[c]	3.33 (1.10)[a]	3.94 (1.03)[b]	74.34***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길 원하신다	3.88 (1.19)	3.84 (1.14)[b]	4.48 (.99)[c]	3.64 (1.16)[a]	3.80 (1.26)[a,b]	46.30***
부모님은 한국 관련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2.78 (1.20)	2.73 (1.06)[b]	3.83 (1.20)[c]	2.35 (1.05)[a]	2.60 (1.13)[b]	161.86***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2.95 (1.46)	3.11 (1.38)[c]	2.08 (1.46)[a]	2.49 (1.23)[b]	3.66 (1.36)[d]	150.68***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4.17 (1.09)	3.70 (1.15)[a]	4.55 (.92)[c]	4.00 (1.09)[b]	4.64 (.84)[c]	134.32***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신다	3.26 (1.40)	2.16 (.96)[a]	3.82 (1.25)[c]	3.33 (1.35)[b]	4.16 (1.05)[d]	43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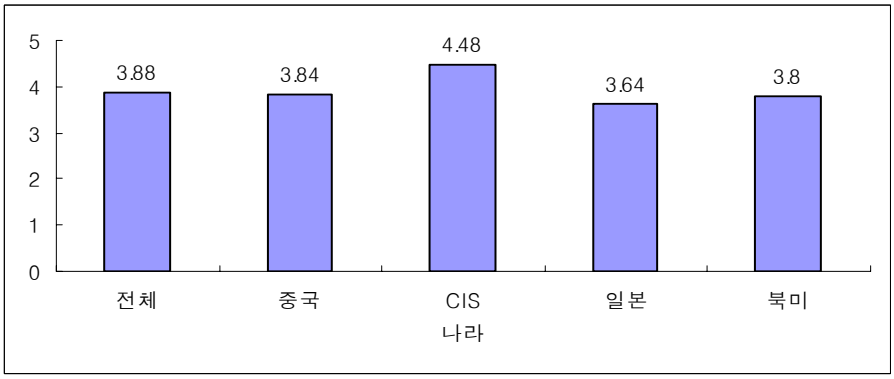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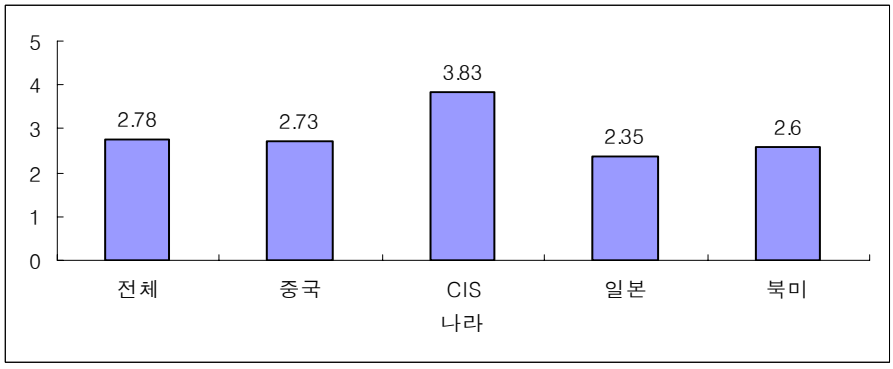
[그림 Ⅲ-13]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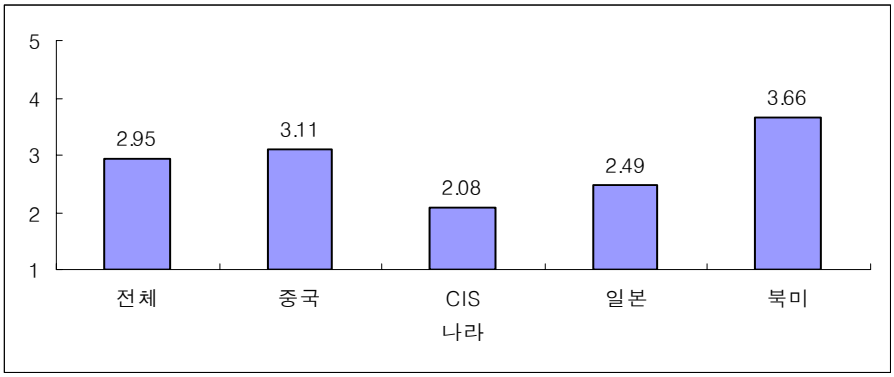
[그림 Ⅲ-14]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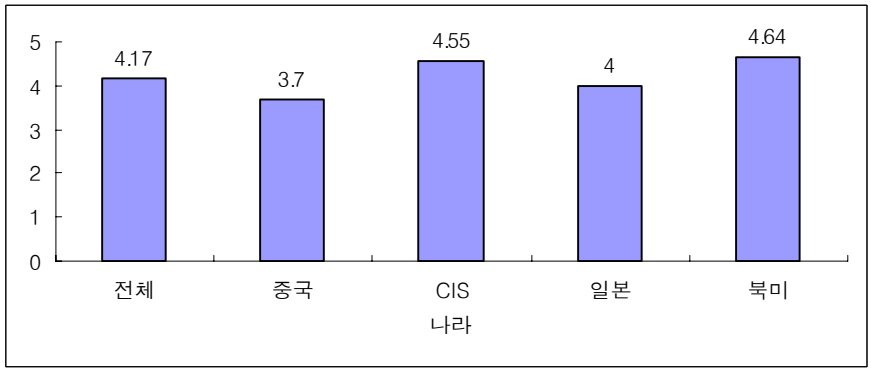
[그림 Ⅲ-15]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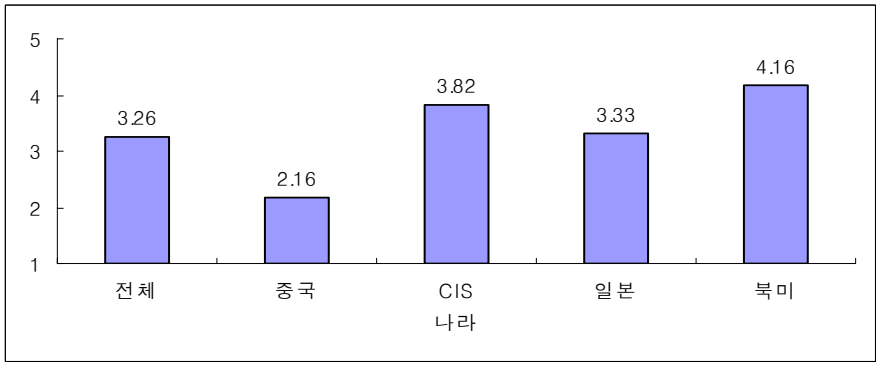
[그림 Ⅲ-16] 부모님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림 Ⅲ-17]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그림 Ⅲ-18]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그림 Ⅲ-19]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4) 한국에 대한 관심

① 한국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한국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은 CIS(M=3.57), 일본(M=3.64), 북미(3.75)지역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중국(M=2.97)지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그림Ⅲ-20]참조). 중국에 있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물어보는 4번째 질문인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문항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한국은 본인들이 언젠가는 관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② 2-3년 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2~3년 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에는 CIS(M=4.22)와 북미(M=4.04)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M=3.35)지역이, 그 다음으로는 중국(M=2.88)이 가강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1]참조). 앞으로 2~3년 내라 함은 아주 가까운 시기이며, 지금쯤은 한국 방문과 관련된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므로, CIS와 북미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미래의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③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 여부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CIS(M=3.62)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북미(M=2.94)와 중국(M=2.66), 일본(M=2.52)은 보통이하 수준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그림Ⅲ-22]참조).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시켜보면, CIS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연수나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북미 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연수나 공부 이외의 목적, 즉 친지를 방문한다거나 모국관광을 목

적으로 한 한국 방문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정도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정도는 CIS(M=4.79)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미(M=4.47)지역의 한인 청소년도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가 간의 통계적 차이는 있지만, 일본(M=4.21)이나 중국(M=3.81)지역의 청소년도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한국에 있는 또래들과 대화하고 싶은 정도

한국에 있는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4지역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CIS(M=4.49)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북미(M=4.05)지역과 일본(M=3.82)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M=3.3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4]참조).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이 한국의 청소년과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의미는 향후 한국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 거주 한인 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을 연결지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⑥ 배우자로 한국 사람 선택 여부

해외 한민족청소년이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앞에서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신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그 양상이 똑같게 나타났다([그림Ⅲ-25]참조).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앞에서 제기된 “한국인”에 대한 명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다.

⑦ 한국관련 직업 계획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는 정도는 CIS(M=3.81)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M=2.78), 일본(M=2.95), 북미(M=2.86)지역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6]참조). 설문 조사에 참여한 4국가 중에 CIS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높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 갖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⑧ 부모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정도

또한 CIS(M=3.2)지역에 있는 한인 청소년은 부모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M=2.5)이나 북미(M=2.61)지역의 청소년은 보통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7]참조). 국가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부모세대보다 한국 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않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판단에서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부모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도 4지역의 청소년이 모두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북미지역(M=2.1)은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28]참조). 위의 질문과 관련시켜 본다면, 본 설문에 참여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경우, 부모세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⑩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정도는 CIS(M=4.42)지역의 청소년이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중국(M=3.66), 일본(M=3.73), 북미(M=3.47)지역은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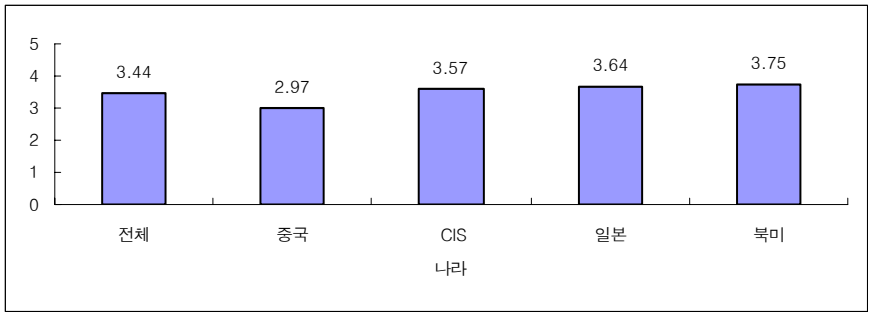
내고 있다([그림Ⅲ-29]참조).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연수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Ⅲ-16> 한국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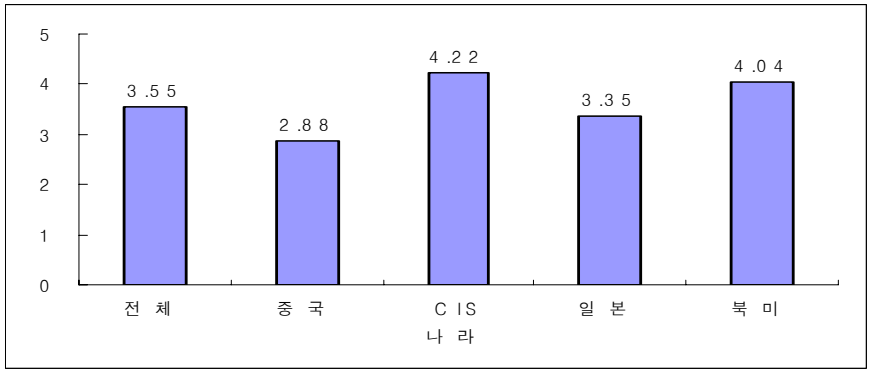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국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3.44 (1.19)	2.97 (1.05)[a]	3.57 (1.28)[b]	3.64 (1.13)[b]	3.75 (1.19)[b]	69.04***
향후 2~3년 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3.55 (1.41)	2.88 (1.27)[a]	4.22 (1.25)[c]	3.35 (1.48)[b]	4.04 (1.23)[c]	146.14***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2.87 (1.36)	2.66 (1.20)[a]	3.62 (1.46)[c]	2.52 (1.31)[a]	2.94 (1.33)[b]	64.55***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4.25 (1.06)	3.81 (1.10)[a]	4.79 (.70)[d]	4.21 (1.10)[b]	4.47 (.94)[c]	103.61***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들과 대화하고 싶다	3.85 (1.19)	3.36 (1.13)[a]	4.49 (.97)[d]	3.82 (1.22)[b]	4.05 (1.10)[c]	104.07***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3.18 (1.40)	2.09 (.97)[a]	3.80 (1.35)[c]	3.45 (1.29)[b]	3.88 (1.16)[c]	368.82***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3.01 (1.22)	2.78 (1.08)[a]	3.81 (1.29)[b]	2.95 (1.18)[a]	2.86 (1.17)[a]	78.83***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2.73 (1.26)	2.50 (1.17)[a]	3.20 (1.44)[c]	2.91 (1.24)[b]	2.61 (1.20)[a]	34.35***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2.58 (1.30)	2.76 (1.14)[b]	3.09 (1.59)[c]	2.58 (1.23)[b]	2.10 (1.20)[a]	61.76***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에 더 유리할 것이다	3.74 (1.18)	3.66 (1.10)[a,b]	4.42 (.97)[c]	3.73 (1.13)[b]	3.47 (1.26)[a]	6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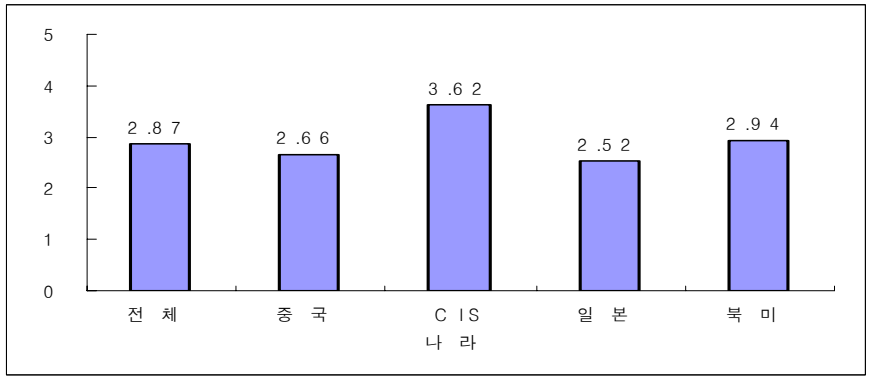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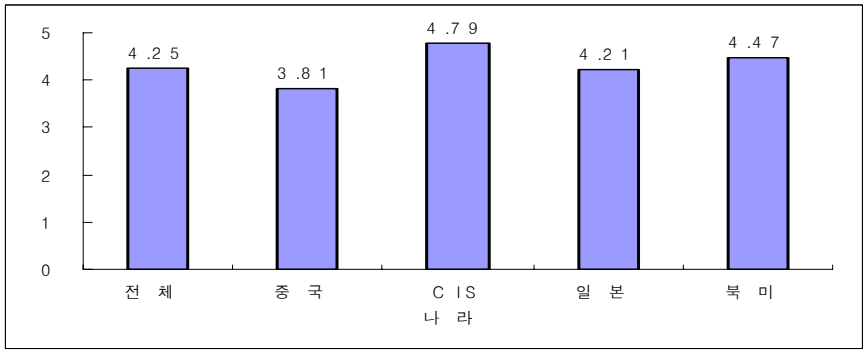
[그림 Ⅲ-20] 한국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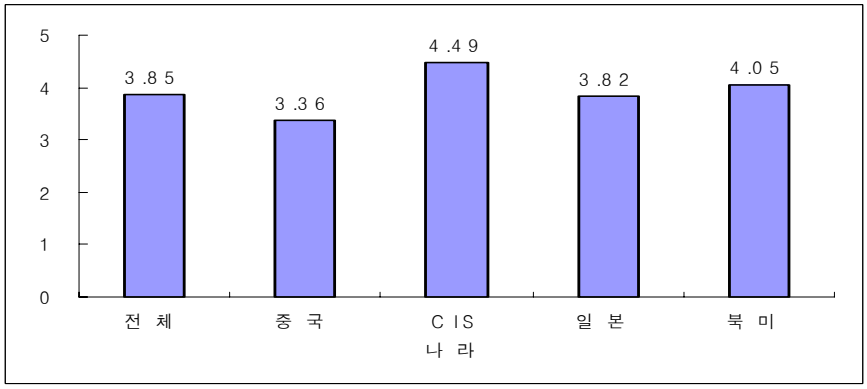
[그림 Ⅲ-21] 향후 2~3년 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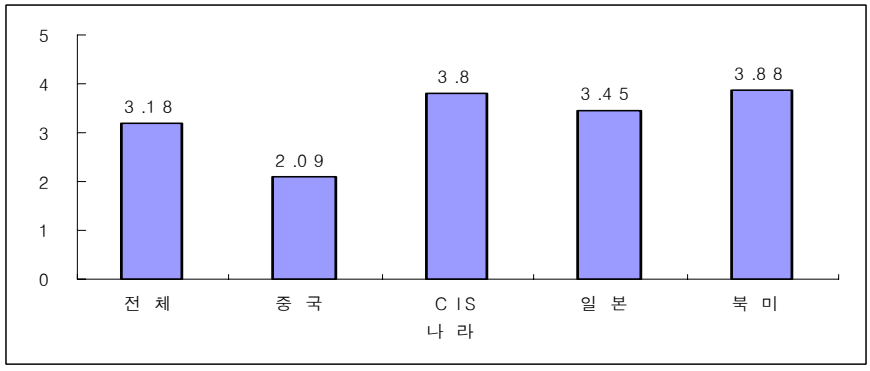
[그림 Ⅲ-22]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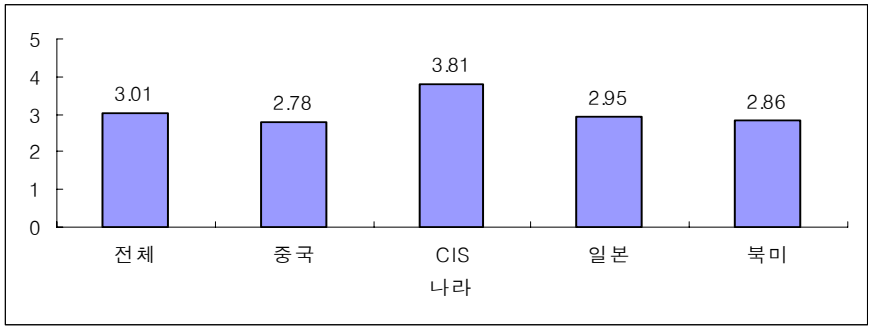
[그림 Ⅲ-23]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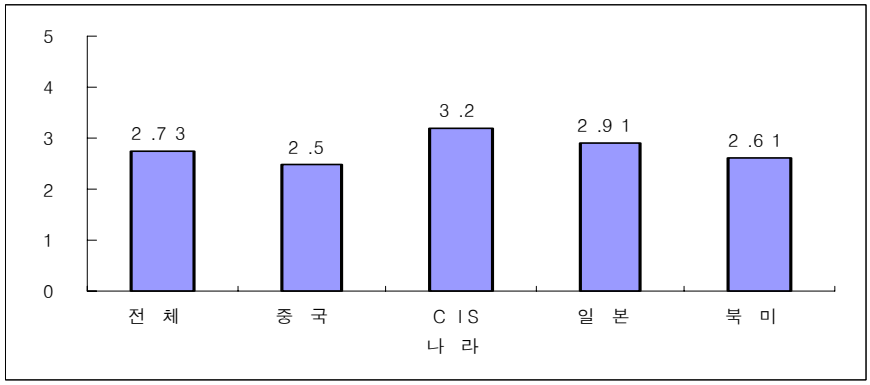
[그림 Ⅲ-24]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들과 대화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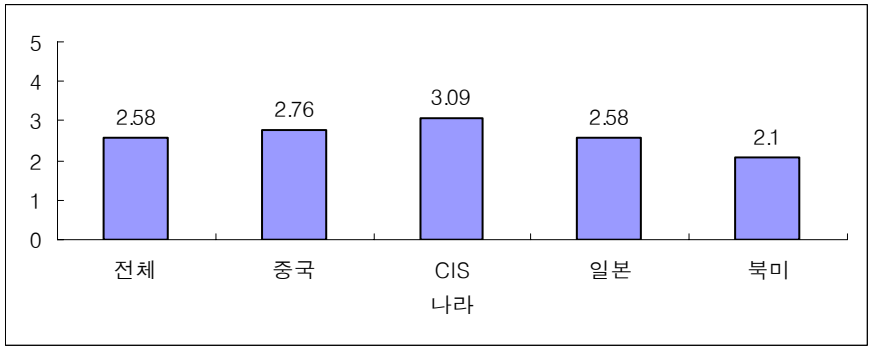
[그림 Ⅲ-25]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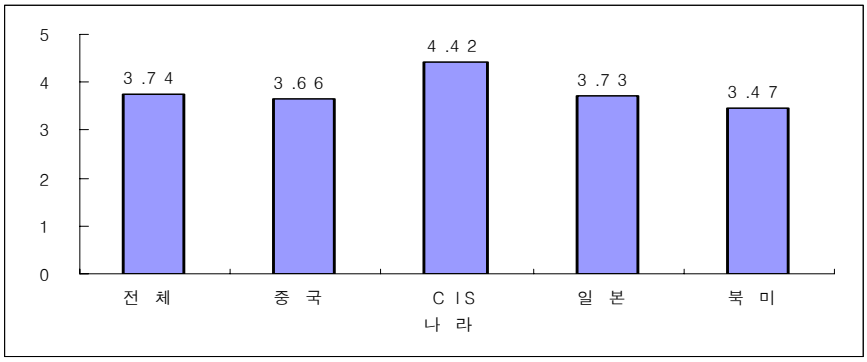
[그림 Ⅲ-26]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림 Ⅲ-27]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림 Ⅲ-28]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림 Ⅲ-29]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에 더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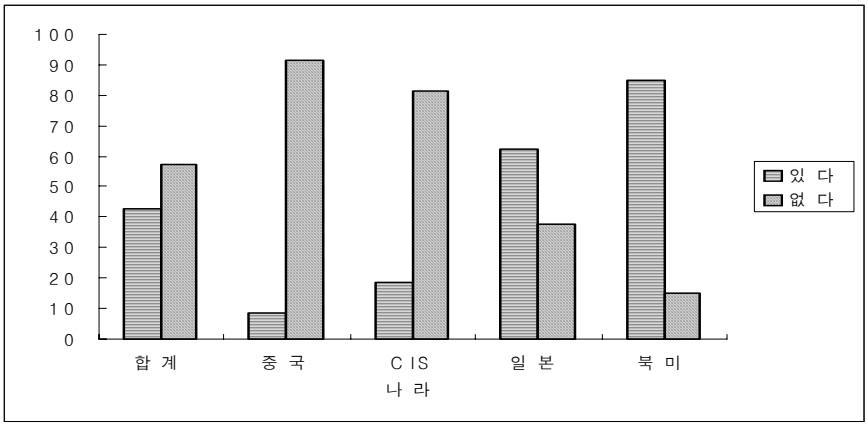
(5) 한국 방문 경험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중국과 CIS지역은 이전에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일본과 북미 지역은 이전에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χ^2=1033.38, p<.001). 중국지역은 91.4%의 응답자가, CIS지역은 81.5%의 응답자가 한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이 두 지역에서 본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7>, [그림Ⅲ-30]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미 지역은 84.9%의 응답자가, 일본지역은 62.5%의 응답자가 한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한국 방문 경험

(단위: 사례수(%))

나라	있다	없다	합계
중국	69(8.6)	738(91.4)	807(100)
CIS	76(18.5)	335(81.5)	411(100)
일본	334(62.5)	200(37.5)	534(100)
북미	541(84.9)	96(15.1)	637(100)
합계	1020(42.7)	1369(57.3)	2389(100)



[그림 Ⅲ-30] 한국 방문 경험

(6) 한국관련 뉴스와 드라마 시청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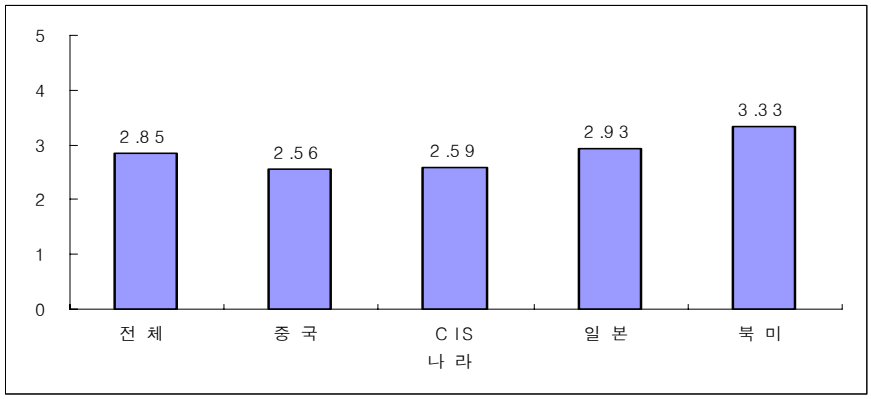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뉴스를 듣고 있는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8>, [그림Ⅲ-31]참조). 북미(M=3.33)지역이 평균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4지역 모두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의 청소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국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한국 뉴스를 접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한국뉴스를 듣고 있는 정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국뉴스를 얼마나 듣고 있다	2.85 (1.25)	2.56 (1.10)[a]	2.59 (1.06)[a]	2.93 (1.18)[b]	3.33 (1.43)[c]	55.16***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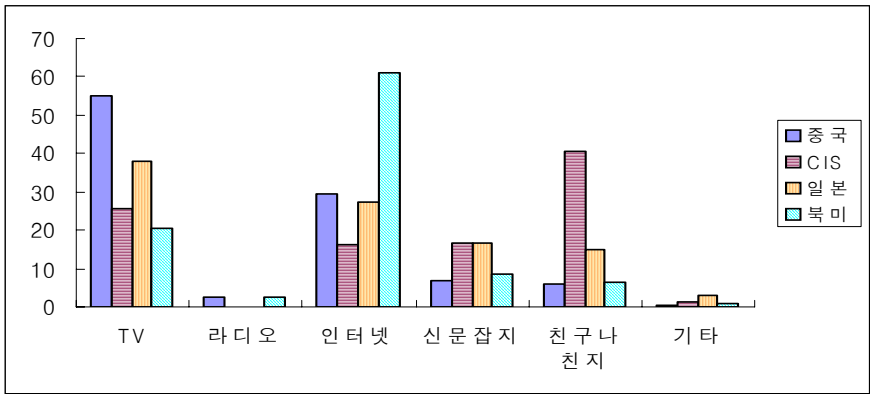
[그림 Ⅲ-31] 한국뉴스를 듣고 있는 정도

한국 뉴스를 접하는 경로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지역은 TV가 가장 많았고, CIS 지역은 친구나 친척이 가장 많았으며, 북미 지역은 인터넷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9>, [그림Ⅲ-32]참조). CIS지역은 아직 인터넷 연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TV나 친구, 친척들을 통해 한국 뉴스를 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TV와 인터넷이 한국 뉴스를 접하는 주된 방법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한국 뉴스를 듣는 경로

(단위: 사례수(%))

나라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잡지	친구나 친지	기타	합계
중국	436 (55.1)	19 (2.4)	232 (29.3)	55 (6.9)	46 (5.8)	4 (0.5)	792 (100)
CIS	89 (25.7)	0 (0)	56 (16.2)	57 (16.5)	140 (40.5)	4 (1.2)	346 (100)
일본	169 (37.8)	0 (0)	123 (27.5)	74 (16.6)	67 (15.0)	14 (3.1)	447 (100)
북미	119 (20.3)	16 (2.7)	359 (61.2)	50 (8.5)	37 (6.3)	6 (1.0)	587 (100)
합계	813 (37.4)	35 (1.6)	770 (35.5)	236 (10.9)	290 (13.4)	28 (1.3)	2172 (100)



[그림 Ⅲ-32] 한국 뉴스를 듣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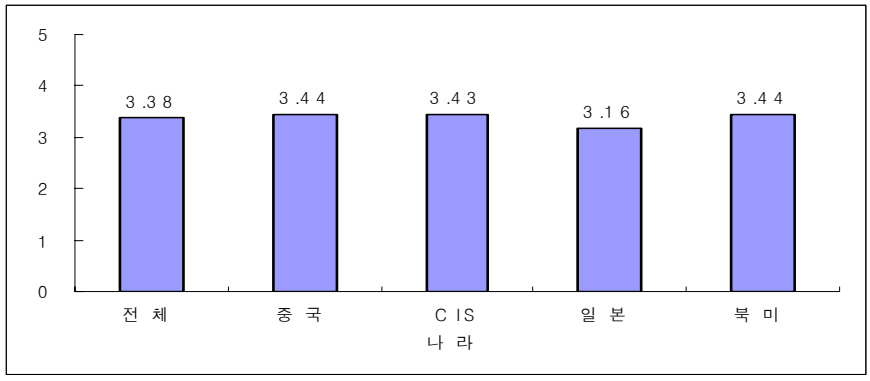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시청하는 빈도는 한국 뉴스를 접하는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표Ⅲ-20>, [그림Ⅲ-33]참조). 비록 국가 간의 통계적 차이는 있지만 4 국가의 청소년 모두 비슷한 정도로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데다가 해외에서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들은 또한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체로 재미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20>, [그림Ⅲ-34]참조).

<표Ⅲ-20>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 시청 빈도와 시청 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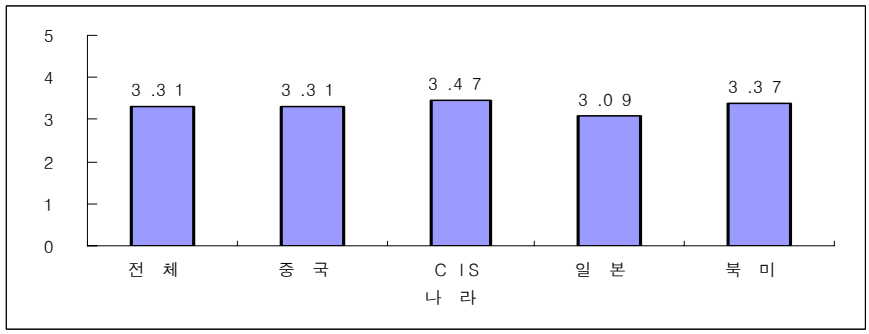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 시청 빈도	3.38 (.71)	3.44 (.77)^{b}	3.43 (.77)^{b}	3.16 (.61)^{a}	3.44 (.63)^{b}	22.03***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3.31 (.79)	3.31 (.78)^{b}	3.47 (.65)^{c}	3.09 (.84)^{a}	3.37 (.82)^{b}	18.93***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그림 Ⅲ-33]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 시청 빈도



[그림 Ⅲ-34]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7)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이 한국에 대해 어떤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이 '좋다 vs. 나쁘다', '능력이 있다 vs.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vs.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vs. 친밀하지 않다'의 4개 차원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표Ⅲ-21>). 조사결과 북미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한국이 나쁘고, 능력도 없고, 비활동적이며, 친밀하지 않게 느끼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35]~[그림 Ⅲ-38]참조). 이것은 설문 조사에서 지칭한 한국이 북미지역에 비추어진 한국인지, 독립적으로 떼어놓아진 한국인지 명확하지가 않음으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 것 같다. 북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일본, 특히 CIS지역의 경우는 한국이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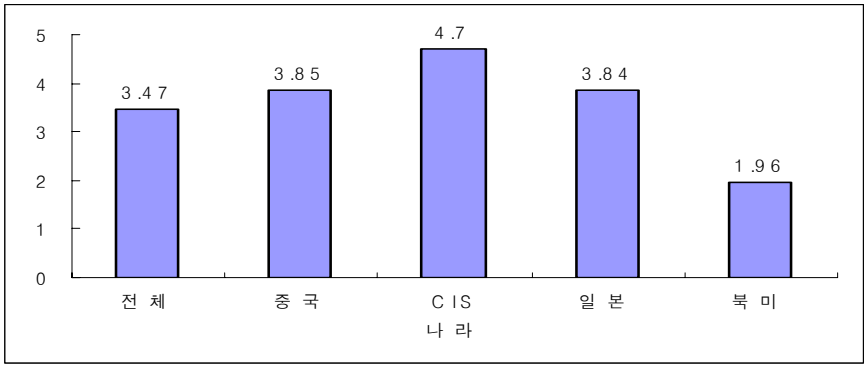
고, 능력이 있고, 활동적이며 친밀한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한국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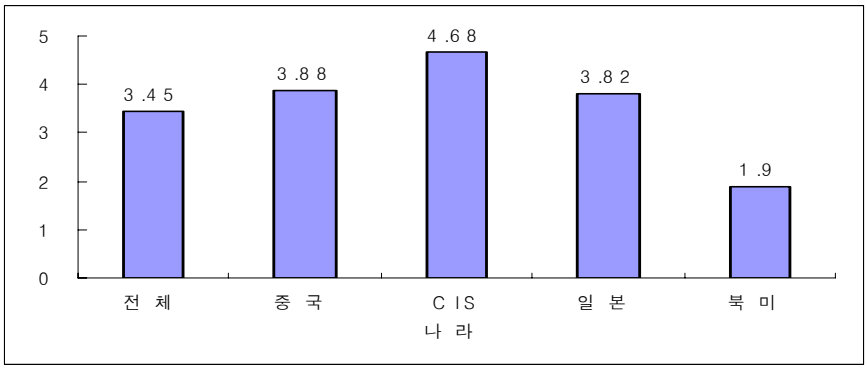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국은 좋다	3.47 (1.28)	3.85 (.90)^{b}	4.70 (.71)^{c}	3.84 (.83)^{b}	1.96 (.80)^{a}	1086.40***
한국은 능력있다	3.45 (1.29)	3.88 (.88)^{b}	4.68 (.70)^{c}	3.82 (.79)^{b}	1.90 (.85)^{a}	1109.06***
한국은 활동적이다	3.55 (1.38)	4.15 (.88)^{b}	4.62 (.73)^{c}	4.05 (.81)^{b}	1.80 (.89)^{a}	1285.10***
한국은 친밀하다	3.46 (1.26)	3.85 (1.06)^{b}	4.35 (.98)^{c}	3.82 (.85)^{b}	2.19 (.95)^{a}	52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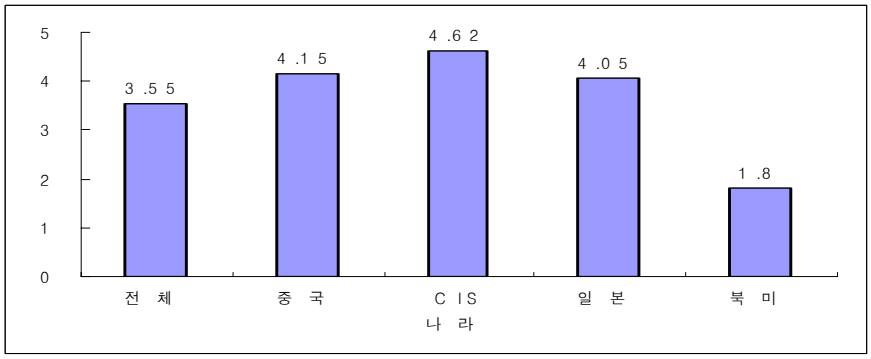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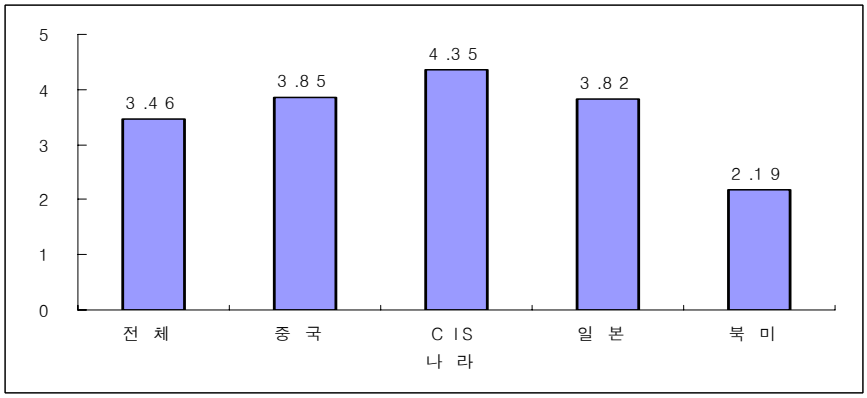
[그림 Ⅲ-35] 한국은 좋다



[그림 Ⅲ-36] 한국은 능력있다



[그림 Ⅲ-37] 한국은 활동적이다



[그림 Ⅲ-38] 한국은 친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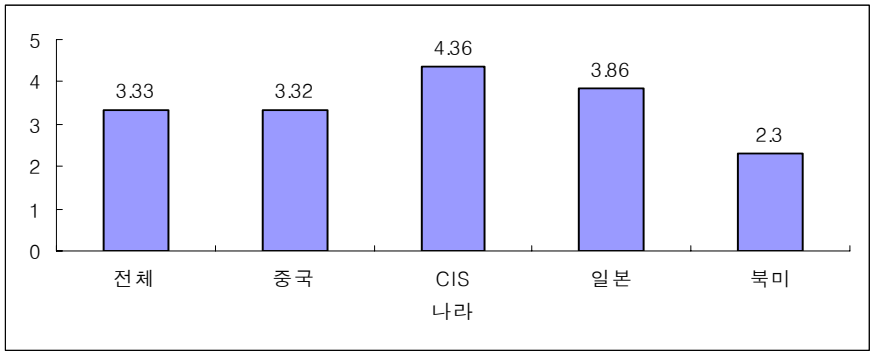
한국에 대한 느낌과 더불어 한국인에 대한 느낌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표Ⅲ-22>참조). 위의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의 청소년은 한국인이 나쁘고, 능력이 없고, 비활동적이며, 친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39]~[그림Ⅲ-42]참조). 그러나 이번 설문 문항에서 지칭한 한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지 북미지역에 거주는 한국인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해석상의 주의가 요하는 부분이다. 한국에 대한 느낌과 마찬가지로 CIS지역의 청소년은 한국인에 대한 느낌도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 한국인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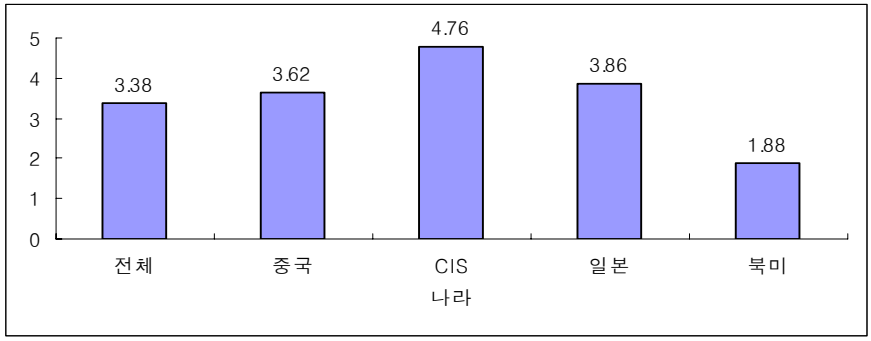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국 사람은 좋다	3.33 (1.21)	3.32 (1.16)^{b}	4.36 (.86)^{d}	3.86 (.83)^{c}	2.30 (.87)^{a}	428.84***
한국 사람은 능력 있다	3.38 (1.30)	3.62 (.91)^{b}	4.76 (.62)^{d}	3.86 (.77)^{c}	1.88 (.91)^{a}	1085.65***
한국 사람은 활동적이다	3.62 (1.33)	4.06 (.90)^{b}	4.70 (.75)^{c}	4.08 (.79)^{b}	2.06 (1.02)^{a}	943.97***
한국 사람은 친밀하다	3.37 (1.29)	3.70 (1.12)^{b}	3.72 (1.47)^{b}	3.95 (.88)^{c}	2.26 (.96)^{a}	30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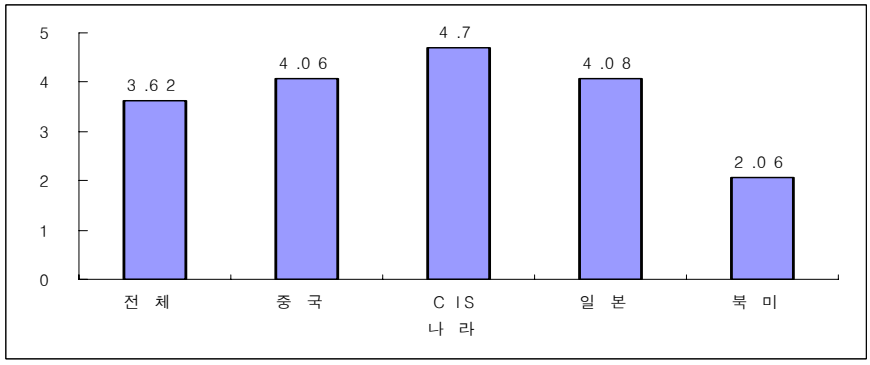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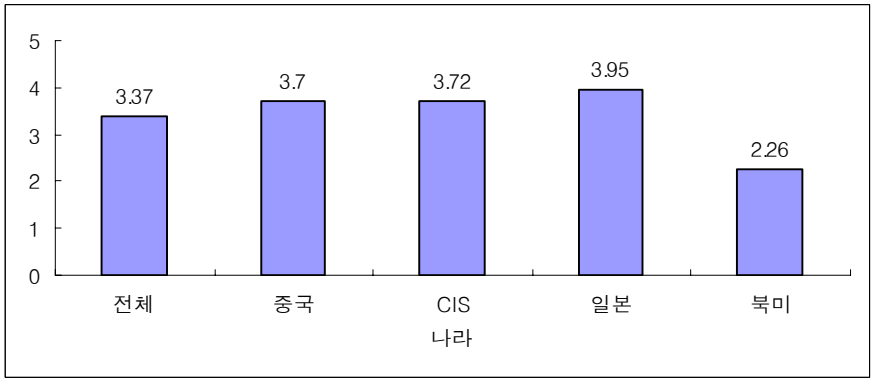
[그림 Ⅲ-39] 한국 사람은 좋다



[그림 Ⅲ-40] 한국 사람은 능력 있다



[그림 Ⅲ-41] 한국 사람은 활동적이다



[그림 Ⅲ-42] 한국 사람은 친밀하다

(8)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표Ⅲ-23>참조)

① 한국인 배경이 도움이 되는지 인식

한국인이라는 배경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본 설문에는 4 지역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그림Ⅲ-43]참조). 그 중에서도 북미(M=3.76)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M=3.36)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평균값에 있어서의 차이는 경미하므로 4 집단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배경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②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는 정도

설, 추석, 단오, 한식 등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는 정도는 4 국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그림Ⅲ-44]참조). 국가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전통 명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한국문화를 아는 정도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북미(M=3.68)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세 국가는 비슷한 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5]참조). 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는 질문에 높은 점수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자신들의 한국문화 인지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④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는 북미(M=4.46)와 중국(M=4.31)지역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CIS(M=3.31)와 일본(M=2.99)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6]참조). 북미 지역은 이민세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과 부모

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직접 가르쳐 주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지역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조선족들이 한국어를 유지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CIS지역은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아 CIS 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정도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북미(M=4.44)지역과 중국(M=4.23)지역이 아주 높게 나타났고, CIS(M=2.72)와 일본(M=2.9)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7]참조). CIS지역은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낮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말 할 수 있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아 이 둘 간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한국어를 읽고 쓰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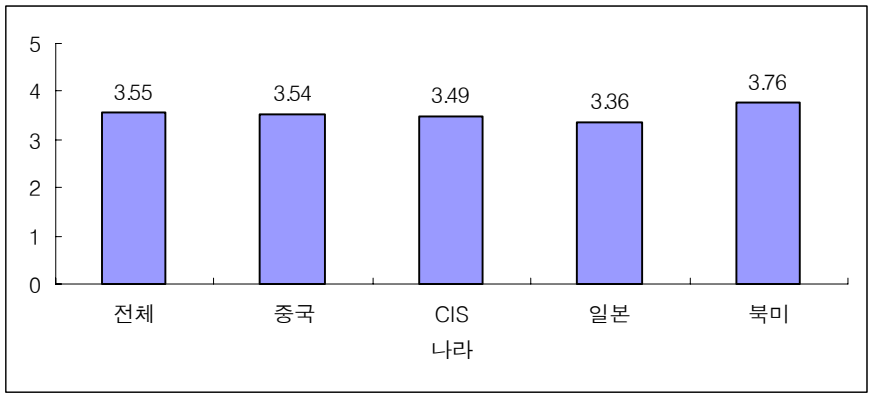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역시 중국(M=4.46)과 북미(M=4.34)지역의 청소년이 매우 높았고, CIS(M=3.98)지역의 청소년도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M=3.07)지역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한국어 읽고 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북미와 중국지역의 청소년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IS 지역의 청소년은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높았지만 한국어로 말을 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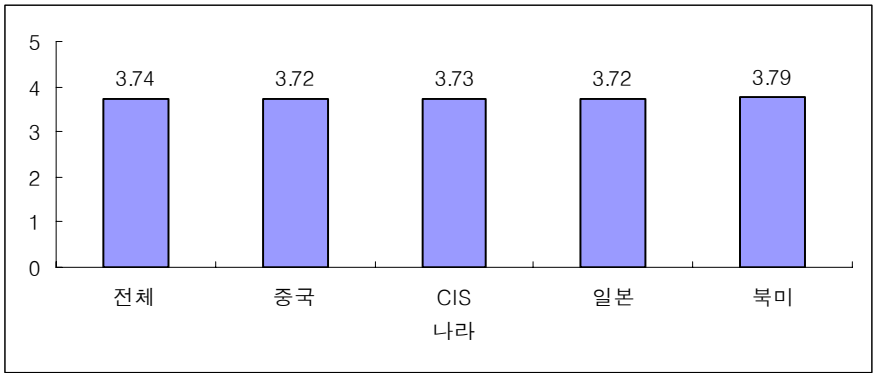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국 배경 도움이 된다	3.55 (1.06)	3.54 (.97)[b]	3.49 (1.09)[a,b]	3.36 (1.08)[a]	3.76 (1.07)[c]	16.61***
한국의 전통명절을 쇤다	3.74 (1.19)	3.72 (1.11)	3.73 (1.35)	3.72 (1.17)	3.79 (1.18)	.44
한국문화를 많이 안다	3.26 (1.11)	3.12 (.96)[a]	3.07 (1.18)[a]	3.08 (1.06)[a]	3.68 (1.16)[b]	49.69***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3.87 (1.29)	4.31 (.93)[c]	3.31 (1.35)[b]	2.99 (1.40)[a]	4.46 (.92)[c]	260.33***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3.72 (1.38)	4.23 (1.01)[b]	2.72 (1.33)[a]	2.90 (1.43)[a]	4.44 (.97)[c]	337.94***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4.01 (1.31)	4.45 (.89)[c]	3.98 (1.41)[b]	3.07 (1.45)[a]	4.34 (1.09)[c]	18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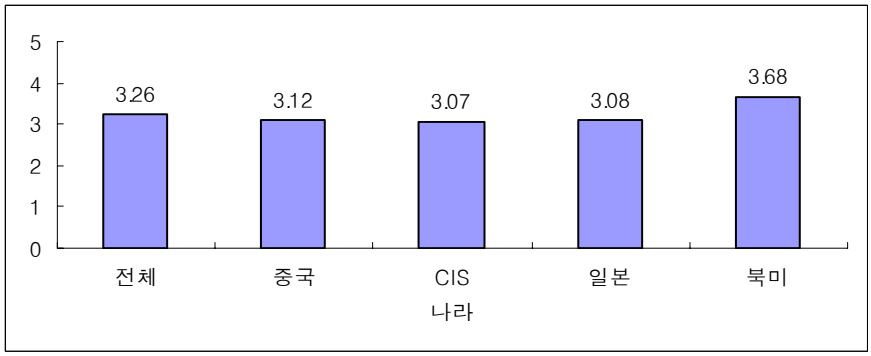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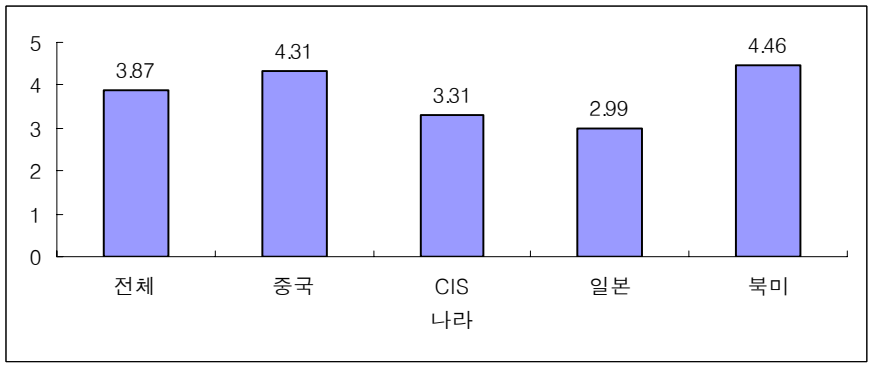
[그림 Ⅲ-43] 한국배경은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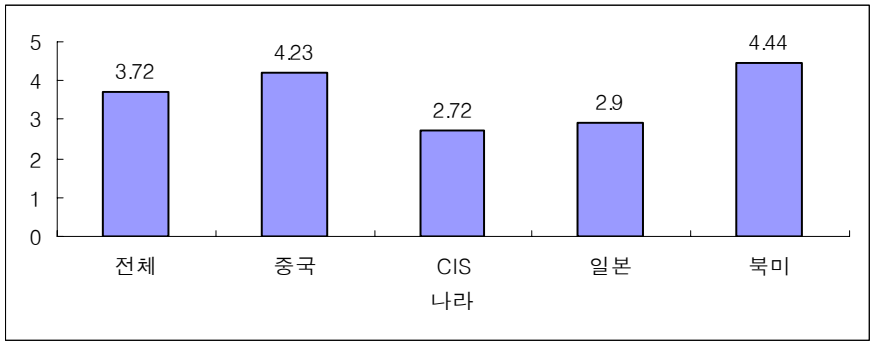
[그림 Ⅲ-44] 한국의 전통명절을 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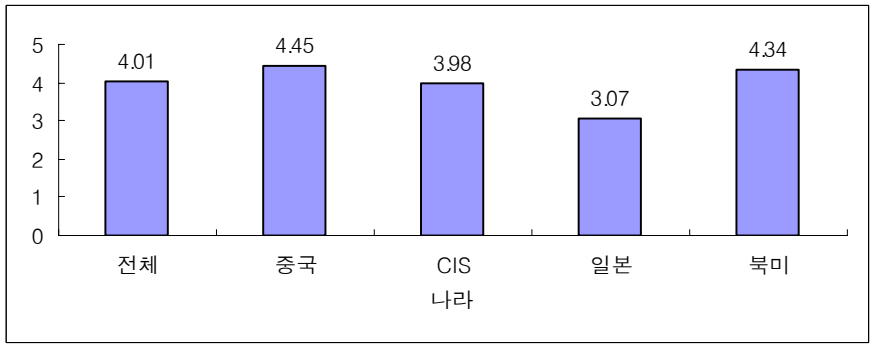
[그림 Ⅲ-45] 한국문화를 많이 안다



[그림 Ⅲ-46]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그림 Ⅲ-47]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그림 Ⅲ-48]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9) 한민족의 정체성(<표Ⅲ-24>참조)

①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는 4 지역의 청소년이 모두 높은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49]참조). CIS(M=4.7)지역의 청소년은 그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북미(M=4.33)지역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M=3.87)과 일본(M=3.57)지역도 CIS와 북미지역 정도는 아니지만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정도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CIS(M=4.16)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북미(M=3.84)지역으로 나타났다([그림Ⅲ-50]참조). 일본(M=3.52)과 중국(M=3.46) 지역은 그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력하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설문지에 참여한 한민족청소년은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알고자 노력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한인단체에 참여하는 정도

한인단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북미(M=3.54)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일본(M=3.3), CIS(M=2.89), 중국(M=2.64)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Ⅲ-51] 참조).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한인 단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도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 지역은 한인 단체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CIS 지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인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④ 자신의 한민족 배경에 대한 인지도

자신의 한민족 배경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52]참조). 이 문항은 한민족의 배경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임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민족의 배경이라는 말이 한민족의 뿌리라는 말로 인식될 수도 있고, 한민족의 이민 역사라는 말로도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에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민족의 배경이라는 말을 한민족의 뿌리나 한민족의 이민역사라고 판단하여 설문에 응답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외 한인 청소년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한민족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

한민족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는 CIS(M=4.23)지역과 북미(M=4.07)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M=3.77)과 일본(M=3.57)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53]참조). 지역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 지역 모두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는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⑥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정도

이러한 자부심은 한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Ⅲ-54]참조). CIS(M=4.07)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M=3.77), 북미(M=3.76), 일본(M=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이들이 한국과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⑦ 타인에게 한국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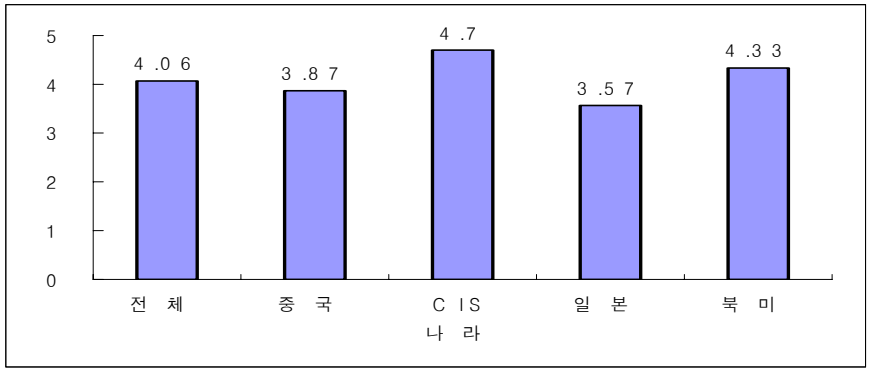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과 소속감은 타인에게 한국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그림Ⅲ-55]참조). 아마도 자부심이나 소속감은 개인의 내적인 문제이므로 심리적으로는 자부심이나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 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4국가의 청소년 모두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언급하고는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4> 한민족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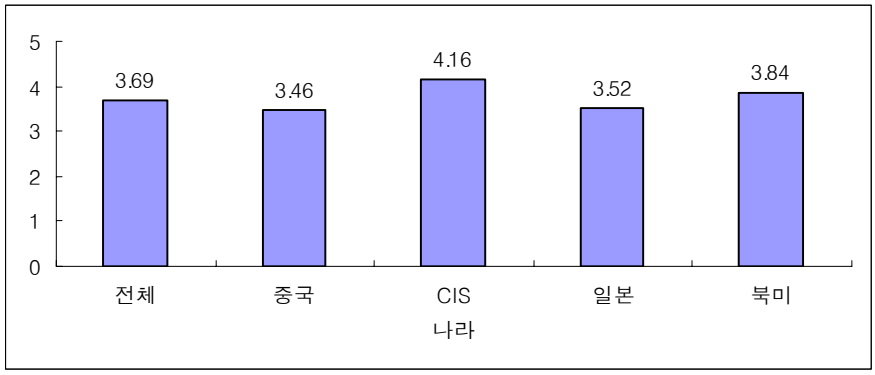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4.06 (1.06)	3.87 (1.09)[b]	4.70 (.70)[d]	3.57 (1.06)[a]	4.33 (.94)[c]	132.89***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3.69 (1.11)	3.46 (1.08)[a]	4.16 (1.06)[c]	3.52 (1.09)[a]	3.84 (1.08)[b]	47.26***
한인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3.09 (1.31)	2.64 (1.23)[a]	2.89 (1.40)[b]	3.30 (1.35)[c]	3.54 (1.24)[d]	72.56***
한민족 배경에 대하여 잘 안다	3.10 (1.16)	2.93 (.98)[b]	2.72 (1.30)[a]	2.95 (1.09)[b]	3.66 (1.13)[c]	86.63***
한민족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3.89 (1.10)	3.77 (1.10)[b]	4.23 (1.05)[c]	3.57 (1.11)[a]	4.07 (1.02)[c]	39.07***
한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3.71 (1.16)	3.77 (1.10)[b]	4.07 (1.07)[c]	3.35 (1.19)[a]	3.76 (1.17)[b]	34.94***
타인에게 한민족에 대한 언급을 자주한다	3.26 (1.23)	3.16 (1.08)[a]	3.26 (1.40)[a,b]	3.23 (1.19)[a,b]	3.42 (1.32)[b]	6.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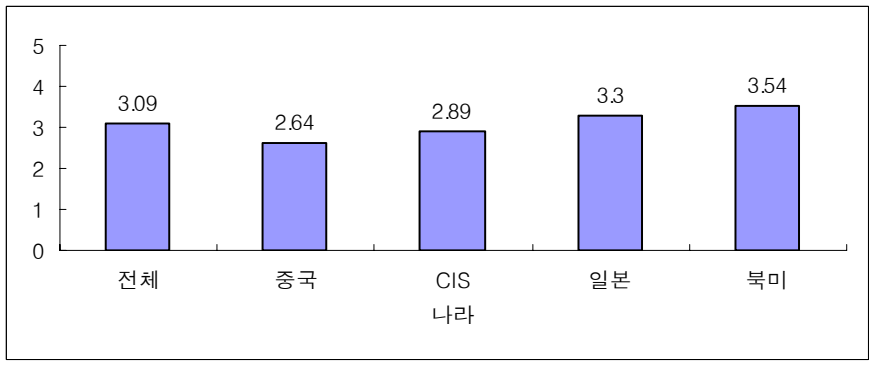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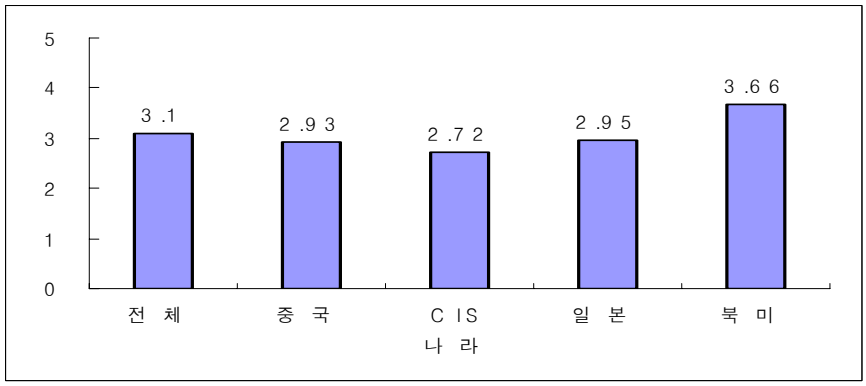
[그림 Ⅲ-49]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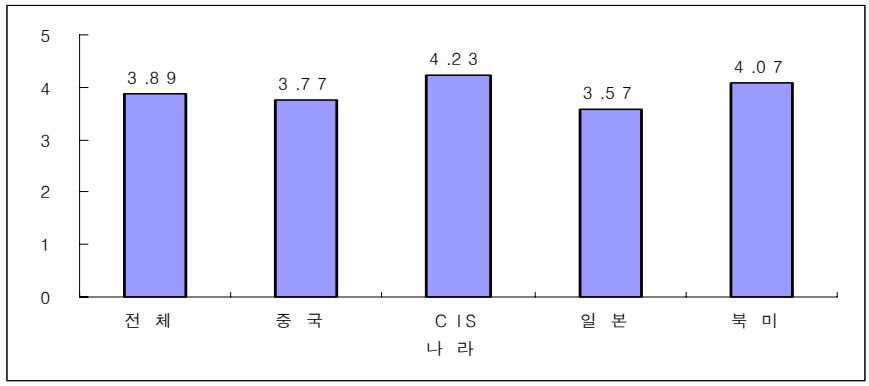
[그림 Ⅲ-50] 한민족의 역사,전통,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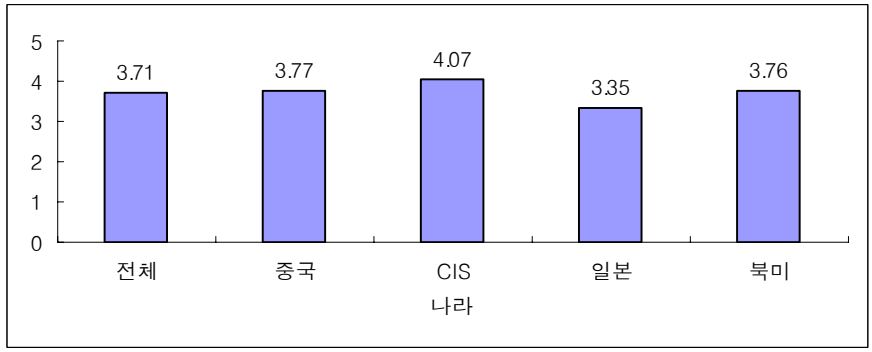
[그림 Ⅲ-51] 한인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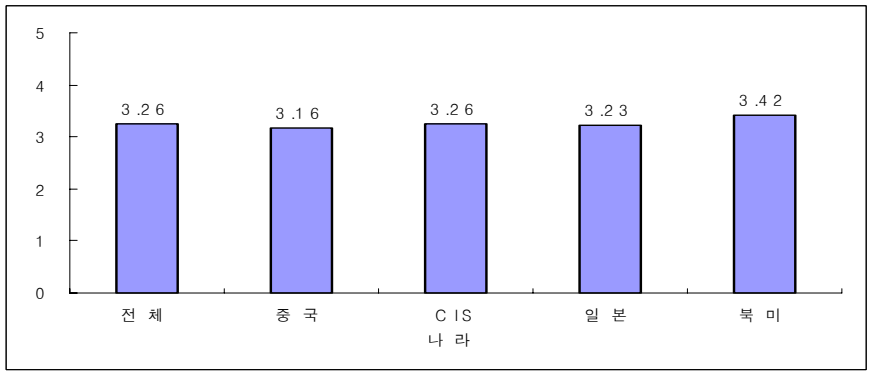
[그림 Ⅲ-52] 한민족 배경에 대하여 잘 안다



[그림 Ⅲ-53] 한민족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림 Ⅲ-54] 한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그림 Ⅲ-55] 타인에게 한민족에 대한 언급을 자주한다

(10) 네트워크 구축(<표Ⅲ-25>참조)

① 한인단체에서 활동하는 정도

한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도는 4국가 모두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56]참조). 이 설문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문항으로, 각 국에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의 여부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②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에는 4국가 모두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57]참조)). 그 중에서도 중국(M=2.22) 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그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M=2.64)과 CIS(M=2.8), 북미(M=3.04)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민세대가 오래된 중국지역은 그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으로써 이민 세대가 오래될수록 개인차원과 기관차원에서의 한국과의 연결의 끈은 희미해져 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민세대가 비교적 짧은 북미 지역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해외 한민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국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일임에는 분명하다.

③ 한국이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한국이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CIS(M=3.68)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미(M=3.08)지역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중국(M=2.47)과 일본(M=2.42)지역은 한국이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외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일수도 있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그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동포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④ 한국청소년과의 교류기회 증가 희망 정도

한국청소년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CIS(M=4.59)지역의 청소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Ⅲ-59]참조). 나머지 세 지역의 청소년도 한국 청소년과의 더 많은 교류기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개인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⑤ 한국에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는 정도

한국에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는 정도는 북미(M=3.76)지역이 가장 높았고, 중국(M=3.53)지역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CIS(M=2.81) 지역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M=2.31)은 인터넷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옴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인터넷 싸이트에 대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⑥ 한국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가 필요하다는 인식

한국 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CIS(M=3.99)지역이 가장 높았고, 중국(M=3.4)과 북미(M=3.38)지역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일본(M=2.92)지역은 그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61]참조). CIS지역의 청소년은 한국청소년과의 더 많은 교류기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더하여,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데,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의 대화의 창구를 많이 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는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과의 대화 창구로서의 인터넷 싸이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한국유학생에 대한 인상

한국유학생에 대한 인상은 CIS(M=3.92)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본(M=3.38), 북미(M=3.14), 중국(M=2.74)지역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지역에서는 대체로 한국 유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한국유학생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는 정도

한국 유학생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비율은 이전 질문에서와 비슷한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Ⅲ-63]참조). 즉 CIS(M=3.4)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M=2.01)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전의 질문에 대한 응답 양상과 연관시켜 보면, 한국 유학생이 외국에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CIS지역은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이었지만 한국 유학생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질문에는 그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 중국지역의 경우는 한국유학생에 대한 비호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과 조선족 학생 간에 일종의 긴장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과 북미지역의 청소년도 한국의 유학생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문항에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유학생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⑨ 한국 정부 지원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인지 여부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 프로그램과 한국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본 결과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64], [그림Ⅲ-65]참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학과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많은 해외 한민족이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과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들이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교육과 연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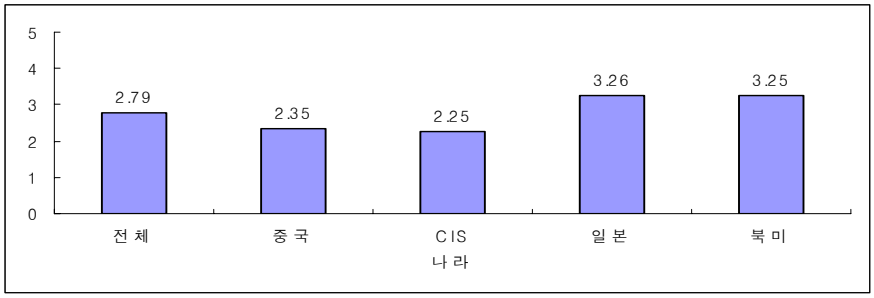
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Ⅲ-25> 네트워크 구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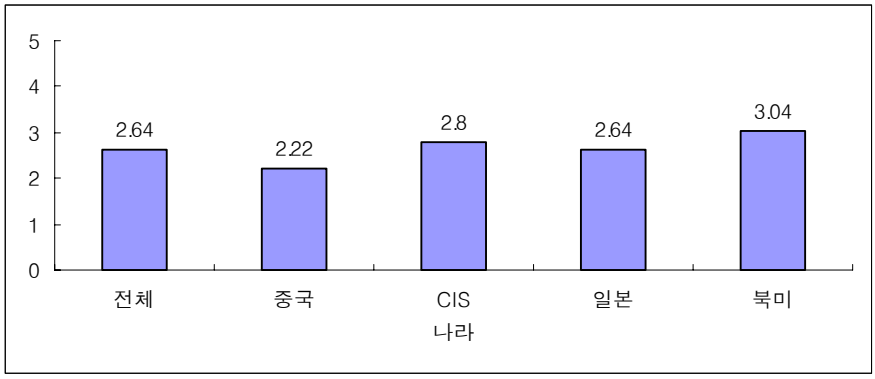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체	중국	CIS	일본	북미	F값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2.79 (1.33)	2.35 (1.02)[a]	2.25 (1.32)[a]	3.26 (1.42)[b]	3.25 (1.29)[b]	115.26***
한인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	2.64 (1.37)	2.22 (1.07)[a]	2.80 (1.56)[b]	2.64 (1.39)[b]	3.04 (1.40)[c]	48.90***
한국은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2.83 (1.21)	2.47 (.97)[a]	3.68 (1.28)[c]	2.42 (1.05)[a]	3.08 (1.22)[b]	141.68***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3.64 (1.18)	3.25 (1.09)[a]	4.59 (.83)[d]	3.75 (1.16)[c]	3.47 (1.14)[b]	147.90***
한국에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한다	3.21 (1.46)	3.53 (1.14)[c]	2.81 (1.61)[b]	2.31 (1.33)[a]	3.76 (1.39)[d]	145.51***
한국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가 필요하다	3.39 (1.22)	3.40 (1.11)[b]	3.99 (1.27)[c]	2.92 (1.21)[a]	3.38 (1.18)[b]	62.43***
한국유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3.19 (1.14)	2.74 (.96)[a]	3.92 (1.12)[d]	3.38 (1.00)[c]	3.14 (1.17)[b]	116.46***
한국유학생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2.71 (1.21)	2.01 (.94)[a]	3.40 (1.29)[c]	2.94 (1.04)[b]	2.96 (1.19)[b]	180.76***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55 (1.31)	2.31 (1.04)[b]	3.03 (1.54)[c]	2.06 (1.24)[a]	2.92 (1.31)[c]	76.41***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28 (1.23)	2.23 (1.03)[b]	2.55 (1.49)[c]	1.72 (1.00)[a]	2.62 (1.28)[c]	6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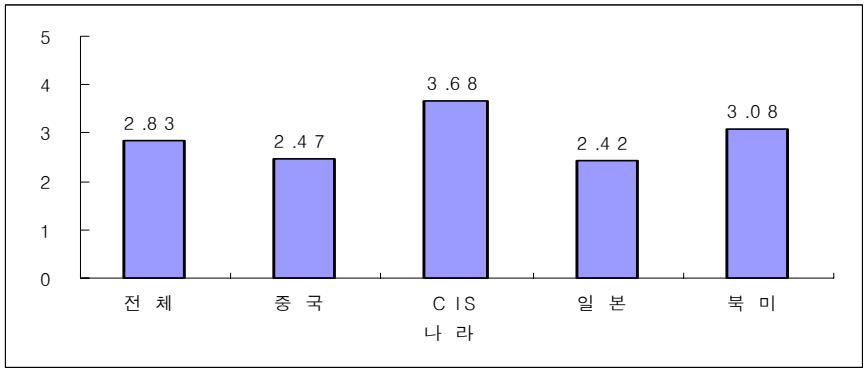
*** p<.001, 사후검증: Scheffe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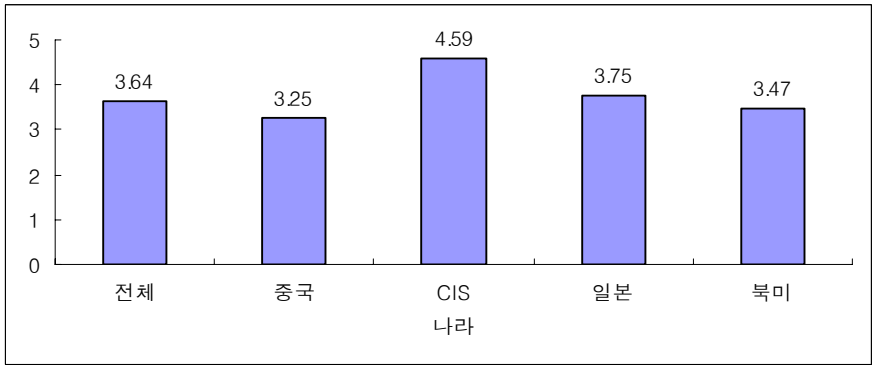
[그림 Ⅲ-56]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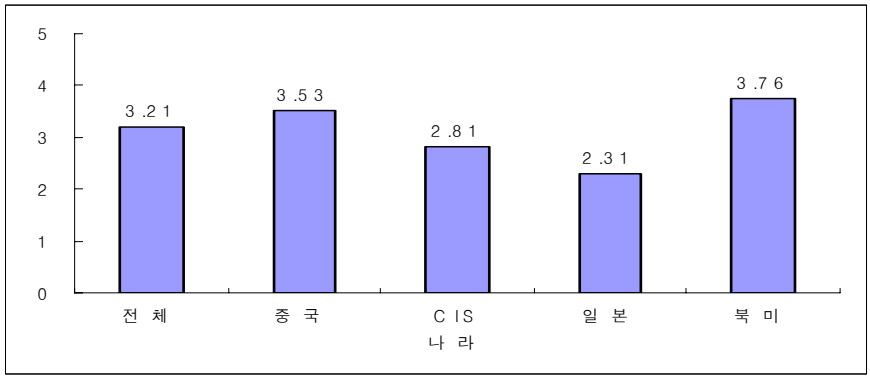
[그림 Ⅲ-57] 한인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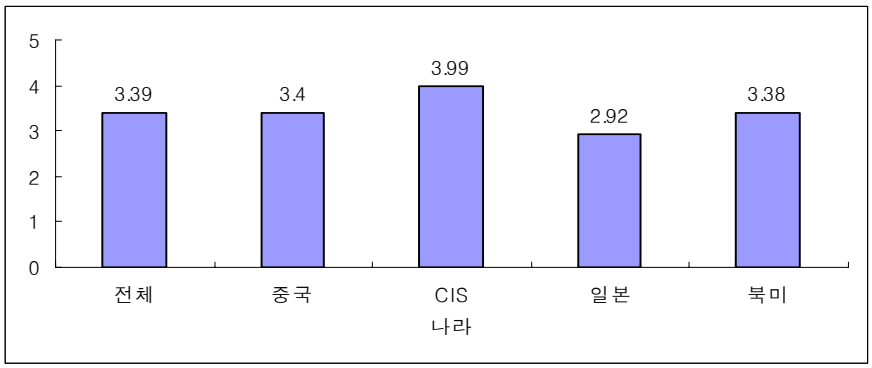
[그림 Ⅲ-58] 한국은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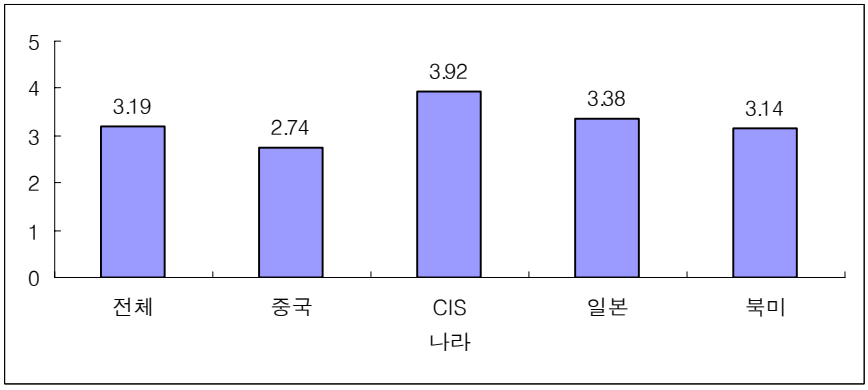
[그림 Ⅲ-59]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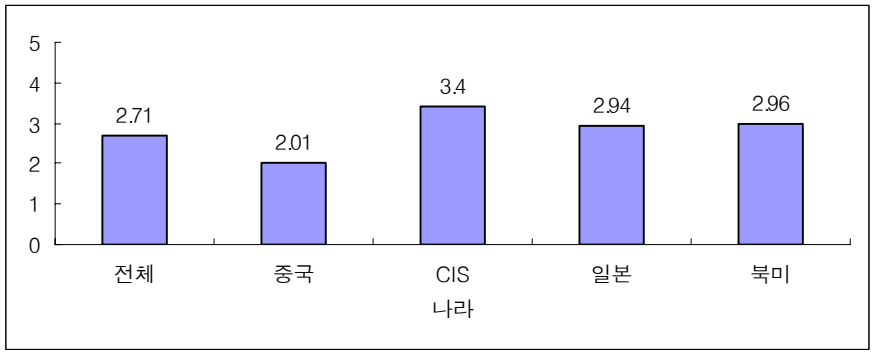
[그림 Ⅲ-60] 한국에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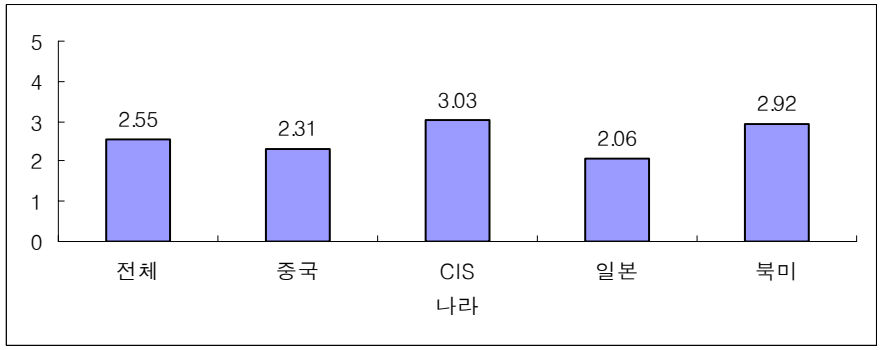
[그림 Ⅲ-61] 한국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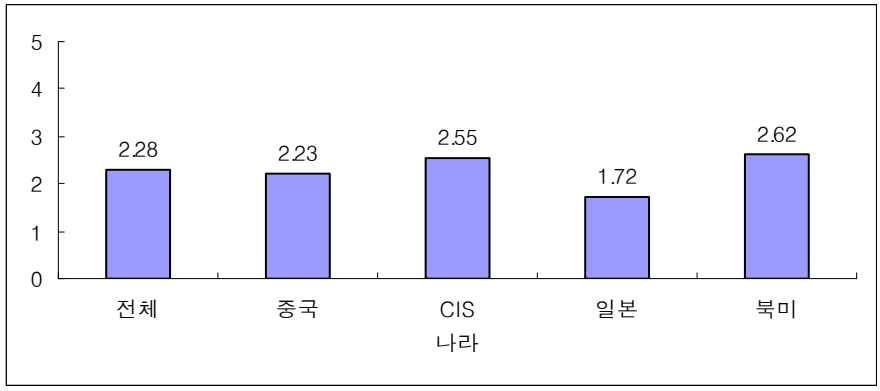
[그림 Ⅲ-62] 한국유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그림 Ⅲ-63] 한국유학생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림 Ⅲ-64]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림 Ⅲ-65]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4. 요약 및 소결

주요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본 설문에 참석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4지역 모두 여자 청소년이 많았고, 중국과 CIS 지역은 여자가 남자의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CIS와 일본지역의 경우는 직장인과 무직, 기타에 해당하는 청소년도 20%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대부분은 미래의 직업으로 전문직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고위관리직과 사무직을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향후에 글로벌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의 한인청소년은 이민 2세대가 넘지 않는 청소년이 93.9%를 차지함으로써 북미 지역의 청소년 대부분이 이민세대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CIS, 일본 지역은 이민 3세대니 4세대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이민 몇 세대인지 모르는 청소년이 중국지역은 33.3%, CIS 지역은 41.8%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와 가정형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은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만 한국 사람인 경우보다는, 두 분 모두 한국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쪽 부모님만 한국 사람인 경우보다는 양 쪽 부모님 모두가 한국 사람일 때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북미와 CIS지역의 경우는 대학수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지만, 중국 지역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아버지가 70%가 넘게 나타남으로써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도 아버지의 학력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어 북미 지역의 경우는 어머니의 약 90%가 대학수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지역은 60%가 넘는 어머니가 고졸 이

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4지역 모두 여러 가지 직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상업이나 자영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4국가를 통합해 보면 전문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주부, 상업과 자영업의 순이었다. 중국, CIS, 일본, 북미 4지역 중에서 일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청소년이 현재의 가족 수입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컸고, 중국과 CIS 지역의 청소년도 평균이하의 충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북미지역 청소년의 충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의 가정과 비교한 상대적 수입 만족도도 북미 지역의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3지역인 CIS와 일본, 중국 지역은 보통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미 지역을 제외한 3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북미 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보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 수치 자체는 별로 높지 않음으로 북미 지역의 한민족청소년 역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일본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설문에서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설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북미와 중국 지역의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주로 현지어를 더 편하게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부모들이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 놓았거나, 부모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부모님은 또한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부모님 자신이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경우가 타 지역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IS와 일본 지역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빈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가정

이외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굳이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며, 아니면 부모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녀는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CIS지역처럼 경제 사정이 어렵고 고려인의 생활이 불안한 지역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자녀의 한글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관 차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 한국에서의 언어 연수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4지역 모두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에 대하여 언급할 때 대체로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한국의 음식문화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IS와 북미지역은 그 정도가 매우 높아 부모님이 한국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CIS지역의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지만, 일본과 북미, 중국 지역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북미 지역처럼 한국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나라에 거주할 때는 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추세이지만 한국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취약한 CIS 지역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일본, 북미, 중국 지역은 굳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이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현지관련 직장을 구하여 자녀가 주류사회로 영입하기를 희망하는 의도가 높은데 비해, CIS 지역은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자녀가 한국관련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

넷째, '한국에 대한 관심'을 알아본 결과 CIS와 일본, 북미 지역은 한국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중국 지역은 보통 수준 이하를 나타내고 있었

다. 2~3년 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CIS와 북미 지역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두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구체적인 방문계획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이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공부나 연수가 아닌 그 이외의 방문 목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과 일본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한국을 방문하여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지역 모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진술에 높은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국방문 계획이 낮은 지역이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또래 청소년과 대화하고 싶은 욕구는 4지역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특히 CIS 지역은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 청소년과 인적 교류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은 이 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국 지역은 나머지 3지역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인'을 누구로 볼 것이냐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CIS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3지역은 보통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를 배워두는 것이 장래의 직업 선택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정도는 이 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IS지역은 이 두 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어를 배워 한국관련 직업을 구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7%로 나타났지만,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 그 반대로 일본과 북미지역은 한국 방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뉴스를 접하고 있는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를 접하는 경우에는 TV나 인터넷이 주종을 이루었고, 친구

나 친척처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빈도는 뉴스를 접하는 빈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청소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주 한민족청소년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북미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한국을 나쁘고, 능력도 없고, 비활동적이며, 친밀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지역은 이것과 반대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 대한 느낌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어, 북미지역의 한인 청소년이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CIS, 일본 지역은 한국인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IS지역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 한국배경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4개국 모두 설이나 추석 같은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고 있는 정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고,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는 진술에도 보통 혹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응답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은 중국과 북미 지역의 청소년이 아주 높게 나타났고, 일본과 CIS지역은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4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은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IS와 북미 지역의 청소년은 자신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한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족 문화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4개국 모두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과 CIS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의 한인 단체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설문에 참여한 한인 학생들 주변에 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한인단체가 희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정보부족으로 활동률이 저조할 수 있다. 한인 단체에서의 활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인이나 한국단체와 연락을 주고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과의 네트워킹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한국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과의 교류 창구로서의 인터넷 사이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CIS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IS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의 청소년들은 한국 유학생에 대한 호감도가 보통정도였고, 중국, 일본, 북미 지역의 경우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씀씀이나 행동거지가 현지 한인 청소년의 눈에 거슬렸을 가능성도 있고, 현지

동포 청소년과 유학생과의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한국의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유학생 때문에 현지의 동포 청소년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유학생들이 한국과 현지의 다리를 놓는데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유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학프로그램보다 취업프로그램의 정보에 대한 노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해외 체류 재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1.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3. 해외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Ⅳ.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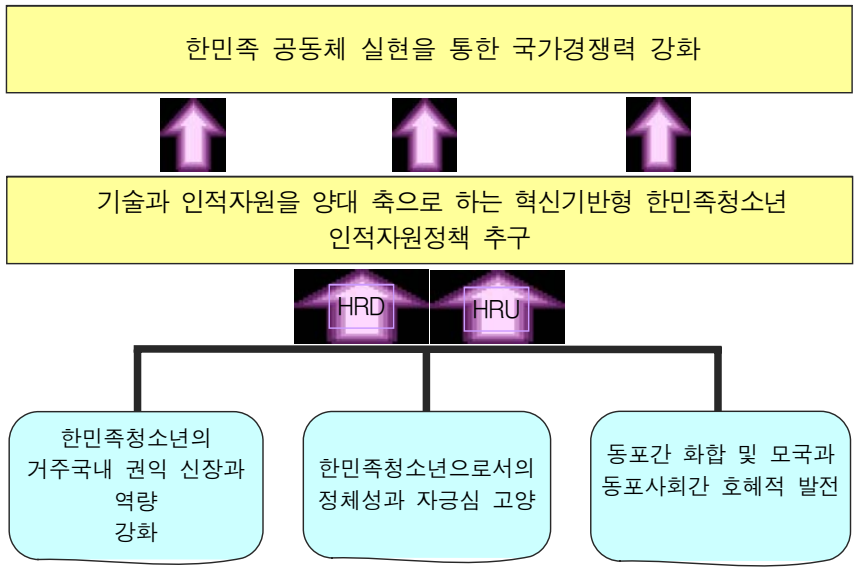
1.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한민족청소년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국력의 중요한 한 축이다. 한민족청소년이 외국에서 습득한 기술·기능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따라서 이들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재외동포와 모국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활용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거주국 관점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와 거주국의 협조아래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우리의 활용 목적에만 염두를 두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적응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국의 국민이며, 거주국은 국내법과 인종·민족정책으로 재외동포의 지위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들의 양성·활용 정책은 재외동포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재외동포가 거주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삶을 제대로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민족청소년이 우리 국력의 버팀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에서 이들의 활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동포들이 거주지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다시 모국으로 오는 역이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셋째로 활용 정책은 '先지원 後활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민족청소년이 거주국에서 잘 적응하여 양성이 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공유되도록 하는 정신적·물질적 배려도 중요하다. 아무리

부모세대가 외국에서 성공했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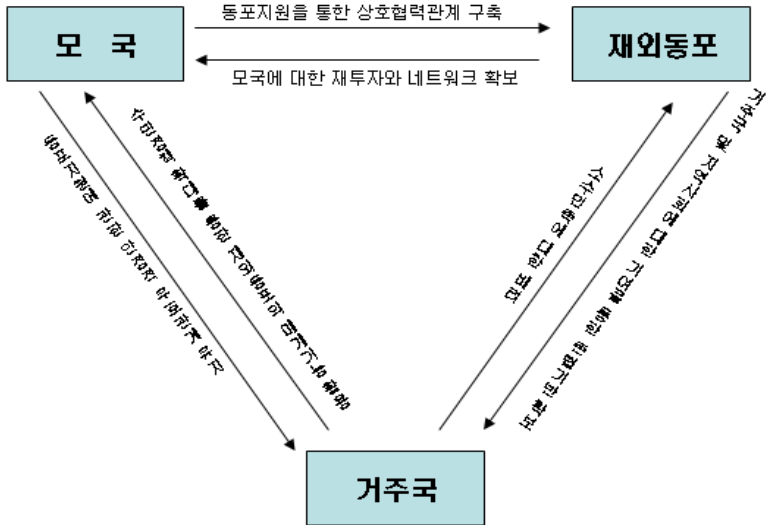
해외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양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상의 네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된 이후 어떠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본 방향으로 [그림 Ⅳ-1]에서 보듯이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기술과 인적자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는 한민족청소년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둘째로 한민족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셋째로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위한 전략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인적자원정책이 있는 것이다.



[그림 Ⅳ-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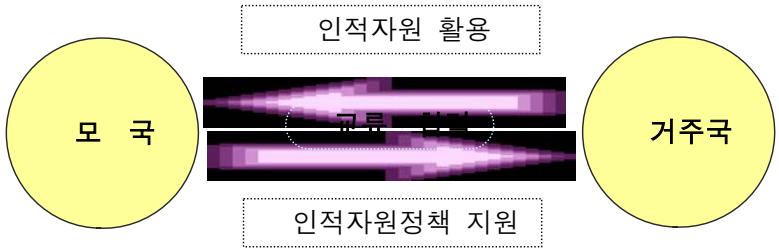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모국-재외동포-거주국의 3주체간에 상호 연계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Ⅳ-2]에 제시하듯이, 모국과 재외동포의 관계에 있어

서는 모국은 인적자원정책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는 모국에 대한 재투자를 실시하는 방향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모국과 거주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포지원에 대한 우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와 거주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주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재외동포는 거주국에 대한 기여를 통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과 활용 정책을 매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모국과 거주국간의 교류와 협력이다. [그림 Ⅳ-3]에서 제시하였듯이 모국은 거주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고, 이를 통해 양성된 인적자원을 향후 모국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류·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외교통상부(2006),『참여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인용.

[그림 Ⅳ-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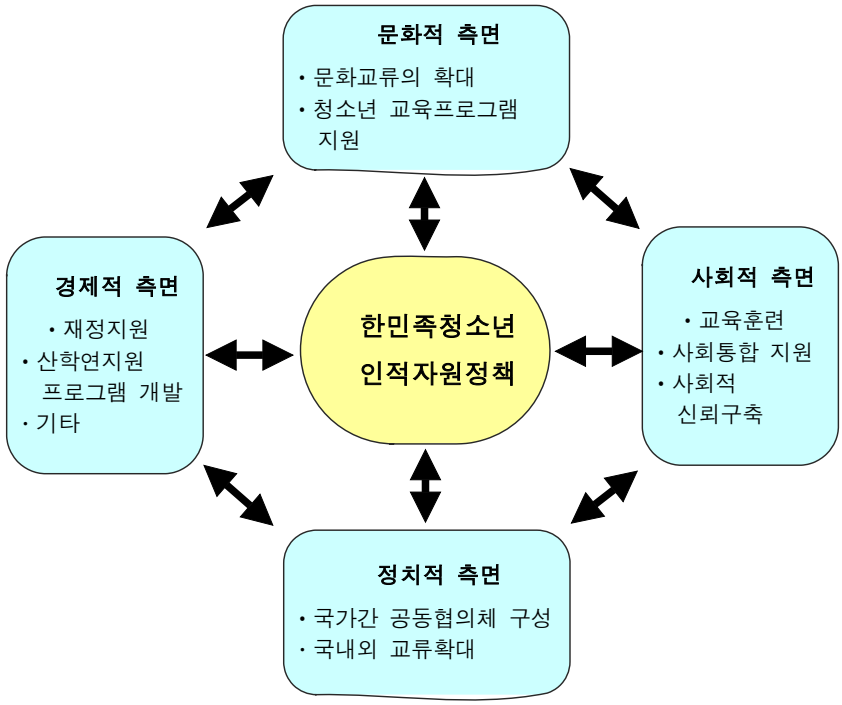


[그림 Ⅳ-3] 모국과 거주국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연계체계

한편, 재외동포는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하에 추진할 것인가?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에 있어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으로 전방위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을 지원하고, 잘 만들어진 인적자원을 국가의 이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여, 그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민족청소년의 능력개발 제고와 인적자원 양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이 추진 전략의 골자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과 활용정책의 추진 전략은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을 미래의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세부적인 전략으로서 [그림 Ⅳ-4]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측면으로서 재정지원과 국가 간 산학연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사회적 측면으로서 교육훈련과 사회통합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적 측면으로서 문화교류의 확대와 청소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측면으로서 앞서 논의하였듯이 국가 간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이질성을 최대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거주국에서 모범적 시민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정착 강화와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유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상호교류

와 협력관계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Ⅳ-4]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전략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 방안

(1) 현지 능력개발 관련 장학금 지원

현지 능력개발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위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사업은 정부 및 시민단체, 개인, 재단 등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전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민족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

가 있다. 한 예를 들자면 200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인단체에서 지원된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이 재외동포의 54%가 넘게 거주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보다 북미지역 한인단체에 편중 지원되었다.[39] 이렇듯 금전적인 지원도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거주 지역에 특성과 한민족청소년의 경제 상태 등의 사회적 환경 및 필요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단순한 학비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지에서 현지 직업훈련교육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개도국 무상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후발 개도국에 전수하고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1984년부터 직업훈련원 설립 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다. 그를 통해 현지인들의 직업훈련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05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직업훈련원이 세워졌고, 2007년 8월 이라크에 직업훈련원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직업훈련기관을 통하여 한민족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현지 능력개발 지원

기자재 및 교재지원 관련하여 각종 한국어 교재가 연구, 보급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원격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훈련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 및 CD-ROM등 의 원격교육 기자재 및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능력개발 관련 교사 파견 지원 관련하여 재외동포 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및 지원은 여러 방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파견교사 및 관계자 관련 지원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사 파견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재외한국학교 교사파견이 예산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민족청소년의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 자원 활동 파

39) http://kr.blog.yahoo.com/dreamkid94/15

견과 연계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자원 활동은 개도국을 상대로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국제 협력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에는 기술직업 훈련과 관계된 활동들이 있다. 장·단기적으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 훈련과정을 거쳐 특히 경제사정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 능력개발 지원 교사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을 다수 확보하고자 '전문인력 풀(pool)'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프로그램 중 전문가파견은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분야별 인재양성과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정부 또는 산하부처 기관에 대해 기술·정책 자문 및 기타 특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파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고 개도국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능력개발 전문가 파견 및 멘토 관계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많은 차세대 한민족청소년 리더를 위한 초청 연수 및 대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에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범세계적인 관련분야 한인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며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확보, 개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교류뿐만 아니라 한민족청소년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여 한민족청소년 및 국내청소년의 인터넷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40]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지원의 대부분은 어학에 관련 된 것이 많은데,

40) 참고: 김병선, "한민족 인터넷 문화공동체의 형성방안," 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117호,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03.8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가상의 통로를 이용하여 한민족으로 연대감을 높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도울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개발국 및 저소득층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저개발국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인력공단 같은 해외취업과 관련된 부처들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기획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해외 현지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3) 원격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원격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특성상 원격교육 기자재 제공 지원을 먼저 우선시 하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 등의 기자재 구입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에게 기자재 및 원격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직업훈련과 관계된 원격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장에 한민족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어렵다면, 한국에서 개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직업훈련을 보완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 원격 화상 직업 훈련 및 인터넷 무료 교육들이 있다. 특히 인터넷 무료교육은 기계나 전기 전자, 정보처리, IT분야 등 모두 460여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맞게끔 보완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훈련의 특성상 직접 현장실습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국내로의 단기 초청 연수나, 현지 기업 기술자와의 연결을 통해 직업훈련 실습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사이버 대학 지원도 제2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중 “비전통적과정의 운영을 통한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41] 연계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지원할 수 있다(본 과제는 한국학

(역사, 지리, 문화, 사회 등)과 여성학(페미니즘, 여성과 일, 인권, 리더십 등) 관련 5개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여 이화여대가 국제교류 중인 세계 104개 대학 중 사이버 학점교류가 가능한 세계 30여개 대학(미국의 Rutgers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 등)에 제공할 예정(사이버교육기관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H/W 및 사이버강의 운영 프로그램 등 S/W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원격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위성통신을 통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성통신은 일방향의 일회성인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에듀넷 교육방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문형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형성평가 및 해설 서비스, 질의 응답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위성통신 및 에듀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통신원격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인턴쉽 과정 컨텐츠 개발, 제공하고 기업의 직원들과 커뮤니티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원과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다.

(4) 모국방문 프로그램 질 제고

개별대학이나 민간에서 경쟁적으로 모집하여 시행하는 모국방문 프로그램들이 부실하여 한민족청소년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42] 재외동포 2,3세대에 대한 민족의식교육 및 언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더욱 증대될 것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 및 부처에서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질과 내용에 대

41) 신익현(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정책 진단·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2) 김남희 외(2005). 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재외동포 후세대의 양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우수한 민족교육,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국가가 개발 및 보급하며, 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해외 한민족청소년에게 모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모국에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한국의 사회, 문화를 경험하고 모국을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기업 자원봉사센터(KT&G, LG전자 등) 등과 연계하여 초청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직접 한 가정에서 서로 숙식까지 하면서 일상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과 문화라는 공통의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이미 외국인이 되어 버린 동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민족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홈스테이를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부처간 중복 사업 통합 운영 및 법령 정비

여러 정부부처, 민간기관의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43]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조정·심의하는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그 기능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비전 제시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민간·정부에서 주최하는 비슷한 한민족청소년 초청 행사들의 별도 개최로 초래되는 예산낭비·사업효과 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43) 김남희 외(2005). 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더 효율적으로 개최되어 왔을 경우, 정부부처는 후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재외동포 교육 및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해외 교육기관 설립,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에 관한 투명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보호 정책의 구현이다.[44] 청소년들의 삶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해환경들을 정화 및 건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외국의 경우 마약 등의 유해약물 방지 및 심신건강 증진이 필요하다.

(6) 현지의 특수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도모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 추진사업 중『국외 인적자원 DB구축』사업과 연계, 각 분야에 우수한 재외동포 DB를 구축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및 산업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DB화된 우수 인재와 현지 해외 청소년들과의 멘토링을 주선하여 해외 한민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삶의 영역에서부터 능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멘토링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한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은 각 거주 국가별 특색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격차나 발전분야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현지기업 인턴쉽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동포 수가 많은 곳에는 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 및 진로상담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파견 후 귀국한 공무원에 대한 DB 구축 활용, 현지 사정에 맞는 지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현지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 공급하여야 한다.

44) 신익현(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관련 지원 방안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각 거주 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우리 국력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만약, 인적자원 정책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활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이 거주 지역에서 사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부적응에 따른 모국으로의 역이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의 재외 화교정책은 크게 '현지화'와 '중화의식의 계승'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화교에 대하여 2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권유한다. 즉, 화교의 화인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동포들의 단일 국적제로의 이행이 궁극적인 면에서 화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이며, 이는 또한 중국 해외동포들의 거주국과의 발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화교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의식계몽 작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의 화교와 이스라엘의 유태인 등은 해외에서 몇 대에 걸쳐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자국의 언어는 물론 문화와 전통을 잘 유지·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중국 거주 동포 및 청소년들도 그들처럼 우리의 전통과 문화 등을 잘 보존·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중국 거주 한민족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 언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그들 부모 세대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연변 조선족 자체의 고등교육기관(연변대학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 등 민족의 자긍심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본방향 속에서 구체적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자국의 경제발전 및 세계화 전략과 연결시키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국제사회는 과거와 달리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청소년들은 외국어를 비롯한 다문화적 감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국제화 적응력이 높은 인적자원일 것이다. 각 국은 재외동포 인적자원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또는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정비 및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담당 전문기관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자국민과 동포에 대한 대등하고 평등한 정책 추진에 일조를 하고 있다. 특히 법·제도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과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은 우리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도 교민청 등 재외동포 및 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중앙정부 단위의 기구 설립을 검토해 볼 과제이다.

다섯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모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해외에서 획득한 그들의 경험과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화교들에 대한 배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동포들에게 행·정책적인 배려를 해줌으로써 이들이 자국 경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인도도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인도인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에서 역이민 혹은 직업, 학업 등을 이유로 귀국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청소년들과 동동한 권리 및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모국은 물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의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들만을 위한 네트워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보면 일간지 등의 매체를 통한 인력수급 및 공급 또는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화교나 유대인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발한 정보·자료의 교환과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현지화를 통한 거주국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국에의 기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우선 화교들이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모국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현재의 중국과 대만의 경제 성장 및 개혁개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우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현지 사회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고,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이 진행된 이후에 모국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지화에 필요한 거주국의 법·제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국의 민족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점이 있을 경우 적극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전략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서 우리의 국력 신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적자원 개발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의 자산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예단이다.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국민도 아니며, 지역적으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 또는 이질화가 진행되어 관련 정책을 수용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주국 또한 그들을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가간의 심각한 갈등상황을 유발시켜 관련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 또한 있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이라는 문제 설정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접근 방법은 중장기적 계획과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1) 선결과제

먼저,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접근은 재외 청소년 및 거주국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와 거주국의 협조 아래 추진되어야지 우리의 활용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재외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은 '先지원 後활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 청소년들이 거주 국가에서 잘 적응하여 성공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한민족이라는 의식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신적·물질적 배려를 해야 한다. 아무리 해외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성공을 했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활용 정책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거주 국가에서 무리 없이 적응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고려해야 할 영향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탐색하여 인적자원 개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거주국

의 민족환경(ethnic environment)이 중요하다. 180여만 해외 청소년들이 14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객관적 조건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거주 국가가 다민족 국가인지, 단일민족 국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보다는 다민족 국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장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거주 국가의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동화가 높을 것으로 보여, 인적자원 활용 정책은 어려움에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주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구소련의 경우와 같이 다민족 국가이면서도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국가가 있다. 반면에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지만 소수민족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 국가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때, 그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주 국가의 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서구로 이주해 간 우리 동포는 서구문화에 일찍부터 동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국문화가 서구문화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관념을 가진 사람이 서구사회의 동포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거주 동포는 한국문화와 현지문화가 균등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수용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거주 국

가의 문화 환경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국가별 환경을 고려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3) 주요전략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재외한인 청소년들의 물적·인적 자산 가치만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오히려 현지 국가와의 마찰로 재외한인 청소년들이 적응을 해나가는데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혜성의 원칙이다. 현지국가와 우리가 함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재외한인 청소년들을 우리의 자원으로만 간주할 때, 현지국가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초기에 자국의 국적을 유지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동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에야 자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들을 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을 깨닫고 국외인적자원정책의 범위를 넓혔다. 즉, 자국 및 거주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호혜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화교집단의 이익 증진 및 번창은 물론, 모국과 거주국 모두가 공동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현지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전략적 정책 구안이 필요하다. 즉, 현지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어떤 나라이든지 타국가가 그 나라의 실정법을 무시하거나 주권을 도외시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소년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인식 선상에서 해당 국가들은 청소년 대상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을 존중하고, 그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주재국의 특성에 맞게 실시되어야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주재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정책이 획일화된다면 현실성을 도외시할 수 있으며 효율성도 반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현지 국가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참정권 인정 및 민족차별 시정 문제 등이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노력 없이 모국이 단순히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성은 반감될 것이다.

넷째, 민족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상대방 문화와 관습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으며 현지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의 적응력에 문제가 야기되면 그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부분 전이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국내 이주 재외동포 및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의 동질감과 자긍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판'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울판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울판 프로그램이 민족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가능한 성과일 것이다.

다섯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노력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안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될 경우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추진시 정부는 예산지원에 집중하고 실제적 사업 추진은 민간단체에게 위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인도 역시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 재외동포, 특히,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청소년층의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 및 청소년층과의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중시민권을 허용하고 임시

고용의 일부를 이들 재외동포 및 청년층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교육부문에서 여러 기관이 학문과 인적교류, 자국어 보급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 수행 주최 기관은 민간단체이며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은 거주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은 물론, 관련 정책의 수용 주체인 재외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접근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4)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

①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무엇보다도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재외 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 그리고 관심 있는 학계의 인사들이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연구대상을 청소년층으로 제한하여 실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재외동포 중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개발,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국가 역량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명한 진리에 기초한 접근이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민간전문가, 정책담당실무자, 관련 NGO근무자 그리고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필요성·중요성·실천가능성 등에 관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아젠다를 우선순위별로 선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 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각 부처간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층은 성장과정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삶의 욕구를 갖고 있고, 주변 환경에 민감히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다. 성인층과 구별되는 청소년층만을 위한 별도의 인적자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 내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산하기관 관계자, 관련 연구자, 민간부문의 국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계자 등을 포괄하는 국외 청소년 인적자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총괄 및 조정은 어렵겠으나 관련 정보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추진, 그리고 업무 협조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범부처간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정책 전담기구 설립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재외동포재단이 총괄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교민청과 같은 중앙정부 단위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교민청과 같은 중앙단위의 부처가 설립된다면, 이 기구에서 재외동포 인적자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민청 내에 청소년, 성인, 노인 등과 같이 삶의 생애주기에 기초한 정책 대상별 정책담당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의 공공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대만의 교무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눈여겨 볼만 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칭 '재외동포위원회'나 '교민청'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재외동포

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관반민 형태의 자문기구인 가칭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정책적 조언과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외무부 내에 MASHAV-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1958년 설립되어 이스라엘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다. MASHAV는 정부내 부서와 직업 전문기관과 학문 교육기관, 이스라엘 전역의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하고 있다. 착수 이후 거의 200,000명의 남녀가 MASHAV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스라엘 내외에서의 훈련과정을 거쳤고,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파트너 국가에서 장단기 협력을 수행했다. MASHAV는 전 세계 14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있으며, 미국, 네덜란드 등의 주요 국가와 FAO, UN, WHO 및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남희 외, 2005: 114).

④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문제는 국내의 인적자원 개발과 그 성격 및 업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세계 각 국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이주 및 이민의 역사가 다르고, 각 국의 언어 및 민족정책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층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각 개인이 갖는 성장 환경, 가족 구조(한부모, 입양, 조손 가정 등), 심리·정서적 상태, 모국어 습득 정도 등과 같은 각기 다른 조건으로 인해 획일적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표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역별(아시아, 미주, 유럽, 남미 등)·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수민족 정책은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담당기관의 인력이 모든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집행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가 추진, 혹은 선발한 인원을 국내외의 대학원 혹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시키거나 이미 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신규로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과 같은 과제를 검토해 볼 일이다. 더불어, 구체적 양성 커리큘럼, 양성방법(숙박, 통

원, 위탁교육 등), 선발방법 등의 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⑤ 필요 재원의 확보

예산은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때, 해당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분야의 정책을 일관되게 장·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가능한 방법은 정부차원의 예산확보,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혹은 민간기업체의 기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 중 일정 규모를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관련 예산으로 확보,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인도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2003년 교육국에 'Bharat Shiksha Kosh'를 두고, 인도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수단으로, Kosh는 국내 개인 및 기업, 중앙과 지방 정부, 교육 각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NRI와 PIO들에게서 기부를 받아 인도 내외에서 교육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김남희 외, 2005: 109).

⑥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적실성 있는 재외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거주 청소년들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 자료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청소년의 기본 정책은 이들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실시해야 한다. 즉, 해외 청소년의 국별 규모, 성별, 학력, 계층, 가족형태 등 제반 인구학적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때, 적실성 있는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청소년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거주 국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거주 국가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사 목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물론 거주 지역에 우리 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청소년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계자료화 하여 관련 전문가 및 부처가 이를 실제적으로 폭넓게 활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갖고 지속적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민족정체성 교육추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체계 구축

① 교육기관의 설립 확대 및 지원

해외에서 재외동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그리고 교육관 등이 있다. 2003년 기준 한국학교는 15개국에 25개교,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 한글학교는 96개국에 1,994개교, 교육관은 5개국에 12명이 설치 또는 파견되어 있다. 이 가운데 현재의 재외동포들이 자생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말학교 성격의 한글학교를 제외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 지원하는 교육기관은 정규학교 형태의 한국학교와 사회교육 성격의 한국교육원, 그리고 교육 영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진동섭 외. 2003: 266).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전체적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그나마 부족한 재외동포 교육기관들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문제는 각 교육기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의 배치가 부족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국가별로 설치·운영 중인 교육기관이 청소년들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구비가 시급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동포가 600만 명을 상회하고, 이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 60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재외동포 및 청소

년 개개인에게 교육적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훼손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기관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민 2세가 되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되고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들 2세들에게 한민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를 간직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교육은 현지 공관이 사회단체 등 NGO가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은 정책적으로 유학생을 우수인재의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울판이라는 모국어 교육, 혹은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외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 역시 모국어의 보급 및 확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재외 청소년교육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교과서 및 기자재의 적기 공급 체계 마련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국에 많은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학령기별 청소년들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한 교재가 적기에 개발·공급되지 못한다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재개발은 2000년도에 82개국 115개 공관에 408,632권을 공급해서 양적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수요자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해외 거주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동질성 증진을 위한 성격의 교재가 개발·보급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일이다. 더불어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의 교육 기자재 개발과 지원체계도 점검해 볼 일이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에 몰입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매체가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 교육망을 연결해서 효율적인 청소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만약,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비가 어렵다면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활용한 민족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청소년은 '유비쿼터스 세대'로 통칭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활용·선호하는 세대이다. 하루의 여가시간 중 대부분을 컴퓨터 활용 및 TV 시청에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청소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재외공관의 한국문화센터 중심지로의 확대 및 청소년전용 북카페 설치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문화센터를 각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문화센터는 문화전파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학자·관광객 등의 상호교류 확대에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재외공관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배치도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은 한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문화 인력에 대한 전진배치와 함께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북카페의 설치를 검토해 볼 일이다. 문화 사업은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문화단체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재외공관은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정례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리민족 뿌리 찾기 운동도 전개할 필요

가 있다. 뿌리 찾기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국방문이라는 수단일 것이다. 고국방문은 이제 특정 국가, 그리고 일부 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도 국가별로 인구 비례에 의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기회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⑤ 해외 입양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현재까지 해외입양아는 약 15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성장 이후 친부모 찾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출생 고국에 대한 친밀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입양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홀트 등 해외 입양아 주선 단체의 협조 하에서 입양아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아에게 모국을 알리는 각종 문화정보를 양부모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양기관은 관련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여 해당 청소년이 친부모 찾기에 나설 때, 정보 제공이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관련 NGO들은 해외입양아 초청 행사의 일환으로 장·단기적 모국어 교육이나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해외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1) 문화 · 학술교류의 확대 추진

우리 사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과 해외 거주 청소년들 간에 문화 및 학술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세계한민족문화제전, 재외동포예술제, 재외동포문학상 등과 같은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아세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전 세계의 한민족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지자체는 해외동포 거주 지역과 1:1 형태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차원의 문화·학술교류 프로그램 전개를 검토할 과제이다. 예컨대 인도 재외공관 내에 설치한 교육처(Education Wings in Indian Mission Abroad)는 과학,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친교 및 교류를 높이기 위해 설립하였고, 해외거주 인도 청소년들의 복지를 관장(김남희 외, 2005: 109)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육성 · 지원

기존의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외에 해외 한민족청소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2-3세대들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고 모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재외동포 자녀들을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차세대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도는 재외동포 청년들 중에서 유능한 인력을 국내로 다시 귀국시켜 활용하기 위한 STIOs(Scientists & Technologists of Indian Origin based abroad)제를 운영 중에 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전문 과학공학도들은 STIOs를 중심으로 산업체, 연구소, 대학, 과학관련 부처에서의 구직은 물론 과학기술에 강세를 보이는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벤처 자본가로서도 활약한다. STIOs는 해외 거주 과학공학 인적자원 연구 능력 개발과 인도출신 고급 인력의 국제단위 과학연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가 연구 인력 개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남희 외, 2005: 108). 따라서 인도의 사례처럼 우리도 거주 지역에서 이미 박사 학위를 받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하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더불어 각 분야별 차세대 지도자들의 모국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이나 연예·체육 분야에서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에서 연수, 유학, 교환방문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모국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해서 모국에 대한 애착을 공고히 하고, 거주국 사회에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유학생 및 유능한 재원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귀국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 설립을 고려중에 있다(김남희 외, 2005: 105).

3) 수학여행단 유치 및 모국체험 캠프 운영

재외동포의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국 방문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미주나 유럽지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모국 수학여행단 유치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수학여행 차원보다 모국체험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해외청소년 수학여행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기관별로 교육내용과 방식에 있어서의 특성, 만족도, 모국 수학여행 동기, 요구 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 교육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향에 부합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북미유대인연맹(유대인사회연합), 유대인민간자산단체 등과 함께 유대인 학생 이스라엘 방문프로그램인 Birthright Israel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일간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 투어로,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 실시되며 이스라엘에 도착해서는 40명의 참가자가 한 그룹을 만들어 같은 버스를 탄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친구들(학생 혹은 군인)과 몇 일을 함께 보낸다. 1999년 12월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약 145,000명의 해외 유대동포들을 이스라엘에 보냈다. 이중 3분의 2는 북미지역 출신이다. 여행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같은 그룹의 동료들과 연락을 취한다(민병갑, 2007).

4)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ON-OFF 네트워크 구축 운영

(1)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포탈사이트의 구축

한민족청소년 사이버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즉, 시·공을 초월한 정보 교류,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사이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중소 규모로 산재해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공적인 중심체와 포탈사이트가 필요하다. 이곳을 통해서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는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되,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식 검색, 관련 정부정책 홍보, 사회문화 자료 탑재 및 각종 정보 교환의 장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검색 서비스망을 구축·운영하고, 분야별로 커뮤니티 등을 형성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인적자원 상호간 및 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한민족청소년간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운영

해외 한민족청소년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나, 국외 유학생들은 그들만의 생활에 몰두하고 있고, 그들과 연계를 맺으며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 획득과 교류를 희망하는 국외 입양아들은 그들과의 네트워킹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교들은 혈연, 지연, 직연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조의 공간을 마련하여 빠른 성장을 도모하였다. 세계 어디를 가나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지 정부 또는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화교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부상조하고 있다(김화섭, 1998). 이스라엘도 '유태인 협회(Jewish Agency)'를 설치하여 전 세

계에 거주하고 있는 유태인의 전통보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해외거주 유태인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태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유태인 협회가 존재하여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이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민족청소년 대상 공익포털사이트 콘텐츠의 하나로 국내인과 외국인, 외국인간, 혹은 내국인간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각 지역 한인청소년단체를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활용

주요국에 한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이 거점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미,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지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문화, 예술 단체, 권익단체, 교육기관 들이 자생하고 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서 이러한 단체들은 한인 청소년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각 지역별로 간단히 한인 청소년관련 단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5]

(1) 북미 지역[46]

① L.A. 지역의 KAC(Korean American Coalition)
주소: 3727 West 6th St. Suite515LosAngeles,CA90020
전화 (213) 365-5999 팩스 (213) 380-7990

45) 이부분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주요지역의 한인 청소년 단체 현황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46) 이 내용은 이혜림 (캐나다 James Lee Inc.)이 집필하였음

■ 사명

한미연합회(KAC)는 1983년에 설립된 비영리 비당파 공동체 조직으로, 시민 문제와 정치문제 그리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재미 한국인의 참여를 촉진하여 한인 사회가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미국사회의 일부가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 목적

(1) 공동체의 관심과 이해를 발굴하고 공무원, 사적 및 공공 기관, 기타 공동체 조직, 매체 및 일반대중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수립하여 재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대변인이 된다.
(2) 재미 한인의 시민권을 증진시키고 한인공동체의 공공의식과 정치의식, 전반적인 사회의식을 고취시킨다.
(3) 재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의뢰기관의 역할을 한다.
(4) KAC와 여타 한인공동체 조직, 다른 민족 및 인종 공동체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협조 망을 유지한다.
(5) 이민 1, 2, 3세대로 구성된 자생력 있는 활동조직이 되도록 노력한다.
(6) 한인학생들을 공동체 및 시민사회에서 뛰어난 리더로 키우는 리더십개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New York의 KAFAC(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연락처: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P.O. Box 541429 Flushing, NY11354

전화: (718) 460-3800 팩스: (718) 460-3965 E-메일: contact@kacla.org

■ 소개

재미한인가정상담소(KAFSC)는 다양한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서 뉴욕 인근의 한인가정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비영리단체이다. KAFSC는 뉴욕

대도시권 가정에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AFSC는 상담, 지원, 교육 및 대화기법과 부모 역할 기술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특히 최근에 이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

(1) 호도리 방과후 프로그램 (6-12세)
어린이들은 방과후 만나 음악, 미술, 문화, 태권도, 숙제 그리고 자기 표현 및 사교기법 수업 등 창의적인 활동을 가진다.

(2) 언니/형 멘토링 프로그램 (7-17세)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교육적 및 사회적 지도와 가르침을 주려고 자원한 언니와 형을 어린이들에게 연결시킨다.

(3)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13-18세)
이 팀은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 및 수행을 통하여 리더십 기술을 배운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팀이다.

(4) 청소년을 위한 개별 상담
상담자는 지속적인 1:1상담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

③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의 C3 (Corean Canadian Coactive Society)

인터넷사이트: www.c3society.com

E-mail: info@c2society.com

■ 소개

C3는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된 네트워크이다. C3는 캐나다인과 한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리

를 놓는 비영리 단체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빛내고 재캐나다 한인의 미래를 의미와 기회가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사명

한인과 캐나다인 커뮤니티 사이에 문화, 교육, 경제, 문화유산을 제공함으로써 두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 역사

2003년 3월에 Ron Suh와 Jay Kim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면서 공식 출범한 이래 재캐나다 한인 1.5와 2세대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에 살면서 그들이 받은 바를 돌려주고 그리고 또 함께 움직이면서 재캐나다 한인의 미래가 풍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CS의 목표

(1) 한인과 캐나다인 커뮤니티 사이에 문화, 교육, 경제, 문화유산을 제공함으로써 두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2) 재캐나다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돕는다.
(3) 네트워킹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자원을 확충해간다.
(4) 더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행한다.

■ 문화적 목표

(1) 밴쿠버 지역에 한국의 예술과 문화 페스티벌을 벌일 수 있는 자금을 모은다.
(2) 밴쿠버 지역에 한국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인 예술가에게 전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3) 밴쿠버지역에 양로원을 설립하여 한국 노인들에게 식사와 의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육적 목표

(1) 1.5와 2세대 재태나다 한인 신문 발행

(2) 공립학교에 한국의 문헌과 참고자료를 늘림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3)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역의 공립학교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정하기 위한 자금을 모은다.

(2) 중국 지역[47)]

① 연변대학교

주소: 133002 중국길림성연길시공원로977호 (吉林省延吉市公園路977號)

전화번호: 0086-433-2732052 팩스: 0086-433-2719618

홈페이지: http://www.ybu.edu.cn

■ 소개

"교육의 고향"으로 정평이 나있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정부 소재지인 연길시에 위치하고 있는 연변대학은 민족특색을 지닌 종합대학이며 중국 "211공정"에 포함된 중점건설 대학이다. 연변대학은 1949년에 개교한 길림성 소속 대학이다. 1996년 중국교육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연변대학교, 연변의학원, 연변농학원, 연변사범고등전문학교, 길림성예술학원연변분교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연변대학교로 도약했다.

현재 연변대학교는 19개의 단과대학에 인문, 이공계, 의학 등 11개의 분야를 망라한 69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국가 중점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변대학교의 총학생수는 20,960명이며 그중 박사과정생이

47) 이 내용은 윤경애(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가 집필하였음.

110명, 석사과정생이 2,491명, 학부생이 16,914명, 전문대생이 470명, 유학생이 474명, 예과생이 198명이다. 현재 연변대학교의 교직원수는 2,712명이다. 현재 연변대학교는 미국, 일본, 한국 등 12개 나라와 지역의 144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 청소년 교류 관련 행사소개

(1) 중한 청소년 친선 문화제

연변대학교는 한국흥사단과 공동으로 중한 청소년 친선 문화제를 주최하고 있다. 1998년 7월에 제1회의 막을 올린 후 올해까지 10회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 문화제는 평화백일장, 문화유적답사, 학술회의, 운동경기, 민속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연변 인민방송국 청소년부

국장: 김동환

홈 페이지: http://ybrd.com

중국 연변 인민방송국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중국 내 유일한 한국어 종합 방송국으로 중국 내 200만 중국 동포를 주 시청자로 한다. 1946년에 개국한 최초의 조선족 방송국이다. 청소년관련 행사로는 한국 삼성전자와 YMCA에서 후원하는 전국 조선족어린이 노래콩쿠르를 올해로 12회째 개최하고 있다.

③ 대련 한국 국제학교

주소: 116600중국 요녕성 대련시 개발구 요하서로 61호 遼寧省大連市開發區遼河西路61號

연락처: 행정실 0086-411-87536031 초등교무실 8753-6030 중등교무실 8753-5051 팩스 8753-6033

홈페이지: http://www.dkischool.org/index.php

■ 소개

대련한국국제학교는 21세기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선도국을 향해 질주하는 중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한,중 양국의 교류 확대로 급증하는 대련 주변 지역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 속에서 잉태되었다. 2004년 3월 10일,초등부 28명의 학생들이 입학식을 가진 이래, 짧은 기간 동안 토대와 기초를 착실하게 닦아왔다. 이는 교직원, 재단이사회, 학부모님, 한인(상)회, 현지 법인과 개인 사업체 그리고 개인 독지가께서 이룩한 훌륭한 공적이다.

2005년 2월 2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중등과정 증설을 인가 받았고 2007년 2월 14일에 고등과정 증설을 인가 받았다. '한국' 교육과정 외에 영어 및 중국어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에는 특기적성교육활동(초등), 보충심화학습(중등) 및 야간심화학습(고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고 학력을 증진하고 있다. 中國 東北 3省의 關門인 대련 지역에서 모국 이해교육, 현지 적응교육 및 국내 연계교육의 터전이 될 것이다.

(3) 일본 지역[48)]

① 재일본 한국YMCA 내 아시아청소년센터(ASIA YOUTH CENTER)
인터넷 사이트: http://www.ymcajapan.org/ayc/jp
주소: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さるがくちょう）2－2-5-5
Sarugaku-cho, Chiyoda-ku, Tokyo, 101-0064, Japan

재일본 한국YMCA는, 서울YMCA에 이어 두 번째의 한국 YMCA로써 1906년 동경에 설립되었다. 조국의 수난기에, 그리스도 신앙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폐쇄된 재일공사관을 대신하여, 한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고, 일본어교육이나 진학상담, 생활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문화활동, 일본어학교, 재일본 한국문화관

48) 이 내용은 박승현(일본 동경대학교)이 집필하였음.

운영과 함께 한일문화교류, 숙박연수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문화부에서는 한국어강좌, 장구교실, 가야금교실, 한국무용교실, 어린이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일본지역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일본-재일-한국 유스포럼
인터넷사이트: http://youth-forum.soc.or.jp/
FAX: 81-(0)6-6762-7262

■ 소개

한일-재일-한국 유스포럼은 일본, 재일,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 '만남, 교류, 대화의 장'이다. 본 단체는 1997년 6월, '과거와 어떻게 마주해야할 것인가'라는 테마로, 도쿄와 오사카의 일본, 재일, 한국의 삼자가 첫 포럼을 시작한 것으로 출발했다. 이후, 매년 한 차례의 유스포럼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해, 수백 명의 젊은이가 특정 테마에 대한 현지조사, 학습회, 토론회, 공동행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공동실천을 이끌어 낼 기회를 만든다. 즉, 유스포럼은 삼자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행동을 생산해내는 '대화의 테이블'인 것이다. 실제로 유스포럼을 통해 알게 된 한일의 NGO들이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공동행동 방안을 구축하였다. 또한 포럼을 기회로 하여 상대국에 유학을 하거나, NGO활동에 참가하는 이들이 늘어나, 회를 거듭할수록 쌍방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유스포럼의 특징은 세가지이다. 첫째, NGO · NPO에 참가하거나 시민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재일-한국의 젊은이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21세기를 창조하는 중심 존재인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셋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재일코리안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로를 아는 것에서부터 미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유스포럼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③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인터넷사이트: http://www.seinenkai.org/

■ 소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의 산하단체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18세-30세의 재일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조직이다. 본 회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이외에도 재일 한국인 간의 교류나, 국적을 떠난 국제적 교류활동을 지향하는 문화적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여 한일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회원등록자는 약 3,500명이고 전국 14개 지방의 본부가 있다.

■ 주요활동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 취직문제, 결혼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문화써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는 농악이나 사물놀이, 부채춤 등을 가르치고 공연을 벌인다. 한편 민단주최의 행사로서 청소년고향방문단 행사가 매년 여름에 있다. 써머캠프, 크리스마스파티, 야유회 등이 주요 이벤트로, 고국의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는 기획하고 운영하며, 직접 인솔한다.

■ 청소년고향방문단(민단주최행사)

매년 여름 행해지며 한국 방문 기회가 없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여행이다. 써머캠프, 크리스마스파티, 야유회 등 각 지방, 지부의 행사들은 새로운 동포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④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KEY)

인터넷 사이트: http://youth-forum.soc.or.jp/members/key.html

■ 소개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은 1991에 결성되었다. KEY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조직의 연합체로, 동경에 한 곳, 오사카에 세 곳, 효고현에 두 개소의 지역거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사카에 전국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현재 KEY에는 약 400명의 재일 코리안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재일 코리안이란, “코리아에 뿌리를 가진 자” 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 등의 국적의 차이가 문제 되지 않는다. KEY에는 상부단체도 하부단체도 없으며,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회원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비도 회원들의 회비와 OB회원의 기부,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 주요활동

- 일한시민교류활동
- 한국청년단체와의 제휴사업
- 남북해외청년교류사업
-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실천을 향한 사업
- 일한관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북조선 인도적 지원 사업
- 역사인식의 공유/전후보상의 실현을 위한 사업
- 재일코리안사회의 화해의 진전과 재일코리안의 권리확충을 위한 사업
- 다민족문화공생사회실현을 위한 사업

(4) 독립국가연합[49]

① 고려문화협회

우즈베키스탄의 고려문화협회는 1988년 구소련에서 최초로 조직되어서, 현재는 2005년에 재선된 신 블라지미르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고려문화협회는 타쉬켄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49) 이 내용은 최소영(우즈베키스탄 동방학대학교)이 집필하였음.

있다. 산하기관으로는 과학자 협회인 '진보', 고려인 원로 협회, 기관지인 '고려신문', 전통무용단 '고려'와 고려인 청년회 등이 있다.

고려문화협회의 고려인 청년회(20세-40세)는 고가이 안드레이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전체 고려인 청년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기 보다는 고려문화협회의 행사가 있을 때에 행사준비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활동으로 보여진다. 고려문화협회의 주요 행사는 고려인들의 명절인 설날, 단오, 추석 등에 공연장이나 공원을 빌려서 가수나 무용단이 출연하는 공연을 하는 것인데, 이 때 고려인 청년회가 주최가 되어 행사진행을 맡는다.

고려문화협회의 활동이 이렇게 고려인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 위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상 민족별 활동은 문화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고려문화협회가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아 행사비의 상당부분을 한국기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려문화협회 산하기관 중에서 눈에 띄는 고려인 청소년 단체는 전통무용단 '고려'이다. 김 마르가리따가 지도를 맡고 있는 '고려'는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고 한국전통무용을 연습하고 있는데, 6명의 무용단원과 10여 명의 연습생으로 이루어진 소수의 청소년 그룹이기는 하나 지방공연 뿐 아니라 한국무용 보급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② 타쉬켄트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은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기관이기는 하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992년 5월에 개원하였는데, 2007년 현재 3000여 명의 수강생(고려인 비율은 40%)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114개 한글학교(11,000명의 학생)를 관리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에서 봉사를 위해 방문하는 강습자들이 있을 때 사물놀이나 전통무용 등의 강습을 비정규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준비하였다.

③ 타쉬켄트 세종한글학교

1991년 광주일보사 창사 39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위해 한인 밀집지역 5군데에 한글학교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재의 세종한글학교이다. 세종한글학교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단독 민간한글학교로, 2007년 현재 400명의 수강생이 공부하고 있다. 세종한글학교의 학생 중 고려인은 350명(87.55%)이며, 그 중 10대가 55.8%, 20대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한글학교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과 정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④ 타쉬켄트 주말한글학교

타쉬켄트 주말한글학교는 한국국적을 지닌 교포의 자녀교육을 위해 1997년 설립된 학교로 2002년 재외국민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과정까지 총 152명의 학생들이 재적중인데, 현지 고려인 청소년들과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국내 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활용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정도,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친선 기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은 정도는 통계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북미,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 모든 지역이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50] 또한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은 장래 진로와 관련해 고위 전문직 등 엘리트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차 거주국의 중요한 인적자원일 뿐 아니라 고국과 적절한 연계를 가질 때 한국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50) 자세한 내용은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II: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생활실태를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아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 기회를 늘려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부분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모국어, 모국문화 및 모국방문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네트워크 구축의 에이전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들이 제안된다.

(1) 모국방문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이민후속세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다원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모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이들은 지역의 신문이나 지역에서 개인적 통로를 통해 한국 방문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홈페이지에 고국방문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수록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거주국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방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이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보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웹싸이트를 통해 고국방문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글을 아는 1.5세의 경우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2세들의 경우 Face Book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2)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민후속세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

민족청소년들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 및 교류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단순히 해외한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나 단순지식 위주의 국사 혹은 단편적인 유적지 관광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들의 모국방문을 계기로 모국과 장기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해외한민족 모국 수학생과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 친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같은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한국을 떠나서는 온라인상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 및 막연한 전통문화를 공유한 집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재외한인 청소년 교류·지원센타 설립

현재 국제청소년교류센타 내에 재외한인청소년 교류·지원센타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의 경우 연수기관이나 방문기관을 통해 국내체류 정보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 해외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방문에 대한 총괄적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연계를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외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 문화, 교류,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들에게는 이들과 만나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이 상호간에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재외한인 청소년 교류·지원센타는 자체 내에 교류 전문가를 배치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모국방문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 편의 제공 필요

모국을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는 해외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으로서의 신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

용, 신용카드 사용, 의료시설 이용시 한국 주민이 아니어서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지 해외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인터넷 등록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국민거소신고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2007년 8월 이후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을 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제 한국이 보다 원활한 다문화·글로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 위주의 다양한 편의시설, 행정절차 등을 글로벌화시킬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정책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상으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부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북미,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 주요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였고, 해외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지역에서 한민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이민 역사와 청소년의 이민세대 거주국의 사회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미지역의 한인 청소년은 이민 2세대가 넘지 않는 청소년이 93.9%를 차지함으로써 북미 지역의 청소년 대부분이 이민세대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CIS, 일본 지역은 이민 3세대니 4세대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이민 몇세대인지 모르는 청소년이 중국지역은 33.3%, CIS 지역은 41.8%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의 대부분은 미래의 직업으로 전문직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고위관리직과 사무직을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향후에 글로벌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북미의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민족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국 방문, 유학 및 어학 연수, 이메일 또는 싸이월드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모국과 가깝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국과 연계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정주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주

류사회 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식의 문화와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모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은 장기간 살거나 취업하겠다는 사람은 적다. 반면에, 재미 한인 청소년들은 모국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 정부가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단기 방문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 청소년들 역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70% 이상이 한국에 대한 느낌이 좋다고 답했으며, 한국은 능력이 있고, 활동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92%가 넘는 응답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정도도 비교적 높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원하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반면 한국에 있는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정도는 높았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소속감, 자부심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일한인의 이민사와 거주국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진술에 높은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또래 청소년과 대화하고 싶은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 청소년 부모들은 한국사회에 호의적이며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열성이고 한민족끼리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한국음식을 즐겨 먹고 있으나 자녀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비율에 그쳤다.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이미 역동적이며 친밀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왔다. 그들은 한국어를 유용한 언어로 생각하고 한국방문 및 연수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 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4지역 모두 한민족 정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IS와 북미 지역의 청소년은 자신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한민족 배경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족 문화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4개국 모두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과 CIS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의 한인 단체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설문에 참여한 한인 학생들 주변에 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한인단체가 희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정보부족으로 활동률이 저조할 수 있다. 한인 단체에서의 활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인이나 한국단체와 연락을 주고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과의 네트워킹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한국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과의 교류 창구로서의 인터넷 사이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은 여러 경로로 한국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사회 및 한국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국경 개념이 약화되는 글로벌,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이들은 다차원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다. 이러한 전제하여 IV장에서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의 절과 같다.

2. 정책 제언

현재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와 국제화의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이 절실하다. 또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양질의 인적자원이야 말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은 국제화와 지식정보화 등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효율적으로 지원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소수민족으로서 재외동포와 그들의 자녀인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다. 즉 소수민족이라는 존재 조건은 동일할지라도 거주국가의 소수민족 존재에 대한 정치·경제적 상황, 주류민족의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 소수민족의 위상은 천차만별로 규정된다. 구소련 해체 후 신생 독립국으로 등장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에 산재한 고려인의 상황은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와 그 양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소수민족을 인정하는 중국의 조선족과 사회적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된

재일교포의 상황도 비교대상이 아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은 그들이 분포된 국가만큼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목표에서도 기본적인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관점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 자체가 아직 능력개발 단계에 있으며,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세계화 상황에서 중요성이 막연히 전제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정책의 연장선에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이 고려될 때 소기의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국가, 그리고 국가내 지역별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의 가치가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외교정책 차원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력자원의 활용방안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간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민족청소년을 포함한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인구센서스를 실시해 각종 이민 정책이나 해외 동포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인적자원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한인상공회의소와 같은 한인단체들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민족청소년을 포함한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업·공공기관·언론사 등과 공유하여 효율적인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동포와 한국 사이의 상호 교류와 재외동포 상호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우선 재학생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진학 및 취업 실태 등 진로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은 분야별·지역별·직종별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민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IV장에서 논의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 방안

(1) 현지 능력개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
(2) 현지 능력개발 지원
(3) 원격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모국방문 프로그램 다원화 및 질 제고
(5) 부처간 중복사업 통합 운영 및 법령 정비
(6) 현지 특수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도모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관련 지원 방안

(1) 해외거주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기본 방향 수립
(2) 한민족 문화, 전통에 대한 자긍심 고취
(3) 한국의 경제발전 및 세계화 전략과 연계 활용
(4) 전담조직 정비
(5) 해외교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
(6) 해외한민족 청소년들간의 교류 협력 지원
(7) 해외한민족 청소년들의 거주국 사회 적응 지원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전략

(1) 선결과제
- 당사자와 거주국의 협조하에 추진
- 선지원 후활용의 원칙
- 한민족 의식 고취
- 거주국의 다양한 민족 환경 고려

(2)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
- 거주국의 민족 환경
-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
- 거주국의 문화환경

(3) 주요전략
- 호혜성의 원칙(현지국가와 한국간의 상호 이익)
- 현지국가의 주권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전략적 정책 구안
- 주재국의 특수성에 맞는 요구 반영
- 민족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정책 수립
- 정부의 직접개입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이 바람직

4)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
① 체계적·종합적 중장기 계획 수립
②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③ 정책 전담기구 설립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④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
⑤ 필요재원의 확보
⑥ 해외 한민족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민족정체성 교육 추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체계 구축

① 교육기관의 설립확대 및 지원
② 교과서 및 기자재의 적기 공급 체계 마련
③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④ 재외공관의 한국문화센터 중심지로의 확대 및 청소년전용 북카페 설치
⑤ 해외입양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2. 해외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구축방안

1) 문화· 학술교류 확대 추진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육성·지원

3) 수학여행단 유치 및 모국체험 캠프 운영

4)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on-off 네트워크 구축 운영

(1)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포털사이트의 구축
(2) 한민족 청소년간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 운영

5) 각 지역 한인 청소년단체를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활용

6)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을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활용

(1) 모국방문 정보 제공 강화
(2)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활성화
(3) 재외한인 청소년 교류지원센타 설립
(4) 국내체류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 편의 제공

참 고 문 헌

국립민속박물관(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언어상황과 한국어의 지위.

국립민속박물관(200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현지 조사보고.

권태환· 박광성(2005). 교육과 조선족 사회의 위기.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김 게르만(2000. 6). 고려인과 관련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활동을 학문적으로 정리, 전남대 국제학술대회

김남희 외(2005). 국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金明秀·福岡安則(1997), 재일한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조사, 제3차 재일한국인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김우승(1994). 이슬람- 정교문화의 충돌과 CIS한인의 정치적 위기: 종교사회학적 분석. 배재대학교.

김응렬(1990). 재일한국인의 사회이동, 아세아 연구 33권 2호,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pp.167-193

김정구(2004).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33집, 한국동북아학회, pp.265-279

김화섭(1998). 금융위기 이후 중화경제권의 전개와 산업협력 방향. 산업연구원.

민관식(1990). 재일본한국인. 아세아정책연구원

민단(1987). 재일동포의 생활실태와 의식조사. 민단자체보고서

민단(2000). 재일한국인 의식조사. 민단자체보고서

민병갑(2007). 재미 유태인 젊은이들의 민족정체성과 유태인 사회 및 이스라엘에 대한 응집력.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 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보리스. 부가이 니콜라이 지음(2004). 러시아에서의 140년간(김광한, 이백용 옮김). 시대정신.

세계화상네트워크, www.wcbn.com

아사가와(2003). 재일외국인과 귀화제도. 신간사

연변조선족자치주 서울사무소. http://china.yanbian.gov.cn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www.yanbian.gov.cn
연변통신(2002. 8. 25, 2005. 8. 27, 2005. 11. 18, 2007. 7. 19). www.yanbiannews.com.
오노치아키(2005). 재일한국인의 귀화에 관한 연구: 3세대를 중심으로. 신간사
온라인 중국정보(2006. 5. 16, 2006. 8. 22, 2006. 9. 1, 2006. 12. 15, 2007. 2. 1, 2007. 8. 23). www.onbao.com.
외교통상부(2006). 참여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외교통상부(2007). 재외동포현황.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윤인진 외(2005). 국외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이광규(1998).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토착문화의 융합문제.
이길주(1994). CIS 한인동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문화적 측면.
이문웅(1981).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사회.
이승훈(1984).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미취업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영상·황영삼 편(2005). 소련해체 이후의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대 출판부.
임영언(2006).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한국학술정보(주)
임채완·전형권(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임홍빈(1999). 카자흐스탄 한인 동포와 모국어.
정진곤 외(1997).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한림과학원
재외동포신문 2007. 10. 12일자 1면 기사
재외한인학회(1996). 중앙아시아 현지조사자료집.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1997). 재일한국인의 사회성층과 사회의식조사.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보고서
진동섭 외(2003).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최 스베틀라나(2000)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 상황에 대한 현지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문.
최석신·임채완 외(2005). 재일코리안 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최응용·임채완·이장섭·강태구·윤순석(2005). 중국 조선족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최후택(2007). 연변인구문제와 변경인구안전문제 대책연구. 연변대학(미간논문)
한국대사관(1995). 재일한국인생활의식조사. 재일한국대사관자체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2003).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다해.
흑룡강신문(윤은걸 기자), 2005. 1. 11일자.

浅川晃宏(2003). 在日外國人と歸化制度, 新幹社
日本法務省出入国管理局(2006). 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 財団法人入管協会
中和人民共和國教育部(2005.4). 2000年 全國教育事業發展統系公報, 박광성(2006)재인용
中國國務院人口調査辦公室及國家統計局(2003). 中國2000年人口調査資料
Min, Pyong Gap(1998). *Changes and Conflicts:Korean Immigrant Families in New York.* Boston: Allyn and Bacon.
Min, Pyong Gap, and Joann Hong(2002). "Ethnic Attachment among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Second Generation: Ethnic Identity among Asian Americans*, edited by Pyong Gap Min. Walnut Creek: Altamira Press, pp. 113-127.
Yoon, In-Jin(2007). "Social and Economic Status Attainment of Korean Americans: Inter-generation and Inter-group Comparison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ple Immigrations: US Immigration in the Global Context.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Nov. 1-2.
Г. Н. Ким, указ. соч., с.175.
Г. Н. Ким,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 цев, кн. 2, 1945-2000. (Алматы Д ай к-Пресс, 2006), с.174.
Там же, с.138-142.

부 록

1. 영어 설문 조사지
2. 일어 설문 조사지
3. 러시아어 설문지
4. 중국어 설문지
5. 주요국의 한인청소년관련 단체 현황

1. 영어 설문 조사지

General Social Survey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I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s conducting a general social survey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and Korean identity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Findings from the survey shall be used for developing government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survey will be statistically analyzed to understand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s a group, and therefore, all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sha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Your candid response to each question will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are currently a **high school student** or an **undergraduate student**, please participate in the survey. It will take approximately 20 minutes or les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As a token of our appreciation for your valuable time and information, we will mail you a gift worth 15 US dollars if you participate in the survey. Please leave your email address and mailing address to receive the gift certificate.

September 2007
Principal Investigator: Professor In-Jin Yoon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Phone: 82-2-3290-2490
E-mail: yoonin@korea.ac.kr
Homepage: http://yoonin.korea.ac.kr

I. Personal Characteristics

1. What is the name of the city or place where you currently live?
   ( )

2. Your Age? ( )

3. Your Gender?
_____① Male _____② Female

4. In which country were you born?
_____① United States _____② South Korea
_____③ Latin American country _____④ Other

5. In terms of generation, which generation do you think you personally belong to?

(The 1.5 generation is a group of people who were born in South Korea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ge 6~18 and think their ident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_____① First generation _____② 1.5 Generation
_____③ Second generation _____④ Third generation
_____⑤ Fourth generation _____⑥ Don't Know

(If you are a foreign-born)

6. When did you arrive in the United States? Year _____ Month _____

7. Your current status?

_____① High school student _____② Undergraduate student
_____③ Graduate student _____④ Worker
_____⑤ Unemployed _____⑥ Other(Please Specify,)

8.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wish to attain?

_____① High school _____② 2-year college
_____③ 4-year college or university _____④ Master of Arts
_____⑤ Ph. D. or doctoral degree _____⑥ Other (Specify,)

9. Which type of profession do you wish to engage in the future? Please tick the corresponding number.

_____① Professional (Lawyer, artist, professor, scholar, doctor, accountant, teacher etc)
_____② High-ranking executive (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officer and higher ranking military personnel)
_____③ Administrative support (or clerical) (Government employee, employee of private firms and organizations, low-ranking military personnel)
_____④ Technical (Superintendent, skilled technician)
_____⑤ Business (Self-employed worker, family business worker, peddler, street vendor, carpenter shop owner, taxi driver etc)
_____⑥ Sales (Wholesaler, retailer, insurance or real state dealer, sales man, clerk etc)
_____⑦ Service (Employee of restaurant/hotel/beauty shop etc)
_____⑧ Farmer, fisher
_____⑨ Production, Driver and manual(Factory worker, Low-skilled laborer etc)
_____⑩ Full-time housewife
_____⑪ Unemployed
_____⑫ Other(Please Specify,)

II. Religion

1. What is your religion?

_____① Protestant _____② Buddhist _____③ Catholic
_____④ Confucianist _____⑤ Muslim _____⑥ Other
_____⑦ No religion **(Go to Question III-1 next page)**

2. How often have you attended church or temple services in the past year?

_____① A few times a week _____② Once a week
_____③ Two or three times a month _____④ Once a month
_____⑤ Several times a year _____⑥ Once a year
_____⑦ Less than once a year _____⑧ Never

3. Do you call yourself a strong, or not a very strong follower of your religion?

_____① Very Strong _____② Strong
_____③ Somewhat strong _____④ Not strong

4. What is the racial or ethnic composition of your church or temple?

_____① Predominantly Korean _____② Predominantly white
_____③ Predominantly Asian _____④ Racially or ethnically mixed
_____⑤ Other(Please specify,)

5. Do you attend Korean-language church service or English-language church service?

_____① Korean-language service
_____② English-language service
_____③ Both Korean- and English-language service
_____④ Other(Please specify,)

6. In your view, are religious identities (eg. Christian identity) and ethnic identities (eg. Korean identity) compatible or incompatible (in other words in harmony or disharmony)?

_____① They are wholly compatible
_____② They are partially compatible
_____③ They are not compatible at all
_____④ Don't know

7. In a case where religious identities and ethnic identites are not compatible, which identity is more important for you?

_____① Religious identity _____② Ethnic identity
_____③ Equally important _____④ Neither is important
_____⑤ Don't know

III. Family Relations

1. Please indicate all family members who are living in your household (Include those who are temporarily living elsewhere, eg, on holiday).

_____① Father _____② Mother _____③ Brother
_____④ Sister _____⑤ Grand father _____⑥ Grand mother
_____⑦ Aunt _____⑧ Uncle _____⑨ Other

2. What is the size of your family? (Includeyourself and those who are temporarily living elsewhere).

_____① One _____② Two _____③ Three
_____④ Four _____⑤ Five _____⑥ Six and more

3. How m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_____① One _____② Two _____③ Three
_____④ Four _____⑤ Five _____⑥ Six and more

4. What is your birth order among your siblings?

_____① First child _____② Second _____③ Third
_____④ Fourth _____⑤ Fifth _____⑥ Sixth or later

5. What is the ethnicity of your parent?

_____① Father is Korean _____② Mother is Korean
_____③ Both are Korean _____④ Both are not Korean

6. Are your mother and/or father foreign-born or U.S.-born?

	Foreign-born	U.S.-born
Father	_____①	_____②
Mother	_____①	_____②

(If your parents are foreign-born)

7. When did your parent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Please write the year of immigration for father and mother. (ex. 1996)

Father: Mother:

8.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school your parents have attended? Write the corresponding number in the brackets.

Mother ( ) Father ( )

_____① no education _____② elementary school
_____③ middle school _____④ high school
_____⑤ some college education _____⑥ graduated from college
_____⑦ graduate school and more _____⑧ other(Please specify)

9. What is the primary occupation of your parent?

Write the corresponding number in the brackets below. (If they have retired or deceased, report the previous occupation)

Mother ( ) Father ( )

_____① Professional (Lawyer, artist, professor, scholar, doctor, accountant, teacher etc)
_____② High-ranking executive (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officer and higher ranking military personnel)
_____③ Administrative support (or clerical) (Government employee, employee of private firms and organizations, low-ranking military personnel)
_____④ Technical (Superintendent, skilled technician)
_____⑤ Business (Self-employed worker, family business worker, peddler, street vendor, carpenter shop owner, taxi driver etc)
_____⑥ Sales (Wholesaler, retailer, insurance or real state dealer, sales man, clerk etc)
_____⑦ Service (Employee of restaurant/hotel/beauty shop etc)
_____⑧ Farmer, fisher
_____⑨ Production, Driver and manual(Factory worker, Low-skilled laborer etc)
_____⑩ Full-time housewife
_____⑪ Unemployed
_____⑫ Other(Please Specify,)

10. Is your family income sufficient or insufficient for living?

_____① Very insufficient
_____② Somewhat insufficient
_____③ Neither insufficient nor sufficient
_____④ Somewhat sufficient
_____⑤ Very sufficient

11. Compared with American families in general, would you say your family income is fare below average,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or far above average?

_____① Far below average
_____② Below average
_____③ Average
_____④ Above average
_____⑤ Far above average

12. To what degree are you satisfied with your current life?

_____① Very dissatisfied
_____② Somewhat dissatisfied
_____③ Neither dissatisfied nor satisfied
_____④ Somewhat satisfied
_____⑤ Very satisfied

(If you were born in South Korea)

13. If you recall your family life in South Korea before you came to the United States, compared with South Korean families in general, would you say your family income was far below average,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or far above average?

_____① Far below average
_____② Below average
_____③ Average
_____④ Above average
_____⑤ Far above average
_____⑥ Don't know

IV. Attitudes toward and Relations with South Korea

Please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1. Parent's socialization styles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talk to my parents in Korean.	1	2	3	4	5
2. Overall, my parents say good things about Korea.	1	2	3	4	5
3. My parents want me to study Korean.	1	2	3	4	5
4. My parents want me to get a job which is related to Korea.	1	2	3	4	5
5. My parents teach (or taught) us Korean.	1	2	3	4	5
6. My parents usually make Korean food.	1	2	3	4	5
7. My parents want me to marry a Korean.	1	2	3	4	5

2. My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m interested in Korean news.	1	2	3	4	5
2. I have plans to visit Korea in 2 or 3 years.	1	2	3	4	5
3. I have plans to study or get a training in Korea.	1	2	3	4	5
4. I would visit Korea if I had a chance.	1	2	3	4	5
5. I want to talk with fellow South Koreans of the same age.	1	2	3	4	5
6. I will choose a Korean as my spouse.	1	2	3	4	5
7. I want to get a job which is related to Korea.	1	2	3	4	5
8. I have more interests about Korea than my parents do.	1	2	3	4	5
9. I know much more about Korea than my parents do.	1	2	3	4	5
10. I woul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jobs and careers if I learned Korean.	1	2	3	4	5
11. I want to work in Korea.	1	2	3	4	5
12. I want to live in Korea.	1	2	3	4	5

3. Have you ever visited Korea?

_____① Yes, (If yes, how many times? _____)

_____② No

4. How often do you listen to Korean news?

_____① Everyday
_____② 2-3 times a week
_____③ Once a week
_____④ Not frequently
_____⑤ Never

(If you listen to Korean news)

5. How do you get Korean news?

_____① TV _____② Radio
_____③ Internet _____④ Newspaper, magazine
_____⑤ Friends or acquaintance _____⑥ Others(Specify,)

6. Have you ever watched Korean drama or entertainment programs via TV, radio, or internet?

_____① Frequently
_____② Occasionally
_____③ Never
_____④ Not able to watch because of no broadcast

(If you have ever watched Korean drama or entertainment programs)

7. How do you feel about those programs?

_____① Very interesting _____② Somewhat interesting
_____③ So-so _____④ Not interesting at all

8. Please tell me how you feel about South Korea.
Please tick the number that measures your feeling in the good-bad, capable-incapable, active-inactive, intimate-not intimate dimensions.

1) South Korea is

Very Good	Somewhat Good	So and so	Somewhat Bad	Very Bad
5	4	3	2	1

2) South Korea is

Very Capable	Somewhat Capable	So and so	Somewhat Incapable	Very Incapable
5	4	3	2	1

3) South Korea is

Very Active	Somewhat Active	So and so	Somewhat Inactive	Very Inactive
5	4	3	2	1

4) South Korea is

Very Intimate	Somewhat Intimate	So and so	Somewhat Not intimate	Not Intimate at all
5	4	3	2	1

9. Please tell me how you feel about South Korean people.
Please tick the number that measures your feeling in the good-bad, capable-incapable, active-inactive, intimate-not intimate dimensions.

1)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Good	Somewhat Good	So and so	Somewhat Bad	Very Bad
5	4	3	2	1

2)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Capable	Somewhat Capable	So and so	Somewhat Incapable	Very Incapable
5	4	3	2	1

3)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Active	Somewhat Active	So and so	Somewhat Inactive	Very Inactive
5	4	3	2	1

4)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Intimate	Somewhat Intimate	So and so	Somewhat Not intimate	Not Intimate at all
5	4	3	2	1

V. Korean Culture and Korean Identity

Please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1.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 -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A Korean background is very helpful for me to live.	1	2	3	4	5
2. I observe Korean traditional holidays , e.g. Korean New Year's Day, Korean Thanksgiving Day	1	2	3	4	5
3. I know a great dealabout Korean culture.	1	2	3	4	5
4.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Korean.	1	2	3	4	5
5. I can speak Korean.	1	2	3	4	5
6. I can read Korean.	1	2	3	4	5
7. I can write Korean.	1	2	3	4	5

2. Korean ethnic identity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 -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m proud of myself as a Korean.	1	2	3	4	5
2. I try to know the history of Korea, tradition, customs etc.	1	2	3	4	5
3. I actively join the community or social groups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Koreans (association, clubs, meeting with people who are from the same city etc).	1	2	3	4	5
4. I know of the about Korean background very well.	1	2	3	4	5
5. I have a pride as a member of Korean.	1	2	3	4	5
6. I have strong attachment to Korean.	1	2	3	4	5
7. I frequently talk about Korea to other people.	1	2	3	4	5

3. Networks with South Korea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 -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ctively participate in Korean organizations.	1	2	3	4	5
2. I contact with people or organizations in Korea	1	2	3	4	5
3. Korea gives enough information to overseas Koreans.	1	2	3	4	5
4. I want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interchange with young Koreans.	1	2	3	4	5
5. I visit Korean web sites.	1	2	3	4	5
6. There is a need for internet web sites where we can talk with young Koreans.	1	2	3	4	5
7. I have a good impression of Korean students who have coame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1	2	3	4	5
8. I have a good impression of Korea because of Korean students who have come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1	2	3	4	5
9. I know of the study-abroad program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1	2	3	4	5
10. I know of the employment program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1	2	3	4	5

4. To what degree do you think your Korean ethnicity affect the following areas of everyday life?

Area of everyday life	Very Weakly	Somewhat weakly	So-so	Somewhat strongly	Very strongly
1. Choice of occupation	1	2	3	4	5
2. Choice of friends	1	2	3	4	5
3. Neighbor relations	1	2	3	4	5
4. Choice of spouse	1	2	3	4	5
5. Eating habits	1	2	3	4	5
6. Ways of thinking	1	2	3	4	5
7. Choice of residential area	1	2	3	4	5
8. Choice of major in college	1	2	3	4	5

5. How do you think about the race or ethnicity of your (future) spouse?

_____① He or she must be Korean
_____② I would prefer a Korean to a non-Korean
_____③ It does not matter whether he or she is Korean.

6. Regardless of your intention, how do you think you marry eventually?

_____① Korean
_____②Asian (e.g., Chinese, Japanese)
_____③ White
_____④ African American(Black)
_____⑤ Hispanic
_____⑥ Other
_____⑦ Don't know

7. Which language(s) are used in your family when parents and children talk to each other?

_____① Both speak Korean
_____② Parents Korean and children English
_____③ Parents English and children Korean
_____④ Both speak English
_____⑤ Other

8. When you talk to your parents, what is your perceived level of difficulty in communication?

_____① No difficulty at all
_____② Some difficulty but not a big problem
_____③ Big problem in communication
_____④ There is no communication at all

9. How do you evaluate your ability to speak the following languages?

	English	Korean	Other
Very well	4	4	4
Well	3	3	3
Not well	2	2	2
Not at all	1	1	1

10. When you were young (before age 12), how often did you speak Korean in the house?

_____① Very frequently _____② Frequently
_____③ Occasionally _____④ Rarely
_____⑤ Not at all

11. When you were young (before ages 12), did you have Korean friends?

_____① Yes _____② No

12. When you were young (before age 12), did you attend a Korean church?

_____① Yes _____② No

13. If you have close friends with whom you can confide in on personal matters, how many such close friends (excluding relatives) do you have? Write the number: _____

14. Among such close friends, what are the percentages of Korean and non-Korean friends?

① Percentage of Korean friend(s)_____
② Percentage of Asian friend(s)_____
③ Percentage of white friend(s)_____
④ Percentage of black or Hispanic friend(s)_____

VI. Attitudes toward Reunification of Korea

1. How will you feel if South and North Koreas are reunified?

_____① Very unhappy _____②Unhappy
_____③ So and so _____④ Happy
_____⑤ Very happy _____⑥ Don't know

2. What is the level of your interest in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issues?

_____① No interest at all _____② Low interest
_____③ High interest _____④ Very high interest

3. Which reunification process do you favor?

_____① Immediate reunification
_____② Gradual reunification
_____③ Coexistence rather than reunification
_____④ Reunification is not desirable
_____⑤ Don't know

(If you favor reunification)

4. Why do you think reunification is necessary? Choose the single most important reason.

_____① Because historically Korea used to be one nation
_____② To reduce war possibility and to live peacefully
_____③ To reduce sufferings of separated fami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_____④ To make Korea a strong nation
_____⑤ Other

(If you think reunification is not desirable)

5. Why do you think reunification is not desirable? Choose the single most important reason.

_____① Distant feelings toward North Korea
_____② Economic burden to South Koreans because of aid to North Korea
_____③ Social chaos
_____④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s better for national development
_____⑤ Reunification is not necessary if war threats are removed
_____⑥ Other

6. How prepared do you think South Korean society is prepared for reunification?

_____① Very well prepared _____② Somewhat prepared
_____③ Not well prepared _____④ Not prepared at all

VII. Policy Recommendations

1. What kind of policies or programs do you wish the Korean government or related organizations to implement for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Choose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_____① monetary support for man-power development (e.g. school expenses)
_____② textbooks or equipments for man-power development
_____③ teachers for man-power development
_____④ vocational education or job training in Korea
_____⑤ exchange programs with young generation Koreans
_____⑥ long-distance education program (e.g.,web-based education)
_____⑦ short-term visits to Korea
_____⑧ Korean language training in Korea
_____⑨ long-term or short-term employment support
_____⑩ internship programs
_____⑪ other (Please specify)

2. What kind of policies or programs do you wish the Korean government or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o implement in order to develop human resources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Choose all needed policies and programs.

_____① support job placement in South Korea

_____② support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 in South Korea

_____③support job placement in local branch firms of Korean corporations

_____④ Other (Please specify)

3. For the interest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re there any suggestions you would like to make to the Korean government? (Answer on the back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Please write down your email address and mailing address where you can receive our gift. (Your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Name:

Email address:

Mailing addres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2. 일본어 설문 조사지

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生活実態に関する調査

<調査の目的とお願い>

湖南大学校人文社会科学研究所では、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生活実態と母国間の協力増進、または世界韓民族青少年ネットワーク構築方案などを模索するため、研究調査を行っております。
このアンケートは研究目的の以外には使用いたしません。　回収された質問紙はすべて統計処理いたしますので、記入漏れがないようお願い致します。
質問項目が少し長いと思われますが、皆-Iが作成して下さった一枚一枚は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今後の展望を探るための貴重な資料となります。
本質問紙の趣旨についてご理解頂き、ご協力賜りますよう宜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主管: 湖南大学校人文社会科学研究所
韓国光州市西鳳洞 59-1
責任研究者 : 金太基(湖南大学校日本語科教授)
共同研究者 : 林永彦(全南大学校世界韓商文化研究団研究教授)
連絡先 : TEL82-62-530-2703/82-10-9883-2428/FAX : 82-62-530-2707
メール : yimye@hanmail.net
後援 : 韓国青少年開発院

I. 個人の基本事項

1. あなたが現在住んでいる場所は（都市名）どこですか。（　　）

2. あなたの年齢は何歳ですか。（満　　歳）

3. あなたの性別は何ですか。_____① 男性　_____② 女性

4. あなたの現在の身分は何ですか。
_____① 高校生 _____② 大学生_____③大学院生
_____④ 会社員_____⑤ 無職　　_____⑥その他（ 具?的に： ）

5. あなたが将来に希望している職業は次の中でどれですか。
_____①専門職など（弁護士、芸術家、教授、学者、医師、会計士、教師など）
_____②高級管理職など（政府３級以上公務員、行政管理者、企業役員"E理事、将校以上の軍人など）
_____③事務職など（政府行政公務員、企業事務職従事者、銀行員、警察、下級軍人など）
_____④技術職（生産監督、熟練技術者）
_____⑤商業･自営業（９人未満小規模企業及び家族従事者、個人タクシー運転手など）
_____⑥販売従事者（小売･卸売り従事者、保健及び不動産仲介人、営業員、店員など）
_____⑦サービス従事者（飲食･宿泊業管理者及び関連従事者、美容師など）
_____⑧農業、漁業、林業
_____⑨生産及び関連従事者、運輸及び単純労働者（工場労働者、日雇い労働者など）
_____⑩家庭主婦
_____⑪無職
_____⑫その他（具体的に：　　）

6. あなたの宗教は次の中でどれですか。（複数選択）
_____① 仏教　　_____② キリスト教　　_____③ 神道
_____④ 儒教　　_____⑤ 創価学会　　_____⑥ カトリック
_____⑦ 無宗教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

7. あなたは在日の何世代目にあたりますか。
(1.5世代は韓国で出生し、6~18歳の間で移民した人として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在日 1世代と 2世代とは違うと認識している人を指す。)
_____① 在日1世　_____② 在日1.5世　_____③ 在日2世
_____④ 在日3世　_____⑤ 在日4世　_____⑥ 在日5世　_____⑦わからない

Ⅱ. ご両親と家庭事情

1. あなたのご両親について質問です。
_____① 両親とも生存 _____② 父のみ生存
_____③ 母のみ生存 _____④ 両親とも死亡

2. あなたの父と母の民族的背景は何ですか。
_____① 父が在日 _____② 母が在日 _____③ 両親とも在日

3. あなたは現在誰と一緒に生活していますか。
_____① 一人暮らし　_____② 両親と暮らす
_____③ 父と暮らす　_____④母と暮らす
_____⑤ 兄弟姉妹と暮らす　_____⑥ その他 (具体的に:)

4. ご両親の学歴についての質問です。下記の番号の中から該当する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現在亡くなられた方は生存時の学歴)
(1) 父 (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2) 母 (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_____①無学　_____②小学校中退・卒業　_____③中学校中退・卒業
_____④高校中退・卒業　_____⑤高校中退卒業　_____⑥専門大学・大学校中退
_____⑦大学院以上　_____⑧その他 (具体的に:)

5. ご両親の職業は何ですか。下記の中から該当する番号を選んでください。
(引退や死亡の場合、生存時の職業)
(1) 父 (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2) 母 (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_____①専門職など（弁護士、芸術家、教授、学者、医師、会計士、教師など）
_____②高級管理職など（政府３級以上公務員、行政管理者、企業役員・理事、将校以上の軍人など）
_____③事務職など（政府行政公務員、企業事務職従事者、銀行員、警察、下級軍人など）
_____④技術職（生産監督、熟練技術者）
_____⑤商業・自営業（９人未満小規模企業及び家族従事者、個人タクシー運転手など）
_____⑥販売従事者（小売・卸売り従事者、保健及び不動産仲介人、営業員、店員など）
_____⑦サービス従事者（飲食・宿泊業管理者及び関連従事者、美容師など）
_____⑧農業、漁業、林業
_____⑨生産及び関連従事者、運輸及び単純労働者（工場労働者、日雇い労働者など）
_____⑩家庭主婦
_____⑪無職
_____⑫その他（具体的に：　　）

6. 現在家族収入は家族が生活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水準ですか。
_____① とても不足である　　_____② やや不足である
_____③ 普通である　　_____④ やや充分である
_____⑤ とても充分である

7. 一般的な家庭と比べ、あなたの家族の所得はどのような水準ですか。
_____① 平均よりとても低い。　　_____② やや平均より低い
_____③ 平均くらいである　　_____④ やや平均より高い
_____⑤ 平均よりとても高い

8. あなたは現在の生活について全般的に満足していますか。
_____① まったく不満である　　_____② 不満である
_____③ 普通である　　_____④ 満足である
_____⑤ とても満足である

Ⅲ. ご両親と関連する家庭生活

家庭生活	全くそう思わない	そう思わない	普通である	そう思う	とてもそう思う
1。両親と対話の時は韓国語（朝鮮語）で話す。	1	2	3	4	5
2。両親は大抵韓国について肯定的に評価する。	1	2	3	4	5
4。両親親は私が韓国と関連する職業で働いて欲しいと願う。	1	2	3	4	5
5。両親は私が韓国人と結婚して欲しいと願っている。	1	2	3	4	5
6. 両親は韓国の食べ物をよく作る。	1	2	3	4	5

Ⅳ. 韓国への関心

	全くそう思わない	そう思わない	普通である	そう思う	とてもそう思う
1. 韓国関連のニュースに関心がある。	1	2	3	4	5
2. 今後 2-3年内に韓国を訪問する計画がある。	1	2	3	4	5
3. 韓国で研修や勉強をする計画がある。	1	2	3	4	5
4. チャンスがあれば、韓国を訪問したい。	1	2	3	4	5
5. 韓国にいる同世代の青少年と対話をしたい。	1	2	3	4	5
6. 私は配偶者として韓国(朝鮮)人を選択したい。	1	2	3	4	5
7. 韓国(朝鮮)と関連している職業に就職したい。	1	2	3	4	5
8. 私は両親より韓国(朝鮮)で起きていることに関心が高い。	1	2	3	4	5
9. 私は両親より韓国(朝鮮)についてもっと知っている。	1	2	3	4	5
10. 韓国語(朝鮮語)を勉強しておけば、将来職業や進路選択にに有利である。	1	2	3	4	5

11. 韓国を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_____① ある（ _____ 回)　　_____②ない

12. あなたは韓国ニュースをどのくらい聞いていますか。

_____① 毎日　　_____② 2-3 日の内1回

_____③ 一週間1回　　_____④ ほとんど聞かない

_____⑤ まったく聞かない

13. (韓国ニュースを聞いている場合) 何 (誰) を通して聞いていますか。

_____① TV　　_____② ラジオ　　_____③インターネット

_____④ 新聞 · 雑誌　_____⑤ 友達や親戚　_____⑥その他 (具体的に：)

14. あなたは TVやラジオを通して韓国ドラマや娯楽番組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_____① 頻繁にある。　　_____② 時々ある。

_____③ 全くない。　　_____④中継施設不備の関係で視聴できない。

15. (見たことのある方に)あなたは韓国のドラマや娯楽プログラムについてどのような感じでしたか。

_____①　とても面白かった。　　_____② 面白い方である。

_____③ あまりㅋわらない。　　_____④ 幼稚で面白くない。

16. あなたは韓国がどんな国だと感じていますか。

	とても	そこそこ	どちらでもない	そこそこ	とても	
良い	□	□	□	□	□	悪い
能力がある	□	□	□	□	□	能力がない
活動的である	□	□	□	□	□	非活動的である
親密である	□	□	□	□	□	親密でない

良い vs. 悪い = good vs. bad; 能力がある vs. 能力がない = capable vs. incapable; 活動的である vs. 非活動的である = active vs. inactive; 親密である vs. 親密でない = intimate vs. not intimate

17. あなたは韓国人がどんな人だと感じていますか。

	とても	そこそこ	どちらでもない	そこそこ	とても	
良い	□	□	□	□	□	悪い
能力がある	□	□	□	□	□	能力がない
活動的である	□	□	□	□	□	非活動的である
親密である	□	□	□	□	□	親密でない

V. 韓国(朝鮮)言語は文化に対する理解度

	まったくできない	ほとんどできない	普通	大体でき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韓民族(朝鮮民族)であることが、私が生きているのに大きな助けとなる。	1	2	3	4	5
2. お正月、お盆、端午、寒食などの韓国の伝統を守っている。	1	2	3	4	5
3.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文化を沢山知っている。	1	2	3	4	5
4. 私は韓国語(朝鮮語)を聞いて理解している。	1	2	3	4	5
5. 私は韓国語(朝鮮語)を喋れる。	1	2	3	4	5
6. 私は韓国語(朝鮮語)を読み書きできる。	1	2	3	4	5

VI. 韓民族(朝鮮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関連

	まったくできない	ほとんどできない	普通	大体でき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後継であることが自慢できる。	1	2	3	4	5
2.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歴史、伝統、慣習などを知ろうと努力している。	1	2	3	4	5
3. 私は主として韓国人(朝鮮人)たちで構成されている組織、または社会団体（協会、同好会、同郷会の集いなど）に活発的に参加している。	1	2	3	4	5
4. 私は私の韓民族（朝鮮民族）の歴史を良く知っている。	1	2	3	4	5
5. 私は、私が韓民族（朝鮮民族）の一員であることが自慢できる。	1	2	3	4	5
6.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に対して強い所属感を感じている。	1	2	3	4	5
7. 私は他の人々に韓民族（朝鮮民族）について良く話している。	1	2	3	4	5

Ⅶ. ネットワーク構築関連

	まったくできない	ほとんどできない	普通	大体でき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韓国人(朝鮮人)団体で積極的に活動している。	1	2	3	4	5
2. 韓国にいる人や団体と連絡を取っている。	1	2	3	4	5
3. 韓国は在外同胞に有用な情報を充分に提供している。	1	2	3	4	5
4. 韓国の青少年たちとの交流機会が多くなることを願う。	1	2	3	4	5
5. 私は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よく利用している。	1	2	3	4	5
6. 韓国の青少年と対話可能な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	1	2	3	4	5
7. 韓国から留学してきた学生に対して良いイメージをもっている。	1	2	3	4	5
8. 韓国から留学してきた学生のお陰で韓国に好感をもてた。	1	2	3	4	5
9. 私は韓国政府が支援する韓国の留学プログラムを知っている。	1	2	3	4	5
10. 私は韓国政府が支援する韓国就職プログラムを知っている。	1	2	3	4	5

11. 韓国人（朝鮮人）団体で積極的に活動している場合、その団体の性格は。（複数選択可）

____① スポーツ　　_____② 民族権利運動　　_____③ 文化交流

____④ 言語教育　　_____⑤ 政治活動　　_____⑥ 宗教活動

____⑦ 研究活動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

12. 上記 11の質問で団体活動をしている場合、週または月何回程度ですか。

①週 _____ 回, または月 _____ 回　　②_____非定期的

13. あなたは韓国政府や関連団体が海外の韓民族（朝鮮民族）青少年の能力開発のためどのような政策遂行を願いますか。

_____① 現地での能力開発（言語等）関連学費等金'K的な支援
_____② 能力開発（言語等）関連機材および教材支援
_____③ 能力開発（言語等）関連教師派遣支援
_____④ 韓国へ招待して職業教育や訓練実施
_____⑤ 韓国への留学資金支援
_____⑥ 語学研修支援
_____⑦ 遠隔教育訓練プログラムの開発・提供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

14. あなたは韓国政府や団体が海外の韓民族（朝鮮民族）青少年の経済活動と多様な団体活動のためどのような政策遂行を願いますか。

_____① 韓国内での就業斡旋
_____② 韓国企業でのインターンシップ支援
_____③ 現地韓国進出企業への就業斡旋
_____④ 韓国内企業および現地韓国に関する情報提供
_____⑤ 韓国の在日青少年関連機関や社会団体に関する情報提供
_____⑥ 多様な在日韓国人青少年関連団体に関する金銭的な支援
_____⑦ 韓国青少年との多様な交流活動支援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

Ⅷ. 個人相談・ネットワーク（あなたが自分の進路や悩みを相談できる人に対する質問です。）

1. そのような人は何人いますか。　　(　　人)

2. 主とするその人の性別は。　　①男子　②女子

3. 現在、その人は何歳ですか。　　(満　　歳)

4. その人に知り合った期間はどの程度ですか。(　　年　　ヶ月)

5. その人の国籍は何ですか。
①韓国人　②在日韓国人　③日本人　④中国人　⑤中国朝鮮族　⑥その他外国人

6. その人とはどんな関係ですか。
①配偶者　②家族　③親戚　④同郷会 ⑤同僚　⑥学校の先輩後輩　⑦その他

7. その人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①徒歩で行ける距離　②バスで行ける距離　③同じ都市　④日本国内　⑤韓国等の外国

8. その人とどの程度会いますか。
①週に一回　②月一回　③年に一回　④ほとんど会えない

9. その人に相談、または助けてもらった主な内容は何ですか。
①法律的な問題　　②金銭的な助け　　③今後の進路や悩み相談
④就職問題　　⑤その他(具体的に：　　)

10. その人から受けた相談や助けを点数にすると100点満点で何点つけますか。
(　　点)

11. その人との親密関係は何ですか。
①とても親しい ②親しい ③普通 ④親しくない ⑤まったく親しくない

Ⅸ. 教育関連

1. あなたの国籍は何ですか。
_____①大韓民国　　_____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_____③ 朝鮮
_____④無国籍　　_____⑤日本

2. 上記の質問で ①, ②, ③、④を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は今後日本国籍の取得を考慮していますか。
_____①はい　　_____②いいえ　　_____③関心ない

3. 上記の質問で①番にチェックした場合、その理由は何ですか。
( )

4. あなたが日常生活で使用している名前は何です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5. あなたはどんな種類の小学校に通いましたか
_____①韓国系民族学校 _____②総連系民族学校 _____③日本系公立学校
_____④日本系私立学校 _____⑤その他外国系学校 (国家名:)

6. 上記の質問で ①, ②番以外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が小学校入学時に表記した名前は何です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7. あなたはどんな種類の中学校に通いましたか
_____①韓国系民族学校 _____②総連系民族学校
_____③日本系公立学校 _____④日本系私立学校
_____⑤その他外国系学校 (国家名:)

8. 上記の質問で ①, ②番以外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が中学校入学時に表記した名前は何です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9. あなたはどんな種類の高等学校に通いましたか
_____①韓国系学校 _____②総連系学校
_____③日本系公立学校 _____④日本系私立学校
_____⑤その他外国系学校 (国家名)

10. 上記の質問で ①, ②番以外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が高等学校入学時に表記した名前は何です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11. あなたは南北が統一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か。

_____①はい　　_____②いいえ　　_____③関心ない

12. 上記の質問で①番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は南北がいつごろ統一されると思いますか

_____①今後5年以内　　_____②今後10年以内

_____③今後10年以上　　_____②不透明

13. あなたは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_____①はい　　_____②いいえ

14. 上の質問で①番にチェックした場合、週または月何回程度ですか

(週　　回, または 月　　回)

最後に、韓国政府に対して願いたい要望があったら自由に書いてください。

ご協力にどうも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3. 러시아어 설문 조사지

Исслед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этническ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한민족(고려인) 청소년들의 민족의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

Здравствуй те! Данный анкетный опрос проводится при содей ствии НИИ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по поручени ю Корей 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проблемами корей ской молодежи за рубежом. Результаты анкетирования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только для на писания научных работ и планирования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ни не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ни в каких других целях. В связи с вышесказанным мы просим Вас правдиво ответить на все вопросы и заранее заверяем, чт о для Вас результаты анкетирования не повлекут за собой никакой ли ч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готовность заполнит ь анкету.

апрель 2007 года

Им Ёнсан, д-р ист. наук
НИИ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I. Общие сведения / 기본 인적 사항

1. Ваше настоящее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название города)? ( )

2. Ваш возраст? ( ) лет

3. Ваш пол? ① мужской ② женский

4. Ваш р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① старшеклассник ② студент ③ аспирант ④ служащий
⑤ безработный ⑥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5. Ваша будущая (либ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офессия (укажите соотве тствующий номер из списка)?

①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сфера (юрист, деятель искусства, ученый , вра ч, бухгалтер,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 т.д.)
② руководящая долж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чиновник, админис тратор,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ввысший офицерский ранг и т.д.)
③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о (служащи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феры, делопро изводитель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служащий банка, работник полици и, средний и низший офицерский ранг и т.д.)
④ техническая сфера (технолог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 ый рабочий)
⑤ сфера торговли и част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ладелец торг ов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емей ного бизнеса, мал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 итель частного такси и т.д.)
⑥ служащий сферы торговли (работник торговли, страховой агент, агент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продавец и т.д.)
⑦ работник сферы обслуживания (общепита, гостиничной сферы, б 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т.д.)
⑧ сельское хозяй 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лесоводство
⑨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труд: грузчик, чернорабочий и т.д.
⑩ домохозяй ка ⑪безработный ⑫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6. Ваше вероисповедание?

① протестантизм ② буддизм ③ католическая вера
④ конфуцианство ⑤ ислам ⑥ православие
⑦ атеист ⑧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7. Из какого Вы поколен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 цев?

① 1-ого ② 1,5-ого ③ 2-ого ④ 3-его
⑤ 4-ого ⑥ 5-ого ⑦ не знаю

II. Сведения о родителях и об уровне жизни семьи/ 부모와 가정 생활

1. Живы ли Ваши родители?

① оба родителя живы ② жив только отец
③ жива только мать ④ оба родителя умерли

2. Кто Ваши родител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① отец кореец ② мать кореянка ③ оба родителя корей цы

3. С кем Вы живет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зможно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① живу один ② живу с родителями ③ живу с отцом
④ живу с матерью ⑤ живу с братом или сестрой
⑥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4. Ка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 Ваших родителей ? (ес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одителей нет в живых, укажите их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 жизни)

① отец (из списка):_____ ② мать (из списка): _____

①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ходить в школу	② 7-летняя школ
③ 10-летняя школа	④ 11-летняя школа
⑤ техникум	⑥ законченное высшее
⑦ аспирантура	⑧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5. Профессия (р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дителей ? (в случае ухода на пенсию или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укажите последнее место работы)

① отец (из списка): _____ ② мать (из списка): _____

①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сфера (юрист, деятель искусства, ученый , врач, бухгалтер,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 т.д.)
② руководящая долж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чиновник, администратор,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высший офицерский ранг и т.д.)
③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о (служащи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феры,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служащий банка, работник полиции, средний и низший офицерский ранг и т.д.)
④ техническая сфера (технолог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рабочий)
⑤ сфера торговли и част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ладелец торгов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емейного бизнеса, мал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итель частного такси и т.д.)
⑥ служащий сферы торговли (работник торговли, страховой агент, агент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продавец и т.д.)
⑦ работник сферы обслуживания (общепита, гостиничной сферы,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т.д.)
⑧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лесоводство
⑨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труд: грузчик, чернорабочий и т.д.
⑩ домохозяйка
⑪ безработный
⑫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6.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уровень доходов Вашей семь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уровнем жизни?

① очень низкий ② относительно низкий
③ не низкий и не высокий ④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сокий
⑤ очень высокий

7.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уровень доходов Вашей семьи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ским уровнем?

① очень низкий ② сравнительно низкий ③ средний
④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ий ⑤ очень высокий

8. В целом насколько Вы довольны настоящей жизнью?

① совсем не доволен ② не могу быть довольным
③ как обычно ④ доволен ⑤ очень доволен

III. Родители и семей ная жизнь/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разговариваю с родителями по-корей ски (на корё маль).	1	2	3	4	5
2. В целом родители хорошо отзыва ются о Корее.	1	2	3	4	5
3.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я учил ко рей 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ный , и корё маль).	1	2	3	4	5
4.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моя работ а была связана с Кореей .	1	2	3	4	5
5. Родители учат меня корей скому языку (и литературному, и корё маль).	1	2	3	4	5
6. Родител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готов ят корей ские блюда (блюда и ю жных, и россий ских корей цев).	1	2	3	4	5
8. Хотят ли родители, чтобы Вы женил ись:					
1) на южной кореянке (вышли заму ж за южного корей ца) ?	1	2	3	4	5
2) на россий ской кореянке (вышли замуж за россий ского корей ца)?	1	2	3	4	5

IV. Степень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е/ 한국에 대한 관심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интересуюсь новост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Кореей .	1	2	3	4	5
2. Я планирую в будущем через 2-3 года посетить Корею.	1	2	3	4	5
3. Я планирую пройти стажировку или обучение в Корее.	1	2	3	4	5
4. Если представится случай , я хотел бы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1	2	3	4	5
5. Я хотел бы пообщаться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Кореи.	1	2	3	4	5
6. Я выберусебе в спутника жизни: 1) южного корейца (южную кореянку)? 2)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йца (российскую кореянку)?	1 1	2 2	3 3	4 4	5 5
7. Я планирую найти работу, связанную с Кореей .	1	2	3	4	5
8. Я интересуюсь новостями из Кореи больше, чем мои родители.	1	2	3	4	5
9. Я больше знаю о Корее, чем мои родители.	1	2	3	4	5
10. Если я выуч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это поможет мне в будущем найти работу.	1	2	3	4	5

2. Были ли Вы в Корее?

① да, (_____) раз ② нет

3. Как часто Вы слушаете корейские новости?

① каждый день ② один раз в 2-3 дня ③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④ почти не слушаю ⑤ совсем не слушаю

4. Что является источником новостей из Кореи(возможно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① телевидение ② радио ③ интернет
④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⑤ друзья, родные ⑥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5. Смотрели ли Вы по телевизору (либо слушали по радио)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или корейски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① смотрю часто ② смотрю редко ③ совсем не слушаю
④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смотреть из-за техн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6. Какое у Вас сложи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либо прослушивания)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и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①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② в целом благоприят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③ обычные передачи ④ примитивно и неинтересно

7. Ваши ощущения о Корее как о стране?

	очень	немного	ни то и ни другое	немного	очень	
хорошая	□	□	□	□	□	плохая
есть потенциал	□	□	□	□	□	нет потенциала
динамичная	□	□	□	□	□	нет динамики
дружественная	□	□	□	□	□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8. Дай те Вашу оценку характерных качеств корей цев как нации (имеет ся в виду насел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чень	немного	ни то и ни другое	немного	очень	
хорошие	□	□	□	□	□	плохие
способные	□	□	□	□	□	без способностей
активные	□	□	□	□	□	пассивные
дружественные	□	□	□	□	□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V. Уровень понимания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То, что я кореец, во многом помогает мне в жизни.	1	2	3	4	5
2. Я справляю корей ские праздники: Новый Год, Чхусок, Тано, Хансик.	1	2	3	4	5
3. Я много знаю о корей ской культуре.	1	2	3	4	5
4. Я воспринимаю на слух корей скую речь (и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и корё маль).	1	2	3	4	5
5. Я могу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 ски (и на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 на корё маль).	1	2	3	4	5
6. Я могу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по-корей ски.	1	2	3	4	5

VI.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знание/ 한민족 정체성 관련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реец.	1	2	3	4	5
2. Я стараюсь побольше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и, традициях и обычаях.	1	2	3	4	5
3. Обычно 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остоящих из корейцев (ассоциации, землячества и т.д.).	1	2	3	4	5
4. Я хорошознаю о своих корейских корнях.	1	2	3	4	5
5. Я испытываю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от того, что я один из корейцев.	1	2	3	4	5
6. Я глубоко ощущаю чувств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в целом и, в частности, к российским корейцам).	1	2	3	4	5
7. Я часто рассказываю другим о корейцах.	1	2	3	4	5

VII.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сети/ 네트워크 구축 관련

	Нет	Скорее нет, чем да	И да, и нет	Скорее да, чем нет	Да
1. 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 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1	2	3	4	5
2. Я контактирую с корей цами и корей 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з Кореи.	1	2	3	4	5
3.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достаточно полезной информ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живущим за рубежом.	1	2	3	4	5
4. Желательно, чтобы связи с молодежью из Кореи расширялись.	1	2	3	4	5
5. Я использую корей ские интернет- сай ты.	1	2	3	4	5
6.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ть интернет-сай т общения с молодежью из Кореи.	1	2	3	4	5
7. Корей цы, приехавшие из Кореи на учебу, произвели на меня хоро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1	2	3	4	5
8. Благодаря студентам из Кореи я стал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Корее.	1	2	3	4	5
9. Я знаю о программах обучения в Корее при содей ствии корей 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	2	3	4	5
10. Я знаю о корей ских программах поиска работы при содей ствии корей 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	2	3	4	5

2. Как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корей ск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или общественн 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ам хотелось бы получить больше всего?

① денежная помощь в качестве о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в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② помощь в приобретени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и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③ отправка на места корей ск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④ приглашение в Корею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⑤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рограмм по обмену между корей скими школьниками и студентами
⑥ создание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рограмм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⑦ помощь в краткосрочных поездках
⑧ помощь в языковой стажировке
⑨ помощь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на долгий или короткий сроки
⑩ помощь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рограмм для практикантов и стажеров
⑪ другое (укажите подробно,)

3. Какой политики от корей ск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или общественны 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трудоустрой ства корей ской молодежи з а рубежом Вы ожидаете больше всего?

① содей ствие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в Корее
② содей ствие в продолжени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в Корее
③ содей ствие в поступлении на работу в корей ские компании в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④ содей ствие при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м пребывании в Корее
⑤ содей ствие при языковой стажировке
⑥ содей ствие при прохождении практики в корей ских компаниях
⑦ другое (укажите подробно,)

VIII. История переселения/ 이주관련 역사

1. Кто первым из Вашего рода перешел из Кореи в Россию?

① прадедушка ② дедушка ③ отец

④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⑤ не знаю

2.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когда произошло переселение Вашего рода из Кореи в Россию?

① 1860-70 гг. ② 1880-90 гг. ③ 1900 гг.

④ 1910 гг. ⑤ 1920 гг. ⑥ 1930 гг. ⑦ не знаю

3. Родом из каких мест был первый переселенец из Вашей семьи?

①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винция)

②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инция)

③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анчжурия,)

④ не знаю

4. На этот вопрос просим ответить тех, чья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из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в Среднюю Азию. В какой регион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аша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в скобках укажите область или город)?

① Узбекистан( ) ② Казахстан ( )

③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5. Как назывался колхоз, в котором Ваша семья стала жить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①( ) колхоз ② не знаю

6. Слышали ли Вы когда-нибудь от дедушки, бабушки или родителей 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м переселении и об их жизни в колхозе?

① часто слышал ② несколько раз ③ не слышал

7. Где Вы родились?

① Россия ( ) ② Украина ( ) ③ Узбекистан ( )

④ Казахстан ( ) ⑤ Киргизстан( )⑥ в другом регионе ( )

8. Когда Ваша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на нынешнее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имеется в виду область или город)? (лет назад)

9. С кем Вы приехали на нынешнее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① один ② со всей семьей ③ с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ами
④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⑤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⑥ не знаю

10.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Вы переехали на нынешнее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① ради учебы ② из-за работы ③ из-за переезда всей семьи
④ другое (подробно,) ⑤ не знаю

IX. Образование и жизненные ценности/ 교육과 가치관 관련

1.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меня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① способ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②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③ возможность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жизни
④ интересн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жизнь
⑤ другое:

2. С каким настроением вы смотрите в будущее?

① с надеждой и оптимизмом
② спокой но, но без особых надежд и иллюзий
③ с тревогой и неуверенностью
④ со страхом и отчаянием
⑤ другое: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терпение при заполнении анкеты)

4. 중국어 설문 조사지

中国朝鲜族青少年的生活状况问卷调查

您好！

本人此次将进行关于中国朝鲜族青少年生活状况的研究。此研究主要调查现在中国朝鲜族青少年怎样生活；父母经过何种途径从朝鲜半岛迁入到中国；现定居处的生活环境如何；与父母的故国--韩国的关系如何等事宜。调查结果只用于统计资料，不会有个人资料的外流。

望认真如实地填写每项问题。

谢谢您的合作！

2007.5

Ⅰ. 个人基本情况

1. 您现在居住的地方（城市名称）？ （ ）

2. 您的年龄？ 满（ ）岁

3. 您的性别？

_____①男 _____②女

4. 您现在的身份？

_____①高中生 _____②大学生 _____③研究生

_____④职员 _____⑤无业 _____⑥其它（具体, ）

5. 您将来要从事的职业是下列选项中的哪一个？

_____①专业行职业等（律师, 艺术家, 教授, 学者, 医生, 会计, 教师等）

_____②高级官吏等（政府3级以上公务员, 行政管理者, 企业负责人.理事, 将校以上的军人等。）

_____③行政职（白领）等（政府行政公务员, 企业白领, 银行职员, 警察, 下级军官等）

_____④个体经营（9人以下小规模的生意及从事家族经营者, 木作坊主人, 出租车司机等。）

_____⑤从事销售业者（从事批发零售者, 保险及房地产交易者, 推销员, 营业员等）

_____⑥从事服务行业者（餐饮.旅馆管理者及相关人员, 理发师, 美容师等。）

_____⑦农业, 渔业, 林业。

_____⑧从事生产及其相关职业者, 运输及单纯劳动者（工厂工人, 临时工等。）

_____⑨家庭主妇

_____⑩无业

_____⑾ 其它（具体, ）

6. 您信仰的宗教是什么？

_____①基督教　　_____②佛教　　_____③天主教

_____④儒教　　_____⑤伊斯兰教　　_____⑥无宗教

_____⑦俄罗斯正教　　_____⑧其它（具体,　　）

7. 您是移民第几代？

（所谓1.5代是指出生后在6-18岁时移民的人，认为自己的主体性与第一代和第二代有所区别的人。）

_____①第1代　　_____②1.5代　　_____③第2代

_____④第3代　　_____⑤第4代　　_____⑥第5代

_____⑦其它

Ⅱ. 父母和家庭情况

1. 您的父母在世吗？

_____①父母都在世　　_____②只有父亲在世

_____③只有母亲在世　　_____④父母双亡

2. 您的父亲和母亲的民族背景是什么？

_____①只有父亲是韩民族　　_____②只有母亲是韩民族

_____③双亲都是韩民族

3. 您现在和谁住在一起？

_____①自己住　　_____②跟父母一起住

_____③跟父亲一起住　　_____④跟母亲一起住

_____⑤跟兄弟姊妹一起住　　_____⑥其它（具体,　　）

4. 父母的学历如何？在下列选项中请选择适当的填写.(如果已去世，就填写生前的学历)

(1) 父亲 (下列序号中) _____号

(2) 母亲 (下列序号中) _____号

_____①没有上过学	_____②小学中退.毕业
_____③中学中退.毕业	_____④高中中退.毕业
_____⑤大学中退	_____⑥大学毕业
_____⑦研究生 以上	_____⑧其它 (具体,)

5. 父母的职业是什么？在下列选项中请选择适当的填写。(如果退休或去世，就填写退休前和生前的职业)

(1) 父亲 (在下列序号中) :_____ 号

(2) 母亲 (在下列序号中) :_____ 号

_____①专业行职业等 (律师，艺术家，教授，学者，医生，会计，教师等)

_____②高级官吏等 (政府3级以上公务员，行政管理者，企业负责人.理事，将校以上的军人等。)

_____③行政职 (白领) 等 (政府行政公务员，企业白领，银行职员，警察，下级军官等)

_____④个体经营 (9人以下小规模的生意及从事家族经营者，木作坊主人，出租车司机等。)

_____⑤从事销售业者 (从事批发零售者，保险及房地产交易者，推销员，营业员等)

_____⑥从事服务业者 (餐饮.旅馆管理者及相关人员，理发师，美容师等。)

_____⑦农业，渔业，林业。

_____⑧从事生产及其相关职业者，运输及单纯劳动者 (工厂工人，小时工等。)

_____⑨家庭主妇

_____⑩无业

_____⑪其它 (具体,)

6. 您的家庭收入，在维持家庭生活上属于哪项？

_____①非常贫乏　　_____②略贫乏　　_____③不贫乏但也不富裕

_____④略富裕　　_____⑤很富裕

7. 您认为您的家庭生活水平与邻居相比如何？

_____①非常低　　_____②比较低　　_____③一般

_____④比较高　　_____⑤很高

8. 您认为您的家庭生活水平与国家整体水平相比如何？

_____①非常低　　_____②比较低　　_____③一般

_____④比较高　　_____⑤很高

9. 整体上您对现在生活的满意程度？

_____①完全不满意　　_____②不怎么满意　　_____③一般

_____④较满意　　_____⑤很满意

Ⅲ. 与父母相关的家庭生活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 常那样
1. 跟父母对话时用韩国语	1	2	3	4	5
2. 父母大体上说韩国好	1	2	3	4	5
3. 父母希望我学韩国语	1	2	3	4	5
4. 父母希望我找与韩国相关的职业	1	2	3	4	5
5. 父母给子女教韩国语	1	2	3	4	5
6. 父母喜欢做韩国料理	1	2	3	4	5
7. 父母希望您跟韩国人结婚吗？	1	2	3	4	5

Ⅳ. 对韩国的关心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 常那样
1. 关心与韩国相关的新闻	1	2	3	4	5
2. 计划在2-3年内访问韩国	1	2	3	4	5
3. 有在韩国进修或学习的计划	1	2	3	4	5
4. 如果有机会想访问韩国	1	2	3	4	5
5. 想跟与我同龄的韩国青少年进行交流	1	2	3	4	5
6. 我要选韩国人为配偶	1	2	3	4	5
7. 计划我与韩国相关的工作	1	2	3	4	5
8. 我比父母更关心在韩国发生的事。	1	2	3	4	5
9. 关于韩国我比父母懂得更多	1	2	3	4	5
10. 学好韩国语对将来就业和发展会更有利。	1	2	3	4	5

11. 您访问过韩国吗？

_____①有（_____）次　　_____②没有

12. 您平时听韩国新闻的次数？

_____①每天听　　_____②2，3天听一次　　_____③一周停一次

_____④不怎么听　　_____⑤完全不听

13.（如果听韩国新闻），通过什么途径听？

_____①TV　　_____②收音机　　_____③因特网

_____④报纸，杂志　　_____⑤朋友或亲戚　　_____⑥其它（具体，　　）

14. 您曾经通过TV或收音机视听过韩国的连续剧或娱乐节目吗？

_____①经常视听　　_____②偶尔视听

_____③完全不视听　　_____④因没有转播不能视听

15.（如果视听过）您对韩国的连续剧或娱乐节目有何感想？

_____①很有意思　　_____②较有意思

_____③一般　　_____④幼稚，没意思

16. 您认为韩国是什么样的国家？

	很	稍微	哪一个也不是	稍微	很	
好	□	□	□	□	□	不好
有能力	□	□	□	□	□	没有能力
活跃	□	□	□	□	□	不活跃
亲切	□	□	□	□	□	不亲切

好vs.不好=good vs.bad；有能力 vs. 没能力=capable vs.incapable；

活跃vs. 不活跃=active vs.inactive;亲切vs.不亲切=intimate vs.not intimate

17. 您对韩国人的印象如何？

	很	稍微	哪一个也不是	稍微	很	
好	□	□	□	□	□	不好
有能力	□	□	□	□	□	没有能力
活跃	□	□	□	□	□	不活跃
亲切	□	□	□	□	□	不亲切

Ⅴ. 对韩国语言和文化的关心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因为我是韩民族, 在平时生活中有很多有利因素	1	2	3	4	5
2. 过春节, 中秋, 端午, 清明节等韩国的传统节日	1	2	3	4	5
3. 关于韩民族的文化我很了解	1	2	3	4	5
4. 我能听懂韩国语	1	2	3	4	5
5. 我会说韩国语	1	2	3	4	5
6. 我会读, 写韩国语	1	2	3	4	5

Ⅵ. 关于韩民族的主体性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我以我是韩民族的后代而感到自豪	1	2	3	4	5
2. 我努力了解韩民族的历史, 传统, 习惯等。	1	2	3	4	5
3. 我积极参与主要由韩国人组成的组织或社会团体 (协会, 同好会, 同乡会等)	1	2	3	4	5
4. 我很了解韩民族的背景。	1	2	3	4	5
5. 我因自己是韩民族的一员而感到自豪。	1	2	3	4	5
6. 关于韩民族我经常跟别人谈。	1	2	3	4	5

Ⅶ. 关于构建情报信息网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在韩国人团体积极活动。	1	2	3	4	5
2. 与在韩国的人或团体保持着联络。	1	2	3	4	5
3. 韩国为海外同胞充分提供有用的情报。	1	2	3	4	5
4. 我希望增加与韩国青少年交流的机会。	1	2	3	4	5
5. 我使用韩国的网站。	1	2	3	4	5
6. 有必要构建能与韩国青少年进行交流的网站。	1	2	3	4	5
7. 对韩国留学生有好的印象。	1	2	3	4	5
8. 因为韩国留学生才对韩国有了好感。	1	2	3	4	5
9. 我知道韩国政府支援的韩国留学项目。	1	2	3	4	5
10. 我知道韩国政府支援的韩国就业项目。	1	2	3	4	5

11. 您最希望韩国政府或相关团体等对海外韩民族青少年实施什么样的政策？

_____① 与实地能力开发相关的学费等金钱上的支援

_____②与能力开发相关的器材及教材支援

_____③派遣与能力开发相关的教师的支援

_____④邀请到韩国进行职业教育或训练

_____⑤提供与韩国青少年交流的项目

_____⑥远程教育训练项目的开发及提供

_____⑦支援短期访问

_____⑧支援语言进修

_____⑨支援长.短期就业

_____⑩支援实习项目

_____⑪其它（具体提示 ）

12. 您最希望韩国政府或相关团体等对海外韩民族青少年实施什么样的人才资源活用政策？

_____①介绍到韩国国内就职

_____②支援进入韩国国内高一级的学校

_____③支援进入当地韩国企业

_____④其它（具体提示）

Ⅷ. 移居途径

1. 家族中从朝鲜半岛初次移居到中国的人是谁？

_____①曾祖父　　_____②祖父　　_____③父亲

_____④其它（具体,　　）　　_____⑤不知道

2. 从朝鲜半岛初次移居的大约时间？

（　　）年前

3. 家族中最初移居到中国的人的家乡在？

_____①韩国（　　）道　　_____②北朝鲜（　　）道

_____③不知道

4. 从朝鲜半岛初次移居到中国时，到了中国的哪个地方？

_____①吉林省　_____②辽宁省　_____③黑龙江省　_____④内蒙古

_____⑤山东省　_____⑥北京　_____⑦其它（具体,　　）

5. 您的出生地是哪里？

_____①吉林省　_____②辽宁省　_____③黑龙江省　_____④内蒙古

_____⑤山东省　_____⑥北京　_____⑦其它（具体,　　）

6. 您什么时候来到现居住地的？ （ ）年前

7. 您来到现居住地时跟谁一起来的？
_____①自己 _____②全家人一起 _____③跟兄弟姊妹一起
_____④跟亲戚一起 _____⑤其它（具体, ）
_____⑥没移居

8.您来到现居住地的原因是什么？
_____①为了学习 _____②因工作单位 _____③因家人都来
_____④其它（具体, ） _____⑤没移居

Ⅸ. 在中国的生活状况

1. 您上了哪种小学？
_____①汉族学校 _____②朝鲜族学校 _____③其它（具体, ）

2. 您上了哪种中学？
_____①汉族学校 _____②朝鲜族学校 _____③其它（具体, ）

3. 您在日常生活中用哪种语言？
_____①汉语 _____②朝鲜语 _____③其它（具体, ）

4. 下列各项中您最好的朋友有几名？
4-1 朝鲜族朋友 (名)
4-2 其它中国朋友 (名)
4-3 韩国人朋友 (名)

5. 您最好的朋友是谁？

_____①朝鲜族　　_____②其它中国人　　_____③韩国人

_____④其它（具体,　　）

6. 您有异性朋友吗？

_____①有（请看第7）　　_____②没有

7.（如果有异性朋友）是谁？

_____①朝鲜族　　_____②其它中国人　　_____③韩国人

_____④其它（具体,　　）

8. 您所希望的将来的结婚对象为？

_____①朝鲜族　　_____②其它中国人　　_____③韩国人

_____④其它（具体,　　）

9. 今年3月，韩国政府把海外同胞访问韩国就业制度立为法律，于是在韩国就业与以前相比变得更容易。您对此有何看法？

_____①想一定要访问就业

_____②如果有机会，想试试看

_____③因不懂韩国语，虽然想但没有办法。

_____④完全不想访问就业

10. 您对现在的生活，整体上满意度是多少？如果把满意度设为100分满分的话您能打多少分？ _____ 分

（感谢您的诚心答卷！）

5. 주요국의 한인 청소년관련 단체 현황

미국지역 재외 한인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51]

Ⅰ. L.A. 지역

1. KAC(Korean American Coalition)

주소: 3727 West 6th St. Suite515LosAngeles,CA90020
전화 (213) 365-5999 팩스 (213) 380-7990

1) 사명

한미연합회(KAC)는 1983년에 설립된 비영리 비당파 공동체 조직으로, 시민 문제와 정치문제 그리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재미 한국인의 참여를 촉진하여 한인 사회가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미국사회의 일부가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 목적

(1) 공동체의 관심과 이해를 발굴하고 공무원, 사적 및 공공 기관, 기타 공동체 조직, 매체 및 일반대중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수립하여 재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대변인이 된다.
(2) 재미 한인의 시민권을 증진시키고 한인공동체의 공공의식과 정치의식, 전반적인 사회의식을 고취시킨다.
(3) 재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의뢰기관의 역할을 한다.
(4) KAC와 여타 한인공동체 조직, 다른 민족 및 인종 공동체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협조 망을 유지한다.

51) 이 내용은 이혜림 (캐나다 James Lee Inc.)이 집필하였음.

(5) 이민 1, 2, 3세대로 구성된 자생력 있는 활동조직이 되도록 노력한다.
(6) 한인학생들을 공동체 및 시민사회에서 뛰어난 리더로 키우는 리더십개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3) KAC전국 하계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

E-mail 주소: intenship@kacla.org

(1) 연혁

1985년 KAC는 한인 대학생들에게 리더십 기법을 심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구축에 참여하며, 전문직에 대한 시각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미 한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정치 분야에 접근할 기회를 주고자 마련되었다. 1991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 법률, 미디어 스폰서를 포함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3개의 인턴쉽 사무실로 출발하여 2004년 현재 로스엔젤레스와 워싱턴D.C.에 20개의 사무실이 배치될 정도로 지난 20년간 성장을 계속해 왔다.

(2)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한인대학생들에게 내일의 리더로써 한인사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언론, 기업-공공 관계, 법률 혹은 정부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턴들은 커뮤니티의 구성과 문제 해결에 관한 소중하면서도 직접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6월 15~19일에 열린 '전국 대학생 리더십 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 회의를 마친 후 인턴들은 주 4일 동안 풀 타임으로 각 스폰서 사무실에서 9주를 보내게 된다. 인턴십 스폰서로는 삼성 미국법인, KTLA, FOX, KSCI-TV, 미국 대표단 사무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 공공변호사 법률센터 등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인턴들이 주당 1일을 KAC 사무실에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돕고, 주말에는 공동체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세

련된 리더십 기법과 공익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젊은이를 길러내고 있다.

(3) 신청 절차

모든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 한국어 지식, 한인공동체에 대한 친숙감, 4년제 대학에 등록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졸업반 학생은 불가). 신청서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10, 추천장 2부, 에세이 2편, 이력서, 성적 증명서 등이다.

4) KAC 전국 대학생 리더십 회의

E-메일 주소: leadership@kacla.org
전화: (213)365-5999(내선 104)

(1) 연혁

지난 20년 동안, KAC 전국 대학생 리더쉽 회의는 대학생들이 한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리더십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KAC는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풍부하고 영감있는 경험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한인 전문가와 APA 공동체 리더와 창시자들을 모셔놓고 있다. 연례회의는 60명의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계 캐나다인 젊은이를 대상으로 6월 셋째 주에 일주일 동안 열린다. 현재까지 이 회의에는 50개 대학에서 8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여 훈련을 받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지역, 관심,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선발된다. 5일 동안 참가자들은 워크샵, 그룹토론, 팀 활동은 물론 카운셀러나 연설가와의 1:1토론, 패널 토론 등에 참석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한인으로써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2) 회의의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한인 공동체가 과거에 직면했거나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한인 문화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인식, 리더십 기술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양성, 미래의 활동을 위한 견고한 기반 구축, 공동체 참여와 시정·입법·공동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를 강화하는데 있다.

(3) 2007년 회의

27차 연례 KAC 전국 대학생 리더십 회의는 2007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숙박, 식사, 교통비조로 $100의 참가비를 걷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6월 17일 로스엔젤레스에서 만나 버스를 타고 4박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23일 저녁 로스엔젤레스로 돌아왔다.

(4) 연설자 및 워크샵 리더 이력

① JOHN CHIANG: 조세형평국

John Chiang은 2002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캘리포니아 APA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으며 L.A. 카운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 4 형평지구의 846만 명을 대표한다.

② K.W. LEE: 저명 저널리스트 겸 공동체 활동가

K.W. Lee는 1956년부터 한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전국헤드라인클럽, AP뉴스, 컬럼비아대학교 등으로부터 25개의 전문기자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저널리스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③ MATT KELLEY: MAVIN 재단

Matt은 다인종 청소년과 가족을 돕는 전국적 규모의 MAVIN 재단을 창시

한 재단 이사장이다. 1998년 19세의 Wesleyan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그는 다인종 청소년과 다인종간 입양 청소년을 위한 잡지인 MAVIN을 창간하여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④ CORINA KNOLL: KoreAm Journal

Corina Knoll는 월간 한인 잡지의 KoreAm Journal의 수석 편집자이다. 그녀는 2003년 LPGA 한국 골퍼 이야기로 뉴캘리포니아 미디어 상을 받았다.

⑤ HELIE LEE: "할머니가 있는 풍경(원제:Still Life With Rice)", "In the Absence of Sun" 의 작가

Helie Lee는 1930~1997년을 시대배경으로 전쟁으로 흩어진 자신의 가족사를 다룬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소설은 Nightline, CNN, AP, NBC Nightly News, Los Angeles Times, Oprah 쇼 등에 소개되었다.

⑥ PHILIP YUN: H&Q Asia Pacific

Philip Yun은 아시아에 투자하는 투자펀드사인 H&Q Asia Pacific의 부사장이다. 1994년 그는 스위스에서 열린 한국평화회담에 미 국무성 부수석으로 임명되어 1998~2000년에 미국 협상단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참석했다.

Ⅱ. New York 지역

1. KAFAC(KoreanAmericanFamilyServiceCenter)

연락처: KoreanAmericanFamilyServiceCenter
P.O. Box 541429
Flushing, NY11354
전화: (718) 460-3800
팩스: (718) 460-3965
E-메일: contact@kacla.org

1) 소개

재미한인가정상담소(KAFSC)는 다양한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서 뉴욕 인근의 한인가정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비영리단체이다. KAFSC는 뉴욕 대도시권 가정에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AFSC는 상담, 지원, 교육 및 대화기법과 부모 역할 기술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조직구성

대표: 안선아(LCSW), 소장

이사회: E. Julia Shin(의장), Ellen H. Shin(부의장), Helen Song(서기), Julie Lee(부서기), Joung Hee Hong(재무이사), Minja Kang(부재무이사), Aiyoung Choi(의장),

명예회원: Simi Kahn, Yun Yon Kang, Jonathan Kim, Hali Lee, Myung Shin Lee, Jamie Lew, Sarah BJ Sung, Julie Yoo, Ellen Yo

3)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특히 최근에 이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

(1) 호도리 방과후 프로그램 (6-12세)

어린이들은 방과후 만나 음악, 미술, 문화, 태권도, 숙제 그리고 자기표현 및 사교기법 수업 등 창의적인 활동을 가진다.

(2) 언니/형 멘토링 프로그램 (7-17세)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교육적 및 사회적 지도와 가르침을 주려고 자원한 언니와 형을 어린이들에게 연결시킨다.

(3)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13-18세)

이 팀은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 및 수행을 통하여 리더십 기술을 배운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팀이다.

(4) 청소년을 위한 개별 상담

상담자는 지속적인 1:1상담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

2. YKASEC

주소: 136-19 41st Avenue 3thfloor Flushing NY 11355
전화번호: 710-460-5600 Fax: 718-445-0032
E-mail: ykasec@ykasec.org

1) 사명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더불어 살자"

2) 성격

청년학교는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이민자 권익옹호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땀 흘리는 커뮤니티 단체이다.

3) 목표

- 한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타민족과 연대하여 이민자의 정의를 실현한다.
-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이룩한다.
- 커뮤니티 성원들의 뿌리, 사회의식을 함양하고 커뮤니티를 교육한다.
- 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동포사회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인문화를 미국사회에 소개한다.

4) 설립

신념으로 뭉친 10여명의 동포 청년들이 약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4년 10월 21일청년학교를출범하였다. 설립 당시 이름은 '뉴욕청년봉사교육원'이다.

5) 활동

1984년 설립 이래 동포들의 참여의지와 정성 어린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포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권익옹호, 교육, 사회봉사,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포 청년들에게 뿌리의식을 심어주고 동포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은 청년학교 출범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역이다. 청년 조국사교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했고, 청년학교 일꾼들의 집에 있는 책부터 기증한 것을 기초로, 각 분야를 망라하는 3000여권의 책을 구비해 무료 도서대출을 실시해 오고 있다. 노동법 강좌, 건강 강좌 및 반 이민 추세에 대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해 통신교육활동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다. 청년학교는 사회봉사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약 2천 여 회에 걸쳐 노인봉사활동을 펼쳐 청년학교가 좋은 평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메디케이드, WIC 상담, 인구조사 홍보활동 참여, 저소득층 대상 세금보고, 무료법률 상담, 시민권 대행 등을 실시 해 오고 있다.

동포사회에 건강한 민족문화를 심고 교육, 권익옹호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문화활동은 청년학교 산하 뉴욕 한인 문화패 '비나리'가 담당해 오고 있다. 이렇게 청년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민자 권익옹호, 교육, 사회문화, 문화 활동 전반에서, 동포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을 담당해 오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동포사회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은 더욱 왕성하고 체계적이다. 1992년, 4.29 LA사태 이후 등장한 반 이민추세는 동포사회와 이민자커뮤니티의 실제 삶을 옥죄어 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년학교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걸고 나서기 시작하여, 나성 민족학교를 비롯한 식구단체들과 연합해 '전국 단체 한인 봉사 교육 단체 협의회(NAKASEC)'을 결

성하였다. 1995년 청년학교는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금하여 워싱턴 포스트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반 이민 추세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서명운동, 전화, 팩스 보내기 캠페인, 의원방문 등을 벌이고 이민자 이슈를 동포사회에 알리고 권익옹호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조직화 작업을 벌여나갔다. 근래에 이르러 청년학교의 권익옹호 활동은 반 이민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 수준을 넘어 전면적인 이민법 개정을 의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년학교는 지난 3년 여간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신분조정 법안인 '드림법안(DREAM ACT)'의 의회통과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학교의 여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드림통과를 위한 드림팀(Youth Dream Team for DREAM Act)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또한 뉴욕 주와 시 차원의 이민자 권익옹호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뉴욕 주 거주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뉴욕 주 차량국(DMV)의 소셜 번호 확인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권익옹호활동은 청년학교의 정치력 신장활동과 연계된다. 이는 단순한 유권자 등록을 통한 선거참여 캠페인의 수준을 넘어선 종합적인 시민 참여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은 풀뿌리 커뮤니티 운동을 바탕으로 선거참여캠페인을 해야만 내용 있고 효과적인, 진정한 의미의 한인정치력 신장을 이룰 수 있다는 청년학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청년학교는 선거 안내책자 발간을 통한 커뮤니티 교육, 유권자 권리 안내서 배포, 이민자의 참정권을 주제로 한 선거행정 담당자와의 면담, 투표소 통역 서비스, 출구조사, 선거 안내 핫라인 운영 등 그 종류만도 15여 가지가 넘는 종합적인 한인 정치력신장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청년학교는 뉴욕 시 5개 보로 한인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정리작업을 끝냈다. 1차로 퀸즈 지역 한인 유권자 1만 3 천여 명의 데이터를 통계화하여 발표했으며, 최근에 나머지 4개 보로의 한인 유권자 통계를 발표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실무자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어렵게 완성한 청년학교의 뉴욕 시 한인유권자

명부는 앞으로도 계속할 정치력 신장운동에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6) 이사진

명예 이사장: 김수곤(M.D.)
이사장: 김남원
회장: 정승진
변호사 겸 총무이사: 강완모
회계사, 재무이사: 김희숙

7) Board Members

짐 백, 홍정화, 임원기(M.D.), 강병호, 김희진변호사, 김종훈, 이성옥, 임용천, 윤승규

8) 실무진

문유성 사무국장, 차주범 교육부장, 나영숙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채지현 스탭 변호사, 최경환 변호사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신동혁 프로그램 어소시에트, 오세헌 회계사컨설턴트, 최진곤 컨설턴트, 강민철 청소년 코디네이터, 임현정 청소년 코디네이터, 김승리5.18 재단 펠로우, 김하나 5.18 재단 펠로우

9) YKASEC의 교육활동

청년학교의 교육활동은 1.5세/2세들에게 뿌리를 알리고,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권익옹호 활동과 시민참여 활동의 바탕이 되는 커뮤니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방과후 학교, 한국사 교실, 여름학교 등을 운영하여 커뮤니티의 미래를 이끌 유소년/청년을 교육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커뮤니티 포럼/설명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동포들이 미국사회를 이해하고, 이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10) 커뮤니티 포럼/워크샵

연방 또는 지역차원에서 이민과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등장할 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이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청년학교는 포럼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소상히 알리고 있다. 청년학교는 언론홍보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커뮤니티 포럼/워크샵의 주최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리고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

11)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청년학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뿌리의식과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활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청년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2) 여름 포커스그룹

여름 포커스 그룹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실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여름 포커스 그룹의 청소년들은 사회교실, 미국사 교실, 풍물 교실 등에서 사회의식을 기르고 우리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영역을 정해 두 달 여에 걸쳐 집중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데 지난 수 년간 여름 포커스 그룹의 청소년들은 '드림 액트를 위한 드림 팀' - Youth DREAM Team for DREAM Act-을 구성하여, 서류미비자 학생 사면법안인 드림 액트 통과 캠페인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드림 팀 학생들이 '포괄적 이민 개혁을 위한 전국 광고 캠페인'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1인 1달러 가두모금을 전개해 3000달러 이상을 모았다. 여름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매년 인상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얻고, 참여 학생 중 일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13) 인턴 활동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있는 청년들은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청년학교 인턴은 스태프와 파트너를 이루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고 실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현재 청년학교는 한국의 5.18기념 재단의 협조 하에 인턴을 유치하고 있다. 5.18 기념 재단에서 파견된 인턴들은 1년여에 걸쳐 미국사회를 체험하고, 미국 시민사회 운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앞둔 청년들이 커뮤니티의 당면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그들의 향후의 사회생활에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4) 무료 직업교육

대다수 한인 동포들이 소수 제한된 업종과 직장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청년학교는 취업기회를 알선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제공하여, 동포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 이수자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인턴쉽 및 관련분야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업무', '개인 세금보고 업무', '기초 경리', '기타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교육 이수 신청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과 일정 수준의 영어와 수학 실력을 갖춘 동포는 누구나 가능하다. 무료 직업교육은 총 8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15) 영어 교실

현재 뉴욕 일원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약 70%가 영어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한인 이민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이들이 영어를 배워, 미국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어교실의 개설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청년학교는 시 정부와 주 정부에 이민자 영어교실에 쓰이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직접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718-460-5600로 전화하여 얻을 수 있다.

16) 자료집 발간/언론홍보

이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동포들의 이해를 돕고자 청년학교는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뉴욕 주 차량국의 소셜 번호 확인 정책에 대한 Q & A 안내서, 서류미비자 청소년 사면법안인 드림액트 해설서, 이민 개혁 캠페인 설명서 등을 발간하였고 매년 선거 때마다 선거 안내서를 발간하여 유권자 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전문 봉사기관에서 발행한 중요한 안내서를 번역하여 동포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그 밖에 커뮤니티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설서나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청년학교가 발행한 자료집을 받아 보길 원하는 동포들은 언제든지 청년학교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청년학교는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활동내용과 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알리고 있다. 언론보도를 주의 깊게 보시고 경청하시면 청년학교가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는 주요 정책 현안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다.

Ⅲ. Chicago 지역

1. 시카고 대학 한인학생회
(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 of Chicago University)

1) 활동

명문대학에 한인교포 자녀들과 한국 유학생이 대거 진학하는 현상에서 시

카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교포 자녀학생들은, Chicago 대학에서 재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막중한 학업량을 소화해내면서도, 한인학생회(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를 조직하여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활동은, 단순히 친목의 단계를 벗어나, 소수민족으로써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서부터, 학술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인 학생회는 이외에도 졸업 후의 생활에 관한 강의라든가, 한국인의 주체의식 문제, 한국 문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는 활동 등도 하고 있다.

2) KGSA(KoreanGraduateSchoolAssociation)

인터넷사이트: http://club.cyworld.com/uchicago07

(1) 개요

KGSA는 시카고대학교의 공식학생조직이다. 설립 이후 KGSA는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이다.

(2) 역할

KGSA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KGSA는 새로 들어온 학생이 하이드파크와 시카고시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둘째, KGSA는 학업과정이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친분관계를 만들기 위해 학교 내 한국인포럼을 운영한다. 셋째, KGSA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행사들을 조직한다.

(3) 입회 및 운영 제도 - 대표선출 및 재원조달

가입 권유는 하되 KGSA 가입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매년 새 KGSA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스텝을 임명한다. 대표와 스텝은 시카고 지역 내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유지되는 KGSA 재정을 관리한다.

(4) 조직

2007-2008 KGSA 회장단

회장: 이내연(Naeyun Lee, Sociology:)

부회장: 김욱진(Wook-Jin Kim, SSA: zhen2@uchicago.edu)

임원: 강파라(Para Kang, Psychology), 박혜민(Hyemin Park, Public Policy), 이명지(Myoungji Lee, Statistics), 이승혜(Seunghye Lee, Art History), 이우형(Raymond Lee, Business)

웹마스터: 장창기(Changgee Chang, Statistics)

3) KSO(Korean Student Organization)

(1) 연혁

1976년 설립된 한국학생회(KSO)는 시카고대학교의 공식학생단체이다. KSO는 100명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이 매년 활동하는 왕성한 단체이다. 1980년에는 캠퍼스 내에서 문화제를 개최했고 이후 26년째 매년 한국학생회 제전을 개최하고 있다.

(2) 사명

KSO는 한국인 공동체를 대표하고 캠퍼스 내 입지를 강화하며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활동과 행사를 통해서 결합시킨다. 또한 대학 사회 전체와의 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그룹과의 공개대화도 모색중이다. KSO는 대학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전체 학생에게 알리고자 한다. KSO는 한인여성핫라인(KANWIN)과 식량나누기운동(북한구호) 등과 같은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자 한다.

(3) 조직구성

회장: Hannah Roh

부회장: Min Kim

서기: Ji Ae Sharon Kim (sharongk@uchicago.edu.)
재무: Yoonha Choi
웹마스터: Kyung Min Kang (kmkang@uchicago.edu.)
PR 의장: Jisook Yim
마케팅 의장: John Park, Dan Yang
모금 의장: Christine Kyung Un Lee, Minju Lee
문화제 의장: Hyesung Grace Hwang, Dan Park
신입생 대표: Danbee C Kim, Tony Yin

2. 노스웨스턴대학의 KSA(Korean Student Association)

인터넷사이트:
http://www.tss.northwestern.edu/conferencing/listserv/subscribers.html

1) 개요

KSA는 한인 대학원학생에 의한 한인대학원생을 위한 한인대학원생의 자치기구이다. 박사후 과정생과 교환교수들도 KSA의 구성원이다. 학부 학생의 모임인 Koreans@Northwestern University (KANU)는 KSA에 소속된 기구이다.

2) 2007-2008 KSA 회장단

회장 및 웹마스터: 정현종 (Hyun J. Jeong) Biomedical Engineering - Ph.D.
부회장: 김태식 (Teasik Kim) Civil Engineering - Ph.D.
회계: 윤장대 (Jangdae Youn) Chemistry - Ph.D.
비서: 김소영 (Soyoung Kim) Chemical Engineering - Ph.D.
조언: 조완제 (Wanjei Cho) Civil Engineering - Post-Doc.
KANU 대표: 최진수 (Jinsoo Choi) Computer Science - B.S.

캐나다 지역 한민족청소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52]

Ⅰ.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1. C3 (Corean Canadian Coactive Society)

인터넷사이트: www.c3society.com

E-mail: info@c2society.com

1) 소개

C3는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된 네트워크이다. C3는 캐나다인과 한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리를 놓는 비영리 단체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빛내고 재캐나다 한인의 미래를 의미와 기회가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2) 사명

한인과 캐나다인 커뮤니티 사이에 문화, 교육, 경제, 문화유산을 제공함으로써 두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3) 역사

2003년 3월에 Ron Suh와 Jay Kim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면서 공식 출범

52) 이 내용은 이혜림(캐나다 James Lee Inc.)이 집필하였음.

한 이래 재캐나다 한인 1.5와 2세대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에 살면서 그들이 받은 바를 돌려주고 그리고 또 함께 움직이면서 재캐나다 한인의 미래가 풍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 C3의 목표

(1) 한인과 캐나다인 커뮤니티 사이에 문화, 교육, 경제, 문화유산을 제공함으로써 두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2) 재캐나다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돕는다.
(3) 네트워킹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자원을 확충해간다.
(4) 더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행한다.

5) 문화적 목표

(1) 밴쿠버 지역에 한국의 예술과 문화 페스티벌을 벌일 수 있는 자금을 모은다.
(2) 밴쿠버 지역에 한국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인 예술가에게 전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3) 밴쿠버지역에 양로원을 설립하여 한국 노인들에게 식사와 의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교육적 목표

(1) 1.5와 2세대 재태나다 한인 신문 발행
(2) 공립학교에 한국의 문헌과 참고자료를 늘림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3)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역의 공립학교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정하기 위한 자금을 모은다.

7) C3 회장단

Yonah (Kim) Martin - 설립자이자 회장

Steve Kim 설립자이자 회장

8) 경영진

Yonah (Kim) Martin / Chairperson - Yonah@c3society.com

Marianne Lee Vice-Chair - Marianne@c3society.com

Steve Kim Vice-Chair - Steve@c3society.com

2.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한인학생회

- Korean Intercollegiate Student Society(KISS)

1) 연혁

1915년 첫 수업을 시작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는 1915년 당시 372명의 학부생들로 시작하여 2004/05년 현재 35,000여명의 학부생과 8,000여명의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총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Winter session(9월-4월)에 레지스터하는 BC최대의 학교로 발전하였다.

학부과정과, Ph.D., 의대, 연구 등을 종합하는 Maclean's의 대학 랭킹에서 2005년 McGill, Toronto, Western, Queen's 등의 대학들과 함께 캐나다 top 5에 들어가 있는 명성 높은 대학이 되었으며, 이 대학의 한인 학생들이, 1992년에 결성한 Korean Intercollegiate Student Society의 약자를 딴 KISS는 2006년

현재 350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밴쿠버 최대의 한인 학생회로 발전하였다.

2) 목적

KISS의 목적은 단순한 UBC학생들간의 친목뿐만 아니라 밴쿠버에 살고 있는 학생으로서 밴쿠버 한인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3) 구성 및 조직

(1) 회장단

2006/07년도 15대 회장 : 노영상 (604)831-4838

email : ys4838@hotmail.com

부회장: 김부영, 이근은

(2) 활동 팀

① External Affair(EA)

멤버들간의 친목을 위한 이벤트들을 담당한 EA는 회원들의 보다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외부 활동으로는 UBC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학설명회, 새해를 맞은 밴쿠버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잔치 등의 이벤트들도 마련함으로써 밴쿠버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② Internal Affair(IA)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임원들로 구성되어있는 IA는 KISS의 홍보를 위한 신문기사, 라디오방송 외에도 운동부, 스터디그룹, 봉사활동 등의 소 그룹 활동으로 멤버들간의 협력을 돕고 나아가 KISS의 밴쿠버 한인사회 참여와 서로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주소

2329WestMall

Vancouver,B.C.

CanadaV6T1Z4

UBC 한인학생회 KISS 웹싸이트: http://www.ubckiss.ca/

3. 하나다

- Hanada

1) 연혁

하나다란 Simon Fraser University(SFU)에 있는 한인 학생단체로 1997년 1월, 신윤현 초대회장과 여러 선배들이 당시 SFU 총 학생회에 등록되어 있었던 최초 한인클럽, Korean Student Association을 계승하여 한국과 캐나다를 잇고, 우리는 모두 하나"란 뜻으로 지금의 하나다가 설립되었다

2) Simon Fraser University 대학 연혁

1965년에 설립된 SFU는 포트무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Burnaby Mountain 정상에 위치하며 세심하게 건축된 건물, 좋은 전망, 뛰어난 교수진, 그리고 다양한 과목들로 다섯 번이나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명문대로 뽑혔으며,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상을 받은 SFU건물들은 Arthur Erickson 과 Geoffrey Massey 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영화 및 TV 프로그램 촬영장소로 사용되기

도 한다.

현재 SFU는 24,000명이 다니는 중간 규모의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Applied Science, Arts, Business, Education, Science, 이렇게 5개의 학부(Faculty)에서 100여 개가 넘는 과목(Program)들을 제공한다. 300~400명이 함께 듣는 Lecture외에도 조교 1명과 학생 20~30명 정도로 이루어진 Tutorial Class들을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세심한 관심과 배려 속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SFU는 24시간 열려있으며 항시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컴퓨터 실험실은 24시간 오픈, 언제나 컴퓨터 및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차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넓은 주차공간과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어 밴쿠버 어디서든지 쉽게 학교로 올 수 있게 되어있다.

일년 3학기 제도로 Fall<9월-12월>, Spring<1월-4월>, Summer<5월-8월> 3개 semester가 있으며 언제나 새로운 학생들을 받고 있다. 학교에 올 수 없을 경우 D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Co-operative education job을 통해 사회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

3) 하나다 미션

하나다는 SFU 한인 학생들의 편한 교류와 친목을 주선하고, 유익한 대학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대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SFU 한인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3대 목표 및 활동

(1) SFU 한인 학생들이 하나가 되게…

하나다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간의 친목을 비롯해서 대학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예비 입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매 월 친목 도모 이벤트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 문제 제공 (Old Exams)
*매 해 하나다 타임즈 발행

(2) SFU 한인 학생들과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되게…

하나다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 학생들이 모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입학 설명회를 통한 대학입시와 절차 설명
*웹 사이트를 통한 학과 정보와 대학 생활 정보제공
*한인사회 이벤트에 봉사활동

(3) SFU 한인 학생들과 외국 사회가 하나가 되게…

하나다는 한국인으로서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을 알릴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5) 회장단 및 연락처

11대 회장 우정(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604)341-7820 email: jungw@sfu.ca
부회장 김동규(전공: General Science)
(604)240-6069 email: corea417@hotmail.com
부회장 안재현(전공 :Kinesiology)
(778)866-7330 email: skyblue_wings@hotmail.com

- Simon Fraser University(SFU) 주소
MBC 1150
8888UniversityDrive
Burnaby,BCCanadaV5A1S6
하나다 웹사이트 http://www.hanada.ca

4. 밴쿠버 청소년센터 (Vancouver Korean Youth Centre)

주소: Moscrab Secondary School
4433 Moscrop Street,
Burnaby, BC. Canada,V5G2G3
전화: (778)998-5173, (604)612-5527

1) 한국인 유스단체 (KYO: Korean Youth Orgarnization)

KYO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로 캐나다에서 이민세대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과 캐나다로 유학온 학생들을 위한 단체이다. 이들이 겪는 인종적 차별과 두 가지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 언어의 문제, 세대차이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재캐나다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청소년중심의, 가족 중심의 단체이다.

2) 위기 상담

청소년들은 본 단체에 언제든지 전화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계의 문제, 부모와의 갈등, 법적인 문제, 약물남용, 가족 문제, 상의 문제, 비행집단 가입, 친구 압력, 학교 적응, 분노 조절, 임신, 우울등 상담의 문제는 다양하다. 상담을 한 후 더 나은 처치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넘기는 일도 하고 있다.

3) 정보 제공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보 세션을 제공한다: 외국학생의 개인 안전 세미나, 약물 남용과 범법행위 예방 세미나, 교육진로 결정 세미나 등. 정보책자는 외국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4) 후원금 모으기 행사

KYO는 재미도 있으면서 문화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후원금 모금 행사를

열고 있다. 주된 행사로는 청소년 음악의 밤, 농구 대회, 한국 문화의 밤, 한인 청소년 대상 등이다.

5) 역사

2001년 12. 주정부 등록

2002년 10.1 제5회 밴쿠버 청소년 음악발표회 주관

2003년 5. 30 제2회 한인의 날 행사 참여

6.24 한타 40주년 기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

11.8밴쿠버한인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단원:50명)

11.25 한국-캐나다 교류 100년 사진전 및 한국전통음악 공연 주최

2004년 1.11 제5회 밴쿠버 한인청소년 음악콘테스트

5.8 2004년 밴쿠버 한인청소년미술공모전 주최

5.28 밴쿠버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5.29 '한인의 날' 행사 지원

2005년 6.11 동포들을 위한 야외공연회(청소년오케스트라)

6.18 2005한인의 날 행사 참여

7.12 2005한인청소년예절문화교육체험 모국방문주최

9.10 한인청소년 문예콘테스트

10.8 밴쿠버 한인청소년 국악 난타단 구성

2006년 4.22 밴쿠버 한국청소년 교향악단, 밴쿠버 청소년 국악타악단 정기연주회

2007년 5.23 '해오른 누리' 초청공연 주최

9.23 한민족 전통문화축제 (후원)

6) 밴쿠버 청소년 국악 타악단

밴쿠버 청소년센터에서 한인청소년들의 전통음악 이해와 역동적인 타악을 통한 건강한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1) 공연 실적

2005년 9.6 창단(단장: 이영철. 지도: 김성일)

12. 9 주요 한인문화단체 초청연주

2006년 4. 22 정기연주회

7. 15 Chinese Festival 공연

7) 밴쿠버 한국청소년 교향악단 (Korean Youth Symphony Orchestra in Vancouver)

주소: Moscrop Secondary school
4433MoscropStreet,
Burnaby, BCCanada, V5G 2G3

전화: (604)817-1779

홈페이지: http://cafe.daum.net/vancouverdreams

1) 연혁

2001.9.8 밴쿠버에 체계적인 한국어교육과 수준 높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밴쿠버 크리스챤 한인학교가 버나비 소재 CaribooHill Secondary School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또한 음악교육을 위해 기초 바이올린 반을 신설하고, 이어 합주 반을 구성하였다. 합주반은 곧 밴쿠버 '크리스챤 한인학교 오케스트라'로 성장하였고 2002년 제1회 한인의 날 행사에 연주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오케스트라는 자매기관인 밴쿠버청소년센터의 주관 하에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밴쿠버지역 한인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밴쿠버한인 청소년오케스트라'로 확대 창단하게 되었다.

2002년 3.9 밴쿠버 크리스챤 한인학교 오케스트라 창단
(총무이사:이영철, 지휘:장현철, 부지휘:이옥희, 바이올린 지도:박정숙)
5.8 제1회 한인의 날 연주(Swan Stadium)
6.15제1회 학예회 연주(Hillton Hotel)
2003년 5.3 북미 최초 한인청소년뮤지컬 공연(메시극장)
(제목-꿈배를 띄우자. 감독:박정숙지휘:박혜정, 노래지도:이옥희)
5.30 제2회 한인의 날 연주(Nations of Plaza)
11.8 '밴쿠버 한인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단장:박정숙부단장:원정희지휘:박혜정)
2004년 4.10 야외음악회(Queen's Park)

5.28 창단연주회

5.29 제3회 한인의 날 연주(한아름 광장)

12.12 송년음악회

2005년 3.21-22 Mission Luteran Camp에서 Spring Music Camp

4.30 Asian Heritage Month Gala Opening연주

6.18 제4회 한인의 날 연주(코퀴틀람센터 Stadium)

9.10 밴쿠버 한국청소년 교향악단(Korean Youth Symphony Orchestra in Vancouver)으로 개칭

(단장: 이영철지휘: 박혜정, 부지휘: 이민영, 관악부장: 고지연, *서무: 박세정)

12.9 한인문화단체 초청 공연(Evergreen Theatre)

12.16 송년음악회 Korean Youth Concert for Beautiful Christmas

2006년 03.13-14 Spring Music Camp

04.22. 2006년 정기연주회 Beautiful Spring with Korean Youth

Ⅱ. 온타리오(Ontario) 주

1. 캐나다 한인 대학생 총 연합회 (Korean Student Association of Canada)

웹사이트: http://www.ksacanada.com

1) 역사

캐나다 한인 장학재단(KCSF: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이 전신인 캐나다 한인 대학생 총 연합회(KSAC: Korean Students Association of Canada)는 현재로서 8년째 한인학생 커뮤니티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KCSF는 그 창립 해인 1998년에 재캐나다 한인 학생과 한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 간에 일자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재캐나다 한인 간의 돈독한 커뮤니티가 그것이었다.

KCSF의 초대 회장인 Simon Park이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몇몇 사람이 이 온타리오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매해마다 KSCF는 재캐나다 한인 체육회, 정체성 컨퍼런스, 커리어 컨퍼런스 등을 개최함으로써 학생 커뮤니티의 기반을 다져갔다. 일 년에 두 번씩 "Sponge and Open"이라는 학생잡지를 발행하여 재캐나다 한인학생의 자질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8대 회장인 Peter Chang이 이름을 KCSF의 이름을 KSAC로 바꾸었다. 현재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단체는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의 결속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를 총체적이고 난공불락의 힘을 지난 집단으로 캐나다 사회에 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사명

(1)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self-empowering)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캐나다 사회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2) 재캐나다 한인 학생간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학생들과 한국인 혹은 캐나다인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4) 재캐나다 한인 학생회의 중심 역할을 한다

3) 목표

(1) 건강한 재캐나다 한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재캐나다 한인 학생들로 하여금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재캐나다 한인 학생들로 하여금 더 큰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2007-2008행사

(1) 제10회 후원금 모금의 밤

이번 행사로 그동안 연결이 소홀했던 KSAC의 구 실무단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2) 대학 페스티벌(University Festival)

KSAC의 대표적인 행사로 주로 한인 학생들끼리 모여 운동경기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이번에는 각 대학에서 선발된 5-6개 팀이 콘서트를 열었다. 우리는 모든 한인학생회에 통보하여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재미도 느껴보고 또 상품도 타가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권유하였다.

(3) 대학축제(University Fair)

대학 축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KSAC에서 준비한 행사로 각 대학에 있는 한인학생회가 같이 모여 재캐나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함께 일하는 기회를 갖기 위한 행사이다. 온타리오 지역에 있는 각 대학 한인학생회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4) 커리어 컨퍼런스

재캐나다 한인 커리어 컨퍼런스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 조언을 주는 행사이다. 우리는 이 행사에 초대된 강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정체성 컨퍼런스

이 행사는 재캐나다 한인 학생들에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한국인 되기(Korean-ness)"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다.

(6) 버라이어티 쇼

이 행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행사로 한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선보이는 기회이다. 미술, 음악, 시, 기계 등 발표하고 싶은 기량과 재주가 있는 한인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 회장단

회장: Steve Youk - email: @gmail.com

부회장: Minji Kim - email: @gmail.com

2. 토론토대학교 한인학생회 (University of Toronto Korean Student Association-UTKSA)

인터넷 사이트: http://www.UTKSA.ca

email: utksa2007@gmail.com

University of Toronto
Korean Student Association

1) 연혁

UTKSA (University of Toronto Korean Student Association)는 1997년 Commerce 한인 학생회와 Life-Science 한인학생회의 조합으로 설립된 토론토대학교 한인학생회이다. 2007년으로 설립 11주년을 맞이하는 UTKSA는 현재 총 1100명 이상의 회원을 소유한 Canada 내 최대 규모의 한인 학생회이며, 또한 Toronto 내 한인 학생단체 일 뿐만 아니라 토론토 한인사회 전체에서도 빠질 수 없는 주축이 된 단체이다.

2) 목적

UTKSA의 설립 목적은 토론토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 또는 각 나라에서 온 한인 학생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 또는 친목을 유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의 다소곳하고 편안한 대학생활의 발판이 되어줌을 위함이다. 또한, 현지 유학생, 2세, 또는 오랜 이민생활에 의해 한국에서 겪어 보지 못한 대학생활을 본 한인 학생회를 통하여 함께 실감 할 수 있게 해주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함에 있다.

3) 토론토 대학교 소개

토론토대학은 1827년에 King's college로 처음 시작하여 현재는 스카보로, 미시서가와 세인조지의 세개 캠퍼스를 가진, 캐나다 내에서 규모상 가장 큰 학교이며 최고 명문대학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총 7만여 학생들과 40만 명의 졸업생을 가진 토론토대학은 여섯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과,

규모와 보유 서적 면에서 북미 5위안에 드는 리서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캐나다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인종 구성이 다양하며, 전체 학생의 10%정도가 International Students이기도 하다. 토론토 특유의 다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넓으며 강의 프로그램도 다양하여 인문자연대학 학부과정에만 2,000여 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75개의 박사학위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Continuing education, Language courses 등이 마련되어 있다.

2006년도 뉴스위크 대학 랭킹에서 토론토대는 캐나다에서 1위, 전세계적으로 18위, 미국 외 대학에서 5위를 차지하였으며, 캐나다 맥클린지가 선정하는 캐나다 대학평가에서는 Medical-doctoral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소: 토론토대학교 Admissions Office 315 Bloor Street West Toronto M5S 1A3

전화: Secretary (647)209-5975
Marketing (647)405-2920

3. 오타와대학교 한인학생회(UOKSA)

인터넷 사이트: http://uoksa.net

1) 연혁

오타와대학교 한인학생회(UOKSA)는 한인들의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비영리 학생 단체이다.

한인학생회는 2007년 현재 60여명의 회원과 5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목적

본 학생회는 회원들간의 행사와 만남을 주선하여 한인 학생들간의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러 행사들을 통해 오타와 대학 내 한국학생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오타와의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한국을 더 많이 알리는 한인 단체로 자라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3) 오타와 대학교 소개

캐나다 수도에 위치한 오타와대학은 1848년에 문을 연 북미에서 가장 역사 깊은 대학으로 불어문화권을 포괄하는 독특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을 영어와 불어 중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이중언어 대학이다. 문과위주의 교육으로 출발한 오타와대학은 재학생이 의대와 법대를 포함 2만 4천 여명에 이르며, 현재 오타와대학 전체학생의 64%가 영어를 쓰고 나머지는 불어를 구사하고 있다. 재학생은 영어로 수업을 받았지만 불어에 능통하여 불어 시험에 패스를 할 경우 졸업장을 영어와 불어 degree로 받을 수 있으며, 학교근처에는 국회의사당, 국제 갤러리, 국제 예술

센터, 리도센터 등 각종 정치, 문화시설과 해외 유수 기업의 본사들이 캐나다의 수도에 위치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오타와 대학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폭넓게 이루어져 있어 세계 100여 곳 이상과의 상호협약이 외국정부와 연구소, 대학등과 체결되어 직접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다양한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며, 매년 한국의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학생 및 교수들을 교환하여 학문적 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수준 높은 교수진을 가지고 있는 오타와 의대는 폐암과 연관된 유전자, 근육장애를 일으키는 불완전한 유전자를 찾아내는 의학적 개가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타와 심장 연구소는 이식수술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이 유전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세계수준으로 전해져 있다.

4) 회장단

회장: 전소영 - Biopharmaceutical Science
전화: (613)866-2486 이메일:
부회장: 노지연 - Biochemistory with minor in Economics
부회장: 윤재원- Economics

주소
University of Ottawa Korean Students Association
85Universite-Room07
Ottawa,ON.CanadaK1N6N5

중국 지역 한민족청소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53]

중국에는 아직 그렇다 할 만한 정규 청소년관련 한인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측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1. 연변대학교

주소: 133002 중국길림성연길시공원로977호 (吉林省延吉市公園路977號)
전화번호: 0086-433-2732052
팩스: 0086-433-2719618
홈페이지: http://www.ybu.edu.cn

1) 대학소개:

"교육의 고향"으로 정평이 나있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정부 소재지인 연길시에 위치하고 있는 연변대학은 민족특색을 지닌 종합대학이며 중국 "211공정"에 포함된 중점건설 대학이다. 연변대학은 1949년에 개교한 길림성 소속 대학이다. 1996년 중국교육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연변대학교, 연변의학원, 연변농학원, 연변사범고등전문학교, 길림성예술학원연변분교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연변대학교로 도약했다.

현재 연변대학교는 19개의 단과대학에 인문, 이공계, 의학 등 11개의 분야를 망라한 69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국가 중점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변대학교의 총학생수는 20,960명이며 그중 박사과정생이 110명, 석사과정생이 2,491명, 학부생이 16,914명, 전문대생이 470명, 유학생이 474명, 예과생이 198명이다. 현재 연변대학교의 교직원수는 2,712명이다.

53) 이 내용은 윤경애(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현재 연변대학교는 미국, 일본, 한국 등 12개 나라와 지역의 144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 청소년 교류 관련 행사소개

연변대학교는 한국홍사단과 공동으로 중한 청소년 친선 문화제를 주최하고 있다. 1998년 7월에 제1회의 막을 올린 후 올해까지 10회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 문화제는 평화백일장, 문화유적답사, 학술회의, 운동경기, 민속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연변 인민방송국 청소년부

국장: 김동환
홈 페이지: http://ybrd.com

중국 연변 인민방송국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중국 내 유일한 한국어 종합 방송국으로 중국 내 200만 중국 동포를 주 시청자로 한다. 1946년에 개국한 최초의 조선족 방송국이다.

청소년관련 행사로는 한국 삼성전자와 YMCA에서 후원하는 전국 조선족 어린이 노래콩쿠르를 올해로 12회째 개최하고 있다.

3. 청도 조선족 과학문화인 친목회

회장: 남룡해
홈페이지: http://korea.mcmw.net/house.html

1) 설립배경

청도에는 해양대학교, 청도대학교를 비롯하여 5개 큰 규모의 대학이 있으며 석사, 박사 이상 학력을 가진 조선족 교수들이 70여명이나 되고 청도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도 수십 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청도에는 지성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청도의 조선족 인구는 현재 30만 명이 넘는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청도 조선족들을 지식인, 과학인, 문화인들을 하나로 응집시키기 위해, 그리고 후속 세대에게 민족 문화의 마당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 조선족 과학문화인 친목회를 설립하였다.

2) 친목회의 당면과제

① 여러 가지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여 청도 조선족 사회의 이론수준과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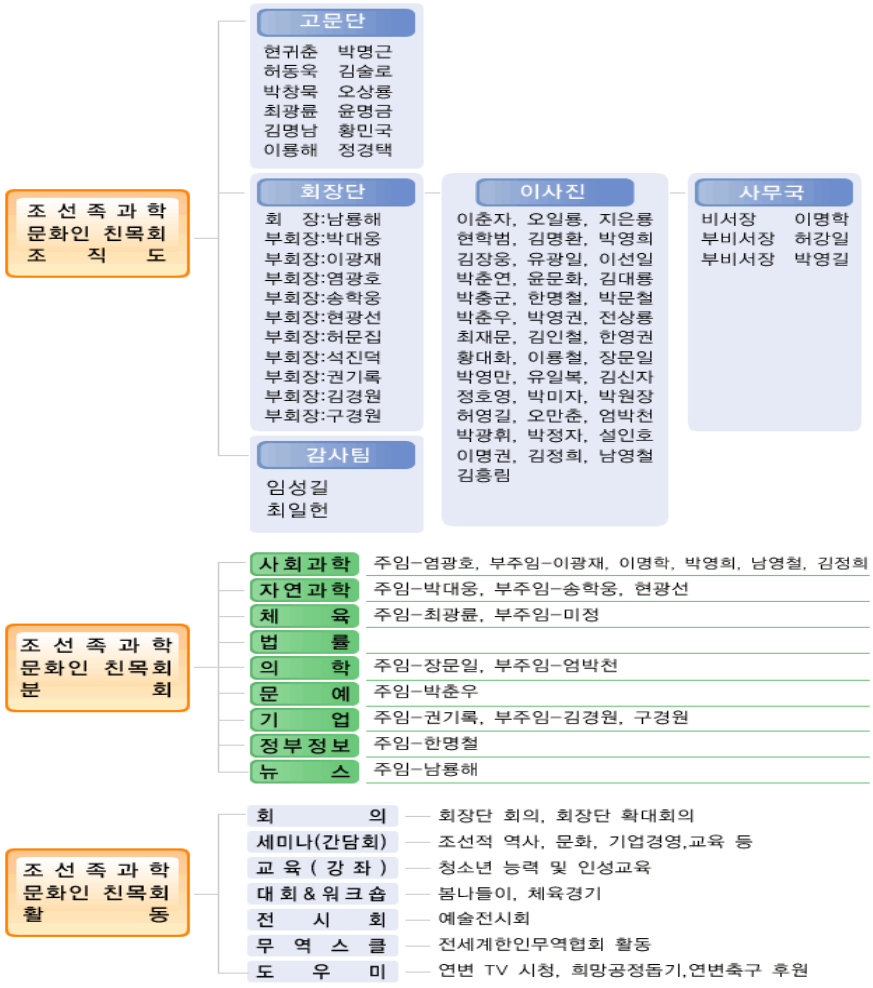
② 직업교육, 도덕교육, 전통교육 등 후대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조직하여 후대들에 대한 문화교육을 활발히 한다.

③ 예술전시회,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예술과 찬란한 문화를 온 천하에 알리고 청도 조선족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이미지 향상에 힘쓴다.

④ 청도에 사는 우리 민족 인재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명인록을 만들고 청도 조선족 사회를 널리 알리고 교류를 촉진한다.

이 외에도 연변 TV를 청도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선족 문화센터 건설, 조선족 학교 건설 등을 위해 힘을 다한다.

3) 친목회 기구 및 조직([그림1])



[그림 1] 청도 조선족 과학문화인 친목회

4) 친목회 청소년 관련 행사:

행사명: 대한민국 정부초청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 동참. 회원자녀 19명 참가. 인솔자 1명 파견.

시간: 2007년 8월 17일~8월 24일

4.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

개국일: 1963년 2월 20일
국장: 장석주

1) 연혁

1956년 흑룡강 인민방송, 조선어 방송 설립 추진.(실패)
1962년 흑룡강 인민방송, 조선어 방송 설립 재추진.
1962년 7월 조선어조 설치.
1963년 2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선전부에서 흑룡강 인민방송 조선말 방송 설립 허가.
1963년 2월 20일 흑룡강 인민방송 조선어 방송 개국. 매일 30분씩 1차례 방송.
1966년 1월 1일 50분씩 4차례로 방송시간을 늘림.
1971년 5월 1시간씩 3차례로 방송시간 변경
1976년 12월 조선어조가 조선말 방송 편집부로 승격.
1981년 제2라디오(중파 873kHz)신설. *제1라디오(중파 621kHz)
1990년 10월 흑룡강성 조선어 방송연구회 설립

1992년 4월 12일 대한민국의 한국방송공사와 매주 한차례씩 전화로 뉴스 교환 시작.

1993년 2월 20일 조선어 방송 편집부가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으로 승격.

1999년 디지털방송 실시.

2001년 12월 인터넷 사이트 개설.

2) 소개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은 흑룡강 인민 방송의 조선어 방송이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은 1963년 2월20일에 개국한 중국 내 유일의 성급 조선어방송이다. 현재 중파873KHz, 단파 5950KHz, FM96.1MHz로 매일 5시간 방송하고 FM95.8MHz로 매일 6시간 방송하고 있다. 흑룡강조선어방송은 동북삼성 조선족을 위해 봉사하면서 전국 200만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은 언제나 우리 동포사회의 민원을 살피며 우리 민족의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위해 분투노력하며 민족특성과 지방특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인 보람으로 이 지역 조선족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 출력은 200KW로서 중국 흑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 등 지역과 한국, 조선, 일본, 러시아 원동지역까지 전파가 닿는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은 대외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흑룡강성 대외개방의 중요 창구의 하나로 되었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은 한국 KBS한국방송공사에 매주일에 1차씩 정기적으로 방송프로를 제공하여 한국에 흑룡강성의 인문지리 및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이산가족 찾기에 힘쓰고 있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은 국제한국어(서울프라이즈)방송 우수 프로 평의활동에 참가해 최우수상(대상) 하나, 우수상 두 개를 따냈고 제1회(서울프라이즈)동포방송인상의 영예를 지녔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 산하에 보도 방송부, 특집 방송부, 문예방송부, 일요일 생방송부, 종합정보부, 광고부 및 아나운서실을 두고 있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은 2006년 말 창단식을 갖고 중국 내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세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예술의 꿈을 심어주고 종합자질 향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학교 조

선족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써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합창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열심히 한 보람으로 2007년8월 연길에서 있었던 제3회 중국조선족청소년 음악회에서 70여 개 경쟁팀을 누르고 대상을 탔다.

[그림 2]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 (국장겸 단장:장석주-張碩宙)

주소: 中国黑龙江省哈尔滨市汉水路333号(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한수로 338호)
연락처:0086-451-8289-8868

5. 대련 한국 국제학교

대련 한국 국제학교 재단 이사장: 최용수
대련 한국 국제학교 교장: 유승후
주소: 116600중국 요녕성 대련시 개발구 요하서로 61호 遼寧省大連市開發區遼河西路61號
연락처: 행정실 0086-411-87536031 초등교무실 8753-6030 중등교무실 8753-5051 팩스 8753-6033
홈페이지: http://www.dkischool.org/index.php

1) 소개

대련한국국제학교는 21세기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선도국을 향해 질주하

는 중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한,중 양국의 교류 확대로 급증하는 대련 주변 지역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 속에서 잉태되었다. 2004년 3월 10일, 초등부 28명의 학생들이 입학식을 가진 이래, 짧은 기간 동안 토대와 기초를 착실하게 닦아왔다.

2005년 2월 2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중등과정 증설을 인가 받았고 2007년 2월 14일에 고등과정 증설을 인가 받았다. '한국' 교육과정 외에 영어 및 중국어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에는 특기적성교육활동(초등), 보충심화학습(중등) 및 야간심화학습(고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고 학력을 증진하고 있다.

대련 한국 국제학교는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고 질 높은 교수·학습을 펼치기 위하여 開發區 振鵬工業區에 18,445㎡의 부지에 총 건축면적 약 13,000㎡의 학교를 신축할 계획이다. 5층 건물로서 넓은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겸 강당을 갖추고 유, 초, 중, 고 1,000여 명의 학생의 요람이 될 것이다. 中國 東北 3省의 關門인 대련 지역에서 모국 이해교육, 현지 적응교육 및 국내 연계교육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일본 지역 한민족청소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54)]

1. 재일본 한국YMCA 내 아시아 청소년 센터 (ASIA YOUTH CENTER)

인터넷 사이트: http://www.ymcajapan.org/ayc/jp

주소: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さるがくちょう）2－2-5-5

Sarugaku-cho, Chiyoda-ku, Tokyo, 101-0064, Japan

재일본 한국YMCA는, 서울YMCA에 이어 두 번째의 한국 YMCA로써 1906년 동경에 설립되었다. 조국의 수난기에, 그리스도 신앙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폐쇄된 재일공사관을 대신하여, 한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고, 일본어교육이나 진학상담, 생활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는『재일동표문화의 창조와 다문화공생사회를 향하여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めざして'』라는 슬로건으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문화활동, 일본어학교, 재일본 한국문화관 운영과 함께 한일문화교류, 숙박연수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문화부에서는 한국어강좌, 장구교실, 가야금교실, 한국무용교실, 어린이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일본지역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4) 이 내용은 박승현(일본 동경대학교)이 집필하였음.

2. 일본-재일-한국 유스포럼
<日本-在日-韓国>ユースフォーラム

인터넷사이트: http://youth-forum.soc.or.jp/

FAX: 81-(0)6-6762-7262

1) 유스포럼 소개

일본과 한국은 기나긴 교류의 역사를 지닌 이웃나라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양국 간의 정보교류도 급속히 가속화되었고 매년 수만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 청산되지 못한 전쟁책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일관계를 넘어서 글로벌시대에 당면한 문제에 있어 협력해야 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일-재일-한국 유스포럼은 일본, 재일,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 '만남, 교류, 대화의 장'이다. 본 단체는 1997년 6월, '과거와 어떻게 마주해야할 것인가'라는 테마로, 도쿄와 오사카의 일본, 재일, 한국의 삼자가 첫 포럼을 시작한 것으로 출발했다. 이후, 매년 한 차례의 유스포럼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해, 수백 명의 젊은이가 특정 테마에 대한 현지조사, 학습회, 토론회, 공동행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공동실천을 이끌어 낼 기회를 만든다. 즉, 유스포럼은 삼자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행동을 생산해내는 '대화의 테이블'인 것이다. 실제로 유스포럼을 통해 알게 된 한일의 NGO들이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공동행동 방안을 구축하였다. 또한 포럼을 기회로 하여 상대국에 유학을 하거나, NGO활동에 참가하는 이들이 늘어나, 회를 거듭할수록 쌍방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유스포럼의 특징은 세가지이다. 첫째, NGO · NPO에 참가하거나 시민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재일-한국의 젊은이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21세기를 창조하는 중심 존재인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셋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재일코리안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로를 아는 것에서부터 미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유스포럼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2) 유스포럼 회원가입

유스포럼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이다. 2003년부터 유스포럼-일본은 회원제를 실시해, 유스포럼-일본의 예산은 회비와 재단의 조성금, 기업이나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청년개인의 연회비는 3000엔이며, 정회원 이외의 기업, 단체 등의 찬조회원은 3000엔이나 5000엔의 연회비를 내면된다.

3) 최근의 포럼현황

제10회(한국, 서울): 2006.11.2-5 한국 서울 개최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미래 구상”

제9회(일본, 관서): 2005.7.28-8.1 일본 관서 개최 “역사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하여”

제8회(한국, 서울): 2004.10.8-10.12 “일한청년 공동구상: 치유의 역사, 평화의 미래”

제7회(일본, 동경): 2003.10.3-10.6 “동아시아라는 공간에 평화라는 시간을”

제6회(한국, 서울): 2002.10.3-10.7 “동북아시아의 반전평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역사,인권, 평화”

제5회(일본, 관서): 2001.8.2-8.6 “아시아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3.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인터넷사이트: http://www.seinenkai.org/

1)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소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의 산하단체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18세-30세의 재일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조직이다. 본회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이외에도 재일 한국인 간의 교류나, 국적을 떠난 국제적 교류활동을 지향하는 문화적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여 한일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회원등록자는 약 3,500명이고 전국 14개 지방의 본부가 있다.

2) 주요활동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 취직문제, 결혼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문화써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는 농악이나 사물놀이, 부채춤 등을 가르치고 공연을 벌인다. 한편 민단주최의 행사로서 청소년고향방문단 행사가 매년 여름에 있다. 써머캠프, 크리스마스파티, 야유회 등이 주요 이벤트로, 고국의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는 기획하고 운영하며, 직접 인솔한다.

3) 청소년고향방문단(민단주최행사)

매년 여름 행해지며 한국 방문 기회가 없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여행이다. 써머캠프, 크리스마스파티, 야유회 등 각 지방, 지부의 행사들은 새로운 동포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본부 및 지부

지방본부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E-mail
中央本部	03-3453-0881	106-0047	港區南麻布1-7-32韓國中央會館5F	chuo@seinenkai.org
北海道	011-511-3381	064-0809	札幌市中央區南九條西4-10	hokkaido@seinenkai.org
青森	0177-76-3317	030-0861	青森市長島3-18-6	
岩手	0196-45-3332	020-0127	盛岡市前九年3-26-1	
宮城	022-263-6962	980-0014	仙台市青葉區本町1-5-34	miyagi@seinenkai.org
茨城	0292-21-3337	310-0004	水戶市靑柳町344-2	
埼玉	048-831-3959	336-0001	さいたま市常盤4-16-7	saitama@seinenkai.org
千葉	043-242-4623	260-0021	千葉市中央區新宿 2-9-8	chiba@seinenkai.org
東京	03-5443-3881	106-0047	港區南麻布1-7-32韓國中央會館4F	tokyo@seinenkai.org
西東京	0425-27-0007	190-0022	東京都立川市錦町2-1-35	
神奈川	045-316-0248	221-0835	神奈川縣橫浜市神奈川區鶴屋町2-10-1	kanagawa@seinenkai.org
長野	0263-33-6858	390-0803	松本市元町3-4-45	
靜岡	054-272-6660	420-0053	靜岡市弥勒2-5-22	
愛知	052-452-6291	453-0013	名古屋市中村區龜島1-6-2	aichi@seinenkai.org
岐阜	0582-74-5544	500-8383	岐阜市江添3-7-18	
三重	0592-25-5577	514-0035	津市西丸の內24-33	mie@seinenkai.org
滋賀	0775-24-3639	520-0042	大津市島の關9-5	
京都	075-721-8399	606-0802	京都市左京區下鴨宮崎町119	kyoto@seinenkai.org
大阪	06-6371-3538	530-0016	大阪市北區中崎町2-4-2	osaka@seinenkai.org
兵庫	078-643-3833	653-0031	神戶市長田區西尻池町2-4-30	hyogo@seinenkai.org
奈良	0742-34-5067	630-8114	奈良市芝辻町1-87-3	
和歌山	0734-24-7264	640-8151	和歌山市屋形町2-31	
岡山	0862-33-8462	700-0023	岡山市驛前町1-5-21	okayama@seinenkai.org
鳥取	0857-22-6780	680-0824	鳥取市行德67-11	
廣島	082-263-7104	732-0055	廣島市東區東蟹屋町7-9	hiroshima@seinenkai.org
福岡	092-431-4598	812-0011	福岡市博多區博多驛前1-18-17	fukuoka@seinenkai.org

4.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1) 민단소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한국민단)은, 1946년 10월 3일, 도쿄(東京) 히비야(日比谷)공회당에서 "재일본조선거류민단(在日本朝鮮居留民團)"으로서 창단되었다.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확립과 민생안정, 문화향상, 국제친선과 조국의 발전, 평화통일의 실현을 운동 및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재일동포 70만명 중 50만명이 참여하는 핵심 조직체이다.

2) 민단 각 지부 명단

본부/지부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중앙본부	03-3454-4901~8 / 03-3454-4614	106-8585	港區南麻布1-7-32 http://mindanseoul.org
도쿄(東京)지방본부	03-3454-4711~4 / 03-3454-4715	106-0047	港區南麻布1-7-32 4F http://www.mindan-tokyo.org/
카나가와현(神奈川縣)지방본부	045-316-0815 / 045-316-0031	221-0835	横浜市神奈川區鶴屋町2-10-1 http://www.canal.ne.jp/~kmindan/
치바현(千葉縣) 지방본부	043-242-4621~2 / 043-248-4081	260-0021	千葉市中央區新宿2-9-8
야마나시현(山梨縣) 지방본부	0552-53-4673 / 0552-53-4683	400-0025	甲府市朝日2-1-1
토치기현(とち木縣) 지방본부	0286-22-6671 / 0286-27-1943	320-0014	宇都宮市大曾2-2-55
이바라키현(茨城縣) 지방본부	0292-21-3337 / 0292-21-3031	310-0004	水戸市青柳町344-2
사이타마현(埼玉縣) 지방본부	048-831-3959 / -833-5507	336-0001	浦和市常盤4-16-7
니시도쿄(西東京) 지방본부	0425-27-0007 / 0425-27-0009	190-0022	立川市錦町2-1-35
군마현(群馬縣) 지방본부	0272-51-2328 / 0272-53-8704	371-0844	前橋市古市町 497-5
시즈오카현(靜岡縣) 지방본부	054-272-6660-1 / 054-272-6662	420-0053	靜岡市彌勒2-5-22
나가노현(長野縣) 지방본부	0263-33-6858 / 0263-34-1575	390-0803	松本市元町3-4-45
니이가타현(新潟縣) 지방본부	025-244-2942 / 025-241-6575	950-0901	新潟市弁天3-2-28

3) 한국과의 교류와 관련된 민단 행사 사례(2007년 8월)

(1)도쿄(東京)미나토(港) 지부: 일한친선협회 한국여행(8월 22~25일)

(2)카나가와(神奈川) 본부: 어린이 본국방문(8월 19~22일)

(3)치바(千葉) 본부: 어린이 여름학교(8월 6~10일)
어린이 여름캠프(8월 17~19일)

(4)토치기(栃木): 제15회 현 한일친선 소년유도교류대회(3일)
한국소년유도단 환영회(4일)

(5)홋카이도(北海道): 제2회 중고생 여름캠프(4~5일)

(6)오타루(小樽) 지부: 해수욕(5일)

(7)미에(三重): 어린이 마당 in 서울(21~23일)

(8)오사카(大阪): 한국어능력시험 대책강좌(18~19일)
한국어강좌 2학기 개강(21일)
민족문화 강좌 코리아마당(22일)

(9)효고(兵庫): 코리안 아이덴티티 강좌(19일)

(10)쿄토(京都): 어린이 여름학교(25~26일)

(11)와카야마(和歌山): BBQ, YOU라이챠이나YO!!(12일)

(12)히로시마(廣島):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5일)

(13)오카야마(岡山): 2007어린이 임간학교(18~19일)

(14)시마네(島根): 시마네현(島根縣) 민단 다문화공생서포터회 제7회 회합(4일)
한국어 스피치&노래방 컨테스트 제2회 이즈모(出雲)대회(4일)

(15)나가사키(長崎): 나가사키(長崎) 현하 합동 임간학교(5일)

(16)아이치(愛知): (재)일본축구협회, (재)아이치현(愛知縣) 축구협회, 토요타시(豊田市)·툐오타시(豊田市) 교육위원회, 츄니치(中日)신문사, 토카이(東海)텔레비젼방송, 나고야(名古屋) 그램퍼스에이트, (주)토요타스타디움 제8회 토요타(豊田) 국제청년축구(9~12일)

(17)효고(兵庫): 타카라즈카(寶塚) 민족축제(5일)

(18)쿄토(京都)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순난자를 추도하는 모임(24일)

(19)야마구치(山口) 시모노세키시(下關市)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사업(25일)

5. 재일 한국 학생회

인터넷 사이트: http://www.gakuseikai.jp/index.html
주소: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 1 · 7 · 32 中央会館 5F 学生会室
연락처: 03 · 3454 · 4919

1) 재일 한국 학생회 소개

현재 재일동포 학생의 상당수는 3세, 4세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며, 일본의 사회, 문화 속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재일한국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이들도 있다. 취직을 할 때나 해외여행을 할 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의식하게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재일본 대한민국 학생회는 재일동포학생들의 창구적(窓口的)인 존재로 활동해왔으며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왠지 마음 편한"장이다. 현재는 한류 붐이 일본의 대중문화로 정착하여,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일의 교류나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한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在日)의 동료들의 만남, 재일을 배우는 첫걸음, 한국에 유학의 첫출발의 기회가 되어"내가 나를 만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이 재일 학생회의 활동 목표이다. 재일 한국 학생회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매월 1회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매주 정례회를 갖는다.

2) 학생회 지부

(1) 오사카(大阪)
주소: 〒530-0016 大阪府大阪市北区中崎2-4-2
大阪韓国人会館 3F 学生会室
tel : 06-6371-3378

e-mail : gakuseikai-osaka@hotmail.co.jp

(2) 아이지(愛知)

주소: 〒453-0000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亀島1-6-2

愛知韓国人会館 3F 学生会室

3) 행사 안내 (사례)

(1) 시기: 8월 9일~12일

(2) 장소: あつ美や マリンパークホテル (愛知県 篠島)

(3) 대상: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일동포학생

(4) 개요: 매년 KSJ(Korean Student in Japan)에서 열리는 이벤트, 캠프파이어, BBQ, 스포츠대회,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재일학생(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전문학교)들과 친구가 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6.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KEY)

인터넷 사이트: http://youth-forum.soc.or.jp/members/key.html

1)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 소개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은 1991에 결성되었다. KEY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조직의 연합체로, 동경에 한 곳, 오사카에 세 곳, 효고현에 두 개소의 지역거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사카에 전국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현재 KEY에는 약 400명의 재일 코리안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재일 코리안이란, "코리아에 뿌리를 가진 자" 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 등의 국적의 차이가 문제 되지 않는다. KEY에는 상부단체도 하부단체도 없으며,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회원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비도 회원들의 회비와 OB회원의 기부,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2)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의 목표

在日コリアン青年連合(KEY)이란 재일코리안 청년이 모여서 배우는 장이며 한편 재일 코리안 청년이 운영하는 NGO이다. 재일코리안 청년연합의 목표는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많은 재일 청년이 모여 함께 배우는 것을 통해 코리안이라는 자기의 뿌리를 긍정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둘째, 일본과 조선반도의 사람들이 보다 깊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풍부한 문화를 창조해 갈 주인공으로서 재일코리안청년이기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 셋째,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역사와 현실을 주시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재일사회, 조선반도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EY는 “在日に根ざし、祖国に参加し、世界に連なる”즉, “재일에 뿌리 내려, 조국에 참가하고, 세계의 일원이 된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재일코리안 개개인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재일코리안 청년이 보다 자유롭고 대담하게, 그리하여 창조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나가는 것이 KEY의 의무이며 존재이유이다.

3) KEY의 주요활동

식민지와 냉전이라는 20세기의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아픔을 통감한 재인코리안들이, 21세기에는 식민지와 냉전을 넘어선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목표는 두 가지 이다. 첫째, 재일 코리안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민족적 정체성의 육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일본사회의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조선반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고 동아사아와 세계의 평화와 신권확립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KEY는“재일에 뿌리를 두고, 조국에 참여하고,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이념 하에 활동하고 있다.

재일코리안은, 2중 3중의 경계에 살아가는 존재이며, 동아시아에서 진정으로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생을 확립해갈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존

재는, 경계에서 살고 있는 재일코리안이다. 이러한 경계성과, 청년이기에 가능한 창의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공헌하는 단체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일한시민교류활동
② 한국청년단체와의 제휴사업
③ 남북해외청년교류사업
④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실천을 향한 사업
⑤ 일한관계의 개선을 위한 사업
⑥ 북조선 인도적 지원 사업
⑦ 역사인식의 공유/전후보상의 실현을 위한 사업
⑧ 재일코리안사회의 화해의 진전과 재일코리안의 권리확충을 위한 사업
⑨ 다민족문화공생사회실현을 위한 사업

4) KEY의 정기행사

(1) ハングル講座開講式&ユースコリアンフェスタ
한글강좌 개강식과 유스코리안 페스타

KEY에서는 봄과 가을, 반년단위의 한글 강좌가 끝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강식을 연다. 이때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는 한편, 지난 학기 수강생들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한글강좌개강식'에 맞추어, 재일코리안 청년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유스코리안페스타를 개최한다.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바비큐 파티나 게임, 요리대결, 가라오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나, 재일코리안 친구를 원하는 이라면 누구든 참가 가능하다.

(2) KEY스포츠대회

재일코리안청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를 넓힐 수 있도록 매년 봄과 가

을에 스포츠 대회를 열고 있다.

(3)KEY 전국투어, 한국 waiwai 투어

KEY에서는 매년 스키나 온천, 한국 와이와이 투어 등, 재일코리안청년이 침식을 같이 하며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5) KEY의 네트워크

주소: 〒540-0004 大阪市中央区玉造1-13-1 3F

TEL : 06-6762-7261 FAX : 06-6762-7262

E-mail : info@key-j.org

지부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KEY 동경		(http://www.keytokyo.org) keytokyo@csc.jp	
KEY 북오사카	540-0004	大阪市中央區玉造1-13-1 3F	06-6762-7261/ 06-6762-7262
KEY 生 野	544-0033	大阪市生野區勝山北5-21-10 4F	06-6762-7261
KEY 東大阪	577-0057	東大阪市足代新町2-16 3F	06-6782-5270
KEY 尼 崎	661-0976	尼崎市潮江1-11-1-101 (http://key-ama.blogspot.com/)	
KEY 神 戸	653-0842	神戸市長田區水笠通6-5-10 (http://members.ld.infoseek.co.jp/key_kobe)	078-621-4446

7. 재단법인 조선장학회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rean-s-f.or.jp/

주소: 본부 〒160-0023 東京都 新宿 西新宿 1-8-1 新宿ビル 9 階

TEL: 03-3343-5757

FAX: 03-3344-3947

관서지부 〒536-0007 大阪 市城 東成育5-22-10
TEL: 06-4255-3618
FAX: 06-4255-3617

1) 장학회의 소개

조선장학회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포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육영기관으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3년 일본정부로부터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조선장학회'로서 인가를 받았고, 1957년에는 소속단체와 이념을 넘어 재일동포가 일치단결하여 이사회를 재건했다. 그 후, 이사회와 평의회 등을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포학생을 위한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주쿠(본관)와 요요기(별관), 오사카(관서장학회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고교,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장학금은 일본정부나 남북한 정부로부터의 지원 없이,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다.

2) 장학회의 사업목적

본 회는 일본문부성소관의 공익법인으로, '일본의 재학교에 재적하는 한국인, 조선인학생에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보다 유익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재단이다. 조선장학회는, 재일동포학생과 본국에서 온 유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대학원의 장학금은 본격적으로 장학사업이 재개된 1961년 이래 2만5천명, 고교, 고등전문학교는 1966년 이래 약 3만9천명에 지급되었다. 또한 문화교양사업, 학예장려사업 등을 통해 민족적인 심성과 문화를 익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강좌, 우리말발표회, 문화강연회를 개최하며, 문교회(交流會)등을 열어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학술논문집"을 간행하여 학술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3) 조선장학회의 주요행사

(1) 고등학생 대상 행사

① 환영회, 교류회, 졸업생환송회 등

교류회의 내용: 매년 가을에 고교장학생을 위한 교류·친목의 장으로 교류회를 연다. 참자자들은 고교생활, 진로,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생각들을 나눈다. 그리고 써머캠프의 비디오를 감상하며, 연말에 열리는 '우리문화제'를 구상한다.

② 써머캠프

장학회의 써머캠프는 1969년 이래 매년 여름 개최되어, 2007년에 35회를 맞았다. 매년 참가를 희망하는 고교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3박4일간 진행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연을 듣고, 모국어를 배우고, 노래 연습을 하는 등 민족적 소양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스포츠 대회, 민족악기체험, 하이킹, 촌극대회,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 동포끼리 서로 친구가 된다.

● 제35회 써머캠프 소개

2007년 8월2일-5일까지 '제35회 고교장학생 써머캠프'가 열렸다. 고교장학생 82명, 장학회 직원 14명 등 전체 115명이 참가했다.

일정: 8.2-개회식, 레크레이션, 조별토론
8.3-국어학습, 노래연습, 강연, 스포츠대회, 바비큐파티, 조별토론
8.4-국어학습, 노래연습, 비디오학습, 바비큐파티, 포크댄스, 조별토론
8.5-해단식

③ 우리문화제

1970년경부터 관서지부의 고교장학생들이 송년회에서 만나 민족무용이나 가야금을 공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민족문화 발표가 이어져, 1979년 오사카에서 170명 가량이 출연한 제 1회 '우리고교장학생문화제'가 개최되었

다. 관서지역의 고교장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한 행사이나, 현재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제 28회 우리문화제 소개(2006년 12월 23일)

약 200명이 출연했고, 고교, 대학장학생 교사, 가족, 친구 등 800여 명이 관람했다. 각 지역의 장학생들이 민족무용, 풍물, 사물놀이 등을 선보이고, 피아노, 바이올린 독주, 독창, 변론 등도 있었다.

(2) 대학생 대상

환영회, 간담회, 교류회, 졸업생환송회. 강연회, 문화강좌

① 간담회, 교류회

9월부터 10월에 걸친 본부와 관서지부의 간담회는 장학생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다. 대학, 학년, 학부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스무 명 정도의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재일동포와 처음으로 만나는 학생,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 본국에서 온 유학생 등 태어나 자란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일상적인 고민들, 관심사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다.

우즈베키스탄 한민족청소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55]

1. 고려문화협회

우즈베키스탄의 고려문화협회는 1988년 구소련에서 최초로 조직되어서, 현재는 2005년에 재선된 신 블라지미르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고려문화협회는 타쉬켄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산하기관으로는 과학자 협회인 '진보', 고려인 원로 협회, 기관지인 '고려신문', 전통무용단 '고려'와 고려인 청년회 등이 있다.

고려문화협회의 고려인 청년회(20세~40세)는 고가이 안드레이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전체 고려인 청년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기 보다는 고려문화협회의 행사가 있을 때에 행사준비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활동으로 보여진다. 고려문화협회의 주요 행사는 고려인들의 명절인 설날, 단오, 추석 등에 공연장이나 공원을 빌려서 가수나 무용단이 출연하는 공연을 하는 것인데, 이 때 고려인 청년회가 주최가 되어 행사진행을 맡는다.

고려문화협회의 활동이 이렇게 고려인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 위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상 민족별 활동은 문화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고려문화협회가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아 행사비의 상당부분을 한국기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려문화협회 산하기관 중에서 눈에 띄는 고려인 청소년 단체는 전통무용단 '고려'이다. 김 마르가리따가 지도를 맡고 있는 '고려'는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고 한국전통무용을 연습하고 있는데, 6명의 무용단원과 10여 명의 연습생으로 이루어진 소수의 청소년 그룹이기는 하나 지방공연 뿐 아니라 한국무용 보급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55) 이 내용은 최소영(우즈베키스탄 동방학대학교)이 집필하였음.

2.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니자미 사범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는 1956년에 개설되었는데, 이는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금지되었던 한국어 교육이 대학교에서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4년제로 이루어졌던 한국어문학과에서는 7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에도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였었다. 그러나, 1964년에 폐쇄되어서 긴 휴지기를 거친 후에 1985년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현재는 4년제 과정에 120여 명이 재학중이며, 석사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니자미 사범대의 한국어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고려인의 비율은 약 90% 정도인데, 고려인의 비율도 높고 가장 오래된 한국어과라는 전통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이다. 약 10여 개의 한국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여름 방학 때마다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동방대학교 한국어과

동방대학교 한국어과는 1994년에 한국어 및 일본어 학부의 산하에 개설되었다. 대학원에 석사과정도 개설되어 있으며, 니자미 사범대학교의 한국어과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약 120여 명인데, 그 중 80%가 고려인 학생들이다.

약 10여 개의 한국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고 있다. 한국 대학이나 청소년 기관과의 정규적인 교류 프로그램은 없으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문화단체들의 초청 행사를 갖기도 한다.

4. 타쉬켄트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은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기관이기는 하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992년 5월에 개원하였는데, 2007년 현재 3000여 명의 수강생(고려인 비율은 40%)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114개 한글학교(11,000명의 학생)를 관리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에서 봉사를 위해 방문하는 강습자들이 있을 때 사물놀이나 전통무용 등의 강습을 비정규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준비하였다.

5. 타쉬켄트 세종한글학교

1991년 광주일보사 창사 39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위해 한인 밀집지역 5군데에 한글학교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재의 세종한글학교이다. 세종한글학교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단독 민간한글학교로, 2007년 현재 400명의 수강생이 공부하고 있다. 세종한글학교의 학생 중 고려인은 350명(87.55%)이며, 그 중 10대가 55.8%, 20대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한글학교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과 정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 타쉬켄트 주말한글학교

타쉬켄트 주말한글학교는 한국국적을 지닌 교포의 자녀교육을 위해 1997년 설립된 학교로 2002년 재외국민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 교육과정은 한

국의 교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과정까지 총 152명의 학생들이 재적중인데, 현지 고려인 청소년들과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연락처

	기관 혹은 개인의 이름	직위	한국어 가능유무	연락처
1	고려문화협회			현재 건물 이전 중
2	신 블라지미르	고려문화협회 회장	일부 이해	998-90-187-1356
3	고가이 안드레이	고려문화협회 청년회 회장	불가능	998-90-343-3082
4	김 마르가리따	가무단 '고려' 단장	불가능	998-90-382-3957
5	김 빅토리야	동방대 한국어과 학과장	일부 이해	998-90-185-5580 munkimfamily@mail.ru
6	리 브로니슬라브	사범대 한국어과 학과장	의사소통가능	998-90-188-3173 leemsh@mail.ru
7	남 빅토르	니자미 사범대 교수	자유롭게 사용	nbb15@hanmail.net
8	한국교육원			998-71-191-8182 www.tashkec.uz
9	허선행	세종한글학교 교장	한국인	998-71-153-5754 sejongsh@hanmail.net
10	타쉬켄트 주말 한글학교			998-71-199-5694 tcks97@hanmail.net
11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과			998-712-55-5876
12	동방대학교 한국어과			998-71-133-0060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가나다 순)

박승현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과정
윤경애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교수
이혜림 캐나다 James Lee Inc. 디렉터
최소영 우즈베키스탄 동방학대학교 강사

◈ 연구보조원 ◈

최영인 성균관대학교 석사 과정
김지선 숭실대학교 학사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Ⅴ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 김기헌 · 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 · 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헌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 · 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 · 김신영 · 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 · 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 · 최우영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 · 김영호 · 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 · 장근영 · 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 · 박창남 · 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 · 김희균 · 조아미 · 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 · 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 · 권일남 · 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윤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 · 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 · 오성배 · 정의철 · 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 · 최인재 · 설인자 · 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혜연 · 서정아 · 조흥식 · 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은정 · 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배지혜 · 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 · Gudrun Quenzel · Michaela Janotta · Janina Herrmann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 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헌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 · 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규철 · 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헌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헌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헌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 · 서덕희 · 이은하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헌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헌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헌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a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6.28)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7.3)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7.5)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7.20)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7.20)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9.11)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9.13~14)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9.14)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9.14)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10.30)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11.1~2)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9)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11.27)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11.29)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12.7)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12.24)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3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Ⅰ : 총괄보고서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종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08-6(93330)